

제 2 회 한국·중국·일본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몽골 침입과 13 세기 몽골 제국의 글로벌화

■ 포럼의 취지

동아시아에서 '역사 화해' 문제는 여전히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 강화조약과 공동성명에 의해 국가간의 화해가 법적으로는 성립하더라도 국민 차원의 화해가 진전되지 않아서 진정한 국가간의 화해는 어려운 상황이다. 역사가는 역사 화해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아쓰미 (渥美) 국제교류재단은 2015 년 7 월에 제 49 회 SGRA(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포럼을 개최하고 '동아시아의 공공재' 와 '동아시아 시민사회' 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했다. 그 가운데 먼저 동아시아에서 '지(知)의 공유공간' 또는 '지(知)의 플랫폼' 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화해로 연결되는 지혜를 동아시아에 제공한다는 의의를 확인했다.

이 플랫폼에 '국사들의 대화' 라고 하는 코너를 개설하게 된 것은 2016 년 9 월의 「아시아미래회의」 를 계기로 조직된 제 1 차 '국사들의 대화' 에서다. 지금까지 3 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진행되어 왔지만 각국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국사 연구자' 들 간의 대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못했다는 인식하에 먼저 동아시아에서 역사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도쿄대학 명예교수), 거 자오광 (葛兆光, 복단대학 교수), 조 광 (趙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세 분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 3 국이 각자의 '국사' 속에서 아시아의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제 2 회 대화는 자국사와 타국사의 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몽골 침입과 13 세기 몽골 제국의 글로벌화' 라는 주제를 설정했다. 13 세기 전반의 '몽골의 침략' 을 각국의 '국사' 속에서 논할 경우 일본에서는 일본문화의 독립이라는 시점을 강조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몽골 (원나라) 을 '자국사' 로 간주하면서 몽골 침략을 몽골과 일본과 고려라는 중국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전체의 시야에서 보면 몽원 (蒙元) 의 고려·일본 침략은 문화적으로 각국의 자아의식을 환기시키고 정치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화이질서 (華夷秩序) 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국사' 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의 접점에는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상 (像) 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본 회의의 목적은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대화' 를 통해 어떠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해 일본어↔중국어, 일본어↔한국어, 중국어↔일본어의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원탁회의 강연록은 SGRA 리포트로 3 개국어로 발행하고 관계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SGRA는

SGRA(세그라)는 세계 각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오랜 유학생생활을 거쳐 일본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일파 외국인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개인이나 조직이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나 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되는 연구, 문제해결의 제언을 하고 그 성과를 포럼, 리포트,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널리 사회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연구 테마별로 다양한 분야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가 연구팀을 편성하고 광범위한 지혜와 네트워크를 결집시켜 다면적인 데이터로 분석하고 고찰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SGRA는 어떤 일정한 전문가가 아니라 널리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영역을 포괄한 국제적 및 학제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지구시민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SGRA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상세한 것은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SGRA 소식

SGRA 포럼 등의 공지와 세계각지의 SGRA 회원의 에세이를 매주 목요일에 전자메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SGRA 소식은 누구나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에서 자동 등록하면 됩니다

제 2 회 한국 · 중국 · 일본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몽골 침입과 13 세기 몽골 제국의 글로벌화

회 기	2017년 8월 7일 (월) ~ 9일 (수)
장 소	기타규슈 (北九州) 국제회의장 국제회의실
주 최	아쓰미 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SGRA)
협 찬	기타규슈시 (北九州市) / 기타규슈 (北九州) 관광컨벤션협회
협 력	카시마 (鹿島) 학술진흥재단

개회인사	이마니시 준코 (今西淳子,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취지설명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아토미학원여자대학)

※한중일동시통역진행

개회세션 [사회 : 리 엔민 (李恩民, 오비린대학)]

【기조강연】 '포스트몽골 시대' ?—14~15세기 동아시아사를 재검토한다

5

거 자오광 (葛兆光, 복단대학)

제 1 세션 [좌장 : 무라 카즈아키 (村和明, 미쓰이 문고), 펑 하오 (彭浩, 오사카시립대학)]

【발표논문 1】 몽골 임팩트의 일환으로서의 '몽골의 침입'

12

윳카이치 야스히로 (四日市康博, 쇼와여자대학)

【발표논문 2】 아미르 아르군과 그가 후라산 등지에서 진행한 두 차례 호구조사

27

초그트 (朝克图, 내몽골대학)

【발표논문 3】 몽골습래회사 (蒙古襲来絵詞) 를 해석한다

37

—두 가지 발문 (奥書) 의 검토를 중심으로

하시모토 유 (橋本雄, 홋카이도대학)

제 2 세션	[좌장 : 서 정파 (徐靜波, 복단대학), 나히야 (娜荷芽, 내몽골대학)]	
【발표논문 4】	몽골제국 시대 몽골인의 명명(命名) 습관에 관한 고찰	55
	에르둔바토르 (額爾敦巴特爾, 내몽골대학)	
【발표논문 5】	몽골제국과 화약병기—메이지와 현대의 ‘원구(元寇)’ 이미지	72
	무카이 마사키 (向正樹, 도시샤대학)	
【발표논문 6】	조선왕조가 편찬한 『고려사』에 수록된 원의 일본 침공에 관한 서술	86
	쑤 웨이궈 (孫衛國, 남개대학)	
제 3 세션	[좌장 : 한 승훈 (韓承勲, 고려대학교), 김 경태 (金罔泰, 고려대학교)]	
【발표논문 7】	일본 원정을 둘러싼 고려 충렬왕의 정치적 의도	107
	김 보광 (金甫光, 가천대학교)	
【발표논문 8】	대몽전쟁·강화의 과정과 고려의 정권을 둘러싼 환경 변화	118
	이 명미 (李命美, 서울대학교)	
【발표논문 9】	북원(北元)과 고려의 관계에 관한 고찰 —우왕(禡王) 시대의 관계를 중심으로	133
	체령도르지 (其林道爾吉, 몽골과학원 역사연구소)	
제 4 세션	[좌장 : 김 범수 (金範洙, 동경학예대학), 리 엔민 (李恩民, 오비린대학)]	
【발표논문 10】	몽골 제국 음식문화의 고려 유입과 변화	149
	조 원 (趙阮, 한양대학교)	
【발표논문 11】	‘심점호모(深簷胡帽)’ 연구—몽원(蒙元)시대를 풍미한 여진족 모자의 변천사	162
	장 지아 (張佳, 복단대학)	

전체토의 178

사회/정리 : 류 지에 (劉傑, 와세다대학), 논점정리 : 조 광 (趙珧, 한국국사편찬위원회)
 총괄 :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아토미학원여자대학)

후기를 대신하여

김 경태 (金罔泰),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쑤 웨이궈 (孫軍悅), 나히야 (娜荷芽), 펑 하오 (彭浩)

저자약력 226

참가자 리스트 228

기조강연



'포스트 몽골 시대' ?

-14~15세기 동아시아사를 검토한다

거 자오광

(葛兆光, 복단대학)

요지

14세기 중반부터 15세기 전반에 걸쳐(1368-1420) 그때까지 유라시아 대륙 각지를 지배하고 있던 몽골제국의 세력은 동아시아에서 점차 쇠퇴해갔다. 이 시기는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 재구성에 있어서 관건적인 시기인 바, 이 시기를 '포스트 몽골시대' 라고 부르는 것이 어떨까 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반세기 동안 동아시아는 타협, 충돌, 재균형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기해동정(己亥東征)/응영외구(應永外寇)' 사건 후에 조선의 '사대교린(事大交隣)'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협조적인 동아시아 질서가 구축되었다. 여태껏 많은 역사학자들은 '몽골시대' 를 세계사/글로벌 히스토리의 시작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세계사의 일부로서의 '몽골시대' 이후의 동아시아사는 어떠한 기본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는 검토할 가치가 충분한 중요한 역사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1. 관건적 시기

역사상의 몇몇 '관건적 시기' 에 대한 논의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치가 있다. 중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적지 않은 '관건적 시기' 가 존재하는 바, 이를 경계로 한 전후의 두 시대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역사적 풍모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당송교체 시기' 가 그것인데, 일본 학자 나이토 코난(内藤湖南)이 '당송변혁(唐宋革新)' 가설을 제기함으로써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755년(안사의 난[安史의 亂])에서 1004년(전연의 맹약[澶淵의 盟])에 이르는 두 세기 반 남짓한 시기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으며 중고(中古)의 중국으로부터 근세 중국으로의 거대한 변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앞다투어 연구를 진행하였다¹. 또 예를 들자면, 중국 학자 장호(張灝)는 중국 근대사상사에서 1895년부터 1925년까지를 '관건적 시기' 로 강조하고 있는 바, 청말(清末)에서 민국 초기에 이르는 갑오(청일)전쟁의 패배,

1 内藤湖南「概括的唐宋時代觀」, 일문판, 『歴史と地理』 9卷5号(1922.5), pp.1-11 참조; 영문판, 宮川尚志: An Outline of the Naito Hypothesis and its Effects on Japanese Studies of China, Far Eastern Quarterly, Vol.14, No.4 (1955), pp.533-552 참조; 중문판, 「概括的唐宋时代观」, 黄约瑟译, 载刘俊文主编『日本学者研究中国史论著选译』(北京, 中华书局, 1992) 第1卷『通论』참조.

무술변법, 신해혁명과 5.4운동을 연결함으로써 지식인 계층, 신문출판, 교육선거, 정치제도와 종교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전통적 중국에서 근대적 중국으로의 질적인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².

역사상 이러한 ‘관건적 시기’가 갖는 의의는 ‘승선계후(承先啓後)’라는 사자성어로 요약될 수 있다. 이미 여러 학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관건적 시기’는 한 왕조나 국가 내부의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한 왕조나 국가의 범위를 초월한 지역사의 범주에서 볼 때에도 역시 일부 중요한 시기에 대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관건적 시기’에서는 흔히 각 국가나 지역의 지위, 역량이나 이익의 ‘물갈이’가 진행되며 과거의 균형이 타파됨과 아울러 새로운 균형이 형성된다. 따라서 뒤따르는 일정한 역사 기간의 안정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며, 보다 큰 지역 범위의 국제관계가 구축된다.

필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시기는, 몽골의 세계제국이 동아시아에서 점차적으로 해체된 이후 즉 1368년부터 1420년까지 발생한 동아시아의 역사이다³. 필자는 이 시기를 동아시아사의 ‘관건적 시기’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50여 년간 몽골 세력은 점차 몰락하고 동아시아의 대명 왕조, 조선과 일본(무로마치 막부)은 복잡한 왕래, 절충과 타협의 결과 ‘기해동정/응영외구’ 사건을 계기로 이후의 동아시아 역사의 기본 틀을 완성하게 된다. 이른바 조선의 ‘사대교린’을 중심으로 명, 조선, 일본 삼자간의 기본 균형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후 몇 세기 동안, 비록 왜구사건, 임진왜란, 명청(明清)교체와 같은 일련의 불안정과 변화 요소가 있었지만 동아시아의 국제적 균형은 이 틀을 기초로 수백 년 동안 존속되어 왔으며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서방에서 진입한 군함과 대포에 의하여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

2. ‘몽골시대’ 이후

이제 14세기 중반과 15세기 전반 사이의 이행기(1368-1420) 50여 년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유라시아 대륙을 종횡무진하던 몽골제국은 14세기 중엽 이후로 점차 동아시아에서 쇠퇴해갔다. 1368년, 주원장(朱元璋)은 원 왕조를 뒤엎고 한족이 통치하는 명 왕조를 창설한다. 1392년에는 이씨가 고려 왕씨를 대체하여 조선을 건국한다. 같은 해, 일본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는 남조의 고가메야마 천황(後龜山天皇)을 강제 퇴위시키고 남북 분열의 국면을 종결한다. 1400년, 안남의 레(黎)씨가 쩐(陳)씨를 대체한다. 5년 뒤인 1405년, 진공 방향을 동방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명나라를 위협하던 티무르(帖木兒, Tamerlane)가 죽고 나서 왕위 쟁탈전으로 혼란에 빠진 티무르제국은 두 번 다시 동아시아를 넘볼 수 없게

2 張瀨「中國近代思想史的轉型時代」, 張瀨『時代의探索』(台北:中央研究院·聯經, 2004), p.51.

3 혹자는 이미 세계 근대사는 원이 몰락하고 명이 건립된 1368년부터 서술되어야 한다고 제기한 바 있다. 趙現海「世界近代史의起点与明代中国的历史分流」, 『中國史研究动态』(北京) 2016年 第5期, pp.42-43.

된다⁴.

우리는 이 시기를 ‘몽골시대’ 이후의 하나의 ‘관건적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관건적 시기’ 동안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는 수많은 관계 조정이 이루어졌다. (1) 명나라 초기의 중국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내부 문제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한편으로는 명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체계의 회복을 시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십오부정지국(十五不征之國)’을 선포하는⁵ 등의 방식으로 타협을 보기도 하였다. 정책의 중점을 동북과 서남 지구에 두고 이 지역을 평정하여 변경 지역의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였다. 동시에 주변 기타 국가들 심지어 타타르(鞑靼)와 올랑합(兀良哈)에 대해서도 선무(宣撫)정책을 실시하였다⁶. (2) 새로 건립된 조선왕조는 명나라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대’의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일본과도 완화의 태도를 취하여 ‘교린’ 관계를 재건하게 된다. (3) 일본의 아시카가 요시미쓰는 명나라와 조선이 연합하여 일본을 대적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원구(元寇)’ 이후 고립된 자국의 국제적 지위를 개변하고자 노력하였다. 1374년과 1380년 두 차례의 사신 파견이 거절당한 뒤⁷, 일본은 명나라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고자 1401년 ‘일본준삼후도의(日本准三后道義)’의 명의로 상서하여 명의 책봉을 받았으며, 다시 ‘일본국왕’ 대 ‘조선국왕’이라는 대등한 방식으로 조선과 국교를 수립하게 된다. (4) 또 류큐(琉球)의 경우, 홍무 5년 12월, 양재(楊載)가 명나라 사신으로 류큐 중산국(中山國)에 파견되어 명태조의 조서를 전달하자 2년 뒤에 중산국 국왕 상찰도(尚察度)의 아우가 중국에 와서 조공을 바치고 명나라의 ‘대통력(大統曆)’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식으로 명의 조공권에 편입되었다. (5) 이 시기 안남(安南)은 내부 분쟁과 외부 참파(占城)의 침입으로 점차 쇠락하여 갔다. 홍무 5년(1372), 안남의 진숙명(陳叔明)은 진일건(陳日燾)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며 사신을 파견하여 명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이로써 몽골제국 시기에도 굴복시키지 못했던 안남도 명나라의 조공권에 편입하게 된다. (6) 마지막으로 서북 지구의 티무르제국을 보자.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걸쳐 티무르제국은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정복하였고 인도 북부와 중동 지역마저 장악한 적이 있었으며 나아가 방향을 동쪽으로 돌려서 중국을 침범하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1405년 티무르가 죽은 후에는 티무르의 후계자 역시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명나라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이로써 동북아시아에는 상호 타협을 거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었다.

3. 후계자들의 시도

그러나 14세기 말, 15세기 초기에, 명태조(1398년 사망), 조선의 태조 이성계(1398년

4 다윈(John Darwin)은 『全球帝国史: 帖木儿帝国的兴与衰(1400-2000)』(陆伟芳·高英芳译, 大象出版社, 2015) 서두에서 역시 티무르의 죽음은 ‘세계역사의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세계사 중의 한 긴 시기의 종결이다”. 『머리말』 p.1; 본문 p.3 참조.

5 『明史』卷三百二十二『外國三・日本』에 기록하기를 “列不征之國十五, 日本與焉. 自是, 朝貢不至, 而海上之警亦漸息”, p.8344.

6 『明太祖實錄』卷一二四(洪武三十五年十一月壬寅條) 참조.

7 田中健夫 『中世対外關係史』(東京大学出版会, 1975). 특히 제1장 참조.

퇴위, 1408년 사망)와 무로마치 막부의 아시카가 요시미쓰(1394년 양위, 1408년 사망)가 잇달아 사망하자 그 후계자들은 동아시아 기존 질서의 상대적 균형을 깨뜨리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명의 영락제는 다섯 차례나 몽골의 잔여세력을 토벌하였고, 남쪽으로는 안남에 대한 ‘개토귀류(改土歸流)’ 정책을 실시함으로 명에 직속하는 교지(交趾) 행정지역을 설립하고자 ‘교지도지휘사사(交趾都指揮使司), 승선포정사사(承宣布政使司), 제형안찰사사(提刑按察使司)’ 등을 설치하였다⁸. 일본의 아시카가 요시모치(足利義持)는 더 이상 명의 종주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⁹ 오만한 자세를 취하는 동시에 ‘일본쇼군’ 대 ‘조선국왕’의 지위 설정으로 국제관계에서 조선을 능가하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국왕 태종은 1419년 돌연 일본의 대마도를 정벌하는 강경책으로 맞서 일본을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명나라와 조선이 연합하여 일본을 진공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¹⁰. 이런 의구심이 근거가 없지 않은 이유는, 이 시기 명나라가 홍무 연간으로부터 지속되어 오던 일본에 대한 보수적인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영락제는 조선으로부터 받은 수차례의 보고(‘크게 전함을 구축하며 중국을 진공하려 한다’ [大修戰艦, 欲寇中國])를 통하여 일본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졌으며, 심지어는 일본이 명태조의 초상화를 과녁으로 삼았다는 것을 구실 삼아 ‘만 척의 전함을 보내 토벌하겠다[發船萬艘討之]’ 며 위협하기도 하였다¹¹. 조선에서 과감하게 대마도를 진공한 것도 같은 해(1419년) 6월에 명나라 총병(總兵) 유강(劉江)이 요동 망해과(望海峒)에서 상륙한 왜구를 전멸시킨 사건과도 일정한 호응

8 陳荊和 편집교정본 『大越史記全書』(동경대학동양문화연구소, 동양학문헌터총간, 제42집, 1984), <본기> 권9, p.494 참조. 대체적인 과정으로는, 영락 2년(1404) 명나라는 안남에 대하여 양산(諒山), 녹주(祿州)를 떼어줄 것을 요구하며 안남으로 하여금 부득불 “고루(古樓) 등 59개 촌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영락 4년(1406) 4월에 명나라는 정남(征南)장군 한관(韓觀)과 참장(參將) 황중(黃中)더러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진첨평(陳添平)을 호송하여 귀국한다는 명의로 안남에 진공하였으며 양주(諒州), 무녕(武寧), 북강(北江), 가림(嘉林) 등 지역을 점령하였다. 9월에는 더 나아가 태자태부(太子太傅) 주능(朱能)을 정이대장군으로 파견하여 정이부장군(征夷副將軍) 장보(張輔)와 참장(參將) 진욱(陳旭)과 함께 40만 대군을, 또 정이부장군 목성(沐晟)과 참장 이빈(李彬)으로 하여금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각각 파루관(坡壘關)과 부령관(富令關)을 진공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거의 안남 전역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듬해(1407) 명나라는 찌씨(陳氏) 중에서는 왕위를 이을 자가 없다는 이유로 안남을 명나라의 군현으로 바꾸었으며, 기록에 따르면 명나라는 안남을 정복하여 “부(府)와 주(州) 48곳, 현(縣) 168곳, 312만 9900호의 인구와 코끼리 112마리, 말 420필, 소 3만 5750마리 그리고 전함 8865척을 얻었다”(상기 내용은 『大越史記全書』 <본기> 권8, pp.487-490; 권9, pp.493-495 참조). 대외정책 면에서 보수에서 진취적으로 바뀐 영락황제의 이러한 자세를 보여주는 대목으로는 안남 정복과 몽골 원정 이외에도 (1) 일곱 차례 정화(鄭和)를 파견하여 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와 인도양 항로를 개척하게 한 것 (2) 환관(宦官)을 아무다리아 강(阿姆河) 유역에 파견한 것 (3) 누르간도사(奴兒干都司)를 설치한 것 (4) 후헌(侯顯)과 이달(李達)을 사신으로 서역과 티벳에 파견한 것 등에서도 표현된다.

9 영락 9년(1411), 아시카가 요시모치(足利義持)는 삼보환관(三寶宦官) 왕진(王進)을 접견하기를 거절하였으며 왕진은 결국 일본 부녀자가 남몰래 도와 줘서야 효고(兵庫)를 통하여 명으로 돌아오게 된다; 영락 16년(1418) 3월, 요시모치는 또 한번 명나라 행인 여연(呂淵)의 접견을 거절하고 그에게 교토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였다. 汪向榮『明史日本傳箋証』(成都: 巴蜀書社, 1987), pp.44-46 참조.

10 중국에 대한 일본의 깊은 경계심은 어쩌면 여전히 몽골침입의 역사 기억 속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종실록』 권 10에는 사신단의 통사 윤인보(尹仁甫)의 『복명서(復命書)』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신들이 처음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박하게 대하여 수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였다. 심수암(深修庵)에 묵었다…… 이어서 승려 혜공(惠珙)이 와서 물기를, “듣자하니 대명에서 곧 일본을 토벌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대답하되 “모르오” 라고 하였다. 혜공이 이르되 “조선과 대명은 마음을 같이 하는데 모를 리가 있겠는가? 먼저는 대명의 사신이 칙령을 전하기를, 만약 신복하지 않으면 조선과 함께 토벌하겠다고 하였고, 뒤에 사신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 도망친 까닭으로 의심되어 묻는 것이오”. 이 사실은 송희경의 『노송당일본행록(老松堂日本行錄)』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 일본 승려 혜공이 송희경에게 “작년(1419) 여름의 대마도 전쟁은 조선과 명이 연합하여 일본을 침공한 것이다” 고 하였다고 한다. 『朝鮮通信使文獻選編』(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5) 제1책 p62 참조.

11 위의 책, 제1책, 영락 11년(1413), p.255; 영락 14년(1416), p.265.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인다¹². 일본에 대한 명나라의 태도 변화는 아마도 일본에 대한 조선의 강경책을 일정한 정도 고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조선에서는 '기해동정'이라 부르고 일본에서는 '응영외구'라고 부른다. 이 관건적인 시점에서 일본은 하카타(博多) 묘라쿠지(妙樂寺) 절의 승려 무가이 료계(無涯亮倪)를 대장경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에 파견하게 된다. 마침 같은 해에 강경과였던 조선의 태종이 승하하고 애초부터 왜구 문제에 대한 소위 '근본적 해결'에 찬성하지 않았던 세종이 집정하게 되면서 양국 간의 긴장상태는 비로소 완화된다. 점차로 완화된 국제 정세 하에서 이듬해 1420년 조선은 송희경(宋希環)을 '회례사'로 일본에 파견하고 일본에 대장경을 선물함으로써 이후 수백 년 동안 조·일 외교교류의 역사를 열어가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조선의 '사대교린'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¹³. 비록 이후에 '임진왜란'과 같은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이 기본질서는 근대 서양 열강의 침입으로 동아시아의 국면이 근본적으로 타파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의 중국, 조선, 일본, 몽골, 유구, 안남 등의 국가 간 관계는 '포스트 몽골시대'라는 기본 틀 안에서 지속되었던 것이다.

4. 해방된 동아시아 제국의 움직임

혼다 미노부(本田實信), 오카다 히데히로(岡田英弘),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와 같은 많은 역사학자들은 몽골제국 시대를 세계사의 발단으로 보고 있다¹⁴. 그러나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을 포함한 이 세계사가 그 첫 페이지를 넘기기 바쁘게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금 몇 개의 독립적인 통치공간으로 분열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몽골제국의 통치와 위협에서 벗어난 동아시아 각국은 '몽골시대' 이후 여러모로 흥미 있는 변화를 통하여 하나의 독특한 역사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 동아시아 각국은 자신만의 정치와 문화를 재구축해나가기 시작하였다.

먼저 중국의 경우를 보자. 몽골·원조를 대체한 명나라는 명 왕조의 합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정에서 대규모적이고도 철저한 '몽골잔재 제거' 정책을 실시한다.

12 같은 해(영락 17년, 1419) 6월,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도 충돌이 일어났다.『明史』권 322「外國二・日本」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 “왜의 배들이 왕가산섬(王家山島)에 들어오자 도독 유영(劉榮)은 병사를 거느리고 급히 망해과에 들어갔다. 적들의 숫자는 1000명 남짓하여 스무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곧바로 마웅도(馬雄島)에 직진하여 망해과에 들어와 에워쌌다. 유영은 매복하였다가 출진하여 기이한 수로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적들은 앵도원(櫻桃園)으로 도망쳤으나 유영은 병사를 합쳐서 진공하여 적의 수급 742개를 베었고 857명을 생포하였다”, p.8436.『明實錄』 중에는 “도독 유영(劉榮)”이 “도독 유정(劉汀)”으로 되어 있으며 “요동총병관중군(遼東總兵官中軍) 도독 유정이 왜를 사로잡고 첩보를 올렸으며” 망해과에서 “모조리 사로잡고 죽였으며 130명을 생포하고 수급 천여 개를 베었다”고 기록되어 있다.『明太祖實錄』권 213, pp.2141-2143. 동시에 명나라 엄종간(嚴從簡)이 쓴『수역주자록(殊域周咨錄)』중의「일본」부분의 내용 역시 참조할 수 있다.

13 물론 일본의 국내형세 역시 이의 중요한 원인이다. “오닌(應仁)의 난” 이후로 일본은 장장 한 세기 동안의 내란 상태에 빠지게 되어 국제정세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다만 이 기간에 야마구치(山口)의 오우치(太内) 일가가 “일본국왕”의 명의로 은광 개발과 해외무역의 권리를 장악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해역에서 각국의 관계는 대체로 안정되고 피차 냉담한 상태였다고 보이며 가끔 왜구가 연해 지역에서 소란과 약탈을 감행함으로써 부분적 충돌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역을 통일하고 나서야 변하기 시작하였다.

14 本田實信『モンゴル時代史研究』(東京大学出版会, 1991); 岡田英弘『世界史の誕生: 蒙古の発展と伝統』(陈心慧译, 台北: 广场出版社, 2013); 杉山正明『忽必烈的挑战: 蒙古帝国与世界历史的大转向』(周俊宇译,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3); 杉山正明『蒙古帝国的兴亡: 军事扩张的时代・世界经营的时代』(孙越译,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5)

장 지아(張佳)가 『신천하지화(新天下之化)』에서 지적하다시피, 명 왕조 초기에 진행된 한족 문화전통 재건 운동은 단순한 ‘호복(胡服), 호어(胡語), 호성(胡姓)’을 금지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각 계층 사람들의 복식 제도에 대한 규정, 오랑캐(몽골)의 풍속이 섞인 경조사 제도에 대한 관리, 사회 등급제도에 대한 강화, 각종 예의풍습에 대한 재규범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명조 초기에 국가는 일련의 엄격한 조치와 정돈을 통해 한족의 전통적 생활 규범을 회복하고 사농공상의 사회질서를 재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상하유서의 유가적 정치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른바 ‘문화, 풍속, 문헌 심지어 혈통 상에서 몽골의 존재를 완전히 소멸’ 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과거시험과 유학을 제창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와 문화를 다시 ‘한족 중국’의 전통적 궤도로 되돌리고자 하였다¹⁵.

다음으로 일본을 보도록 하자. 나이트 코난이 「일본문화의 독립」이라는 논문에서 지적하다시피, ‘몽골의 침입’이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문화적 대외독립’ 의식의 발현은 이러한(몽골 대군의 군선이 태풍에 풍비박산이 나고 대패하게 된) 사건들의 발생과 아주 큰 연관이 있다. (중략) 일본은 여태껏 중국을 일본문화의 스승으로 숭상하였으나 이 문화적 스승이 오랑캐의 자손 몽골에 의해 멸망하고 만 것이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더 이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로부터 ‘일본은 신국(神國)’이라는 관념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가네요시 친왕(懷良親王)이 명태조의 위협에 강경한 맞대응을 보인 이후로는 중국 앞에서 더욱 기를 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말미암아 나이트는 ‘일본문화가 근본적인 독립을 실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¹⁶.

다시 조선을 보자. 북원과 명나라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고려 왕조는 14세기 말에 이르러 조선 왕조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신흥 왕조인 조선은 중국과의 왕래에서 태도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명의 종주국 지위를 인정하고 명의 책봉을 받아들이면서 ‘언사를 낮추고 삼가 섬기기(且卑辭謹事之)’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조선은 문화적으로 명나라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통하여 유가사상 특히 성리학적 정치이념과 도덕윤리를 실현하였다. 표면적으로 볼 때 조선왕조는 명의 중국과 상당히 유사한 정치와 문화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선의 국제지위, 정치제도와 사회구조로 말미암아 그들의 유가 관념, 윤리제도 및 도덕적 요구는 중국보다 더욱 엄격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누가 ‘중화’의 정통인가 하는 의식의 자각에 이어지게 되었다¹⁷.

15 張佳『新天下之化：明初礼俗改革研究』（上海：复旦大学出版社，2014）

16 内藤湖南「日本文化の独立」（1922년의 강연），『日本历史与日本文化』（刘克申译，北京：商务印书馆，2012），p117, 122 참조)에 수록.

17 조선의 유학자 퇴계 이황과 같은 경우, 엄격하게 유가의 윤리도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중화”가 “중화”일 수 있는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문명은 성현과 경전이 나온 지역으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므로 조선 역시 문명의 정통으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후세의 이른바 조선의 “소중화” 사상의 기초가 된다. 퇴계는 『성왕황화집서(成王皇華集序)』에서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우리 나라는 하늘이 구획한 영토가 멀리 바다 바깥에 있으나 기자가 책봉된 곳이요 공자가 살고자 했던 고장이라 예의와 문헌으로 칭한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고 한다(臣竊惟我東國，天畫壤地，邈在海表，然而箕子之所受封，孔聖之所欲居，禮義文獻之稱，其來尚矣)라고 기록하고 있다. 『朝鮮文集叢刊』第三冊 卷五十九，p.261.

5. 동아시아 관계사의 기본적 특징

1420년 영락제는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를 실행한다. 이 시기 몽골 세력은 이미 몰락해갔고 동아시아에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¹⁸. 같은 해, 조선의 사신 송희경이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조·일 관계는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몽골시대’ 이후 동아시아사 혹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의 기본적 특징은 무엇인가?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의 군함과 대포가 동아시아의 문호를 열어젖히고 ‘충격’을 가하기 이전까지의 동아시아사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환동중국해 각국은 조선의 ‘사대교린’을 중심으로 대체로 기본적 균형을 이룬 동아시아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질서는 14세기 중엽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15세기의 20년대에 기본 틀을 완성하였으며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40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2) 몽골의 침입과 쇠퇴의 자극으로 말미암아 각국에서는 문화적 ‘자아중심주의’가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각국은 과거의 두리뭉실한 ‘동질감’에서부터 각자의 정치와 문화적 독립의식을 각성하는 것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정치적 승인, 문화적 정체성과 경제적 이용의 차이로 분화되어갔다. 특히 17세기 중엽 이후 중국의 명·청조의 교체와 더불어 조선과 일본이 중국에서 이미 ‘화이변질’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인정하면서부터 이러한 정체성의 괴리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다. (3)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형성된 새로운 무역권에서 국가 차원의 조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었으며 대부분 무역은 상인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물질적 유통이었다. 이 4세기 동안, 환동중국해 해역의 국제무대에서 각국은 경제적 연계로 이어져 있었고 문화적 경쟁을 시작하였으며 정치적 각축을 벌여나갔다. 그 과정에서 간혹 치열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번번이 상호 타협으로 해결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국면은 19세기 중엽 서방 세력이 군함과 대포를 앞세워 동아시아에 진입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2017년 4월 상하이에서
(번역: 박 현)

18 영락 연간에 명나라는 북방의 몽골에 대해 진공 태세를 취하였다. 영락제는 수 차례의 북벌을 진행하였으며 몽골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타타르(韃靼)와 와라(瓦剌) 두 부족을 일시적으로 평정하게 되어 와라의 삼왕, 아로대(阿魯臺)를 작위에 책봉하였으며, 올랑합은 삼위(三衛)를 건립하였다가 얼마 안 되어 명나라에 패하게 되었다. 이로써 명나라의 북부 변강 지역은 일시적인 안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발표논문 1



몽골임팩트의 일환으로서 ‘몽골의 침입’

윗카이치 야스히로

(四日市康博, 쇼와여자대학)

요지

13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 몽골제국 및 그 계승 정권은 유라시아 각지를 석권하여 그 지배와 영향이 다양한 지역과 사회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유라시아의 동쪽과 서쪽지역에서는 언어·종교·민족 등 문화적인 범주를 초월한 몽골적 공통 양식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배경에 몽골 패권에 의한 동서 교통의 안정을 의미하는 ‘몽골의 평화’ (Pax Mongolica)가 있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 개념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으며 또한 몽골 패권 하의 유라시아가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를 향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몽골과 유라시아 각지의 문화권과 사회는 때로는 충돌·대립하며 공존·융합하였고 다각적, 중층적으로 양자의 교류가 진행되었다. 즉 유라시아 각지에서 이른바 ‘몽골 충격’ (Mongol Impact)이 있었고 이에 대해 각 지역과 사회의 반응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교류의 내용은 물론, 이후의 영향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의 ‘몽골 충격’에는 단기적인 정치·군사적 충격을 포함해서 장기적인 경제·문화적 충격도 포함된다. 결국 ‘몽골의 평화’와 ‘몽골 충격’은 동시에 존재하는 표리일체의 개념으로, 유라시아 전체의 ‘몽골의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각지에서의 ‘몽골 충격’과 이에 대한 반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몽골로부터 두 번의 침공을 받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몽골의 침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종래의 연구는 일본과 원(元)이라는 2국간 관계, 또는 여기에 고려를 더한 3국간 관계에 의한 외교·군사 관계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었다. 몽골 제국=원조(元朝)의 대외 책략은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 참파, 미얀마, 자바, 류큐, 사할린 등 해역아시아 전역에 이르며, 이들은 결코 상호 무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해역아시아 각지에서의 ‘몽골 충격’의 영향은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들어가는 말

13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 몽골 제국 및 그 계승 정권은 동서 유라시아 각지에 지배를 확대하였고 그 영향은 다양한 지역과 사회로 뻗어갔다. 그 때문에 유라시아의 동쪽과 서쪽에서는 언어, 종교, 민족 등 문화적인 틀을 초월한 몽골적인 공통 양식이 존재한다. 그러한 경제적, 문화적 배경으로는 몽골의 패권에 따른 동서 교통 안정을 의미하는

‘몽골의 평화’ (Pax Mongolica)가 있었다고 한다 . 그러나 이 개념은 어디까지나 일면적인 관점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 경제적, 문화적 교류 전부를 설명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이것이 몽골 패권 하의 유라시아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몽골과 유라시아 각지의 문화권과 사회는 때때로 충돌, 상극, 공존, 융합하는 가운데 다각적이고 중층적으로 양자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즉, 유라시아 각지에서 이른바 ‘몽골 충격’ (Mongol Impact)이 존재하였으며 그에 대한 각 지역, 각 사회의 반응이 존재했던 것을 인식해야만 교류의 내용과 그로 인한 영향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몽골 충격’ 은 단기간의 정치적, 군사적인 임팩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적, 문화적 임팩트도 포함한다. 즉 ‘몽골의 평화’ 와 ‘몽골 충격’ 은 동시에 존재하는 표리일체의 개념으로, 유라시아 전체의 ‘몽골의 평화’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각지에 있어서의 ‘몽골의 평화’ 와 그에 대한 각 지역과 사회의 반응을 알 필요가 있다 .

1. 몽골 제국 = 원조(元朝)의 해역아시아 경략(經略)과 일본 침공

일본에 대한 ‘몽골 침입’ 에 따른 ‘몽골 충격’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몽골 제국 = 원조의 해역아시아 전체에 대한 경략 방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몽골 제국의 침공은 금, 고려, 남송, 일본, 미얀마, 참파, 베트남, 자바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결코 각각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가 연동하고 있었다. 일본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일본에 대한 ‘몽골 침입’ 은 원조와 일본 양국 간 외교만의 결과가 아니라 고려를 통한 삼국간 국제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나아가서는 고려의 독립 세력이었던 삼별초도 몽골과 일본 쌍방에 대해 외교적인 움직임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일본 침공의 계기는 고려인 정신(廷臣)인 조이(趙彝)의 세 조 쿠빌라이에 대한 건언(建言)이었는데² 조이가 건언했던 지원(至元) 2년(1265년)이라는 타이밍은 몽골의 계속되는 침공에 중통(中統) 원년(1260) 고려가 몽골의 책봉을 받아들이고³, 남방에서는 중통 3년(1262)에 찰조(陳朝) 베트남이 삼년일공(조공)을 약속하여 안남국왕(安南國王)에 봉인되었으며⁴, 본격적인 남송 침공에 앞서 그 이웃 나라인 일본에 대한 처우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국면이었다. 몽골에서는 전통적으로 전쟁의 최전선에서 귀순해온 적병들을 다음 전투의 전선에 내보내게 되어 있었다⁵. 이 관습에 따르면 새로 복속된 고려의 병사들도 다음 전장에 보내질 터였다. 그러나 그 직후인 지원 5년(1268) 양양 전투를 계기로 본격적인 남송

1 삼별초와 일본 간 교섭에 관해서는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1988(a) 및 이시이 마사토시(石井正敏, 2010)를 참조. 또, 몽골 침공 이전의 남송, 고려, 베트남, 일본 외교에 대해서는 에노모토 아유무(榎本渉 2015)를 참조.

2 『元史』 卷二〇八, 外夷伝一, 日本

3 『元史』 卷二〇八, 外夷伝一, 高麗

4 『元史』 卷二〇九, 外夷伝二, 安南

5 이와 같은 습관은 징기스칸과 우구데이칸이 중앙 아시아에서 이란에 이르는 원정을 통해 영토 확장을 했을 때에도 보인다. 그 기록이 남아있는 “세계정복자의 역사” 에는 몽골어로 이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은 보이지 않으나, 페르시아어로는 ‘하자르’ hajar 라고 불린다.

공략이 개시되었음에도 고려군이 남송 공략전에 동원되었다는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동원된 것은 진도와 탐라에서 원에 대항하던 삼별초군의 평정과, 나아가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 공략이었다⁶. 일본에 침공한 군의 주체는 제1차 일본 침공(文永の役) 때도 제2차 일본 침공(弘安の役)의 동로군(東路軍, 고려발 함대) 때도 몽골 제국에 의한 일련의 고려 경략 말기에 파병되어 삼별초를 평정했던 힌두(忻都)군 및 고려에서 귀속한 홍복원(洪福源), 홍다구(洪茶丘)의 군대였다. 즉 몽골에 의한 일본 침공은 명백히 고려 경략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한편, 몽골의 일본 침공은 고려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몽골의 경략과 서로 병행, 연동되어 있었다. 그 당시 동남아시아 방면에서는 쩌조 베트남과의 관계가 표면상으로는 안정되었으나⁷, 미얀마에 파견했던 사절에 대한 파간 왕조의 반발적인 대응으로 마찰이 증대되고 있었다. 실제로 제 1차 일본 침공 3년 후인 지원 14년(1276)에 원조는 제 1차 미얀마 침공을 개시하기에 이른다⁸. 이 때 원조는 동방의 일본 공략, 남송 공략, 나아가 남방에서는 미얀마 공략이라는 세 개의 경략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제 1차 일본 침공, 제 1차 미얀마 침공이 좌절되자 원조는 이어서 제 2차 침공 준비를 시작하는데, 남송의 수도인 임안(臨安)을 무혈입성하고 지원 15년(1279)에 애산 전투를 마지막으로 남송이 평정되는 것을 기다려, 지원 17년(1281)에 와서 제 2차 원정이 실시되었다. 같은 시기에 동남 아시아 방면에서도 미얀마 침공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져서⁹ 지원 19년(1283)부터 남해 교역을 거점으로 하는 참파로의 침공을 개시하였으며¹⁰ 지원 20년(1284)에는 미얀마 침공이 본격화되었다¹¹. 이 모든 것이 남송 공략군이 일본, 참파, 미얀마에 나뉘어 파견된 결과일 것이다¹². 일본 침공이 고려 경략의 연장선상에 있었을 뿐 아니라 남송 공략과도 연동되어 있었으며 남송 공략은 동남 아시아 방면의 참파, 베트남, 미얀마 공략과도 직접 연동되어 있었다. 즉 일본 침공은 해역아시아 전체에 대한 몽골 제국=원조의 경략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2. 해역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몽골 충격’

앞 절에서 살펴봤듯이, 몽골의 군사적 침공은 동부 해역아시아 국가의 거의 전역에 이르는 것이었지만 ‘몽골 충격’이 그러한 군사적 임팩트만을 지칭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중장기에 걸친 경제적, 문화적인 임팩트도 각 지역에 널리 퍼졌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입장에서 각 지역에 대한 ‘임팩트’는 어느 정도 공통성이 있으나 그

6 지원 5년(1268)에는 고려가 원조의 궁정에 대해 일만병사와 천 척의 배를 준비했다고 상주하여, 세조 쿠빌라이는 都統領을 파견하여 이를 보게 하는 동시에, 흑산(黑山)에서 일본에 이르는 루트를 시찰시켜, 고려 병력의 일본 경략을 위한 전용을 전제로 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元史』卷六, 世祖紀三, 至元五年七月丙子)

7 실제로 베트남에서도 몽골에 의한 감독관 다루가치의 파견과 엄격한 요구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었으며 몽골에 대한 반감은 쩌조, 태종 사후 몽골과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8 『元史』卷二〇, 外夷傳三, 緬.

9 『元史』卷一一, 世祖紀八, 至元十七年二月丁丑

10 『元史』卷二〇, 外夷傳三, 占城

11 『元史』卷二〇, 外夷傳三, 緬

12 나아가, 중죄인 및 몽골 병사, 남송에서 새로 귀순한 ‘신부군(新附軍)’이 각각 일본, 참파, 미얀마로 파견되는 원정군에 배치되었다(『元史』卷一二, 世祖紀九, 至元十九年十一月甲戌; 卷一二, 世祖紀九, 至元二十年五月戊午)

‘임팩트’에 대한 지역별 ‘반응’, 즉 정권과 사회의 반응과 임팩트의 영향에 의한 사회 반응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고려의 경우 몽골과의 지속적인 교전과 화친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는 몽골 = 원 제국이 태도를 완화한 것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항복하고 책봉을 받아들였다. 고려는 형식적으로는 몽골 제국의 소령(所領, 속국)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고려 왕가에 의한 독립 지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과 비슷한 국제관계로는 위구르 왕국, 옹구트 왕국 등 중앙 유라시아에 위치한 몽골 제국에 귀순한 왕국들을 들 수 있다. 이 나라들은 몽골 제국 = 원조의 통치 정책, 재정정책 등에 의한 영향, 간섭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몽골의 임팩트는 강력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이르렀다. 즉 역대 고려 왕은 공주(원조 황제의 딸)를 비로 맞아 부마가 되어, 그 왕자는 독로화(禿魯花, 툴루게)로서 원조의 황제의 케시크(교대 근위 겸 엘리트 육성 기관)로 보내져 몽골 제국의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고려 왕가는 그러한 왕가들 중에서도 특히 높은 지위를 보장받았다¹³. 또한 고려의 관제는 원조(元朝)적인 관제에 준하도록 개정되어 고려 궁정의 왕족, 귀족 사이에서는 몽골 문화의 수용도 진전되었다. 또 한편으로 원조의 수도 대도(大都)에서는 고려풍 문화가 유행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몽골 제국과의 융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으나 요즘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연구자도 있다¹⁴. 고려 왕가는 적극적으로 몽골 제국 상층부의 일부가 됨으로써 ‘몽골의 평화’(Pax Mongolica)에 의한 정치적 안정과 이문화 수용을 이루어 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에 의하면, 고려시대 왕권의 숭불(崇佛)적 요소가 후에 이어지는 조선시대에는 배제되고, 그 대신 주자학이 체제교학으로서 그 역할을 공고히 하였는데 이 주자학이 본격적으로 전파된 것이 원조(元朝)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원조와의 관계를 통해서 고려 불교는 중국 불교, 티벳 불교, 인도 불교와 교류를 심화하였고 국가적 종교, 민중적 종교의 양면에 있어서 변용을 가져왔다¹⁵.

반대로 고려와는 대조적인 것이 베트남이다. 찐조(陳朝) 베트남의 경우, 몽골의 공격을 받아 책봉을 받아들였으나, 몽골 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정 간섭이 과하다는 반발이 거세져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도 탕롱이 함락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몽골군을 격퇴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 후 찐조는 즉시 조공을 실시하여 포로를 반환하고 책봉을 다시 받아들였다¹⁶. 이것으로 찐조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획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공에 따르는 경제적인 유대는 유지 하면서도 몽골로부터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전쟁에 이긴 후 형식적으로 복속됨으로써, 양국 간 관계는 정치적인 관계로부터 경제적인 관계로 변환되고 이후

13 몽골 제국 = 원조 내에서 고려 왕가의 위치 및 고려 왕정에의 반영에 관해서는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 2013), 특히 「부마고려왕국의 탄생(駙馬高麗國王の誕生)」 pp.22-59; 「고려왕위와 그 권익(高麗王位下とその権益)」 pp.60-104; 「고려왕가와 몽골 황족의 통한 관계에 관한 각서(高麗王家とモンゴル皇族の痛恨関係に関する覚書)」 pp.105-146; 「원조 케시크 제도와 고려 왕가(元朝ケシク制度と高麗王家)」 pp.147-203를 참조.

14 森平雅彦 2013(특히 「고려·원 관계사 연구의 의의와 과제(高麗・元関係史研究の意義と課題)」 pp.1-21; 李康漢 2016 등을 참조.

15 森平雅彦 2013, p.5; pp.291-309

16 원 제국의 베트남 경략 경위에 관해서는 야마모토 타츠로(山本達郎, 1950); 同 1975; 윗카이치 야스히로(四日市康博, 2015 b)를 참조.

‘몽골 충격’은 주로 경제면, 문화 면에 한정되었다¹⁷. 이에 대해 베트남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냈거나, 내셔널리즘 발양의 발단이 되었다는 평가가 존재하는 한편, ‘몽골의 평화’ 및 ‘몽골 충격’에 따른 유라시아=인도양 해역 세계 규모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제한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세 번째 패턴으로는 자바의 싱가사리 왕조, 마자파히트 왕조를 들 수 있다. 자바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원조의 책봉체제에 복속되는 것을 거부했으나 원조의 침공에 패배한 후 원에 조공사절을 파견하였다. 이 때 마자파히트 왕이 원조로부터 왕공(王公)에 봉해졌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책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후 원에 대해 빈번하게 조공을 하였으며 원조와 자바는 전쟁 이전보다 더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했다¹⁸. ‘원 자바 전쟁’을 계기로 장기적인 ‘몽골 충격’=조공에 따르는 통상 관계가 수립된 것이다. 더불어 이 통상 관계 수립은 자바 측 행동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원조 측도 자바 전쟁시 초무사(招撫使)와 상인들을 자바 주변국으로 파견한 사실이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수마트라섬의 수마트라 왕국과 남인도 마발(판디아 왕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겠다. 이 나라들은 직접적으로는 몽골 제국=원조의 침공도 받지 않았으며 책봉 요구도 없었다. 원조의 궁정에서는 태국, 수마트라섬에서 남인도에 걸친 나라들에 파병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사절을 파견하여 초유(招誘)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실제로 지원 17년에는 쿨람, 마발, 자바, 베트남이 조공을 하고 있었고 지원 23년에는 마발, 람브리, 수마트라, 베트남을 포함한 12개국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인도 동남쪽 해안에 위치하는 마발(판디아 왕조)은 지원 16년부터 연우(延祐) 원년까지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 만으로도 십 수 회에 걸쳐 조공을 바쳤으며, 원조도 여러 차례 마발에 사절을 파견했다. 마찬가지로 13세기 후반에 수마트라섬 북부에서 융성했던 신흥 이슬람 정권인 수마트라 왕국도 마발 만큼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지원 19년 이후, 수 차례 조공을 하였다. 말라카해협 서쪽에 위치한 나라들이 했던 조공의 특징을 보면, (1)정치적 목적보다 경제적 목적이 주 목적인 조공을 했던 점 (2)단독으로 조공을 하는 것이 아닌 주변국과 경유지 사절과 동선하여 왕래한 점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말라카해협 서쪽 나라들에 대해 책봉이 행해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세조 쿠빌라이 말기에는 조공을 위해 방문한 사절단이 상인을 대상으로 한 항해 금지에 의해 귀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조공 사절단에 해상 상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 후자에 관해서는, 남해에 위치하는 나라들의 조공 사절이 원조의 초무(招撫)에 의해 조공에 응했던 것이 반영되어 있다. 단, 이 사례들은 원조도 제국으로서 패권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수마트라를 시작으로 해상의 국가들도 몽골 제국=원조의 패권을

17 편조 베트남 및 참파와 원조 간 통상, 경제 관계에 관해서는 모모키 시로(桃木至朗, 2011) 및 오키카치 야스히로(四日市康博, 2015 b)를 참조.

18 『元史』 卷一八, 成宗紀一, 元貞元年九月丁亥; 卷一九, 成宗紀二, 大德元年十月乙卯

19 『元史』 卷一八, 成宗紀一, 至元三十一年十月乙巳

스스로 통치권력의 배경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그런 의미로는 이 경우도 중장기적인 '몽골 충격'이 존재하였으며,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의 '몽골 충격'의 재검토

그럼 위에서 언급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재차 일본에 대한 '몽골 충격'에 대하여 검토해보기로 하자. 일본은 몽골 제국 = 원조로부터의 책봉을 거부하여 그에 따른 마찰로 전쟁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자바나 파간 등 몇몇 지역에서도 보이지만,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전쟁 후에도 원조와는 정식 국교를 맺지 않았음에도 민간의 교역은 활기를 띠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유명한 '신안침몰선'은 지치(至治) 3년 6월에 경원(慶元, 현재의 Ningbo = 寧波)에서 하카타(博多)를 향해 운항하던 중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한반도 신안 해안부근까지 표류하여 침몰한 교역선이다. 이 침몰 유적의 선체로부터 적재물이 거의 그대로 출토되었으며 실려 있던 도자기, 동전, 자단목(紫檀材) 등은 방대한 숫자에 달한다²¹. 이 신안침몰선이 경원을 출항한 시점에선 지원 18년 / 홍안 4년(1281년) 제 2차 일본 침공(弘安의役)으로부터 약 40여년이 지난 것인데, 이 때를 전후로 약 40년정도인 성종 테무르의 대덕(大德) 연간 후기부터 문종 투그테무르의 지정(至正) 연간 초기에 걸쳐 -14세기 전기에는 일본과 원조 간을 빈번히 소형범선이 왕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역시 원조와 일본과의 전쟁 직후는 무역선이 양국 사이를 왕래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전쟁이 끝난 10년 후인 지원(至元) 29년(1292)에는 일본 측이 세척의 배를 만들어 그 중 한 척만이 경원(慶元, 현재의 Ningbo)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²³. 또한 일본 측에서도 쇼오(正応) 3년(1290)에 당선(唐船)으로부터 무역의 이익을 압류한 기록이 남아 있어 이미 수교가 재개되었다고 보인다²⁴. 즉 적어도 침공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하카타(博多)와 경원(慶元) 간의 교역선이 재개되고 나아가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일본과 원조 간의 교역이 굉장히 활기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제 2차 침공 후 10년간, 즉 세조 쿠빌라이 지원 연간 후기는 재정 확대책을 꾀한 권력자 아하마(阿合馬)가 실각했지만, 이어 위구르인 재상인 생계(桑哥)의

20 마르코 폴로는 수마트라섬(Java la menor/Giava minore)의 8왕국 중, 바스만 왕국(royaume de Basma/regno di Basma, 바사이 왕국), 수마트라 왕국(royaume de Samatra/regno di Samara), 다그로안 왕국(royaume de Daroian/regno di Dragoian), 람브리 왕국(royaume de Lanbri/regno di Lambr), 판푸르 왕국(바루스 왕국, royaume de Fansur/regno di Fanfur)이 원조 황제를 '대(大) 칸'(le grant kaan/il gran Can)이라 부르며 신종(臣從)했으나, 실제로는 직접 조공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Marco/F, pp.171-174; Marco/R, pp.260-264).

21 신안침몰선에 관해서는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1-85;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8;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 가와조에소지, 1993; 무라이소스케, 2013(a)을 참조할 것.

22 단, 그 후 원조(元朝) 연해에서는 일본인에 의한 폭동이 원인이 되어 단기간 무역이 단절되는 일이 발생한다. 에노모토 와타루는 이것을 각각 '지대왜구(至大倭寇)' '태정왜구(泰定倭寇)' '원통왜구(元統倭寇)'라 부르지만 에노모토 자신이 지적하듯이 이들 왜구는 폭동적 요소가 강한 단발적 사건이고 명대 이후의 왜구와는 성격이 다른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에노모토, 2014, pp. 97-98).

23 『元史』 卷17 世祖紀14 至元29年 6月 己巳

24 正応3年 4月 25日字「関東御教書」(福岡市教育委員会『大悲王院文書 10』); 에노모토(榎本), 2006, pp.243-244. 에노모토는 1280년대 후기에는 원으로 건너간 승려가 존재하고 양국의 통행도 재개되었다고 보고 있다. (에노모토, 2006년, pp.143-4; 에노모토, 2014, p.95)

천거를 받은 노세영(盧世榮)이 재정개혁에 착수하고, 또 쟁계(桑哥) 자신이 무슬림과 위구르인들을 재무 관료로 임명하여 아허마(阿合馬)와 동일하게 재정 확대책을 꾀한 시기였다. 이 때 특히 말라카해협 서쪽 남해의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원조에 조공을 바쳤고 무슬림 상인들의 무역 활동도 활발해져 남해 무역은 크게 번창하였다²⁵. 하지만 에노모토 아유무(榎本渉)가 지적하듯이 일본과 원조 사이의 무역은 그 시류와는 반대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²⁶. 앞서서도 논했듯이 일본과 원조 사이에 범선이 활발히 다니게 되는 것은 다음 황제인 성종 테무르 후기에 와서이고 전쟁 이후 세조 쿠빌라이 말기까지 무역은 결코 활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물론 원조와 일본의 전쟁에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두 번에 걸쳐 발생한 제 1, 2 차 일본 침공(文永·弘安の役)의 영향은 아니다. 그건 제 3 차 일본 침공이 계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무역선이 통상을 재개한 지원 29 년(1292)의 시점에 일본 침입 계획이 제기된 것이다.

지원 22 년(1285) 원조에서는 제 3 차 일본 침공을 실시하고자 정동행성(征東行省, 정동행중서성)이 설치되고 재상으로 아타카이(阿塔海), 유국걸(劉國傑), 진엄(陳巖), 홍다구(洪茶丘) 등이 임명되었다²⁷. 다음해 세조 쿠빌라이는 일본보다도 베트남 침공을 우선하라는 취지의 선언을 하지만, 고려에 근접한 동방삼왕가(東方三王家) 영토에서 반란이 계속 일어난 것 때문에 일단 일본침공을 중지할 것을 선언한다. 동방삼왕가(東方三王家)의 반란이나 베트남, 참파, 자바와의 전쟁이 수습된 지원 29 년(1292)에 다시 일본을 침공한다는 건언(建言)이 있고 고려 충렬왕도 이에 찬동했기 때문에 제 3 차 일본 침공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²⁸. 하지만 이 시기에 이미 세조 쿠빌라이는 고려이었고 2 년 뒤 지원 31 년(1294)에 쿠빌라이의 서거와 함께 제 3 차 일본 원정 계획도 그대로 중지된다. 즉 제 1, 2 차 일본 침공이 수습된 뒤 10 년간은 아직 ‘전후(戰後)’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조건만 갖춰진다면 쿠빌라이가 언제 세 번째 일본 원정을 명령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전쟁 직전’이라 해도 무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는 원조와 근접한 베트남이나 참파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결국 제 3 차 일본 침공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참파, 베트남에 대해서는 제 2 차, 제 3 차 침공이 가해진다. 그 후 자바에 대해서도 원정군이 파견된다. 이 차이는 역시 베트남, 참파, 자바가 남해 교역 구간 루트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당시 해상교통의 대동맥과는 떨어진 곳에 위치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베트남, 참파를 경유하는 ‘서양항로(西洋航路)’에 비해, 일본이나 류큐(琉球)가 복건(福建) 지역이나 마닐라 등과 연결되는 ‘동양항로(東洋航路)’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16 세기 이후의 일이다²⁹. 이 시점에 원조는 남해를 경유하여 이슬람 여러 나라까지도 갈 수 있는 ‘서양항로(西洋航路)’ 연해 나라들을 우선적으로 침공하여 통치했다. 거기에는 당연히 군사, 정치적 의미뿐만이 아닌 경제, 상업적 목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조의 베트남 침공이나 이후 자바 침공에서도 상인이나 무역을 목적으로 귀순한 한 무리를 원정군에 동행시켰다³⁰. 하지만 일본침공에서는 그러한 무역 진흥의 목적을 가진 이들을 동행시킨

25 이 시기 원조의 제정, 상업 정책과 남해교역 관계에 대해서는 줄저, 2015(b)를 참고. 또한 말라카해협 주변 여러 항구 왕국의 해상무역에 관해서는 후카미(深見純生), 2004; 2006 논문을 참고할 것

26 에노모코 2006, 2014 논문 참조,

27 『元史』 卷13 世祖紀10 至元22年 10月 癸丑

28 『高麗史』 卷29 世宗30 忠烈王3 忠烈王18年 8月 丁未; 卷30 世宗30 忠烈王3 忠烈王18年 9月 壬午

29 동양항로, 서양항로에 관해서는 윗카이지, 2015(b)를 참고할 것.

30 윗카이지, 2015(b), pp.26-29.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고려 침공, 남송 침공의 연장선상에서 일본 침공을 실시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배경의 차이 때문에 제 3차 일본 침공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세조 쿠빌라이 사후에 즉위한 성종 테무르는 대덕(大德) 3년에 선승(禪僧) 일산일령(一山一寧)을 사절로 일본에 보내 조공을 독촉하는데³¹, 쿠빌라이 때와 비교하여 일본에 대한 자세가 매우 부드러워지고, 이미 무력으로 책봉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성종 테무르 이후도 중앙유라시아 방면에서는 몽골종족 간의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을 포함한 해역아시아지역 여러 나라에 대한 군사 침공은 거의 안 보이게 된다. 따라서 성종 테무르 재위 기간이 되어서야 일본과 원조 간의 전쟁도 겨우 전후(戰後)를 맞이했다고 봐도 무관할 것이다. 일·원간의 교역이 활기를 띠는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그럼 원조와 일본간의 전쟁 이전과 이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의 주장에 의하면 일송(日宋), 일원(日元) 간의 교역에는 무역선의 도래 빈도가 규제되고, 일본인 도항 규제, 동전유통금지 등 규제가 실시되고 있었는데 이는 모두 명목상의 원칙일 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³². 하지만 원조의 제 1차 일본 침공 직후부터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는 구체적인 실효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다. 고안 4년(1281) 가마쿠라막부는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규제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쇼안 2년(1300)에는 진제이탄다이(鎮西探題)에 외국에서 오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부여하고 '이적방금(異賊防禁)'이라는 명목 하에 진제이탄다이의 군사기능까지 강화시켰다³³.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하카타에는 점차 공권력의 지배가 침투하게 됐다고 무라이는 설명한다. 하지만 하카타를 구성하는 하카타하마(博多浜)와 오키노하마(息浜)는 그 후 지배자가 각각 달라 도시로서 하카타의 일체성이 저해됨과 동시에 공권력의 관여가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본다면 원조와 일본과의 전쟁이라는 단기적 군사 충격이 정치, 경제, 문화적인 장기 충격으로서 그 후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원조 측에도 있다. 에노모토는 원제국과 일본의 전쟁 이후 일·원 교역의 전개에 대해, 종래 있었던 전쟁 이후에 무역정책이 소극적이었다는 설을 부정하고, 원조 측의 왜선 경계(警戒)의 근거를 일본의 귀순 실패에 의한 불복종이었다고 결론짓는다³⁴. 나 또한 이 논리에 찬성한다. 원의 일본침공이란 전쟁 자체가 일본을 신하로 책봉체제에 편입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후 원조 측의 경계는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반동이라기 보다는 조공국으로서의 일본을 관리 하에 두지 못했던 것에 기인할 것이다. 하지만 원조 측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무역선이 빈번하게 왕래한 사실은 양국 간의 무역으로 인한 이익이 양국 정부의 몰교섭이나 상호불신을 뛰어 넘었다는 것의 반증일 것이다. 특히 일본 측에서의 접촉이 강했고 일본과 원조 사이를 왕래하는 무역선은

31 『元史』卷20 成宗紀3 大德3年 3月 癸巳. 그리고 이 국서의 사본이 가나자와문고(金沢文庫)에 남아 있다(『金沢文庫古文書』, 6773).

32 무라이, 2013(a), pp. 264-266

33 鎌倉幕府追加法 488条(異国警固条々), 701条(牒使来着時在所并問答法事)(『中世法制史料集』第一卷, p.249; p.307); 무라이, 2013, p.265.

34 에노모토, 2007(b), pp.106-117; 모리카츠미, 1975, pp.366-370, pp.511-525; 江 静, 2000; 江 静, 2002도 참조.

중국의 범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일본 측의 수요를 따르는 형식으로 운행되었다³⁵. 이러한 일·원(日元) 무역선을 일본 측에서는 ‘사사조영료당선(寺社造営料唐船)’이라 불려졌는데³⁶,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역 구조나 내용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³⁷. 예를 들어 경제적인 면에서 원조로부터도 송(宋)의 동전을 많이 포함한 대량의 중국 동전이 일본에 유입되고 은이 일본과 원조의 쌍방향으로 유통되는데³⁸, 몽골 제국 초기에는 유라시아 전체를 은이 널리 유통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 또한 원조 하에서 화화, 도자기, 차문화 등은 일본의 ‘대륙문화’ 수용과 불가분의 관계였고, 이는 명(明)대와 무로마치(室町) 시기에도 계승되었다³⁹. 이들 중에는 반드시 몽골풍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만 남송 문화가 원조 통치하의 화북(華北), 강남(江南)에서 계승, 발전해 간 것으로 물론 원대(元代)에는 원대의 특징이 있다⁴⁰. 원조 후기에 일본과 원조 사이의 승려의 왕래는 전례 없는 융성기를 맞이하는데, 무라이나 에노모토는 이 시기를 ‘도래승의 세기(渡來僧の世紀)’라고 부르고 있다⁴¹. 이러한 문화교류는 언뜻 보면 ‘몽골 충격’과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줄지 모른다. 하지만 몽골의 패권 하에서 융성한 경제, 문화교류가 가져온 결과물이므로 이 역시 ‘몽골 충격’의 일환인 것이다⁴².

맺음말 : ‘몽골 충격’이란 무엇이었나?

일본만을 주체로 놓고 본다면 ‘몽골 충격’이란 전쟁 그 자체가 최대이자 주체적

35 그 이유로는 일본에서 원조로 향했던 교역선은 모두 원조 측의 관청 폐지, 하역금지기간과 관계없이 원의 항구, 주로 경원(慶元)에 입항했지만 일본에 귀항할 때는 관청 폐지, 하역금지기간 중에는 출항이 금지되었고 금지령이 풀려야 비로소 출항이 가능했다. 자세한 것은 윗카치, 2016 참조.

36 “寺社造営料唐船”에 관해서는 무라이 2003, 2013; 나카무라, 2013 등을 참조. 또한 “寺社造営料唐船” 개별 사례에 관해서는, 후쿠시마, 1991; 후쿠시마, 1996; 나가이, 2010도 참고.

37 남송(南宋) 시기에 하카타(博多)에서 많이 출토된 「강(綱)」 및 「강수(綱首)」라고 새겨진 묵서도자기(墨書陶磁器)는 원대(元代)에 오면 거의 볼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송대(宋代)의 강(綱)을 중심으로 한 해상무역구조가 원대(元代)에는 변용된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신안해저유물에서는 「강사(綱司)」라 새겨진 목간이 다량 출토되었는데, 「강사(綱司)」가 「강수(綱首)」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혹은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가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38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은의 흐름은 『至正四明續志』 卷5 市舶物貨 細色에 왜은(倭銀)이라 나오며, 일본의 은, 특히 쓰시마(對馬)의 은이 경원(慶元)을 경유하여 원조에 유입된 것은 분명하다. 한편 하카타(博多)의 세이후쿠지(聖福寺)에서는 에도시대(江戸時代) 교호(享保)원년(1716)에 원대의 은 자물쇠가 출토되었고 그 때의 상황이 이토도가이(伊藤東涯)의 『합장록(翫簪錄)』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은의 유통이 결코 일방적인 한 방향이 아닌 중국에서 일본으로도 은이 유통되었음을 나타낸다(『翫簪錄』 卷四).

39 구체적인 예로 무라이, 2003; 에노모토, 2003 등을 참조.

40 단적인 사례로는 일본의 대륙문화(唐物文化), 선종문화(禪宗文化) 중에 자주 보이는 ‘몽골문자’ 즉 파스파글자를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몽골글자를 파스파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반입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처에 파스파 글자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 다호(茶壺, 차 단지)에 사용된 복건(福建), 광둥(廣東)산 ‘갈유사이호(褐釉四耳壺, 후에 루손의 항아리라 불리게 된다)’나 청자에도 가끔 한자의 좋은 문구가 새겨지는데 효고(兵庫), 가고시마(鹿児島) 하카타(博多), 신안해안, 오키나와(沖縄) 등에서 파스파 글자의 도장이 새겨진 도자기나 청자가 출토되었다. 다츠노시 매장문화재센터, 2015; 이시가키시, 총무부 시사편집과, 2008; 가고시마현 가와나베군(川辺郡) 치란초(知覧町) 교육위원회, 2006 참조. 또 무로마치(室町) 후기의 임제종 선승 교쿠인에이요(玉隠英瑁)는 스스로의 이름을 파스파 글자로 표기한 도장을 제작하는데(日本經濟新聞社, 2003), 이것은 파스파 글자의 한자음과의 대응표를 표기한 서적인 『몽골자운(蒙古字韻)』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15, 16세기까지는 교쿠인(玉隠)이 주지였던 겐초지(建長寺), 혹은 가나자와 문고(金沢文庫) 등에 일본으로 건너온 『몽골자운(蒙古字韻)』이 남겨졌다고 여겨진다.

41 무라이, 2013(b); 에노모토, 2007 등을 참조.

42 실제로 원과 일본의 전쟁 때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는 일본에 온 도래승이나 송에 건너간 승려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수집과 스파이활동을 하였지만 “도래승의 세기”라 불린 원조의 승려 왕래의 활기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이 침입한 시기의 선승의 활동과 그 후 전개에 관해서는 이토, 2009와 이토, 2010을 참조할 것.

충격이었다고 여겨지기 십상이다. 실제 종래의 몽골침공 연구는 주로 전쟁 전의 외교관계나 전쟁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이제까지 봐 왔듯이 해역아시아의 다른 여러 지역의 사례를 감안해 본다면 ‘몽골 충격’이란 결코 전쟁만이 아닌 오히려 정치적 관계, 경제적 관계가 사회나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준 ‘장기적 충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전전(戰前)·전중(戰中)에 발생한 정치적 충격이 이후 경제적, 문화적 충격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언하자면 일본 침공 때는 원조와 일본(가마쿠라 막부, 조정) 양쪽으로부터 무역과 수교에 관한 규제가 가해져서 그것이 무역구조 자체에 직접 영향을 주었는데, 그런 상황과 이후의 그에 대한 반향으로 생긴 무역의 융성은 그 일련의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앞서 무라이의 논문에서 다뤘듯이 일본과 몽골의 전쟁 직후부터 일본 측은 무역 규제를 급속히 강화하여 새로운 도항자를 규제하여 이제까지 중국 측에 거점을 둔 한인(漢人) 상인(소위 ‘송상 = 宋商’) 주체의 무역에서, 하카타에 거점을 둔 한인 상인(‘宋商’의 자손들)로 주체가 옮겨지고, 더욱이 한인 상인들의 일본 정착이 늘면서 무로마치(室町) = 명대(明代)에는 ‘송상’의 자손들을 포함한 일본 상인으로 주체가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가마쿠라와 남북조 = 원대(元代)는 일중(日中) 무역 구조가 전환되는 과도기였고 그것은 원조와 일본과의 전쟁과 그 후의 ‘몽골 충격’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

본 논문은 분량의 한계로 굳이 일본의 ‘몽골 충격’의 내용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지 않고 ‘몽골 충격’의 군사적, 정치적 충격에 한하여 이들 단기적 충격이 경제적, 문화적 충격으로 연결됐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었다. 진정 이 명제가 옳은지는 일본 이외의 지역도 시야에 넣어 구체적 사례를 다루며 검토해야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史料

『元史』: 『元史』校点本. 15 冊. 北京: 中华书局, 1976.

『蒙古字韻』: 照那斯图, 杨耐思 (編) 『蒙古字韵校本』北京: 民族出版社, 1987.

『四明續志』: 中國地志研究會 (編) 『至正四明續志』宋元地方志叢書. 台北: 中國地志研究會, 1978.

『高麗史』: 国書刊行会 (編) 『高麗史』上中下. 国書刊行会, 1977.

『盍簪錄』: 森銑三ほか (編) 『隨筆百花苑 6』東京: 中央公論社, 1983 所収.

『鎌倉幕府法追加法』: 佐藤進一、池内義資 (編) 『中世法律史料集第一卷鎌倉幕府法』東京: 岩波書店, 1955 所収.

Marco Polo. Le Devisement du Monde (マルコ = ポーロ 『世界の記述』):

-Marco/F/Benedetto: Luigi Foscolo Benedetto (ed.), il Milione: Prima Edizione Integrale. Firenze, 1928.

-Marco/R/Einaudi: Giovanni Battista Ramusio (ed.), I viaggi di Marco Polo. In Navigazioni e viaggi. vol.3, Venezia, 1559 (Giulio Einaudi(re.ed.), Torino, 1980.)

参考文献

榎本涉 2003 「陸仁と道元文信をめぐる」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九～一四世紀』東京: 吉川弘文館, 2007, 212-269 頁 (原載: 「一四世紀後半、日本に渡来した人々」 『遙かなる中世』 20, 2003.)

榎本涉 2006 「初期日元貿易と人的交流」 『宋代の長江流域—社会経済史の観点から』東京: 汲古書店. 231-272 頁.

榎本涉 2007(a)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九～一四世紀』東京: 吉川弘文館.

榎本涉 2007(b) 「元朝の倭船対策と日元貿易」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九～一四世紀』東京: 吉川弘文館, 106-175 頁.

榎本涉 2014 「宋元交替と日本」 『岩波講座日本歴史第七卷中世 2』東京: 岩波書店. 77-112 頁.

榎本涉 2015 「13 世紀の東アジア情勢と高麗・大越・日本」 『日越交流における歴史、社会、文化の諸課題』京都: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17-24 頁.

深見純生 2004 「元代のマラッカ海峡—通路か拠点か」 『東南アジア—歴史と文化』 18. 86-98 頁.

深見純生 2006 「ターンプラリンガの発展と 13 世紀東南アジアの商業ブーム」 『国際文化論集』 34. 81-97 頁.

福島金治 1991 「鎌倉極楽寺の唐船派遣について」 『地方史研究』 233.

福島金治 1996 「中世鎌倉律院と海上交易権—熱海船の性格と鎌倉大仏造営料唐船の派遣事情」 『鎌倉大仏研究』 1

石井正敏 2010 「文永八年の三別抄牒状について」 『中央大学文学部紀要史学』 56, 1-34 頁.

石垣市総務部市史編集課 2008. 『石垣市史考古ビジュアル版 5 陶磁器から見た交流史』石垣市.

伊藤幸司 2009 「外交と禅僧—東アジア通交圏における禅僧の役割」 『中国—社会と文化』 24. 41-70 頁.

- 伊藤幸司 2010 「東アジアをまたぐ禅宗世界」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日本の対外関係4 倭寇と「日本国王」』東京: 吉川弘文館. 30-56 頁.
- 江静 2000 「元代赴日中国商船銳減原因初探」 『中日文化論叢』1998.
- 江静 2002 〈元代中日通商考略〉 《中日关系史料与研究》1.
- 鹿児島県川辺郡知覧町教育委員会 2006. 『国指定遺跡知覧城 (三)』知覧町: 鹿児島県川辺郡知覧町教育委員会.
- 川添昭二 1993 「鎌倉末期の対外関係と博多—新安沈没船木簡・東福寺・承天寺」 『鎌倉時代文化伝播の研究』東京: 吉川弘文館.
- 李康漢 2016 「高麗におけるモンゴルのインパクトとレスポンス」 『国際シンポジウム「ユーラシアにおけるモンゴルのインパクト」 予稿集』東京: 昭和女子大学.
- 桃木至朗 2011 『中世大越国家の成立と変容』吹田: 大阪大学出版会.
- 森克己 1975 『日宋貿易の研究』東京: 国書刊行会.
- 森平雅彦 2013 『モンゴル覇権下の高麗—帝国秩序と王国の対応』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編) 1981-85 『新安海底遺物 (資料篇 I-III)』서울: 한국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編) 1988 『新安海底遺物 (綜合篇)』서울: 한국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文化財庁, 国立海洋遺物展示館) (編) 2006 『新安船 The Shinan wreck』1-3. 목포: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村井章介 1988(a) 「高麗・三別抄の叛乱と蒙古襲来前夜の日本」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東京: 校倉書房, 1988, 144-188 頁.
- 村井章介 1988(b) 「蒙古襲来と鎮西探題の成立」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東京: 校倉書房, 1988, 189-235 頁 (原載 『史学雑誌』87/4, 1978 より改編)
- 村井章介 2003 「日元交通と禅律文化」 『日本中世の異文化接触』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013, 171-213 頁 (原載: 『日本の時代史 10 南北朝の動乱』東京: 吉川弘文館, 2003.)
- 村井章介 2010 「蒙古襲来と異文化接触」 『日本中世の異文化接触』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013, 375-400 (原載: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日本の対外関係4 倭寇と「日本国王」』東京: 吉川弘文館, 2010.)
- 村井章介 2013(a) 「寺社造営料唐船を見直す—貿易・文化交流・沈船」 『日本中世の異文化接触』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013, 241-272 頁.
- 村井章介 2013(b). 「肖像画・賛から見た禅の日中交流」 『日本中世の異文化接触』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013, 273-294 頁.
- 永井晋 2010 「金沢文庫古文書に見る唐船派遣資料」 『金沢文庫研究』324.
- 中村翼 2010 「鎌倉幕府の「唐船」関係法令の検討—「博多における権門貿易」説の批判的継承のために」 『鎌倉遺文研究』25.
- 中村翼 2013 「日元貿易期の海商と鎌倉・室町幕府—寺社造営料唐船の歴史的 위치」 『ヒストリア』241.
- 日本経済新聞社, 東京国立博物館 (編) 2003. 『鎌倉—禅の源流』東京: 日本経済新聞社.
- Prawdin, Michael 1937. The Mongol Empire: Its Rise and Legacy. (tr.) Eden and Cedar Paul. Brunswick and London: Aldinetransaction.
- たつの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 2015. 『謎のパスパ文字と光明山』たつの市埋蔵文化財

センター .

佐口透 1970 「タタールの平和」『岩波講座世界歴史中世 3』東京：岩波書店 .

四日市康博 2001 「バクス・モンゴリカー—東西交通の繁栄」『しにか』140, 50-55 頁

四日市康博 2015(a) 「ユーラシア的視点から見たイル＝ハン朝公文書—イル＝ハン朝公文書研究の序論として」『史苑』75/2, 257-300 頁 .

四日市康博 2015(b) 「13 ～ 14 世紀における中国－東南アジアの通交と貿易—元朝から見た西洋航路上の南海諸国との関係を中心に」『昭和女子大学国際文化研究所紀要』21, 13-41 頁 .

Yokkaichi Yasuhiro 2015. (ed.) Special Issue: Multilingual Documents and Multiethnic Society in Mongol-Ruled Iran, in Orient 50.

四日市康博 2016 「14 世紀の日本と元朝の海上交易における新安船」『新安선발굴 40 주년기념국제학술대회—아시아·태평양 해양네트워크와 수증문화유산』목포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pp. 164-184.

지정토론

‘몽골 임팩트’의 일환으로서의 ‘몽골의 침입’

[질문자: 조원, 답변자: 윗카이치 야스히로]

—— 조원

한양대학교의 조원입니다. 윗카이치 선생님 발표를 매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몽골은 평화와 충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표리일체라는 개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몽골의 일본 원정도 몽골·원 제국과 일본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남 연해를 포함한 해상 전략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첫 번째, 몽골 제국이나 원에 있어서 조공·책봉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책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해상 국가에게는 책봉 없이 조공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중국적인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방식을 활용한 목적이라든지 양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께서는 일본 원정에서도 동북 연해와 동남 연해의 접근방식이 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동남 연해는 서아시아 지역으로 이어지는 무역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면, 동북 연해에 대한 해상전략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부분에 정치적으로는 냉각되어 있었지만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활발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것처럼 교류가 활발할 수

있었던 요인 또는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정부는 소극적이었지만 민간에서 적극적인 교류가 가능했다면 그 주체들은 누구였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걸 지엽적인 것인데 송상(宋商)의 자손들이 하카타(博多, 현재의 후쿠오카)에 점점을 두고 교류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윗카이치 야스히로

쇼와여자대학의 윗카이치 야스히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만, 원조(元朝) 몽골 제국이라 하더라도 황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왕족도 있고 관료나 대신들도 있고 나아가 지방에도 여러 관료들이 있습니다. 실은 정책 결정에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책봉(冊封)·조공(朝貢)의 경우도 쿠빌라이 황제나 몽골의 황제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따르든가 아니면 저항하는 자에게 군사를 보내든가 하는 양자택일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하들, 특히 본래 중국을 섬겼던 금(金)이나 나중에 남송(南宋)에서 편입된 신하들은 중국적인 책봉의 예에 따라 처리하도록 쿠빌라이에게 진언하곤 하였습니다. 또 복건성(福建省)과 절강성(浙江省) 관료들은 어느 쪽인가 하면, 무역을 중시하였으므로

정복하기보다는 무역을 행하는 편이 좋다고 진언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쿠빌라이의, 황제의 의향이 우선이었지만 이와 같이 몇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양 연해 쪽은 조공 관계만 맺고 있었지만 사실 쿠빌라이는 원래는 동남아시아나 인도까지 군사를 보내려고 했던 경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구르의 카르나단이라고 하는 지식인이 지금 일본과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서 나라가 상당히 피폐한 상태이므로 군대를 보내기보다는 무역관계를 맺어서 따르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쿠빌라이에게 진언하였고 최종적으로 쿠빌라이가 이를 받아들여 결국 군대를 보내지 않았던 경위가 있지요.

이처럼 복잡하게 만드는 힘과 설득해서 무언가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려는 생각, 무역을 우선시키려는 생각 등, 원조(元朝) 내부에도 몇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원조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군대를 보내는 데에는 역시 부담이 따르므로(출병을) 관두자는 생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인도양 쪽으로는 군사를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한 것은 일본 동북 쪽의 무역은 어떤가 하는 질문이지요? 이 문제는 세 번째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인데, 원조의 황제는 기본적으로 신하로 복종시키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역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었고 무역을 매우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과 관계되는 것입니다만, 일본은 민간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민간무역이라 해도 일본 조정이나 막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도 일단 참여는 하고 있었습니다. 후원이라 할까, 비공식적으로 스폰서가 되어주기도 하고 원조 측도 일본 선박이 왔을 때 전쟁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허가했습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성(省)의 관리가 제멋대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분명하게 허가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원조 측도 특별히 일본과의 무역에 부정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정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전쟁이 끝난 후에 오히려 무역이 무척 활발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전쟁이 끝난 후 10년정도는 별로 무역이 행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실은 일본이나 베트남에 대해서도 쿠빌라이는 제 3차, 제 4차 원정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14 세기가 될 때까지는 전후가 아니라 전쟁 중, 즉 전쟁이 줄곧 계속되는 상태였습니다.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 셈이지요. 13 세기 말엽에 쿠빌라이가 사망하자 새 황제가 즉위하는데, 그 황제는 중앙아시아의 몽골의 내분 수습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는 쪽으로 방침을 변경합니다. 그로 인해 처음으로 전후라 할까, 전쟁이 끝난 다음 단계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승려의 왕래나 상인의 왕래 같은 일이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앞에서 질문이 있었던 것처럼, 본래 일본에는 송대(宋代)로부터 꽤 많은 중국인이 하카타(博多) 등지에 와 있었습니다. 이미 무역을 할 기반이 조성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히 원조(元朝)의 지배가 시작되었다 해서 절강성(浙江省)이나 복건성(福建省) 상인들의 거점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사회구조도 거의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과 일본 및 중국의 사원이 주축이 되어 무역이라든가 상호교류가 지속되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정식 외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양국 모두가 무역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 다. 장애가 될 만한 정책을 특별히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바로 그 후의 민간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발표논문 2



아미르 아르군 및 그가 후라산 등지에서 진행한 두 차례 호구조사

초그트

(朝克图, 내몽골대학)

요지

몽골 제국은 세계적인 대제국이다. 몽골 제국 시기에 징기스칸과 그 후계자들은 일관되게 대외적 영토확장을 추진하였고 동아시아와 유라시아 대륙 각 지역을 정복하여 역사상 전례가 없는 몽골 제국을 확립했다. 몽골 제국에 의해 실시된 정복 전쟁은 동양과 서양에서 각각 ‘몽골의 침입’ 과 ‘몽골 선풍’ 을 몰고 와서 세계를 뒤흔들고 멈추지 않는 역사의 흐름을 만들었다. 몽골 제국의 대외적 확장과 함께 몽골을 비롯한 북아시아 초원에서 활동하던 유목 민족은 중앙 아시아로부터 세계 무대에 등장하였으며 몽골과 세계 각 민족 간의 지리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각 민족 간의 상호이해와 융합을 촉진하였으며 세계사의 진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본 논문은 아미르 아르군의 서아시아에서의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몽골이 서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과정과 그 특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아르군은 몽골 오이라트의 유족이며 자손들 시대부터 몽골의 왕족이 되었다. 그 후 서아시아로 파견되어 후라산의 제5대 아미르가 되었으며 서아시아와 몽골 고원 사이를 몇 번이나 왕복했다. 그는 몽골 제국이 서아시아 지역을 통치하고 그 지배를 공고히 하는 정책을 통해 몽골 제국에 크게 공헌했다. 특히 그는 후라산 등지에서 두 차례의 호구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지 상황에 바탕을 둔 조세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그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친 몽골제국의 통치를 확립하고 확고한 기초를 다졌다.

아미르 아르군의 서아시아에서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몽골 제국의 서아시아 지역 통치와 관리의 이해뿐만 아니라 몽골 제국의 다양성, 세계화의 특징을 이해함에 있어서 학술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들어가며

아르군(阿兒渾)은 몽골 오이라트(斡亦剌惕, Oirat) 부족 출신으로서 몽골제국 시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역사적 인물이다. 그는 몽골제국의 후라산 등 서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제4대 대 아미르(大異密)로 임명되어 해당 지역에

대한 몽골제국 통치의 강화를 위하여 수많은 정책 건의들을 올렸던 바 그의 커다란 업적으로 인해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그가 생존했던 당시의 몽골제국 여러 역사서와 문헌 속에서, 그는 자주 아미르 아르군, 아르군 아카(阿兒渾 - 阿合)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그는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몽골제국의 기본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였으며 몽골 대칸(大汗)을 보좌하여 현지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를 강화하고 세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경제발전 등의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몽골에 관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 중에서, 서아시아에 대한 몽골의 정복과 통치에 관한 연구는 아직 그리 많지 않다. 그중에서 일본 학자 혼다 미노부(本田實信)의 논문 「아무다리야 강 등지에서의 행상서성의 건립」¹은 해당 주제에 있어서 비교적 영향력 있는 논의이다. 그는 문장 중에서, 서아시아에 대한 몽골제국의 관리와 통치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논하였으나 몽골제국이 서아시아에 파견한 몇 명의 총독들의 역사 사적과 그들이 실시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소개가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아직 더 상세한 연구를 진행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

줄고에서는 혼다 씨의 논문을 기초로 아르군의 생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함과 동시에 그가 후라산 등지에서 진행한 두 차례의 호구조사의 과정과 의의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몽골제국의 통치 방식에 대한 더한층 깊은 고찰과 이해의 목적에 도달하고자 한다.

1. 아르군의 출신 부족 및 초기의 역사 활동

아르군의 생애와 역사 사적들을 소개하려면 그에 앞서 먼저 그의 생애와 사적들과 관련되는 역사 기록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 한다. 아르군의 대한 기록은 몽골제국 시기에 집필된 라시드(拉施特, Rashid al-Din)의 『집사(集史)』, 주베이니(志費尼, Juvayni)의 『세계정복자사(世界征服者史)』 등 몇 부의 역사서에 일부 기재되어 있다. 이런 역사서들을 통하여 우리는 아르군이 오이라트 부족의 영향력 있는 역사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라시드의 『집사』 오이라트부지(部紀)에서는 아르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료 1]

이란과 투란(土蘭) 지역에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오이라트 부족 출신의 아미르가 많았으나 그들이 속한 지파는 알지 못하는데, 오직 그들 서로 간에는 자신의 출신을 알고 있었다. 그들 중에 아미르 아르군 아카가 있는데 (그의) 출신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말하기를, 우구데이 카안 때에 그(아르군)의 부친이 흉년에 그를 잘라이르(札刺亦兒, Jalayir) 부족의 아미르 일루게 카단(亦魯格 - 合丹)에게 팔아서 소다리 한 짝을 받았다고 한다. 이 아미르는 우구데이 카안의 옆에서 그를 모시는 스승이었다. (일루게가) 자신의 한 아들을 우구데이 카안의 친위대인 케식(怯薛, kheshig)에 보낼 때 아르군 아카도 같이 보냈다. 영리한 그는 점차 지위가 높아졌으며 승진을 거듭하여

1 本田實信, 『モンゴル時代史研究』, 東京大學出版社, 1991, pp. 101-127.

이란의 국정을 장악하였고 바스카(巴思哈, basqaq)의 직까지 올랐다.²

『집사』 잘라이르부기(部紀)에도 역시 아르군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다.

[사료 2]

이르기를, 아르군의 아버지는 가난하고 굶주리던 때에 아미르 아르군을 일루게 노얀(亦魯格那顏)의 아버지 카단(舍丹)에게 팔아 소다리 한 짝과 바꾸었다. (카단이) 자신의 한 아들을 우구데이 카안에게 보내어 친위대로 삼게 할 때에 아미르 아르군을 이 아들에게 주어 호위병으로 부리게 하였다. (아르군은) 그의 노복이 되었다. (아르군이) 총명하고 사리에 밝고 말도 잘하였기에 그의 사업은 크게 성공하였으며 그의 지위는 그 동년배들을 뛰어 넘었다.

이상의 두 가지 기록에서 아르군의 출신과 성장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록 중의 일부 구체적인 인명이 조금 다르게 나옴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 1]에서는 “아미르 아르군의 아버지가 아들을 잘라이르 부족의 일루게 카단에게 팔았다” 라고 나오지만, 예 2에서는 이 사람에 대하여 “일루게 노얀의 아버지 카단” 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기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사실에 근접한 것일까? 우리는 이에 대하여 더 자세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어찌 됐든, 이상의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는 아르군의 출신 부족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도 파악할 수 있다.

아미르 아르군의 출신에 관한 기록은 이 밖에도 몽골제국 시기에 편찬된 다른 역사서들 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베이니의 『세계정복자사』는 아르군의 역사 사적을 기록한 또 다른 중요한 역사서이다. 이 책은 비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아르군의 후라산에서의 역사적 활동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출신과 가족에 관해서는 그리 상세한 내용을 남기지 못하였다. 아르군의 출신과 가족 상황에 대하여 『세계정복자사』는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료 3]

아미르 아르군, 그는 오이라트 부족 사람이며 부친 타이추(太出)는 천호(千戶)였다.³

여기서 우리는 아르군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천호” 였다는 것 또한 알게 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집사』의 기록에 따르면, 오이라트 부족으로 구성된 천호는 넷이 있었다⁴. 하지만 이 네 명의 천호에 관하여 역사서에서 상세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집사』에서도 아르군에 대하여 위의 두 기록을

2 라시드 편찬, 餘大鈞 周建奇 번역, 『史集』 제1권 제1분책, 商務印書館, 1992, p.197.

3 주베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 (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603.

4 라시드 편찬, 餘大鈞 周建奇 번역, 『史集』 제1권 제2분책, 商務印書館, p.368.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 다만 아르군의 자손에 대한 기록은 『집사』에 자세히 적혀 있다.

[사료 4]

그의 아들들로는 케레이 말릭, 타리아치, 노루즈, 락지, 핫지, 울 쿠틀룩, 불독과 오이라타이가 있었고 손자들로는 쿠렉 등 여럿이 있었다. 그는 딸도 많았다. 그는 여러 딸들을 군주와 아미르들에게 시집 보냈다. 그의 아들 노루즈와 락지는 칭기스 칸 가문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부마가 되었다.⁵

아르군이 우구데이 카안의 궁정에 들어간 후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역사 문헌들에서 상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세계정복자사』 중의 다음과 같은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는 아르군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

[사료 5]

그는 젊었지만 칸의 궁전에 파견되었고 비틱치(必闕赤)로 임용되었다. 칸은 날이 갈수록 그를 더욱 중용하였고 젊을 그를 카반(舍班)과 함께 키타이에 파견하여 중요한 임무를 집행하게 하였다. 키타이에 머무는 기간 그는 칸의 접견을 받았으며 거기에서 충분한 신뢰를 얻어 칸의 명을 받들고 에드구 티무르(額得古鐵木爾)와 쿠르구즈(闊兒吉思)의 안전을 심사하게 되었다.⁶

에드구 티무르는 쿠르구즈가 조정에서의 지위가 견고하여지기 전에 선수를 쳐서 그의 활동을 칸 조정에 알리려고 하였다. 하여 에드구 티무르는 통쿠즈(通忽思)를 추천하여 칸의 궁정에 들어가 쿠르구즈에 대해 각종 비방과 모함을 하게 하였다. 친카이(鎮海)를 모함하고자 하는 무리들도 그가 없는 틈을 타서 이런 모함들을 이용하여 칸에게 상주를 하였다. 그 결과 아미르 아르군과 쿠르부카(忽兒巴哈, Qurbaqa) 및 샴스 앓 딘 카마르카르(苫思丁·迦馬格爾, Shamas-Din Kamagar)가 칸의 명을 받고 이 안전을 심사하러 가게 된 것이다.⁷ 위의 기록에서 알수 있듯이, 아르군은 우구데이 카안의 궁정에 들어간 후 비틱치란 직무를 담당했었는데 이는 『집사』에 실린 예 1, 예 2의 내용과 부합한다. 하지만 에드구 티무르와 쿠르구즈의 분쟁 속에서 그는 자르구치(札兒忽赤, 심판관)의 신분으로 등장하였다. 몽골제국 시기 비틱치와 자르구치는 직무상 기능이 아주 유사하였으므로 필자는 아르군이 우구데이 카안의 궁정에서 비틱치와 자르구치 두 직무를 겸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5 라시드 편찬, 餘大鈞 周建奇 번역, 『史集』 제1권 제1분책, 商務印書館, p. 198.

6 주베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 603.

7 주베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p. 89-590.

2. 몽골고원과 후라산을 오간 아르군

칭기스 칸이 서부 정벌을 마치고 몽골초원에 돌아간 후 잘랄 앓 딘(札蘭丁)은 인도로부터 후라산으로 돌아와 일부 도시를 다시 점령하고 몽골의 통치에 대한 치열한 저항 운동을 개시해 나갔다. 이로 인하여 초르마군(綽兒馬渾)이 우구데이 카안의 명을 받들어 대군을 이끌고 잘랄 앓 딘과 접전하게 되었다.

칭기스 칸의 몽골군이 후라산 지역을 점령하였을 당시, 주치(朮赤)는 친 티무르(青帖木兒)를 이 지역의 장관으로 임명했다. 초르마군이 도착하자 친 티무르는 우구데이 카안의 명령대로 초르마군과 함께 잘랄 앓 딘을 공격하여 해당 지역을 수복하였다. 그 후에 초르마군과 친 티무르 사이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지휘권을 쟁탈하기 위한 갈등이 있었고 우구데이 카안은 명령을 내려 친 티무르에게 지휘권을 넘겨 주었다. 그리하여 친 티무르는 몽골제국이 후라산 지역에 임명한 첫 번째 아미르가 되었다.

친 티무르는 후라산의 각 지역에 관리들을 파견하여 통치를 강화하였고 현지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한층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친 티무르가 죽자 노살(諾撒耳)이 그를 대신하여 아미르가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몽골 통치자 내부 및 몽골 통치자와 현지 관원들 사이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지방 장관의 권력이 점차 팽창되어 제국에 속해야 할 재정 수입마저 지방 장관의 수중에 장악되어 버렸다. 이는 몽골 통치자들에게 상당한 고민거리가 되었다.

어떻게 해당 지역에 대한 몽골 대칸의 관리와 통치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 작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지가 제일 시급한 문제였다. 이를 위하여 쿠르구즈는 아미르로 부임한 후 호구조사, 세금 징수 재정비 등 조치를 취하여 상술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고 후라산과 마잔다란(瑪璆答而) 등지의 통치 질서를 회복하였다. 하지만 이때 친 티무르의 아들 에드구 티무르와 쿠르구즈가 이 지역의 지휘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각자 대칸 궁정에 가서 상대방을 비방했다. 대칸은 아르군에게 이 안건을 접수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쿠르구즈의 승소로 마무리 짓게 되었다. 쿠르구즈는 승소 후 계속하여 아미르를 담당했고 아르군을 후라산에 데려왔다. 아르군은 후라산에 온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몽골고원으로 파견되었다. 얼마 후 쿠르구즈는 칭기스 칸 황금씨족 성원 사이에 언쟁이 화근이 되어 사형에 처해졌고 투레게네(脫列哥那) 카툰(哈敦)은 오희수(烏滸水, 현 아무강)로부터 파르스(法兒斯, Fars), 그리고 그루지아(谷兒只), 룬(魯木) 및 모탑리(毛塔里) 등 지역의 통치권을 아르군에게 맡겼다⁸.

몽골고원에서 후라산으로 돌아온 아르군은 야를릭(札兒里黑, yarligh : 칙령)을 선포하고 각 지역의 장관을 임명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초르마군과 바이주(拜住) 등이 후라산에 부임한 후 전란을 틈타 이 지역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만들었다. 특히 우구데이 카안이 세상을 뜬 뒤, 여러 왕들은 제각기 지방을 차지하고 자기 지역에서 사사로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마음대로 야를릭과 명패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모두 해당 지역에 혼란을 조성하였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아르군은 신속하게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감세 정책을 취함으로써 현지인들의 지지와

8 주베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604.

옹호를 받았으며 전에 몽골의 통치를 반대하던 자들도 잇달아 아르군에게로 와서 귀순하였다.

구육 칸이 즉위하자 아르군은 다시 몽골 대칸의 궁정에 가서 구육 칸을 알현하였고 구육 칸은 그에게 호두패(虎頭牌)와 아를릭을 하사하였다. 몽골고원에서 후라산으로 돌아온 아르군은 각지를 돌아 다니면서 각종 궁전과 원림을 적극 건설하여 현지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때 그의 이런 행동을 반대하는 몽케보라(蒙哥孛剌)가 몽골고원에 가서 구육 칸 앞에서 아르군을 모함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아르군은 직접 궁정에 가서 자신을 변호하려 하였으나 마침 구육 칸이 세상을 뜨고 엘지기데이(宴吉只帶, Eljigitei)가 곧 후라산에 주둔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아미르 흘신(忽辛)만을 칸의 오르도(斡耳朵, 행궁)에 파견하고 자신은 후라산에 남게 된다.

아르군이 엘지기데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군량과 마초 등 군수물자를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왕들의 가렴잡세와 엘지기데이의 과도한 군비 요구는 현지 백성들이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아르군은 또 다시 직접 대칸 궁정에 가서 현지 상황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고하였다. 아르군은 조정에서 몽케보라와 첨예하게 논쟁을 펼쳤으나 승리를 거두게 된다. 후라산에 돌아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 대 쿠릴타이(大忽里台)에 참가하여 몽케 칸을 찾아 뵙고 그에게 후라산 등 지역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실히 보고하였다. 이를 들은 몽케 칸은 명령을 내려 아르군에게 책임지고 후라산 등지에서 토지와 호구 조사를 진행하고 세금 징수를 강화하게 하였다.

홀레구(旭烈兀)가 이란에 도착했을 때 아르군은 직접 영접하러 나갔고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얼마 후 아르군은 홀레구의 명령에 따라 또 한 번 몽골 대칸의 궁정에 파견되었으며 몽케 칸에게 현지 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렸다. 아바카(阿八哈) 칸 통치 시기 그는 계속하여 각 지역의 세무 사업을 주관하였다. 바락(八剌)이 일 칸국을 침략하자 그는 일 칸국의 좌익군을 이끌고 싸웠으나 패하였다. 1275년, 아르군은 투스(圖思) 근처의 라다칸(刺忒罕)의 땅에서 죽었으며 그 지역에 묻혔다.

3. 아르군이 후라산에서 진행한 호구조사 과정과 의의

몽케 칸을 알현할 때 아르군은 후라산 등지의 조세와 기타 잡세의 징수 과정 중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들을 사실대로 보고하였고, 아르구치(牙魯瓦赤)가 하중(河中) 지역에서 실시했던 세금징수 방식을 참고하여 징세하여야 한다는 건의를 올렸다. 『세계정복자사』에서는 아르구치가 하중 지역에서 실시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따로 상세한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책의 하권 중 「아미르 아르군이 대 쿠릴타이에 참가하다」라는 장의 내용을 통하여 그 일부 내용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사료 6]

그들의 결론의 요지는,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각종 조세와 가렴잡세가 너무 많으니 백성들이 도망가는 것은 이 때문이니 조세 징수에 관하여서는 야르구치가 하중 지역에서 실행한 방법을 참고하여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이른바 쿵추르(忽卜綽兒, qupchur) 세로, 이 방법에 따르면 각 사람이 해마다 납부하는 세금은 그의 재산과 납세 능력에 의하여 결정되며 일단 정해진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그 해 동안에는 다시 징수할 수 없으며 기타 다른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 수도 없었다. 이 방법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⁹

이상의 기록을 통하여 추측하건대 “이 방법에 따르면” 뒤에 기록된 징세방법이 바로 야르구치가 하중 지역에서 실시했던 구체적인 조세 징수 방법 즉 쿵추르(忽卜綽兒, qupchur) 세와 연관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이 방법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하여 아르군 등 사람들이 후라산 지역에서 야르구치와 똑같은 징세방법으로 조세를 거두어들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아르군은 위의 결정을 몽케 칸에게 보고하였고 몽케 칸은 의견을 듣고 나서 다음과 같은 성지를 내렸다.

[사료 7]

부유한 자 하나는 한 해에 열 디나르의 세금을 바치고, 이 비율에 따라 점차 금액을 낮추어 가난한 자는 한 해에 한 디나르의 세금을 바치도록 하며, 이렇게 징수된 세금은 전부 군역(hashar)와 역참(yams)과 사신들의 생활 소비(ikhrājāt)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외에는 백성들의 삶에 지장을 주거나 불법적으로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더 징수해서는 안되며 뇌물을 받는 것은 더구나 안된다. 그리고 모든 구체적 상황과 변화에 대비하여 상응한 범규(札撒)를 하나씩 제정하였다.¹⁰

위에 나오는 몽케 칸의 성지 내용으로 볼 때, 그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하여 차등 있는 징세 방법을 취하게 한 부분은 분명히 아르군의 건의를 채택한 것이었다. 동시에 몽케 칸은 해당 지역의 최고 권력을 아르군에게 부여하였고 아르군의 누케르(那可兒)들과 기타 지방 관원들도 임명해 주었다.

몽케 칸을 알현하고 후라산으로 돌아온 후, 아르군은 대칸의 명령을 성실하게 집행하였으며 각지에 파견하였던 아미르와 비틱치들을 새로 임명하였으며 토론을 거쳐 징수해야 할 “쿵추르”의 구체적 금액을 결정하였다.

[사료 8]

그리고 성지에 따라 아미르와 서기관들을 임명하였고 그들은 연일 모여서 징수하여야 할 쿵추르의 금액 규정문제를 놓고 토론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를,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열 사람 당 한 해에 칠십 노극니 디나르(魯克尼的那)의 세액을 징수하기로 하였다. 그(아르군)는 이때에

9 주베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615.

10 주베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615.

아미르와 서기관들을 파견하여 호적과 콥추르를 편성하였다. 후라산과 마잔다란 지역에서, 그는 세 명의 몽골인 아미르를 제왕을 대신하여 파견하였고, 또 자신의 친척 나쿠(腦忽), 우룩(兀魯忽)의 비티치 하파하르 웃 딘 비히시드(哈法合魯丁·比希昔楊)와 승상 예수드 타히르(也速惕·塔希耳)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하여 (그의) 대변인으로 삼았다. 그는 나이만타이(乃蠻台)와 나의 부친 사시바이디완(撒希伯底萬)을 이라크와 예즈드(耶茲德)에 파견하였으며 [중략]… 또 도르마타이(禿魯麻台), 살리카 부케(撒里合不花)와 말릭 샷드르 웃 딘(蔑力克撒都魯丁)을 파견하여 타브리즈(帖必力思)의 환관(火者) 마이주드 웃 딘(麥朮督丁)의 협력 하에 호구조사, 천호의 획분과 콥추르의 징수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중략]… 그는 이때 타르반(打耳班)을 거쳐 그루지아(谷兒只), 아란(阿蘭), 아제르바이잔(阿哲兒拜占)으로 가서 호구조사, 콥추르, 세금 징수의 업무를 완수하였으며 그 후에는 이라크로 갔다.¹¹

상기의 내용들은 아미르 아르군에 후라산 등지에서 진행한 호구조사의 과정과 콥추르의 금액 규정 등 구체적인 상황들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번 호구조사는 후라산, 마잔다란, 이라크, 예즈드, 그루지아, 아란과 아제르바이잔 등지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호구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한 뒤에 위에서 언급한 세금 정액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징수한 세액이 현지 주민들의 감당 능력을 초과하여 몽골의 서아시아 통치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아미르 아르군의 일련의 조치들은 현지 주민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몽골의 통치를 견고하게 다지는 등 여러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르군이 진행한 호구조사가 완수될 무렵, 훌레구가 이란에 도착하였으며 아르군은 케쉬(碯石)에서 그를 알현했다. 이후 그는 훌레구의 위임을 받아 또다시 몽골고원에 파견되어 대칸에게 현지 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조정에서 아르군은 후라산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신들과 논쟁하여 이김으로써 몽케 칸의 신임을 얻었다. 바로 이 시기에 몽케 칸은 후라산의 여러 지역들을 자신의 친척과 동생들에게 나누어주게 된다.¹²

몽골고원에서 자신의 고장으로 돌아온 아르군은 아란에 가서 훌레구를 만났고, 훌레구는 그를 그루지아(지금의 조지아)에 파견하여 또 한 번의 호구조사를 진행하게 한다.

[사료 9]

아미르 아르군은 지금 아란 지역에 있는 훌레구를 만나러 갔다. 거기에 도착하여 보고를 올린 뒤, 그는 그루지아에 가서 호구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주민들을 나누어 천호로 삼았다. 먼저 번에 정한 콥추르는 열 명 당 칠십 디나르를 거둔다고 정하였으나 군역과 역참과 역마의 비용과 군대의 소비가 예산을 초과하여 당시 규정된 콥추르로는 지급하기가 어려웠다. 하여 초과된 부분은 원 금액의 비율에 따라 추산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중략]… 아르군은 이런 상황을 위에 보고하였으며, 명령에 따라 부유한 자의 콥추르를 오백 디나르로

11 주베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p. 617-619.

12 주베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 620.

다시 규정하고 상응한 비율에 따라 점차적으로 금액을 낮추어 가난한 자의 한 디나르에까지 이르도록 조절하였으며 이로써 비용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치를 취하고 나자 호구조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었다.¹³

위의 기록에서 알수 있듯이, 이번 조사 중에서 아르군은 호구를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을 나누어 천호로 삼고 콥추르의 금액을 다시 조정함으로써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세수 정책을 실시하였다.

아미르 아르군이 주관하였던 이상의 지역을 기초로 하여 후일에 일 칸국이 건립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훌레구를 시작으로 하는 일 칸국의 통치자들은 천호제 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현지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효율적인 통치를 실현하였다. 하지만, 사실상 현지에서 최초로 호구조사를 진행하고 천호제를 실시한 것은 아르군이었다. 다시 말하여 몽골제국이 이란 등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통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아르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아르군의 역사 사적들과 역사적 역할에 대하여 더 깊은 연구와 더 많은 논의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 주베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p. 621-622.

지정토론

아미르 아르군 및 그가 후라산 등지에서
진행한 두 차례 호구조사

[질문자 : 에르둔바토르, 답변자 : 초그트]

——에르둔바토르

내몽골대학의 에르둔바토르입니다. 초그트 선생님께서는 논문에서 아르군에 관해 상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확실히 아르군은 몽골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그트 선생님이나 혼다(本田実信) 선생님께서는 이 과제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거듭해오셨습니다. 실은 원(元)의 몽케 칸(蒙哥汗) 시대, 쿠빌라이 시대 이전에 유라시아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선 연경(燕京) 즉 현재의 중국 북방지역 그리고 비슈발리크(別失八里) 즉 현재의 신강(新疆) 위구르 자치구, 또 현재의 이란과 아프간 등지가 몽골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들 서쪽 지방의 지배권력을 장악한 것이 바로 아르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군이라는 인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초그트 선생님 논문에도 쓰신 것처럼, 아르군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아르군이 이르칸 국(國)에 원정을 갔을 때도 자식들을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르군 일족은 이르칸 국(國)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오이라트, 명나라 때 ‘와라(瓦剌)’라고 불렸던 민족에 관한 것입니다. 몽골 역사상, 특히 원(元)대에 들어와서, 중원에 대한 지배가 끝난 후부터 오이라트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몽골인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오이라트인은 이르칸 국(國)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요? 페르시아어로 된 사료에 기록이 많은지요? 이상입니다.

——초그트

내몽골대학의 초그트입니다. 아르군 가족에 대해 라시드 웃딘이라는 사람이 쓴 『집사(集史)』의 기록에 의하면, 아르군에게는 8, 9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도 몇 명 있었는데 그 중 아들 둘이 징기스 칸 일족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뉴르스라는 인물은 아르군에 이어 이르칸 국(國)의 정계 거물로서 정치집단까지 만들었습니다. 몽골족이 이란으로 가서 이르칸 국(國)을 세웠습니다만, 당시 몽골의 각 부족들은 서로 다른 정치세력으로 나뉘어 권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친칸(親汗)파, 반칸(反汗)파가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서 뉴르스라는 사람의 세력이 매우 컸습니다. 이르칸 국의 역사에 잘 등장하는 인물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르군 일족은 이르칸 국에서도 매우 큰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징기스 칸의 친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이라트족의 이르칸 국에서의 지위에 관해 말씀 드리자면, 아마도 그다지 영향력 있는 인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료는 지금으로서는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모(志茂碩敏) 선생님께서 자세히 연구 하셨는데 역시 아르군 외에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논문 3



‘몽골습래회사(蒙古襲來繪詞)’를 해석한다.

- 두 가지 발문(奥書)의 검토를 중심으로

하시모토 유

(橋本雄, 홋카이도 대학)

요지

가마쿠라(鎌倉) 후기에 발생한 몽골 침입에 관한 사료는 의외로 적다. 그 중에서도 이 전쟁에 참가한 히고구니(肥後国, 현재의 구마모토 현)의 고케닌(御家人)이었던 다케자키 스에나가(竹崎季長)가 그리게 했다는 「몽고습래회사(蒙古襲來繪詞)」(궁내청 소장)는 두 번에 걸친 전쟁을 생생하게 묘사한 매우 드문 역사자료로 알려져 있다. 즉 몽골 전쟁의 기본 사료의 하나로서 이 두루마리그림(繪卷)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 작품이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은 에도시대 간세이(寛政) 연간(19세기 초)의 수리와 성권(成眷)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 두루마리그림에는 착간(錯簡)과 개변(改変)이 많아서 간세이의 수리에서 적지 않은 가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하나뿐인 ‘발문’(奥書, 권말의 작성취지서)이 두 개나 존재한다는 것 외에도 용지 종류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 등 의문투성이의 두루마리그림이다.

따라서 본 작품을 역사 연구의 측면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면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회화 작품이라 하더라도 본 두루마리그림이 원래의 실제 모습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 본 작품의 모습에서 순수하게 역사적 사실을 추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두루마리 그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면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두루마리그림의 성립에 얽힌 작성자의 의도와 목적, 현장에 대한 상상적 복원, 최근의 몽골 전쟁 연구와 두루마리그림 자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규명해 본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몽골 전쟁의 표상론에 대한 범 아시아사적 단서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시작하며

가마쿠라(鎌倉) 후기에 발생한 몽골 침입(蒙古襲來)에 관한 사료의 수집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이 전쟁에 참가한 히고구니(肥後國, 현재의 구마모토현)의 고케닌(御家人) 다케자키 스에나가(竹崎季長)가 제작했다고 하는 통칭 ‘몽골습래회사(蒙古襲來繪詞)’(궁내청 산노마루 쇼조칸, [宮内廳三の丸尚藏館] 소장)는 두 차례의 전쟁을 생생하게 묘사한 보기 드문 역사자료·회화자료로 유명하다. 몽골 침입 관련 기본사료의 하나로서 이 그림(繪卷)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며, 이는 이미 학계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회화 작품이 언제나 그렇듯이, 박력있는 이 그림도 처음부터 실제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밑그림[粉本]·본을 뜬 종이[型紙]의 이용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점을 분별하면서 구축주의(構築主義)적으로 본 작품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이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은 에도시대 간세이(寛政) 연간(19세기초)의 수리(修理, 수정)와 성권(成卷, 두루마리로 완성됨)을 거쳐서이다. 또한 이 그림에는 착간(錯簡, 차례가 잘못 됨)과 개변(改變)이 많아서, 간세이 연간의 수리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가필(補筆)과 개작(改作)이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그 가장 전형적이고 구체적인 예가 아래에 표기한 장면일 것이다(그림 1). 3명의 몽골병에 맞서서 피를 흘리는 말 위의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그것이다. 그의 머리 위 주변으로 ‘철포(鐵炮)’(『金史』에 보이는 ‘진천뢰[震天雷]’ 일까?)가 작렬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왼쪽에는 일본 병사가 쏜 화살을 피하려고 갈팡질팡하는 몽골 병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장 인상적인 이 몽골병사 3명이, 종이 연결 방법을 분석하고 적외선 사진으로 분석한 결과, 이 그림의 원본이 작성될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나중에 가필된 부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佐藤鉄太郎·太田彩). 또한 흔히 주목 받는 ‘철포’ 자체도 그림을 그린 시기는 둘째치고 후대에 그려넣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佐藤鉄太郎). ‘철포’를 그린 시기는 차치하고 이 장면은 다른 이야기에 나온 부분을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해 종이의 순서를 바꿔 넣어서 제작한 것이다.

* 최근에 핫토리 히데오(服部英雄) 씨는 3명의 몽골병사가 이 그림과 같은 시기에 그려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필치의 정교함은 공방(工房) 주인이 희대의 역사적 사건을 혼신의 힘을 다해 그렸기 때문이라고 보며, 또 종이 이음새 부분에 걸쳐서(다소 후대에, 혹은 다른 필적으로) 그려진 것은, 통상 두루마리그림(繪卷)에서는 종이 한 장마다 그림을 그리고, 각각의 그림을 이은 다음에 종이에 걸쳐서 그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논자들이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림 속의 3명의 몽골 병사의 모습은 주위의 몽골 병사와 닮은 듯 하면서도 닮지 않았다. 이론(異論)도 있겠지만, 동일한 공방에서 그렸을 개연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또한 두루마리그림은 대개 몇 장의 종이를 이은 다음에 설명문과 그림을 적거나 그려 넣는다(이는 실제로 두루마리그림의 실물을 직접 보면 알 수 있다 - 덧붙여, 본 발표자는 2017년 5월 산토리미술관의 ‘에마키 매니어 열전(繪卷マニア列傳)’ 전시회에서 이런 점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였는데, 예외없이 먼저 일정한 장수의 종이를 이어붙이고 나서 문장과 그림을 넣었음을 확인하였다). 종이를 이어붙이고 나서 다른 필치로 그림이 그려졌어도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논법은 쉽사리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림 1〉 규슈 국립박물관
개관기념 특별전
팸플릿에서 전제



〈그림 2〉 규슈 국립박물관 개관기념 특별전 팸플릿에서 전제

위의 [그림 1]의 장면을 오타 아야 씨와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씨의 견해를 바탕으로 ‘복원’ 해 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철포’는 일단 남겨 놓았지만, 제작 당시에는 그려져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즉 도망가려고 갈팡질팡하는 몽골병사들을, 다케자키 스에나가와 함께 종군한 매형 미쓰이 스케나가(三井資長)—오히려 스에나가는 사실상 스케나가의 부하였던가(石井進의 견해)—를 필두로, 말을 타고 활을 쏘며 뒤쫓아가는 구도가 본래의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이 작품의 모습에서 역사적 사실을 소박하게 읽어내기란 부적절하고 불가능하다. 또한 이 그림의 물리적인 부자연스러움도 일일이 지적할 여유는 없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선학들에 의하면, 종이 종류와 번짐 방지의 유무 등도 연관되지 않는다. 설명문과 그림을 표현하는 붓놀림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술한 지적이 있다. 요컨대 이 그림은 여러가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는 회화 사료인

것이다. 게다가 이 작품에 관한 선행연구는 극도의 폭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앞으로도 주도면밀한 사료 비판을 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그림을 완벽한 역사 사료로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본 발표는 이러한 외견상의 그림·필적 분석과는 과감히 선을 긋고자 한다. 또한 근래의 몽골 전쟁 연구의 진전—특히 몽골제국사 연구와 다카시마(鷹島, 현재의 나가사키현 마쓰우라시 [長崎県松浦市])에서 침몰한 몽골 군선(軍船)에 관한 수중 고고학의 진전—에 대해서는 다른 보고와 논저에 양보하고, 이 그림이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기까지의 전제조건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그림의 전체적인 이해의 관건인 ‘발문(奥書)’에 논점을 집중시켜 그 역사적 성격을 추출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몽골습래회사’에는 대개 하나 밖에 없는 ‘발문’(권말에 첨부된 작성취지 기록)이 두 개나 있고, 이것이 반드시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수수께끼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본 발표 제목에 비해 양두구육의 느낌은 있지만 우선은 발문 A·B의 분석에 주력하는 것으로 본 발표에 대한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추후 연구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그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사료비판을 빼놓을 수 없다. 그 대전제로서, 발주자의 의도와 화가의 세계관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현재의 이 작품에 덧씌워진 베일을 차례로 벗겨내는 작업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 모든 시도를 다 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제 설정을 한정하는 바이다. 이러한 작업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몽골 침입(蒙古襲來)의 실상·실태를 조명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여기로부터 몽골 전쟁의 표상론이라고 할, 이미지 세계의 범아시아사로 확대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 하겠다.

1. '몽골습래회사'의 해석을 위하여

(1) 그림(繪卷)의 개요 설명

우선 ‘몽골습래회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둔다. 본 발표의 제목에서는 알기 쉽게 편의적으로 통칭인 ‘몽골습래회사’로 표기하였지만, 본 작품의 주인공으로 그의 활약을 그린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두루마리그림(繪卷)’, 즉 ‘다케자키 스에나가 에마키(竹崎季長繪卷)’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유력하다. 발표자도 실제로는 후자에 가까운 입장이지만 일단 결론은 유보해 두기로 한다.

현재 궁내청 산노마루 쇼조칸(宮内庁三の丸尚蔵館)에 소장된 원본은 현재, 상하(전후) 2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의 주인공으로, 발주자(제작의뢰자)로 생각되는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집안에서 유출되어, 여러 단계를 거쳐 구마모토(熊本)의 오야노(大矢野) 가문이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1825 년에 구마모토 번주(藩主) 호소카와(細川) 가문에 맡겨져 에도에 전해지면서 다수가 무사 가문(武家)에 알려지게 되었다(예: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의 열람·모사→「악옹본(楽翁本)」제작). 그 후 근대에 와서 1890 년(메이지 23 년), 임시 전국 보물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원본 소유자인 오야노 가문으로부터 본 작품을

구입해서 궁내청이 소장하게 되었다. 현재, 황실 보물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산노마루 쇼조칸 소장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 또한 아마쿠사(天草) 출신인 오야노 가문은 분로쿠·게이쵸(文祿・慶長) 시기(1593~1615)에 히고(肥後) 남부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편에 합세하였고, 그 뒤 서군의 고니시 가문이 세키가하라(關ヶ原) 전투에서 패하자, 히고 일국(一國)을 영유하게 된 가토(加藤) 가문에 편입되었다(다마나군 시모나가타 무라[玉名郡下長田村]에 영지를 갖게 되었다). 가토 가문이 교체된 뒤에는 호소카와 가문의 가신이 되었고, 다마나 군에 거점을 두게 되었다.

작품(繪卷)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전권(前卷=上卷)은 세로 40.3cm×가로 2450.6cm, 후권(後卷=下卷)은 세로 40.2cm×가로 2111.8cm이다. 순서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보통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전권은 글 1(詞一)에서 글 9(詞九), 그림 1(繪一)에서 그림 10(繪十)까지이고 후권은 글 10(詞十)에서 글 16(詞十六), 그림 11(繪十一)에서 그림 21(繪二十一)까지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실로 장대한 두루마리그림이다. 다만 과거에는 3卷으로 구성된 적도 있고, 또 전권과 후권이 뒤바뀌거나 착간(錯簡)·삭제(刪除)가 있거나, 종이 질과 크기가 제각각이고, 나중에 상술하겠지만 일부 그림의 설명문(詞書)과 그림을 다른 곳에 둔 적도(오야노 가문에 감춰져 있었다) 있고 해서, 제작 당시의 상태를 복원하기는 매우 어렵다. 게다가 사료 연구에 관한 축적도 방대하다. 예를 들면 적어도 같은 작품이 두 개(정본·부분) 제작되었다는 설이 제기되었는데, 나름대로 유력한 설이지만 과연 두 개만 제작되었을까? 세 개가 제작되었다는 설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2) ‘몽골습래회사’ 그림(繪卷)에 대한 연구 시각과 과제

이러한 그림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繪)과 글(詞, 설명)로 구성된 작품 전체의 세부는 물론, 보통 권말에 놓이는 발문(제작의도를 적은 기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는 작품 전체를 통해 세밀한 부분에 주목하는 관점 내지는 방법이고 후자는 작품 전체를 대상화하여 평가하는 거시적인 관점과 관련된다. 에마키(繪卷, 두루마리그림) 연구는 전자와 후자의 치밀한 검토와 양자의 왕복·접합에 의해 진전된다는 사실은 부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만, 착간(錯簡)과 개찬(改竄), 보필·가필 등이 많은 본 작품에 한해서 말하자면, 우선 후자의 전체적 파악을 우선하고 그 뒤에 전자의 세밀한 부분의 개변을 해석해 나가는 순서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 그림이 현재의 모습이 되는 과정의 해명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베일을 하나씩 벗겨냄으로써 제작 당시의 모습에 근접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밀한 부분의 분석을 통해 본래 그림의 모습에 다가가는, 혹은 그림의 ‘실증성’을 높이는 연구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글 2(詞二)의 착간 분석을 중심으로 다케자키 스에나가 등의 진군 경로를 해명한 호리모토 가즈시게(堀本一繁)의 연구 등이 주목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그림에는 발문에 해당하는 글(詞)이 두 개나 남아 있다. 이를 편의상 순서대로 A(글 = 詞 15)와 B(글 = 詞 16)로 나누어 부르기로 한다. ‘에이닌(永仁) 원년(元年) 2월 9일’(永仁 元年 = 1293년)이라는 같은 날짜인데도 각각 다른 필치로 전혀 다른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A에서는 ‘아다치 야스모리(安達泰盛)의 일’이라고 적고, 야스모리가 ‘곧바로 문서(御下文)를 발부하고 말(御馬)을 내어 준 것은 스에나가 단 한명 뿐’이라고 한 것처럼, 고케닌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가이토고(海東郷)의 지토(地頭) 직에 임명될 때에 가마쿠라에서 신세를 진 아다치 야스모리(安達泰盛)에 대해 진혼을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B에서는 스에나가가 귀의하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고사사(甲佐社の大明神)에 대해 감사하여, 바로 가이토고(海東郷)의 지토(地頭) 직을 맡게 된 것에 감사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사(甲佐)의 대명신(大明神)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사단(社壇)의 동(東)쪽 벚나무 가지에 앉았는데, 이 ‘동(東)’이 곧 간토(關東)를 가리키며, 장차 지토(地頭) 직에 임명되는 ‘가이토’(海東)의 ‘동(東)’과 ‘같은 글자’이므로 —비슷하다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억지스럽지만—스에나가가 관동으로 가서 직소(直訴)할 생각을 하였고 실행에 옮겨(지토직에 임명되는 데에) 성공했다는 줄거리이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에이닌 원년 2월 9일’이라는 날짜 표기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올바르게 표기한다면 ‘쇼오(正応) 6년 2월 9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荻野三七彦의 견해). 에이닌의 개원(改元)은 쇼오(正応) 6년 8월 5일로, 중국·한국처럼 즉위년(零年) 관념이 없던 중세 일본에서는 같은 해(1293년) 8월 5일까지는 쇼오(正応) 연간(1288~1292)이고, 그 이후를 에이닌(永仁) 원년으로 적는 것이 보통이다. 즉 이 ‘에이닌 원년 2월 9일’이라는 표기는 쇼오 6년 2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알 수도 없는 연호의 표기, 말하자면 ‘미래의 연호’인 셈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날짜를 기입한 것은 ‘에이닌’ 개원 이후의 일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이 그림 자체가 분에이(文永)·고안(弘安) 전쟁(1274년, 1281년)을 적어도 10년 넘게 지난 시기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에이닌 원년에서 더 후의 시기로 내려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본 작품의 제작의도를 간파할 수 없으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하게 되는 까닭이다.

* 이러한 그림에는 보통 발문이 첨부되어 연월일도 기재된다. 만약 원래의 ‘몽골습래회사’가 쇼오 6년 당시에 제작된 것이라면 ‘쇼오 6년 2월……’로 표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개찬·개작을 행한 사람은 당연히 그림의 날짜를 그대로 베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그런 까닭에 이 그림 원본(궁내청 산노마루 소조칸 소장본)의 원 상태는 에이닌 원년 이후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발문 A·B 모두 그림과는 별개로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제기(宮次男의 견해)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服部英雄의 견해). 핫토리 씨는 A에 대해 말하기를, 스에나가 그 후에 아다치 야스모리 파와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되며 그래서 이와토 전투(岩門合戦)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또한 B에서는 그림 그 자체에 구마노

센다쓰(熊野先達, 구마노 신사 계통의 수행자·야마부시[山伏])가 등장하는데도(발문에) 아소 신사(阿蘇神社) 계통의 고사샤(甲佐社, 大明神)가 나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나중에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며(또 핫토리 설에 따르면 히고의 구마노 신앙의 거점은 다마나[玉名]에 있으며, 다마나 근처에 위치하는 다케자키[竹崎] 야말로 스에나가 성씨가 유래한 지역이라고 한다), 애초에 가이토고(海東郷)의 지토(地頭) 직을 스에나가가 얻었다는 것은 그림 자체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즉 그림과 발문 B는 대응관계가 없지 않은가 라는 문제제기이다.

다만 A의 필적에는 한자 독음이 표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서체·글자체를 보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글(詞) 9—내용은 글(詞) 2나 글(詞) 7과 상당 부분 겹치며 특히 글(詞) 9는 한자·가나(假名) 사용법의 구별을 두고 있는 것도 글(詞) 7의 서두 부분과 거의 동일하다—와 같은 필적이라고 봐도 거의 틀림이 없다(宮次男氏·小松茂美·太田彩 등). 물론 거기에는 스에나가가 아다치 야스모리 앞에 가서 직소(直訴)하는 장면을 기록하여 그에게서 받은 은혜(恩顧)가 강조되고 있다는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다만 글 7과 글 9의 필적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림(別本)에 수록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문 A를 근거로 스에나가가 반 야스모리 파의 입장을 취하였다는 핫토리의 주장은 현재 그림의 전체구성에서 보았을 때 수미일관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시이 스스무(石井進)는 오사혼입(誤寫混入)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小松茂美도 별본에서 혼입된 것에 불과하다고 간주한다), 이 글(詞) 9를 『중세정치사회사상』(상권)에 수록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시이 설에서는 글(詞) 10이 ‘9’ 번으로 붙여져 궁내청본에 의거한 설명문 번호(통례·통설)와 하나씩 어긋나게 되었다. 즉 발문 A(궁내청본의 글 = 詞 15)는 이시이 번각(翻刻)에서는 ‘14’ 번이 되고 발문 B(궁내청본의 글 = 詞 16)는 이시이 설에서는 ‘15’ 번이 된다. 이 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3명—아다치 야스모리·아다치 모리무네(安達盛宗)·쇼니 가게스케(小式景資, 별명 武藤景資)—은 8대 싯켄(執權) 호조 도키무네(北条時宗)와 9대 싯켄 사다토키(貞時)의 가신(御内人) 중의 으뜸인 타이라노 요리쓰나(平頼綱)의 모략에 의해 몰락했다(1285년 = 弘安 8년의 시모쓰키[霜月] 소동). 특히 야스모리 파의 쇼니 가게스케는 후쿠오카 현에서 벌어진 이와토 전투(岩門合戦, 1284년 = 弘安 7년)에서 당시 후계(家督) 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 쇼니 쓰네스케(小式経資)에게 섬멸당하고 만다(쓰네스케는 필연적으로 반 야스모리 파인 헤이젠몬[平禪門] 쪽에 붙는다). 이 이와토 전투에서 다케자키 스에나가 등, 히고(肥後)의 고케닌 세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사료상 명확하지 않은데, 통설로는 이들 히고 세력은 전투에 참가할 여유가 없었고 야스모리파의 쇼니 가게스케를 돕지 못해 애석해 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한다(川添昭二·石井進). 이를 두고 핫토리 히데오는 스에나가가 당시 이미 반 야스모리 파로 전향했기 때문에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견해에도 명백한 실증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몽골습래회사’ 발문 A·B의 분석

(1) 발문 A와 글 7·글 2·그림 2—오야노(大矢野) 가문의 내력

여기서 본 발표는 에도시대 분세이(文政, 1818~1830) 말기 무렵까지 원본의 글 2와 그림 2가 오야노 가문에 비장된 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堀本一繁의 견해)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글 2에는 ‘당일의 대장’(그 날의 지휘관)인 쇼니 가게스케가 등장한다. 가게스케의 면전에 그림의 주인공인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나아가 선봉 돌격을 완수하면 가마쿠라의 쇼군에게 보고해달라고 가게스케에게 의뢰한다(가게스케는 이를 응낙한다). 이에 대응하는 그림이 아래에 보이는 그림(繪) 2이다(〈그림 3〉). 도판 오른쪽에 위풍당당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쇼니 가게스케인데 글 2와 대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은 사라져버린 원래 그림의 전반부에는 아마도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어느 사본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3〉 ‘몽골습래회사’ 前卷, 그림 2 / 太田彰) 『몽골습래회사』에서 전제

문제는,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스에나가의 모습이다. 글 2에 따르면 선봉 돌격을 너무 서두른 나머지, 하마(下馬)의 예조차 취하지 않고 가게스케의 면전을 지나쳤다고 한다. 아마도 그림(繪) 2의 결손 부분(위에 제시한 도판의 오른쪽)에는 말을 탄 스에나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도판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듯이 이러한 스에나가의 무례함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그림 2의 전반부를 잘라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무례한 태도를 설명하는 글 2가 감춰진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 무가(武家)의 질서와 예절(禮制)에 엄격한 에도시대에는 이런 무례한 장면이 있는 그림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는 것 자체가 책망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었을까?

* 특히 하마의 예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무가의 예법에 크게 저촉되었을 가능성, 혹은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에도시대 무가의 교양서이기도

한 가마쿠라 막부의 정사(正史) 『아즈마 가가미(吾妻鏡)』 지쇼(治承) 5년(1181년) 6월 19일 조항에는 요리토모(頼朝) 휘하의 가스사노스케 히로쓰네(上総介広常)가 요리토모에 대해 하마의 예를 취하지 않은 일이 문제가 되었다. ‘주군’ 요리토모에 대한 히로쓰네의 반항적인 자세는 『아즈마 가가미』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아마도 히로쓰네를 반역자로 간주하기 위한 ‘복선’을 깔았던 것이리라. 그 뒤 히로쓰네는 이른바 ‘동국(東國) 독립론자’로서 요리토모에게 숙청당한다(河内祥輔의 견해). 또한 하마의 예에 관한 중국, 일본 간의 율령 계승 문제에 관해서는 오스미 기요하루(大隅清陽)의 연구가 자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글 2의 내용과 글 7, 글 9의 내용이 거의 중복되고 있음—겨우 5기(騎)밖에 거느리지 않은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당일의 대장’ 쇼니 가게스케에게 자신이 선봉 돌격을 하겠다는 기개를 어필하고 있다—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글 7·글 9에는 스에나가가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언급이 일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을 추리하기 위해서도 설명문(詞書)의 서술 방식에 주목해보자. 그러자, 글 2는 앞부분이 빠진 것이 아니라, 하카타(博多)에서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당일의 대장’ 쇼니 가게스케에게 선봉 돌격시도를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즉 전쟁 현장·당시의 발언 기록이다.

이에 비해 글 7·글 9는 1275년, 겐지 원년(建治元年)에 스에나가가 가마쿠라에 도착하면서부터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여 겨우 온쇼부교(恩賞奉行)인 아다치 야스모리의 면전에서 직소했을 때의 발언으로부터 기술이 시작되고 있다. 과거의 일을 회고하면서 주장할 때에, 전술한 예의 ‘당일의 대장’ 운운하는 문구가 충실히 재현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직소 문언(文言) 가운데 스에나가가 쇼니 가게스케에게 하마의 예를 취하지 않았다는 언급은 일체 없다. 아무리 선봉 돌격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래대로라면 무가(武家)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 글 9(발문 A와 같은 필체)의 용지 제 43번 종이의 오른쪽 끝에는 소나무가지가 어렴풋이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앞부분 결락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용지에 걸쳐지게 그림을 그려넣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大倉隆二·佐藤鉄太郎). 다만 안타깝게도 글 9는 뒷부분이 결락되어 그 전체 문장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발문 A와 글 9의 존재로 인해 적어도 ‘몽골습래회사’가 두 개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실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복하지만 글 2 및 이에 대응하는 그림 2가 오야노 가문에 감춰지게 된 것도 역시 무리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선봉 돌격’이라는 행군 질서를 어지럽힌 ‘용감한 스에나가’ 이긴 했지만 — 쇼니 가게스케가 하카타 오키노하마(息浜)에서 ‘일제히 교전할 것’이라고 일단 못박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케자키 스에나가는 수하의 군사가 적다는 이유로 ‘선봉 돌격’으로 군공을 세우고 싶다고 자청해서 이를

허락받은 경위가 있다(글 2·글 7·글 9)—상관인 ‘당일의 대장’ 가게스케에게 무례한 태도를 취할 정도로 무례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줄거리로 바꾸어야만 했다. 그 때문에 상기한 바와 같이 은닉·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의 발문 A—아다치 야스모리를 향한 감사의 표명—의 문제로 돌아가면, 이 글 9—쇼니 가게스케에게 하마의 예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한—와 같은 필체인 점이 결정적이다. 즉 오야노 가문은 다케자키 스에나가를 일관되게 아다치 야스모리—쇼니 가게스케 일파로 표현하려 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이것이 자기 집안의 내력을 작성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오야노 가문은 자기 집안의 내력을 다자이 다이켄(大宰大監)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다자이 쇼니(大宰小弐), 즉 무토 가문(武藤家)의 차석·부하에 해당한다. 요컨대 근세의 오야노 가문은 자신의 가문과 쇼니(무토 가문) 사이의 긴밀한 관계성을 강조(각색·날조)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쇼니 가게스케에게 은혜를 입은 다케자키 스에나가를 이른바 매개체로서 발견하고 이용한 것이 아닐까?

두 번째로 오야노 다네야스(大矢野種保) 등 형제 3명이 1281년 제 2차 몽골 전쟁(弘安의役)의 해전에서 다케자키 스에나가와 함께 행동한 것처럼 현재의 그림에서 표현된 점(後卷·그림 16—‘오야노 형제 3인 / 다네야스’라는 표현이 명백하게 후대의 필치로 적혀있다)은 다케자키 스에나가와 오야노 집안의 선조가 전장에서 생사를 같이 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 스에나가는 몽골 전쟁(弘安의役)을 다룬 후권(後卷)에서는 아다치 모리무네(安達盛宗, 아다치 야스모리의 차남, 히고국 슈고다이[肥後守護代]) 군대와 긴밀한 관계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도 부연해 준다.

* 다만 왜 가독(家督)을 승계하고 이와토 전투에서 승리한 쇼니 쓰네스케(小弐経資) 측에 오야노 가문은 가담하려고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는 아마도 종래의 연구사에서 밝혀졌듯이 이와토 전투 후에 치쿠고(筑後)·부젠(豊前)·히젠(肥前)·히고(肥後)의 슈고(守護)를 호조 도쿠소(北条得宗) 가문에게 빼앗겨버린, 즉 어부지리를 취하게 해버린 쓰네스케의 실책, 나아가 후일의 헤이젠문(平禪門)의 난(1293년, 쇼오 6년=에이닌 원년)을 거쳐 다음 해에는 옛 야스모리 파의 복권이 실현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클 것이다. 또한 겐페이(源平) 교체사관이 강한 에도시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헤이씨(平氏)=호조(北条) 가문의 지배에 저항한 기쿠치(菊地)씨·오토모(大友)씨·쇼니씨는 영웅적인 존재이고, 거기에 자기 가문이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역사’야말로 중요하다. 오야노 가문으로서는 쇼니씨와 기쿠치씨의 밀접한 관계가 묘사된 ‘다케자키 스에나가 그림’이 유용하게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또한 반복이지만, 최종적으로 호소카와 번(히고·구마모토)의 번사(藩士)가 된 오야노 가문에 있어서 히고의 고케닌(御家人)이었던 다케자키 스에나가와 생사를 함께 하였다는 사실—물론 상술하였듯이 실제의 이야기로 보기는 어렵다—은 히고에서 살아가는 데에 정통성을 담보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오야노 가문보다 먼저 이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나와 아키오키(名和顯興)가 고사샤의

창고(神庫)에서 이 그림을 횡령하였다—혹은 오야노 가문 사람이 빼앗았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는 주장(桜井清香)도 전혀 근거없는 공론으로 치부할 것은 아닐 것이다.

(2) 발문 B와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유언장(置文)—가마쿠라 후기 규슈의 덕정(德政) 상황

그렇다면 발문 A와 글 9는 에도시대의 위작 및 사본으로부터 혼입되었고 그 장본인은 오야노 가문이라는 셈이 되는 것일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발문 B에도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두자.

다케자키 스에나가 자신이 남긴 관련 문서는 도후쿠지(塔福寺) 문서 등에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그가 소유지(知行地)로서 아다치 야스모리와 모리무네(盛宗)에게 승인받은 가이토고의 권익(所職) 일부를 씨사(氏寺)인 도후쿠지와 가이토고(海頭郷) 신사 가이토샤(海東社) 등에 기증하였음을 나타내는 ‘다케자키 스에나가 유언장(置文)’이다(1293= 正応6년 원작〔제1판〕, 1314= 正和3년 자필개정판〔제2판〕; 『중세정치사회사상』 상권에도 수록). 그런데 기증한 곳의 지명·신사명(社名)의 표기 방법을 보면 위화감이 든다. 왜냐하면 도후쿠지 문서 등을 보면, 모두 가이토고(海頭郷) 신사라고 기록되어 ‘그림’ 발문 B에 보이는 가이토고(海東郷)라는 표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본인의 이름 표기가 자주 바뀌는 중세에서 이는 작은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꿈속에서의 신탁으로 간토(關東, 鎌倉幕府・恩賞方)으로 가서 가이토고(海東郷)의 지토 직(地頭職)을 받았음을 기념하여 이 그림을 작성(발문 B)하였다고 한다면, 스에나가 자신은 가이토(海東)라는 표기에 평생 집착한 것이 된다. 요컨대 ‘가이토(海頭)’(도후쿠지 문서)를 가이토(海東)’(‘그림’ 발문 B)로 표기했다는 사실 자체는 후자(발문 B)가 스에나가의 의지와 동떨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 발문 B의 마지막에는 ‘고사(甲佐) 다이묘진(大明神)의 신덕(神德)을 증명하기 위해 이것[몽골습래회사를 가리킴—이시이 스스무 설]을 기록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만 현존하는 그림의 설명문이나 화면에서는 고사 다이묘진에 대해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감사했다고 느껴지는 장면이 없다는 점에도 이시이 스스무 씨는 주의를 환기시킨다(그러나 그다지 배려한 흔적은 없지만). 또한 가이토고는 고사샤(히고의 니노미야 궁)의 신령(神領)이며, 여기서 스에나가가 영지를 기부한 가이토샤(현재의 가이토 아소신사)란, 아마도 고사샤를 매개로 하여 가이토고에 분치[勸請]된 아소 말사(阿蘇末社)의 하나였을 것이다(언제 분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스에나가가 고사샤의 신덕에 감응하여 분치하였다면 스에나가가 가이토고에 부임한 1276= 겐지 2년 정월 6일 이후가 될 것이다). 또한 도후쿠지는 이 가이토고 신사 가까이에 있으면서 새로 건립한 진구지(神宮寺, 1293= 正応6년 = 永仁 원년 무렵에 건립?)에 도후쿠지 승려를 들여보내는 등, 다케자키 집안의 가이토샤·가이토고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문 A·B 모두 ‘에이닌 원년 2월 9일’ 이라고 적은 1293 년은 상술한 대로 8 월까지는 ‘쇼오 6 년’ 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적은 ‘다케자키 스에나가 유언장’ (도후쿠지 문서 [제 2 판]·아키오카 (秋岡) 가문 문서 [제 1 판]) 의 날짜는 ‘쇼오 6 년 정월 23 일’ 과 같이 연호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의심스러운 점이다. 따라서 ‘유언장’ 이 동시대 사료임에 비해 발문 A·B 는 모두 후세의 작품이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서술한 발문 A—근세 초에 오야노 가문이 써 넣은 것일까—정도는 아니지만 이 발문 B 도 역시 부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동시대의 정치·경제·종교 정세를 감안하면, 에도시대의 작품으로까지 볼 필연성은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즉 다케자키 집안에 의한 가이토고의 정치적·종교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1276 년 (스에나가의 가이토고 부임) 에서 1293 년 (가이토샤에 친구지를 건립, 또는 자신의 영지를 기부) 까지의 기간 동안 서서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지배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가이토 아소샤·신설한 친구지에 기증이 약속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1293 년 (쇼오 6 년·에이닌 원년) 4 월에 헤이젠몬 (平禪門) 의 난이 일어나서 구 아다치 야스모리 파가 복권되었기 때문이다. 아다치 야스모리는 이른바 ‘고안도쿠세이’ (弘安徳政, 1284 년, 弘安 7 년 6 월) 를 주도하여, 별상전 영지 (別相傳所領, 쿠게 [公家] 와 부케 [武家] 소유로 돌아간 신령 [神領]) 을 부정하고 본래의 신령으로 되돌린다 (神領興行) 고 하는 급진적 정책을 채택하였다 (井上聡). 실제로 별상전을 부정하는 덕정 정책은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뒤 1297 년 (에이닌 5 년) 의 ‘에이닌 덕정령 (永仁徳政令)’ 과 1312 년 (쇼와 = 正和 원년) 의 ‘쇼와 덕정령 (神領興行法)’ 을 보더라도 신령을 인정하지 않는 지토 고케닌 (地頭御家人) 과 계시 묘슈 (下司名主) 를 배제한다는 것은 공통적이며—전자가 무력한 구게 (公家) 로 인해 ‘소화불량’ 으로 마감된 데 비하여 후자는 부케 (武家) 에 의해 고케닌 보호방침을 방치할 정도로 급진적이었다 (村井章介)—고케닌 다케자키로서도 이러한 정책에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옛 야스모리 파의 복권과 호조 사다토키 (北条貞時) 의 전제 방침—1293 년 (永仁 원년), 재판의 최종적 판단을 도쿠소 (得宗) 호조 사다토키에 집중시키는 ‘집주 (執奏)’ 제도를 실시하고, 이듬해 (1294) 에는 사다토키의 판정 (裁定) 을 뒤집는 재청 요청 (越訴) 은 일체 접수하지 않음—과 후시미 (伏見) 천황의 친정 (親政) 지향—기록소 재판 (記録所 庭中) 을 정비하고 토지·영지 관계 재판 (雜訴) 을 달마다 6 번이나 개최한다는 규정을 만들—이 차츰 분명해지자 다케자키로서도 무언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본래 고사샤 (히고 니노미야, 아소 말사) 의 신령 (神領) 인 가이토고를 부정하고 영지와 지토직을 고사샤로 회수해 버릴까봐 우려도 했을 것이다.

여기서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취한 대책이 영지의 일부를 슬하의 가이토샤 (아소 말사) 에 기부하거나, 친구지를 창설하거나, 사찰의 물건 (佛物)·신사의 물건 (神物) 을 견지하는 ‘유언장’ 을 만든다고 하는 방책이지 않았을까? 또한 본주 (本主) 인 고사샤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 집안 (다케자키 가문) 과 고사샤 간의 깊은 내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깊은 인연’ 을 이야기하기 위해 발문 B 가 작성되었다고 하는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 이러한 내정의 동향과 밀접하게 얽힌 대외적 위협도 이 시기에 고조되었다는 사실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川添昭二). 1292년(일본의 쇼오 5년·원의 至元 29년) 7월에는 원나라 연문남(燕文楠)의 서신이 가마쿠라에 도착하였고(『가마쿠라연대기(鎌倉年代記)』), 같은 해에 도합 세 차례의 고려 국서—원 조정의 문서를 중개하는—가 김유성(金有聲) 등에 의해 10월에 다자이후(大宰府)에 전달되었다(『가나자와문고 고문서(金澤文庫古文書)』·『고려사(高麗史)』). 탐라(耽羅, 제주도)에 표착한 일본인 상인을 송환하는 동시에, 중재하는 입장인 고려의 김유성에 의해 국서의 표현은 부드럽게 고쳐졌지만, 세 차례에 걸쳐 일본이 원의 조정에 귀순할 것을 재촉하는 내용이었다(植松正). 이러한 원-고려 축 움직임으로 인해 일본은 대외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같은 달, 구니(國)들은 고쿠분지(國分寺)·이치노미야(一宮) 등을 통해 외국의 항복을 기원하였다(「동사백합문서(東寺百合文書)」). 11월에는 훗날 친제이 탄다이(鎮西探題)가 되는 국방지휘관(大將) 선정에 착수하였다(『신겐소조(親玄僧正) 일기』). 친제이 탄다이는, 다음해 3월에 호조 가네토키(北条兼時)·도키이에(時家)를 임명함으로써 발족하는 외에도(村井章介) 4월에는 전술한 것처럼 헤이젠몬의 난이 일어나서 옛 야스모리 파가 복권하였으며, 6월에는 후시미 천황이 친정을 시작하였다.

1293년(쇼오 6년 [제 1 판])~1314년(쇼와 3년 [제 2 판])의 다케자키 스에나가 유언장(도후쿠지 문서 등)에는 ‘가이토샤(海頭御社)’라고 적고 있지만 발문 B에 ‘가이토(海東)’로 적혀있다는 것은 확실히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자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쇼와의 덕정령’이 내려진 것은 쇼와 원년(1312) 9월 이전으로(村井章介) 도후쿠지 문서의 다케자키 스에나가 발문 [제 2 판]은 아마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쳐진 원고일 것이다. 발문 B는 그 뒤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가이토고(海頭郷)의 지토(地頭) 직이 불안정해졌거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海頭’와 ‘海東’의 차이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은 스에나가의 후손에 의하여 이러한 발문이 작성된 것은 아닐까. 오히려 친제이(鎮西, 규슈)를 대표하는 우사(宇佐) 신궁(八幡宮)의 식년 천궁(式年遷宮, 1289= 쇼오 2년)이 늦어지고 천궁이 끝난지 불과 2년 만에 미륵사(弥勒寺)와 함께 소실된 사건(1309년, 엔케이 [延慶] 2년)과 이를 전후한 규슈의 게고자키궁(筥崎宮)·가시이궁(香椎宮)의 소실, 고후카쿠사 상황(後深草上皇)·가메야마(龜山) 상황·고니조(後二条) 천황의 사망, 가마쿠라 대지진, 전염병 창궐, 중국 경원(慶元) 지역에서 일어난 일본상인 소동사건(榎本渉), 도쿠소(得宗) 사다토키의 죽음 등 사회불안이 계속되고 덕정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싶다.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1312년 ‘쇼와의 덕정령’이 발표된 것이다. 그리고 이 법령은 “권력층이 위로부터 강행하여 ‘이치엔료’(一円領 [神領])를 창출하려고 했던 법령”이었던 관계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村井章介). 만약 고케닌이었던 다케자키 일가의 가이토고 지토 직의 ‘정통성’과 신위(神威)를 막부의 탄다이(探題)와 아소샤에 강조하려고 했다면, 발문 B의 내용은 실로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되풀이하지만, 이러한 정세 속에서 다케자키 스에나가 자신의 영지 보전을 꾀한 수단의 하나가 자신과 고사샤·가이토고 간의 유대를 어필하는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유연장이었으며 또한 발문 B의 작성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문 B를 붙인 이상, ‘몽골습래회사’ 중 하나는 역시 고사샤에 기증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만약 이상과 같은 추론이 다소나마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발문 B는 쇼와 연간(1312~1317)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다만 발문 B의 작성과 가이토사제로의 ‘몽골습래회사’ 봉납이 동일 시점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맺으며

양두구육의 느낌을 면하기 어렵지만, 이상의 논의를 약간의 보충을 포함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그림’ 발문 A에 대하여—아마도 오야노 가문이 원하는 내용이 실린 발문 A는 근세에 들어와서 히고, 구마모토 번사로서 살아가게 된 오야노 가문이 작성(날조)한 것은 아닐까? 히고 기쿠치(菊池) 씨의 존재가 그림 속에서 강조되었음은 원래 그랬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본 그림의 모두에 적힌 ‘豊後國(현 오이타현) 守護大友 / 兵庫守頼泰之手 / 軍兵)’라는 그림 속 주석은 설명문과도 대응하는 부분이 없어서 의아하다. 쇼나·기쿠치·오토모라는 친제이(鎭西, 규슈) 삼대 세력과의 관계, 특히 기쿠치·오토모는 아소와의 관계(?)를 어필하기 위해서 가필한 것은 아닐까? 오토모 씨가 아소샤 내부에 확실히 관여하게 되는 것은 16세기 전국시대로, 이 또한 그림 속의 주기(註記)가 가마쿠라·남북조 시기보다 현저하게 늦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은 발문 B에 대하여.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가이토고 지배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발문 B는 고안(弘安)·에이닌(永仁)·쇼와(正和)의 덕정(德政)이 규슈에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스에나가의 후손이 자신의 영토를 보전하기 위해—즉 별상전(別相傳)의 부정과 지토(地頭) 및 고케닌 배제를 취지로 하는 덕정령이 나왔을 때 이에 대항하기 위해—고사샤(甲佐社)와 맺은 긴밀한 인연을 강조하기 위해 기초한 것이었리라고 추정된다.

또한 미야 쓰기오(宮次男) 씨와 핫토리 히데오 씨의 결론처럼, 본래 발문 A·B가 그림 본체는 별개의 것이었다는 관점은 어느 정도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이시이 스스무 씨가 논한 바와 같이, 그림과 설명문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이시이 스스무 설). 달리 말하자면 그림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문 A·B의 의도야말로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발문 A·B 각각에 들어맞도록 그림이 개편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과 발문은 결코 ‘관계없다’는 한 마디로는 정리될 수 없다. 한꺼번에 ‘몽골습래회사’의 원래 형태로 되돌리기는 매우 곤란한 이상, 이러한 단계를 밟아서 서서히 고찰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시이 설과 같이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아다치 야스모리·쇼니 가게스케 등을 추모하기 위해 ‘몽골습래회사’를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아직 완전히 불식된 것도 아니다. 본 발표에서 논한 내용은 이후의 필적으로 보이는 발문 A·B의 역사적 성격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은 알 수 없는 ‘몽골습래회사’의 원래 형태·원본 제작 당시의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의도는 여전히 베일 속 저 편에 있다.

앞으로 이 ‘몽골습래회사’를 한층 더 깊숙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발문 A(근세 초?)와 발문 B(쇼와 연간 1312~1317 이후?)의 역사적 특징을 고려하면서 그때 그때 이루어졌을 개작·가필 등을 분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발문 A·B 각각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가필과 개찬, 삭제 등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또한 반대로 ‘그림’의 현 상태 자체의 분석을 통해 발문 A와 B에 대한 본문의 평가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생길 것이다. 앞으로 본 발표자도 미력을 다해 계속해서 이 ‘그림’의 수수께끼 풀이에 도전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번역 : 홍성민 (와세다대학 문학학술원 종합인문과학연구센터)

주요 인용·참고문헌

- 石井 進 1972(新装版 1994)『竹崎季長絵詞』(詞書を翻刻・解説『中世政治社会思想』上)岩波書店
- 1991『中世史を考える―社会論・史料論・都市論』校倉書房
- 2000『鎌倉びとの声を聞く』NHK出版(日本放送出版協会)
- 井上 聡 2013『神領興行法再考』『東京大学日本史学研究室紀要別冊 中世政治社会論叢』同研究室
- 植松 正 2015『第二次日本遠征後の元・麗・日関係外交文書について』『東方学報』
- 榎本 涉 2007『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九～一四世紀』吉川弘文館
- 大倉隆二 2007『「蒙古襲來絵詞」を読む』海鳥社
- 大隅清陽 2011『律令官制と礼秩序の研究』吉川弘文館
- 太田 彩 2000『絵巻 = 蒙古襲來絵詞』(日本の美術 414)至文堂
- 荻野三七彦 1932『蒙古襲來に就ての疑と其解釈』『歴史地理』59巻2号
- 川添昭二 1977『蒙古襲來研究史論』雄山閣出版
- 工藤敬一 1974『竹崎季長おぼえがき』『日本歴史』317号
- 河内祥輔 2013『頼朝がひらいた中世―鎌倉幕府はこうして誕生した』(ちくま学芸文庫)筑摩書房
- 小松茂美 1988『蒙古襲來絵詞』(日本の絵巻 13)中央公論社 ※再版 1990
- 佐伯弘次 2016『蒙古襲來以後の日本の対高麗関係』『史淵』153輯
- 桜井清香 1967『元寇と季長絵詞』徳川美術館
- 佐藤鉄太郎 2005『蒙古襲來絵詞と竹崎季長の研究』錦正社
- 2016『元寇の実相：服部英雄著『蒙古襲來』の実証的批判』『軍事史学』52巻2号
- 中村一紀 1975『蒙古襲來絵詞について』『熊本県文化財調査報告書(17)竹崎城』熊本県教育委員会

- 服部英雄 2014 『蒙古襲来』山川出版社
- 宮 次男 1964 「蒙古襲来絵詞について」『日本絵巻物全集(9) 平治物語絵巻・蒙古襲来絵詞』角川書店
- 村井章介 1988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校倉書房
- 2001 『北条時宗と蒙古襲来：時代・世界・個人を読む』(NHKブックス)
- 日本放送出版協会
- 2006 『中世の国家と在地社会』校倉書房
- 堀本一繁 1998 「『蒙古襲来絵詞』の現状成立過程について」『福岡市博物館研究紀要』8号
- 2012 「『蒙古襲来絵詞』の復原にみる竹崎季長の移動経路」『交通史研究』78号

지정토론

‘몽골습래회사(繪詞)’를 해석한다—두 가지 발문(奥書)의 검토를 중심으로

[질문자: 이명미, 답변자: 하시모토 유]

— 이명미

서울대학교의 이명미입니다. 저는 사실 그림에 대한 분석이어서 무척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다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일본 내부의 정치상황 등, 이런 것들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몽골의 침입이라는 것이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인들에 의해 어떤 식으로 소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잘 이해 되지 않았던 부분, 혹은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답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발문(奥書)이나 그림의 수정 또는 첨삭이 이루어진 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발문의 필적도 굉장히 티가 나게 차이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재질도 상당히 다른 것 같고, 그림을 수정한 것도 너무 티가 많이 납니다. 만약 무언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가필을 했다면 가급적 티가 나지 않게, 애초에 원래 그랬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눈에 띄게, 차이를 확실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했을까요? 기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을 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간단한 질문인데, 발문(奥書)B 즉 글(詞)16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른바 ‘도후쿠지(塔福寺) 문서’와의 비교를 통해, 이것은 아마도 스에나가(竹崎季長) 자신이나 그 자손이 만든 것으로, 이것 역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매우 흥미 있었습니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림에도 불구하고 도후쿠지 문서에 보이는 한자 표기와 발문B의 한자표기와 가이토고(海東郷)의 표기의 차이는 어필하는 대상의 차이 또는 스에나가의 정치 자세가 드러내는 방법의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발문A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스에나가가 쇼니 가게스케(小式景資)에게 먼저 선봉에서 공격을 하겠다고 건의할 때, 말에서 내리는 ‘하마(下馬)의 예(禮)’를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그림(繪)2, 또 글(詞)2가 오야노(大矢野)가문에 의해 숨겨졌고, 거기로부터 해석이 시작되는 것 같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있는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 고 하는 기록이 그 후, 여기에 있는 발문A라든가 글(詞)7, 글(詞)9에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도적인 첨삭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에도 시대 무가(武家)의 예(禮)와 가마쿠라 막부의 무가의 예가 일본사회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가마쿠라 시대에도

역시 무가의 예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시기에 그려진 그림에는 말에서 내리지 않은 모습이 그려졌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당시의 어떤 급박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글(詞)7, 글(詞)9에서 그런 내용이 실리지 않은 것은 사후에 무언가 회상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굳이 그런 내용을 넣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안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오야노 가문에 숨겨져 있던 글(詞)2와 그림(繪)2가 이른바 발견되는, 밖으로 나오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어떤 기록이나 관련 내용이 혹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시모토 유

홋카이도대학의 하시모토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관한 것인데, 요컨대 필적이라든가 종이의 차이가 지나치게 뚜렷한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지요? 보통은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루마리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돈도 꽤 드는 일입니다. 예컨대 전부 고쳐서 새로운 사본을 만든다면 멋진 작품이 되겠지만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루마리그림은 두 편 혹은 세 편, 내용이 거의 같거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들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일단 따로따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데 모았을 때, 사실은 시대에 따라 그 순서가 달라집니다. 사본은 무진장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40점 이상이나. 원본을 서사(書寫)한 시기에 따라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보존되어 있는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뒤섞이고 복잡해지지만, 잘 조합해서 만드는 편이 차라리 고풍스럽다고 할까,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상태, 지금의 모습은 에도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스에나가(竹崎季長)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옛 것을 소중히 하려는 의식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직 저도 잘 모르는 ‘東’와 ‘頭’라는 한자의 차이입니다만, 아마도 현지에서는 ‘頭’라는 글자를 잘 사용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현지 실정에 맞춘,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하마(下馬)의 예(禮)’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긴박감을 고조시키는 일종의 레토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에서 내리지 않느냐고. 그리고 앞장서 나가는 것은 용서하지 않을 테다라는 것이기도 하지요. 앞서 나가는 건 안 된다, 군대는 모두 일제히 진군하는 것이다, 따라서 멈추라고 말을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그가 앞서나간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는 크게 규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마쿠라의 높은 사람과 만날 때는 역시 일부러 그 부분을 숨기고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에도 말기까지 숨겨져 있던 이 글(詞)2와 그림(繪)2가 표면으로 나오게 된 경위실에 관한 사료는 없고 자세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발표논문 4



몽골 제국 시대 몽골인의 명명(命名) 습관에 관한 고찰

에르둔바토르

(额尔敦巴特尔, 내몽골대학)

요지

13세기, 칭기스칸과 그 자손들이 수행한 대규모의 대외 정복전쟁 과정에서, 한(漢), 여진(女眞), 서하(西夏), 고려(高麗), 흠찰(欽察, 킵차크), 아속(阿速, 아스), 알라사(斡羅思, 오로스) 등 여러 민족 및 국가의 사람들이 몽골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14세기에 원조가 멸망한 후 몽골 고원에 있던 이들 복잡한 배경을 갖는 사람들은 몽골인으로서 융합해 간다. 몽골 제국 시대에 몽골인들은 정복한 민족, 국가와 지역의 이름 혹은 부족장의 이름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붙여주는 습관이 있었다. 예를 들면, 사르탁(撒里答, 회회 = 이슬람 민족), 솔랑카(鎖郎哈, 고려), 탕굴타이(唐兀歹, 서하인), 하신(合申,河西인), 혼도(忻都, 인도인), 낭가타이(囊加台,南宋인), 만지타이(蠻子台, 중국남방인), 아수타이(阿速台, 아속인/아스), 오로스(斡羅思, 러시아), 마자르타이(馬札兒台, 헝가리) 등의 몽골 인명은 모두 당시의 국가, 민족 및 지역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몽골부의 수령 예수게이의 아들 테무진의 이름도 타타르부의 수령 테무진 우게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러한 몽골인의 습속을 통해, 몽골인과 그 밖의 국가와 민족 간의 교류와 융합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들어가며

몽골제국 시기 몽골인들은 다른 나라, 부족, 지역의 지명 혹은 인명을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청나라의 저명한 고증학자 전대흔(錢大昕)은 일찌기 이러한 현상에 주목한 바가 있다.¹ 몽골부족 수령 예수게이(也速該)의 아들 테무진(鐵木眞)의 이름이 정복한 타타르 부족 수령 테무진 우게(鐵木眞兀格)로부터 유래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몽골비사(蒙古秘史)』, 『원사(元史)』, 『집사(史集)』와 같은 역사 문헌에 보면 몽골제국 시기 이러한 현상이 아주 보편적이었음을 어렵잖게

1 錢大昕, 『十駕齋養新錄』, 江蘇古籍出版社, 2000, pp.200-201.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살리답 [撒里答, 사르타](回回民族), 쇠랑합 [鎖郎哈, 솔랑가](고려), 당울대 [唐兀臺, 탕굴타이](西夏人), 합신 [合申, 하신](河西人), 혼도 [忻都, 힌두](인도인), 낭가태 [囊加台, 낭가타이](南宋人), 만자태 [蠻子台, 만지타이](남방인), 아속태 [阿速台, 아수타이](아스), 흠찰 [欽察](킵차크), 알라사 [斡羅思, 오로스](러시아), 마찰아태 [馬札兒台, 마자르타이](헝가리), 아로훈 [阿魯渾](아르군), 출적태 [朮赤台, 주르치데이](여진) 등이다.

이름은 사회적인 산물로서 일정한 역사적 단계의 사회 문화와 심리를 반영함과 동시에 민족·부족 간의 관계와 문화접촉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² 몽골인들이 “부족명을 개인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풍습에 대한 고찰은, 우리로 하여금 몽골인과 타민족 간의 접촉과 교류 상황을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대량의 타민족 인구가 몽골민족에 융합되어 왔던 역사 또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면상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줄고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몇몇 나라와 민족, 부족과 몽골 간의 관계 그리고 사서에 기록된 기타 민족 혹은 부족 명칭으로 이름을 붙인 몽골인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결태(乞台, 키타이 [Khitai]), 출적태(朮赤台, 주르치데이 [Jüricidei]), 찰홀척(札忽惕, 자쿠트 [Jaqtu])

결태(乞台)란 명칭은 거란(契丹)이라는 민족명에서 유래되었다. 금나라와 원나라 시기, 몽골인들 중에서 “Khitat” (‘거란’의 복수 형태)란 단어는 “漢兒(한인)”를 의미하였는데 그들은 이 명칭으로 거란인, 여진인과 진령·회하 이북의 한인들을 지칭하였다. 『원조비사(元朝秘史)』 제 247 절에는 한자로 몽골어를 음차하여 “乞塔惕亦舌兒格訥 阿中忽台 阿勒壇 合阿納”이라고 기록하였는데 명나라 사람이 곁에 주석을 달아 “거란 백성들의 금나라 황제 이름(契丹百姓的金主名金皇帝行)”이라고 하였다. “Khitat”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는 찰홀척(札忽惕)이 있다. 『원조비사』 제 134 절의 기록에 따르면 칭기스 칸과 토그릴 옹칸(脫斡隣勒汗)이 타타르의 메구진(蔑古眞·薛兀勒圖)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승상 왕경(王京)은 크게 기뻐하여 곧바로 칭기스 칸을 “자쿠트·쿠리(札忽惕·忽里)”로 봉하였다. 『원조비사』 제 281 절에는 “札中忽惕亦舌兒堅”이라고 적혀 있는데, 명나라 사람이 옆에 “금나라 사람, 백성들(金人每百姓)”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원나라 시기에는 이를 “漢兒” 혹은 “漢人”이라고 한역하였는데 금나라 통치지역의 여러 민족들을 일컫는 말이었다.³ 몽골인들은 여진족을 “Jürcen”이라 불렀다. 『원조비사』 제 247 절에서는 몽골어를 “주아차돈(主兒扯敦)”이라고 한자로 음차하고 그 옆에 “여진의”라고 역주를 달았다.

『원사』의 기록에 의하면 원나라 시기 결태(乞台), 결탑대(乞塔歹),

2 納日碧力戈, 『姓名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p.83.

3 蔡美彪, 『元與元軍之演變』, 『遼金元史考索』(中華書局, 2012), pp.232-242.

걸답득(乞答斛), 걸태부화(乞台不花), 걸탑태(乞塔台) 등의 이름을 가진 몽골인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원사』 권 3 「헌종본기」에는 “(7년 9월) 부마 라친(剌眞)의 아들 걸득(乞斛)으로 하여금 다루가치로서 오로스(斡羅思)를 지키게 하였다”⁴ 라는 대목이 있다.

『원사』 권 117 「테무르부카전(帖木兒不花傳)」에는 “지정(至正) 12년, 여주 경내에 적들이 일어나... 이소부(以所部)의 군사들과 걸탑대(乞塔歹) 등 여러 왕들에게 명하여 여러 길로 적들을 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온다.⁵

『원사』 권 121 「위다르전(畏答兒傳)」에는 “망가(忙哥)가 죽자 그의 손자 지리와득(只里瓦斛), 걸답득(乞答斛)이...”라는 대목이 나온다.⁶

칭기스 칸의 개국공신인 우루우트(兀魯兀) 부족의 출적태(朮赤台)는 그 이름이 주아차태(主兒扯台), 출아철단(朮兒徹丹), 출철태(朮徹台)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그는 처음에 자무카(札木合)를 따랐다가 후에 부족을 거느리고 테무진에게 귀순하게 된다. 몽골이 케레이트(克烈) 부족과 칼랄진 엘레트(哈蘭眞沙陀)에서 싸울 때 우루우트와 망구트(忙兀) 두 부족은 선두부대로 출전하여 활로 옹칸(王汗)의 아들 일카(亦剌合)를 다치게 하였다. 몽골이 건국된 후 출적태는 좌수올로울사천호(左手兀魯兀四千戶)의 수령으로 분봉되었으며 칭기스 칸은 그에게 케레이트 옹칸의 동생 자아 감보(札阿紺孛)의 딸 이바카 베키(亦巴合別乞)를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⁷

『원사』 권 120 「주르치데이전(朮赤台傳)」에는 “출적태(朮赤台), 우루우트 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시드는, 칭기스 칸에게는 나이만(乃蠻) 부족 출신의 후비가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출아적태(朮兒赤台)라 하였다고 적었다.⁸

『원사』 권 118 「보투전(孛術赤傳)」의 기록에는 “태조는 남몰래 출아철단(朮兒徹丹)을 파견하여 에르군네강(也兒古納河)에 보내려 하였다”라고 나온다.⁹

『원사』 권 121 「위다르전(畏答兒傳)」에는 “태조가 케레이트 옹칸과 하르친(哈剌眞)에서 대전하였는데 군사가 적어 이기지 못하였다. 황제는 우루우트의 한 군사를 먼저 보내려 하였으나 그 장수 출철태(朮徹台)가 말갈기를 가로 채찍질하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나온다.¹⁰

4 『元史』 권 3 「憲宗本紀」, p. 50.
5 『元史』 권 117 「帖木兒不花傳」, p. 2912.
6 『元史』 권 121 「畏答兒傳」, p. 2988.
7 『元朝秘史』 제 208 절.
8 『集史』 제 1권 제 2분책, p. 91.
9 『元史』 권 118 「孛術赤傳」, p. 2921.
10 『元史』 권 121 「畏答兒傳」, p. 2986.

『원사』 권 128 「토토카전(土土哈傳)」에 기록하기를 “15 년에 실렬길(失烈吉)을 추격하여 금산을 넘었으며 찰홀대(扎忽台) 등을 사로잡아 바치었다” 라고 하였다.¹¹

『원사』 권 135 「후투그전(忽都傳)」에는 “후투그는…태종 때에 이르러 진서행성(鎭西行省)으로서 몽골군과 한인군을 거느리고 하중, 동관, 하남을 공략하였으며 배지사(拜只思), 찰홀대(扎忽歹), 아사란(阿思蘭)과 함께 진공(秦鞏)과 여러 성들을 쳤으며, 또 배지사와 함께 경조(京兆)를 지키기도 하였다…후투그의 아들은 찰홀대(扎忽歹)이다”

라는 대목이 있다.¹²

2. 당을(唐兀, 탕구트 [Tanγud]), 합신(合申, 카신 [Qašin])

당을(唐兀)은 단어 “탕구트(黨項)”에 대한 몽골어 음역이며 동시에 탕구트인과 그들이 세운 서하국을 가리키는 데에 쓰기도 한다.¹³ 합신(合申)은 “하서(河西)”의 음이 변한 것으로 몽골인들은 당시 서하를 이렇게 불렀다. 칭기스 칸은 건국 후 서하를 최초의 정복 대상으로 삼았으며 전후로 1205 년, 1207 년과 1209 년에 세 차례나 서하를 침공하여 신하국으로 복속시켰으며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다. 『원조비사』 제 249 절에는, “(칭기스 칸은) 거기서부터 출정하여 합신(合申) 백성을 쳤다”라는 기록이 있다. 1226 년, 칭기스 칸은 재차 서하에 출병하였으며 그 이듬해 서하는 몽골에 의하여 멸망되었다.

오고타이 칸의 다섯째 아들의 이름은 합실(合失)이었는데 라시드는 “그는 칭기스 칸이 오늘날 당울척(唐兀惕)이라 부르는 하서(河西)지역을 정복할 때 태어난 연고로 이름을 합실(合失)이라고 지었다. 그는 술 마시기를 좋아하였고 자주 취하였는데, 이로 인해 아직 그의 부친이 살아있을 때 그는 과음하는 악습 때문에 일찍 죽었다. 그가 죽은 뒤, 합실(즉 이 하서라는 이름)은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그 후로 그 지역은 당울척으로 불려졌다.”¹⁴ 이 합실의 아들이 바로 카이두(海都)이다.

3. 숙량합(肅良合, 솔랑카 [Solangqa])

숙량합(肅良合)은 몽골인들이 고려를 부르는 호칭이다. 몽골인들이 고려를 숙량합(솔랑카)으로 부른 최초의 기록은 한자로 음역한

11 『元史』 권 128 「土土哈傳」, p. 3132.

12 『元史』 권 135 「忽都傳」, p. 3278.

13 『中國歷史大辭典』(遼夏金元史), p. 414, 周清澍이 작성한 “唐兀” 조항.

14 『集史』 제2권, p. 12.

“사랑합사 [莎郎合思]” (Solangas, Solanqa 의 복수형) 로, 『원조비사 (元朝秘史)』 제 274 절에 등장하며, 옆에 “고려” 라는 역주가 첨부되어 있다¹⁵. 여몽관계에 대한 연구와 논저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으므로 줄고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고려와 원의 특수한 정치적 관계로 말미암아 고려인들이 대거 원나라에 들어와 거주하였다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원나라 말기, 고려인 기 (奇) 씨 (몽골명: 올제이 후투그 [完者忽都]) 는 원순제 토곤 테무르 (妥歡貼睦爾) 의 황후가 되었으며 후지원 (後至元) 6 년 (1340) 에 원순제의 황자 아유르시리다라 (愛猷識理達臘) 를 낳았다. 이리하여 몽골 황실에도 고려인의 혈통이 섞이게 되었다. “어미는 아들로 인해 높임을 받는다” 고 기씨는 바로 제 2 황후로 추대되었다. 지정 (至正) 13 년 (1353), 아유르시리다라가 황태자로 책봉되었으며 25 년 (1365) 에는 기씨가 황후로 책봉 받아 섭태위 (攝太尉) 로부터 옥책과 옥보를 수여받았다. 책문 중에 이르기를 “숙량합씨는 명망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짐을 섬기러 왔노라 (咨爾肅良合氏, 篤生名族, 來事朕躬)” 라고 하였고 기씨를 황후로 책봉하는 조서 중에는 “기씨 성을 바꾸어 숙량합씨로 하노라” 라는 대목이 나온다¹⁶. 원순제는 조서를 내려 “기” 라는 한족과 비슷한 성씨를 몽골식 성씨로 바꾸어서 고려인 전체를 지칭하는 족명으로 하였으며 이를 “명문귀족” 이라고 인정하여 “Solanqa” 에 대응하는 표준 한역자를 칙령으로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원사』 가운데 등장하는, 황제가 친히 솔랑카를 성씨로 인정한 예로 박새음불화 (朴塞音不花) 가 있다. 이 인물의 성은 고려민족 고유의 “박” 씨이나 이름은 몽골어 “Sain-buga” 즉 “좋은 솟소” 라는 뜻으로, 한족 선비들을 본받아 자를 “덕중 (德中)” 으로 하였다. 『열전』에서는 그를 “숙량합태 (肅良合台, 솔랑카다이) 인” 이라고 하였다. 고대 몽골인들은 성씨를 말할 때 부족명 뒤에 성씨 접미사를 붙였는데 남성의 경우는 접미사 “-dai/dei” 를, 여성의 경우는 “-jin” 을 붙였다. 박새음불화는 고려인 남성이었기에 그를 “숙량합태, -Solangadai” 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숙위로 들어가 속고아치 (速古兒赤) 즉 “내부의 의복 공급을 관리하는” 케식 (怯薛) 의 집사였는데, 그는 아마도 기황후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어 숙위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으며, 후에는 이기고제점 (利器庫提點) 직을 하사 받았고 기황후가 전문직으로 설치한 자정원 판관 (資政院判官) 으로 임명되었다가 군사를 주관하는 동지추밀원사 (同知樞密院事) 로 관직을 옮겼다. 한때 그는 고려의 합포전라등처 군민만호 (合浦全羅等處軍民萬戶) 로 부임하기도 하였다가 다시 대사농 (大司農), 영북행성평장 (嶺北行省平章) 의 직을 위임받았다. 지정 24 년 (1364) 에 이르러서는 한림학사승지 (翰林學士承旨) 로 승진하였고 다시금 집현원대학사 (集賢院大學士), 선정원사 (宣政院使), 중서평장정사 (中書平章政事) 가 되었다. 28 년에 명나라 군대가 대도를 진공할 때, 그는 군사 수백 명을 이끌고 승순문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어 포로가 되자 투항하지 않고 살해되었다¹⁷.

막남오투하 (漠南五投下) 의 이키레스 (亦乞列思) 부 중에서 칭기스 칸의 매제이자 개국공신인 보투 (孛禿) 의 증손 이름은 “쇄량합 (鎖郎哈)” 이었는데, 그의 딸이

15 『中國歷史大辭典』 (遼夏金元史), p. 337, 周清澍이 작성한 “肅良合” 조항.

16 『元史』 권 114 「完者忽都皇后奇氏傳」, 권 46 「順帝本紀」, p. 971.

17 『元史』 권 196 「忠義·朴塞音不花傳」, p. 4435.

바로 무종황후 즉 명종의 생모이다.¹⁸

4. 남가(南家, 낭가 [Nangia]), 만자(蠻子, 만사 [Mansa]), 합랄장(哈刺章, 카라장 [Qaraġang])

남가(南家)는 금나라 사람들이 송나라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몽골은 이 호칭을 그대로 쓰면서 복수 형태의 접미사인 “-s”를 더하여 “남가사(南家思)”라고 불렀다.¹⁹ 원나라 시기에 남가타이(南家台)를 만자(蠻子)고도 불렀다.²⁰ 합랄장(哈刺章) 즉 ‘카라장’은 원나라 때에 운남의 지역명 혹은 이 지역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족명으로 쓰였다. 원나라 때의 비석에 새겨진 몽골문 명문에서는 운남행성을 “Qaraġang qingšing” 즉 “哈刺章行省”이라고 기록한 것이 있다.²¹

『원사』 권 136 「합랍합손전(哈拉哈孫傳)」에는 “오로나르(斡剌納兒) 씨이며 증조부는 키실릭(啓昔禮)이다… 그의 아버지는 낭가태(囊加台)로서 현종을 따라 촉을 정벌하였으며 전장에서 죽었다”라는 대목이 있다.²²

『원사』 권 127 「바얀전(伯顔傳)」에 기록하기를 “…(그의) 아들 이름은 낭가대(囊加歹)이며 추밀부사(樞密副使)를 지냈다”라고 하였다.²³

『원사』 권 129 「뉴린전(紐璘傳)」에는 “뉴린은 산죽대(珊竹帶) 사람이다… 그의 아들은 예수다르(也速答兒)이며 예수다르의 “장자는 남가태(南加台)이며 사천행성 평장정사(平章政事) 직에까지 올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²⁴

『원사』 권 131 「낭가다이전(囊加台傳)」에 따르면 “나이만 부족 사람이며, 아주(阿朮)를 따라서 송나라의 양양(襄陽)을 포위하였었고 양양 성이 함락되자 그 공로를 따라 한군 천호(漢軍千戶) 직을 수여받았다. 또 승상 바얀을 따라 복주(復州)를 공격하였고 송나라 군대와 풍파호에서 접전하여 격파하였다”라는 기록도 있다.²⁵

『원사』 권 107 「세종세습표(宗室世襲表)」에도 “아무가(阿木哥)의 아들 만자(蠻子) 대왕”이라는 구절이 등장한다.²⁶

『원사』 권 107 「세종세습표(宗室世襲表)」에 또 “진남왕(鎮南王)(脫歡)의

18 『元史』 권 118 「李禿傳」, p. 2923.

19 펠리오, 「南家」, 馮承鈞 번역, 『西域南海史地考證譯叢』 2편, (中華書局, 1995), p. 57; 『中國歷史大辭典』(遼夏金元史), p. 353, 周清澍이 작성한 “南家” 조항.

20 賈敬顏, 朱楓 편, 『女眞譯語蒙古譯語匯編』(天津古籍出版社, 1990), p. 3.

21 『中國大百科全書·中國歷史·元史』(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5), p. 40, 方齡貴가 작성한 “哈刺章” 조항.

22 『元史』 권 136 「哈拉哈孫傳」, p. 3291.

23 『元史』 권 127 「伯顔傳」, p. 3116; 馮承鈞, 「元代的幾個南家台」, 『馮承鈞西北史地論集』(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13), pp. 185-201.

24 『元史』 권 129 「紐璘傳」, p. 3246.

25 『元史』 권 131 「囊加台傳」, p. 3184.

26 『元史』 권 107 「宗室世襲表」, p. 2728.

아들 문제왕(文濟王) 만자(蠻子)라는 구절도 등장한다.²⁷

『원사』 권 109 「제공주표(諸公主表)」에는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 낭가진(囊家眞)은 세조의 딸이며 납진자테무르(納陣子帖木兒)에게 시집갔다가 후에 다시 테무르의 아우 만자태(蠻子台)에게 시집갔다”라는 대목이 나온다.²⁸

『원사』 권 118 「특설선전(特薛禪傳)」에 “사아화도(唆兒火都)는 역안진(亦按陣)의 아들이다… 사아화도의 여러 손자들로는 약발라사(若孛羅沙), 바얀, 만자(蠻子)…”라는 기록도 있다.²⁹

케리이트(怯烈亦)씨 합산납(哈散納)의 증손 독만답(禿滿答)의 아들의 이름은 합랄장(哈剌章)이다.³⁰

원조 말기의 유명한 재상 독토(脫脫)의 장자 이름도 합랄장(哈剌章)이었다.³¹

강리(康里)사람 예수다르(也速斛兒)의 아들이름 역시 합랄장(哈剌章)이다.³²

5. 살리답(撒里答, 사르타크[sartaq])

살리답(撒里答)은 “Sartaq”의 한자 음역으로 “살아탑울룩(撒兒塔兀勒)”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는 몽골어 호라즘(花刺子模), 부하라(不花刺), 사마르칸트(撒馬耳干) 등지의 회회(回回) 상인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이러한 지역을 통틀어 지칭하기도 하였다. 살리답은 산스크리트어 “Sartnavaho”에서 유래된 것으로 “상인”을 뜻하며 처음에는 이란어를 사용하는 현지 상인들에 대한 돌궐인들의 호칭이었으며 수당 시기의 중국에서는 “살보(薩寶)”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었다. 후에 돌궐어 발음 “Sartaq”에서 파생되어 몽골어 복수 형태인 “Sartaul(撒兒塔兀勒)”과 형용사 형태인 “Sartaqtai(撒兒塔黑台)”로 변형하게 된다.³³ 『원조비사』에는 “撒兒塔兀勒”(Sartaul), “撒兒塔黑臣”(Sartačīn) 등과 같은 단어들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옆에 “회회”라고 역주를 달고 있다.

『비사』 제 254 절에는 “帖兀訥 豁亦納 成吉思合罕 撒兒塔兀勒 亦兒格捏 兀忽納 帖里兀田 札溫 額勒赤你顏 者惕古周”라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중 “撒兒塔兀勒 亦兒格捏” 옆에는 “회회 백성”이라는 역주가 붙어있다. 여기서 회회는 호라즘인을 가리키며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서역인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1219-1225 년간 칭기스 칸은 중앙아시아 호라즘에 대한 대규모 전쟁을 발동하였는데 몽골어에서는 이를

27 『元史』 권 107 「宗室世襲表」, p. 2726.

28 『元史』 권 109 「諸公主表」, p. 2758.

29 『元史』 권 118 「特薛禪傳」, p. 2917.

30 『元史』 권 122 「哈散納傳」, p. 3016.

31 『元史』 권 138 「脫脫傳」, p. 3348.

32 『元史』 권 133 「也速斛兒傳」, p. 3238.

33 바르톨드 저, 羅致平 역, 『中亞突厥史十二講』(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 pp. 132-133; 『中國歷史大辭典』(遼夏金元史)(上海辭書出版社, 1986), p. 518, 周清澍이 작성한 “撒里答” 조항.

“Sartaqčın ayan” 이라고 부른다.³⁴

살리답(사르탁)은 흔히 볼 수 있는 몽골 이름이다. 특히 호라즘을 정복한 주치(術赤) 일가에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발견된다. 바투(拔都)의 아들 이름 역시 살리답이었다.³⁵ 구유크 칸(貴由汗)이 죽은 뒤 살리답은 부친의 명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현종 몽케(蒙哥)를 대칸으로 옹립하였다. 그는 후일 킵차크 칸국의 서쪽 변경을 지켰으며 겸하여 러시아의 여러 소국들을 통치하였다. 프랑스 프란체스코회의 윌리엄 뤼브룩(William of Rubruk) 수사는 동쪽으로 몽골 통치 지역을 여행하면서 여러 번 바투의 아들 살리답을 만났다.³⁶

주치 칸의 첫째 아들 오르다(斡兒答)의 장자의 이름 역시 “살아탐흑태”였다.³⁷ 오고타이 칸 시기, 제 1 차 여몽 전쟁에서 몽골군 통수의 이름도 살레탐(撒禮塔 [살리타이])이었다. 1231년, 살레탐은 대칸의 명에 좇아 고려를 정벌하였는데 성들이 연달아 함락되자 고려 왕은 사신을 보내어 화해를 구하였다. 그러자 살레탐은 고려의 왕경, 부, 현 등 각지에 다루가치 72인을 배치하였다.³⁸ 이듬해 7월, 고려 왕은 강화도로 피신하였고 고려인들은 몽골이 설치한 다루가치들을 전부 죽였다. 8월에 살레탐은 재차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진공하였으며 5년에 살리답은 다시 명을 받들어 고려로 원정해서 왕경(현재 북한의 개성)을 넘어 남으로 처인성(處仁城)을 공격하는 중에 고려군에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³⁹

쿠빌라이 칸의 수하에는 살아탐흑태나안(撒兒塔黑台那顏)이라는 한 대신이 있었다.⁴⁰ 라시드에 의하면 “아난다(阿難達, Ananda)의 신하 중에 살리탐(撒里塔, Sartaq)이란 사람이 이슬람교를 반대하였는데, 칸에 입조하여 아난다가 항상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잔치를 베풀며 「코란」을 읽는다고 원망하였다”라고 하였다.⁴¹

이상의 “살리답”이란 이름의 여러 변형들은 모두 “사르탁(Sartaq)”이란 지명과 민족명에서 유래된 것들이다.

6. 흠찰(欽察, 킵차크 [Kipcak])

흠찰(欽察)인들은 원래 이르티시강 유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흠찰(Kipcak)이란 단어는 중세 이란어에서 유래하였는 바, “kip”은 “붉은색” 혹은 “연한 색상”을 뜻하며, “cak”은 모든 초원 주민들에 대한 총칭이었다. 즉 “흠찰(킵차크)”이란 “피부색이 연한 초원 주민들”이란 뜻이다. 흠찰인들은 한때 “고만(庫曼 [쿠반])인”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이름은 캅카스 지역에 위치한 쿠반강에서 유래되었다. 그들은 이란계와 돌궐계의 혼합

34 亦隣眞, 「至正二十二年蒙古文追封西寧王忻都碑」, 『亦隣眞蒙古學文集』(內蒙古人民出版社, 2001), p. 693.

35 라시드 편찬, 余大鈞 周建奇 번역, 『集史』 제2권, 1985, p. 127; 周良宵 역주, 波義耳 영문역, 「成吉思汗의繼承者」, 『集史』 제2권(天津古籍出版社, 1992), p. 139.

36 耿昇, 何高濟 번역, 『柏朗嘉賓蒙古行紀 魯布魯克東行紀』(中華書局, 1985), pp. 313-317.

37 라시드 편찬, 余大鈞 周建奇 번역, 『集史』 제2권, p. 116.

38 『元史』 권 208, 「고려전」, p. 4608.

39 정인지, 『고려사』 권 23, 「고종세가」 2.

40 라시드 편찬, 余大鈞 周建奇 번역, 『集史』 제2권, p. 318.

41 라시드 편찬, 余大鈞 周建奇 번역, 『集史』 제2권, p. 380.

민족이었으며 7 세기 때 돌궐인에 쫓겨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11 세기 중기에는 불가강 유역과 우크라이나 초원지대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였다.⁴² 『원조비사』에 의하면, 1205 년 칭기스 칸은 이르티시강 유역에서 메르키트(蔑兒乞) 부족의 잔여 세력을 격파하였으며 그들의 수령 톡타이 베키(脫黑脫阿別乞)는 살해되고 쿠두(忽都) 등 그의 세 아들은 강리(康里)를 거쳐 흠찰로 도망쳤다고 한다. 1216 년, 칭기스 칸은 수부타이(速不台)를 명하여 강린(康隣), 겐복찰을척(乞卜察兀惕)[킵차크], 알라속척(斡羅速惕)[러시아], 마찰랄척(馬札剌惕)[헝가리], 아속척(阿速惕)[아수르] 등 11 국에 대한 원정을 진행하게 한다.⁴³ 오고타이 시기에 바투가 몽골군을 인솔하여 유럽 도나우강 유역까지 진입한 침략전쟁을 『원조비사』에서는 “Qibcaqcin ayan” 이라고 불렀다.⁴⁴ 후일 바투는 사라이(撒萊)에 도읍을 정하고 킵차크 초원을 영지로 하여 킵차크(흠찰) 칸국을 건립하였다.

흠찰 국왕 홀로속만(忽魯速蠻)과 그 아들 반도찰(班都察)이 몽골에 귀순하였다. 반도찰은 몽케 칸을 따라 아속의 도성 맥갑사(麥怯斯)를 함락하는데 공을 세웠으며 후에 또 흠찰인 백명을 이끌고 쿠빌라이를 따라 대리(大理)와 송나라를 정벌하였는데 “강하고 용감한 군사로 불리웠다”. 반도찰의 아들 톡토카(土土哈)는 용맹하고 전투에 능하여 번번이 공을 세웠는 바 이에 쿠빌라이는 “흠찰인 백성이나 그들 중 제왕에 예속되어 노예로 있는 자들을 따로 적(籍)을 바꾸어 톡토카에 예속되게 하며… 그 중 용맹한 자들을 뽑아 금군(禁軍)으로 예비케 하라” 라고 명을 내리기도 하였다.⁴⁵ 그리하여 몽골군에 포로되어 노예로 되었던 흠찰인들은 대거 석방되어 톡토카에 귀속되었으며 그 중 정예는 흠찰제위를 구성하여 원나라 시위친군(侍衛親軍)의 주력군으로 되었다. 이밖에도 톡토카 가문은 대대로 원나라 황제의 어마군(御馬群)을 통제하였다. 반도찰은 “궁중의 말과 가축들을 장악하였으며 계절마다 말짓을 진상하였는데 (그 말짓은) 색이 맑고 맛이 좋아 ‘흑마유’로 불렸으며 이로 인하여 그의 족속을 가리켜 ‘하라치’(哈刺赤)라고 불렀다.”⁴⁶ 이로부터 우리는 반도찰과 톡토카 부자가 이끌었던 흠찰인들이 하라치라고도 불린 것은 “흑마유를 짜는” 직업으로부터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라치”라는 명칭은 흠찰군 혹은 흠찰위를 지칭하는 별칭으로 되기도 한다.⁴⁷ 하라치 방목호들은 태복사(太僕寺) 산하의 칭기스 칸 대와(大窩) 오르도의 각 목장에 속해 있었으며 주로는 상도(上都), 대도 및 옥니백아(玉你伯牙), 절련겍매아(折連怯呆兒, 오늘날 요하 상류)와 아랄홀마길(阿剌忽馬乞, 오늘날 내몽골 서오주목심기 일대) 등지에 집중되어 있었다.⁴⁸ 1328 년, 톡토카의 손자 엘테무르(燕帖木兒)가 흠찰제위를 세력에 근거하고 몽골 지역의 하라치 군사를 외응(外應)으로 하여 정변을 발동하였으며 문종을 황제로 옹립하였다. 이로부터 엘테무르는 장기간 원나라 조정을 좌우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흠찰제위와 몽골 지역의 하라치군을 장악하게 되었다. 엘테무르가 죽자 그의 아들 텡기스(唐其勢) 등은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톡토카 가문의 흠찰위와 하라치군에 대한 통제는 그 뒤로도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

42 烏云畢力格『喀喇沁萬戶研究』(內蒙古人民出版社, 2005), pp.14-15.

43 『元朝秘史』제 199 절, 제 262 절.

44 亦隣眞의 앞 문장『亦隣眞蒙古學文集』(內蒙古人民出版社, 2001), p. 693.

45 『元史』권 128 「土土哈傳」, p. 3132.

46 『元史』권 128 「土土哈傳」, p. 3132.

47 寶音德力根, 「應紹不萬戶的變遷」, 『中國人文社會科學博士碩士文庫(續編)』(歷史學卷)

48 『元史』권 100 「兵誌三」, pp. 2553-2554.

오고타이의 여섯째 아들 카단 오굴(合丹 - 斡忽勒)의 아들 중 한 명 역시 이름이 “흠찰”이었다.⁴⁹

『원사』 권 21 「성종 四」 에도 “(대덕 7년) 6월, 흠찰 천호(千戶) 등 가난한 자들에게 돈 삼만 칠천 팔백여 정(錠)을 주었다”는 기록이 나온다.⁵⁰

7. 아속(阿速, 아스 [As])

아속(阿速)은 아사(阿思), 아숙(阿宿), 아속척(阿速惕)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아속인은 원래 캅카스 북부에 살던 이란인으로서 그리스 정교회를 믿었다. 후에는 불가강 입구로 이주하였으며 비잔틴, 곡아지(谷兒只, 지금의 그루지아), 알로사(斡魯思, 지금의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221년 수부타이 등은 군대를 거느리고 캅카스에서 태화령(太華嶺)을 넘어 북상하여 아속 등 부족 연합군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 1239년에는 몽케와 구유크가 몽골 원정군을 거느리고 아속의 수도 멸겁사성(蔑怯思城)을 함락시켰으며 국왕 항홀사(杭忽思)는 군사를 데리고 항복하였다. 몽케는 그중 장정 천여 명을 뽑아 항홀사의 아들 아탐적(阿塔赤)으로 하여금 인솔하게 하여 아속군(阿速軍)을 편성하여 몽골에 데리고 왔다.⁵¹ 중원에 이주한 아속인들은 많은 경우 종군하였다. 지원 9년(1272)에는 아속발도군을 조직하여 송나라로 진공하였다. 무종 지대(至大) 2년(1309), 원나라 조정에서는 아속군 중의 정예부대를 선발하여 좌우 두 아속위(阿速衛)를 설치하였다.⁵² 이때로부터 아속군은 원나라 시위군 중의 정예부대 중 하나로 되었다. 1323년, 철실(鐵失) 등이 정변을 일으켜 영종을 살해한 것 역시 아속위의 역량을 근거로 일어난 사건이었다.⁵³

몽케 칸의 아들 중 하나는 이름이 아속태(阿速台 [아수타이])였다.⁵⁴ 라시드는 몽케 칸의 “한 왕비의 이름이 쿠이테니(奎帖尼)였는데 일치긴(額勒只斤) 부족 출신이었다. (몽케 칸은) 그와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아속대(阿速帶)라고 하였다. 아속대는 일찌기 아릭부케(亞里不哥)와 연합하여 쿠빌라이에 대항한 적이 있다”라고 기록하였다.⁵⁵

8. 알라사(斡羅思, 오로스 [Oros])

알라사(斡羅思)는 다른 이름으로 알라사(斡羅斯), 올라사(兀羅思), 올로사(兀魯思), 아라사(阿羅斯)라고도 하며 복수 형태는 알라사척(斡羅斯惕)으로,

49 『集史』 제2권, p. 21.

50 『元史』 권 21 「成宗四」, p. 452.

51 『元史』 권 132 「杭忽思傳」, p. 3205.

52 『元史』 권 99 「兵誌二」, p. 2527.

53 『元史』 권 207 「鐵失傳」, p. 4600.

54 『元史』 권 107, p. 2723.

55 『集史』 제2권, p. 234.

현재의 불가강 서쪽의 모스크바, 키예브 등 지역을 지칭한다. 13 세기의 러시아는 몇 개의 공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1223 년 몽골군은 불가강에서 그들과 접전하여 첫 승리를 거두고 남부 지역에 진입하였다. 바투의 서정 이후로는 킵차크 칸국에 굴복하였으며 일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몽골과 중원 지역에서 노예가 되었다.

지순 원년 (1330), “선충호위친군도만호부(宣忠扈衛親軍都萬戶府)를 설치하여 관위(秩)는 정삼품(正三品)으로 알라사(斡羅思) 군사를 총괄하며 추밀원에 속한다”⁵⁶ 라는 기록이 있으며, 12 월에는 알라사인 만 명을 집결시켜 만 무에 이르는 땅을 주어 둔전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이듬해 4 월에는 만호부를 선충호위친군도지휘사사(宣忠扈衛親軍都指揮使司)로 고쳤다.⁵⁷

카이두의 정실 두이진(述連臣)이 낳은 아들 이름도 알로사(斡魯思)였다. 라시드는, “카이두는 대칸의 땅과 인접한 땅을 알로사에게 주었으며 동시에 그에게 상당히 많은 군대도 주었다”라고 하였다.⁵⁸ 원문종의 유모 올제이(完者)의 남편 이름은 알라사(斡羅思)였다.

『원사』 권 30 「문종 1」에 의하면 “(천력 원년) 9 월, 유모 올제이를 추봉하여 국부인(國夫人)으로 칭하고 그 남편 알라사는 태보(太保) 벼슬을 주고 국공(國公)으로 봉하였으며 시호를 충의(忠懿)라 하였다”는 대목이 나온다.⁵⁹

『원사』 권 134 「알라사전(斡羅思傳)」에는 “알라사는 강리(康里) 씨이다... 지원 19 년에 내부(內府) 비직치(必閣赤)로 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⁶⁰

9. 마찰아(馬札兒, 마자르 [majar])

마찰아(馬札兒)는 마찰(馬札), 마차(馬茶), 마차(馬箭), 마찰랄(馬札刺)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지금의 헝가리를 가리킨다. 1241 년 봄, 바투 형제와 수부타이 등이 이끄는 몽골군이 마자르를 진공하였으며, 얼마 안지나서 수도 페스트 성 부근까지 진입하여 출전한 마자르 군대와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 12 월에는 바투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독납하(禿納河, 지금의 도나우강)을 건너자 마자르는 격란(格蘭, Gran)성을 바쳤다.

메르키트 씨족 바얀의 동생 마찰아태(馬札兒台 [마자르타이], 1285-1347)는 무종과 인종 두 황제를 모셨으며, 태정(泰正) 4 년 (1327)에는 섬서행대치서시어사(陝西行臺治書侍御史)에 임명되었다. 그 뒤로도 병부상서, 어사대부, 지추밀원사 등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후지원 3 년 (1337)에

56 『元史』 권 34 「文宗紀三」, p. 758.

57 『元史』 권 100 「兵誌三·屯田」, p. 2567.

58 『집사』 제2권, p. 16

59 『元史』 권 30 「文宗一」, p. 712.

60 『元史』 권 134 「斡羅思傳」, p. 3263.

태보(太保)로서 추밀원에 부임하여 북쪽 변경을 지켰으며, 6 년에는 바얀의 뒤를 이어 우승상(右丞相)이 되었다.⁶¹

『원사』 권 100 「병지 3」 에도 “하서무옥제적백호(河西務玉提赤百戶) 마찰아(馬札兒)”

라는 대목이 나온다.⁶²

10. 힌도(忻都, 힌두 [Hindu])

힌도(忻都)는 인도를 가리킨다. 『원조비사』 제 261, 264 절에서는 힌도사(忻都思)라고 하였다(‘-s’는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지정 22년 추봉서녕왕힌도신도비(至正二十二年追封的西寧王忻都神道碑)」의 주인공의 이름 역시 힌도(忻都)이다.⁶³

11. 아아혼(阿兒渾, 아르군 [Argun])

펠리오의 “아아혼(阿兒渾, Argun)은 부족 명칭 중의 하나로서 11세기말 Kasigari에서 이미 알려진 Argu 부족, 현대의 “Kara-Kirghiz”의 Argin 혹은 Argun 부족과 반드시 연관이 있을 것이다”⁶⁴ 라고 하였다. 아아혼인들은 중앙아시아 제티슈(Zhetysu) 지역에서 추이강(Chuy, 楚河) 유역에 이르는 지역 즉 키르기즈스탄 공화국 전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지역에서 생활하였던 돌궐 부족이었다.⁶⁵ 이 부족은 칭기스 칸이 서정(西征)을 실시할 때 와서 복속하여 아아혼군으로 편성되었으며 케레이트 부족의 합산납(哈散納)의 인솔 하에 중앙아시아를 휩쓸면서 사마르칸트, 부하라 등지를 공략하였다. 태종 오고타이 시기, 이 군대는 회회 장인 삼천 호와 함께 담마림(蕞麻林), 풍주(豐州), 하수(下水) 등지에 주둔하면서 납실실(納失失) 비단⁶⁶의 생산에 종사하였다. 원혜종 때에 이르러 아아혼 부군(阿兒渾部軍)이 설치되었으며 궁궐의 내외 성문들을 지켰다.

홀라구(旭烈兀)의 손자 아로혼(阿魯渾 [아르군], 1255-1291)은 일 칸국의 제 4대 칸이었다.

61 『元史』 권 138 「馬札兒台傳」, p. 3339.

62 『元史』 권 100 「兵誌三」, p. 2557.

63 亦隣眞의 앞 문장『亦隣眞蒙古學文集』(內蒙古人民出版社, 2001), p. 690.

64 펠리오, 「蕞麻林」, 『西域南海史地考證譯叢』 3 편, p. 58.

65 楊志久, 「元代的阿兒渾人」, 『元史三論』(人民出版社, 1985), p. 229.

66 납실실의 한자는 ‘納失失’이며 ‘納石失’, ‘納失思’, ‘納克實’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페르시아어 음의 오역이라는 일설이 있다. 금실을 넣은 견직물이며 원나라 시기에는 중국의 진해 등지에서 한족과 회족인 견직공들이 생산한 비단을 지칭하였다(역자 주).

오이라트(斡亦剌) 씨의 아아혼(阿兒渾)은 원태종 시기에 비척치로 임명되었으며 그후에는 코르구즈(闊兒吉思)를 보좌하여 페르시아 여러 주들을 관리하였다. 나이만(乃馬真) 왕후(투르게네[脫列哥那]) 원년(1242), 이 아아혼은 코르구즈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장관으로 되어 민정(民情)을 두루 살피고 불합리한 세금들을 폐지하였다. 현종 원년(1251), 그는 아루르강 등 지역의 행상서성사(行尚書省事)로 위임되어 호구조사를 실시하고 부세제도를 통일하였다. 몽케 칸이 흘라구(旭烈兀)를 파견하여 서정을 전개하는 동시에 페르시아 총독 직을 받았을 때 아아혼 역시 명을 받들고 그 지역의 재정을 관리하였다. 그 뒤로도 그는 아바카(阿八哈) 칸의 아들 아르군(阿魯渾)을 보좌하여 나라를 다스렸으며 동시에 일 칸(伊利汗) 가문과도 통혼하여 권세와 지위가 대단하였다.⁶⁷

12. 답실만(答失蠻, 타시만 [dašman]), 출홀(朮忽, 유다야 [juqu])

답실만(dašman)은 원대의 이슬람교 성직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성직자나 신학자를 존칭하여 “Danishmand”라고 불렀는데 이는 페르시아어로서 “지식있는 자”라는 뜻이었다. 몽골인들이 최초로 접한 이슬람 신도들은 중앙아시아 출신들이었으므로 그들은 이 단어로 이슬람 성직자들을 총칭하였는 바 몽골어로는 “dašman”이며 “答失蠻”은 그 한자 음역이다. 원에서는 유대인을 출홀(朮忽) 혹은 한자로 “主鵠”, “竹忽”, “主瞞” 등으로 음차하기도 하였다.

『원사』 권 33 「문종 2」에는 “스님, 도사, 야리가온(也里可溫)⁶⁸, 출홀(朮忽), 답실만(答失蠻)이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옛 제도대로 세금을 바친다”

는 기록이 있다.⁶⁹

원 시대에 답실만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케레이트 씨 답실만(答失蠻)은 어린 시절 번부(藩府)에서 쿠빌라이를 섬겼으며 비척치를 지냈다. 쿠빌라이가 즉위한 뒤, 그는 제 1 케식 비척치로 임명되었다.⁷⁰

태종 오고타이 시기, 목홀득(木忽斛)이라고 하는 단사관(斷事官)이 있었다.⁷¹

맺음말

몽골제국이 건립된 후, 칭기스 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규모의 정복전쟁을

67 余大鈞 편저, 『元代人名大辭典』(內蒙古人民出版社, 2016), p. 429.

68 “也里可溫”: 원나라 시기 기독교인들을 야리가온이라 불렀다. 로마자로는 “Arkaun”. ----역자 주.

69 『元史』 권 33 「文宗二」, p. 732.

70 楊志玖, 「元代的幾個答失蠻」, 『元史三論』(人民出版社, 1985), pp. 221-225.

71 『元史』 권 81 「選舉一」, p. 2017.

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하국은 칭기스 칸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으며 서하가 항복하자 이어서 금에 대해 대대적인 정벌을 진행하였으며 방향을 돌려 서요(西遼)와 호라즘을 멸망시켰다. 칭기스 칸의 후계자 오고타이(태종)는 계속하여 금을 멸망시키고 광대한 금의 통치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나아가 서쪽의 여러 나라들과 고려에 대한 전쟁을 전개하였다. 구유크와 몽케 통치기에는 남송과 고려에 대한 정벌을 계속하였으며 나아가 토번, 운남과 서아시아 메소포다미아의 보달(報達, 바그다드) 할리와 지역을 통제하였다. 쿠빌라이 시기에는 남송을 멸하고 군대를 파견하여 일본, 안남, 참파, 미얀마와 자바 등에 대한 원정을 연달아 실시하였다. 건국 후 반 세기 남짓한 기간에 몽골 칸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제국으로 발전하였다. 13 세기의 페르시아 역사학자 주바이니는 칭기스 칸과 그의 후계자들을 일컬어 “세계정복자” 라고 하였다. 시각과 식견이 크게 넓어진 현재에서 봐도 이 호칭은 절대로 과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문이 삼대에 걸쳐 이렇듯 대규모의 전쟁을 발동, 지휘한 사실은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일부 역사학자들이 13 세기를 “몽골인의 세기” 라 칭하는 것 또한 이 전쟁의 세계적 규모에 견주어 하는 말이다.⁷²

정복전쟁 과정의 참혹성은 비참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 원정은 몽골인 및 유라시아 각 민족들의 시야를 크게 넓혀 주었으며 동서양 간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였다. 칭기스 칸과 그의 후계자들이 진행했던 정복전쟁이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하던 몽골민족에 미친 지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작고한 역린진(亦隣眞)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많은 몽골인들은 고향 땅을 떠났으며 그들의 후예들은 피정복 지역의 여러 민족 속에 융합되어 갔으며 그 대신 피정복 지역의 사람들 역시 지속적으로 몽골민족 속으로 들어왔다.” 그들 중에는 한족, 흠찰인, 아속인, 알라사인, 강리인, 페르시아인, 아랍인, 거란인, 여진인, 고려인이 있었다.⁷³ 15 세기 이후, 몽골민족에 융합된 여러 민족과 나라의 명칭들은 점차로 몽골 부족과 성씨의 명칭으로 변모하여 갔다.⁷⁴

1368 년, 원의 중원에 대한 통치가 종결되고 몽골 조정은 북으로 철퇴하여 몽골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14 세기 이후에 와서는, 원 시기에 사용되었던 일부 시위 친군과 관료기구 및 이족 명칭들은 다시금 몽골인 유목집단의 명칭으로 몽골과 중국 역사서에 등장한다. 15-16 세기의 아수드(阿蘇特) 부족, 하라친(哈刺陳) 부족, 응세부(應紹卜) 부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5 세기 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아속위(阿速衛)의 이름으로 일컬은 유목부족을 몽골어로는 “Asud”(阿蘇特, 아속의 복수형)라고 한다. 아수드와 하라친 부족은 아수드 귀족 아노태(阿魯台)의 관할 하에 있었다.

원조 시대의 하라치군 및 그 가족들이 발전하여 형성된 것이 15 세기 이후의 하라친인이며 그 뒤로는 몽골 “중앙육만호” 중의 응세부 만호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되었다. 마찬가지로 원조 시대의 강리인들 역시 몽골인에 동화되었으며 “항금”(杭錦, ‘강리’의 또다른 한자 음역)이란 명칭 역시 오르도스(鄂爾多斯)의 한 부락에

72 楊訥, 『世界征服者—成吉思汗及其子孫』(華夏出版社, 2000), 서문.

73 亦隣眞, 「中國北方民族與蒙古族族源」, 『亦隣眞蒙古學文集』(內蒙古人民出版社, 2001), p.580.

74 烏蘭, 「關於蒙古人姓氏」, 『蒙元史暨民族史論文集: 紀念翁獨健誕辰一百周年』(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pp.102-103.

의해 사용되다가 결국 오르도스의 한 기명(旗名)으로 정착되어 간다.⁷⁵ 이밖에도 『황금사강(黃金史綱)』에 보면 몇몇 당울인(唐人)들의 기록이 있다. 예를 들면 탕구트⁷⁶의 듀렝게르(Tangud-un Dülenggeri), 탕구트의 테무르카다크(Tangud-un Temürqadaq), 탕구트의 아자테무르 등이다.⁷⁷ “당울”이라는 민족 명칭이 이미 몽골의 한 성씨로 정착된 것이다. 또 사강 세첸(薩岡徹辰)이 쓴 『몽골원류(蒙古源流)』중에는 “숙량합인(Solonqas) 코도바가(忽都巴哈)”⁷⁸, “숙량합인 상가르도르(桑哈勒都兒)”⁷⁹ 등의 기록들이 나온다.

75 亦隣眞 저, 「額濟納 阿拉善 杭錦」, 陳曉偉 역, 『元史論叢』 제 14집, p. 197.

76 탕구트의 한자는 ‘唐古特’이며 저자에 의하면 ‘당울’의 복수형태라고 한다(역자 주).

77 朱風, 賈敬顏 역, 『漢譯蒙古黃金史綱』(內蒙古人民出版社, 1985), p. 189; p. 197. 저자의 원문에서는 한자로 “唐古特的多蘭格兒”, “唐古特的帖木兒哈達克”, “唐古特的安扎帖木兒”로 표기하였다(역자 주).

78 烏蘭, 『蒙古源流研究』(遼寧民族出版社, 2000), p. 273.

79 위와 같음, p. 277.

지정토론

몽골 제국 시대 몽골인의 명명(命名) 습관에 관한 고찰

[질문자: 윗카이치 야스히로, 답변자: 에르둔바토르]

— 윗카이치 야스히로

쇼와여자대학의 윗카이치 야스히로입니다. 이름을 통해 몽골의 유라시아 패권을 고찰한다고 하는 매우 중요하고 좀처럼 보기 드문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작은 것 두 가지와 큰 것 한 가지입니다. 작은 질문부터 드리자면, 아르군이라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아르군은 마르코폴로나 다른 현지 자료에도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창 선생님께서 논문을 쓰셨지만, 투르크계의 혼혈인을 아르군이라고 부른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르둔바토르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한 가지는 마자르에 관한 것인데, 원대에 나오는 마자르는 헝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지금의 바시키르인(바시코르트/바쉬쿠르트)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말하자면 핀계 스키타이 자손으로부터 몽골 시대에 투르크화한 바시키르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머지 하나, 큰 질문으로는 몽골인의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민족의 지배에 관해서도 과거에는 4 계급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고 말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러한 계급·계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민족마다 행정 통치가 달랐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몽골인이 상당히 우대받았다는 것은 변함 없는 견해입니다. 실제로는 한인이나 고려인도 그렇고 이슬람 교도,

위구르인의 경우에도 몽골인의 이름을 얻으면 몽골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몽골인 황제도 기독교 이름과 불교 이름, 이슬람교 이름의 세 가지를 가진 황제도 있어서, 각각의 이름이 몽골 시대에는 꽤 중요한 요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배했던 곳의 지명을 이름 앞에 붙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종교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도중에 언급하셨지만 이슬람 이름이라든가 불교 이름, 그런 이름을 붙인 사례는 지명을 이름 앞에 붙인 사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에르둔바토르

내몽골대학의 에르둔바토르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아르군은 확실히 매우 중요하 부족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폴 페리오나 중국 남개대학(南開大学)의 장지구(楊志玖) 교수가 여러 가지로 연구하셨습니다. 폴 페리오는, 아르군이 하나의 부족 명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11 세기말 카시가리(Kašigari)가 기록한 아르구 부족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현대의 "카라 키르기스(Kara-Kirghiz, 黑姓乞儿吉思)"의 아르긴 또는 아르군 족과 관련이 있다' 고 썼습니다.

아르군에 관해서는 실로 내용이 풍부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르군은 당시 중앙아시아 칠하(七河) 유역(세미레치에 지방)·금하(楚河) 유역(추이강 지역) 일대

즉 현재의 키르기스 공화국 전역과 카자흐스탄 일부에 거주하고 있는 돌궐 부족입니다. 징기스칸 시대에는 서쪽에서 온 아르군 사람들은 아르군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후 케레이트의 후순(哈散納)의 지휘로 중앙아시아 정복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태종 오고데이 시대에 이르러 아르군 군대는 이슬람 장인 3천호(回回工匠三千戶)에 가입하고 새로이 군대를 편성하여 심마림(蓐麻林), 풍주(豊州), 하수(下水)라는 지역에 주둔하면서 나시시(納失失)라는 면직물 생산에 종사했습니다. 풍주(豊州)는 지금의 후후호토시를 말합니다.

종교에 관해 몽골인은 이슬람교나 기독교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습니다. 20세기 초에 모사트라는 이슬람 선교사가 몽골의 오르도스에서 20년간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1368년 이후 이슬람교 선교사들은 중원지역에서 자취를 감추었지만, 한편으로 오르도스에서 기독교의 영향은 20세기까지 줄곧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몽골인, 예컨대 왕고부(汪古部) 사람이 기독교에 입신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모사트가 고찰한 것 가운데서도 몇몇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고찰한 것을 통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나 국사 연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한쪽 또는 순수한 몽골인을 강조하기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이상에 걸친 몽골 제국 시대에는 실제로 많은 외래문화, 민족, 인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야가 좁은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윗카이치

불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에르둔바토르

고대 몽골인의 성과 이름에 관한 연구는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은 원대(元代)는 종교를 평등하게 취급하였고 종교를 불문하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불교는 역시 매우 중요한 종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용어를 사람 이름에 붙이는 것이 보통이었고 아요시다라, 아요라리와 등이 모두 범어 이름, 불교 이름입니다.

발표논문 5



몽골 제국과 화약병기 (火藥兵器)

— 메이지 (明治) 와 현대의 '원구 (元寇)' 이미지

무카이 마사키

(向正樹, 도시샤대학)

요지

일본 역사학계에서 보는 몽골제국의 이미지는 90년대 이후 크게 변화했다. 특히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씨는 일련의 저서나 언론보도를 통해 몽골 제국의 이미지를 쇄신했으며, 그 영향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 차원에서 몽골 침공의 이미지는 그것이 민족의 정체성 강화에 이용된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식으로 변화된 것일까? 서양화가인 야다 잇쇼(矢田一嘯, 1859-1913)의 파노라마화인 「몽골습래회도(蒙古襲来絵図)」와 최근 일본 만화에 그려진 묘사를 비교해 보았다. 몽골 군을 그리는 그림이나 영상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선진적인 화약병기의 묘사이다. 특히 최근의 전문 연구에서는 그 시대에 존재했다고 증명되지 않은 종류의 화약병기를 몽골 군이 이미 실용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몽골은 중앙아시아·호라즘 왕국 정복 중 바그다드 침공 과정에서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공략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기를 도입하였고 나아가 남중국 원정에서는 수군도 창설하였다. 몽골 제국은 중국이나 호라즘 왕조 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각지의 다양한 기술(과 기술집단)을 흡수해 갔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군사기술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본 발표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많은 몽골 제국의 화약병기 사용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문헌이나 고고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변화된 몽골의 이미지

일본의 역사학계에서 몽골 제국의 이미지는 90년대 이후 크게 달라졌다. 특히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씨의 일련의 저작물¹이나 미디어²를 통해, 몽골 제국의 이미지가 쇄신되고 그 영향은 널리 침투되고 있다. 다원사회를 통치하는 유연성과

1 杉山正明 『大モンゴルの世界—陸と海の巨大帝国—』(角川選書 227), 角川書店, 1992; 『クビライの挑戦—モンゴル海上帝国への道—』(朝日選書 525), 朝日新聞社, 1995; 『モンゴル帝国の興亡』講談社, 1996.

2 NHK 스페셜 「대몽골」(1992년 방송) 등.

경영마인드가 풍부한 통치집단으로서의 새로운 몽골 상이 세계에 과멸을 가져다 준 정복자로서의 고정관념을 대신한다. 몽골인 제일주의, 구유십개(九儒十丐, 유학을 공부한 사람은 9 번째, 거지는 10 번째), 라마교 광신과 같은 고색창연한 옛 정설은 통렬하게 비판 받았다.

그렇다면 국민 차원에서 몽골의 일본원정 이미지는, 그것이 민족적인 정체성 강화로 이용된 세계대전 전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식으로 변해왔을까? 일본의 서양화가인 야다 잇쇼(矢田一嘯, 1859 - 1913)의 파노라마화 「몽골습래회도(蒙古襲来絵図)」와 최근 중국의 관광지에서 나타난 파노라마 전시와 일본의 만화 등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야다 잇쇼(矢田一嘯)와 원구기념비 운동

야다 잇쇼는 일본 메이지기에 활약한 서양화가로서, 역사를 주제로 한 파노라마화를 많이 남긴 인물이다. 1858년 요코하마에서 태어나 일본화를 배운 후에 서양화를 배우고 1882년경에 구미로 건너가 귀국 후에는 우에노 파노라마관에 보신전쟁(戊辰戦争)에 관한 파노라마화를 그려 주목을 받았다.

파노라마관이란 원기둥의 건물 내부에 대 화면을 보여주는 시설이다. 1794년에 런던에서 탄생해 구미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야다(矢田)도 해외에 체류할 당시 그것들을 보았을 것이다. 1890년에 문을 연 우에노 파노라마관은 일본최초의 것으로 아사쿠사, 오사카, 교토, 구마모토, 도야마에도 건설되었다.

야다는 그후 구마모토에 규슈 최초의 파노라마관이 만들어졌을 때 그곳에 세이난전쟁(西南戦争)의 파노라마화를 그리면서 활약했다. 1894년 후쿠오카로 옮겨가자 하카타에 원구기념비(元寇記念碑)를 건설하는 운동에 찬동하여 그것을 위해 원구를 주제로 한 일련의 파노라마화를 그렸다. 원구기념비가 건설된 히가시공원(東公園)에는 그것들을 전시하기 위한 원구기념 파노라마관도 만들어졌다³. 야다는 또한 해부학의 지식을 살려 하카타 인형의 육성에도 노력하였고, 1913년에 사망했다⁴.

(2) 원나라 군사 이미지의 변천—메이지·현대일본과 중국

야다의 파노라마화에는 원나라 군사의 특징 중 하나인 화약병기의 사용이 분명하게 그려져 있다(그림 1). 유명한 「몽골습래회사(蒙古襲来絵詞)」(그림 2)에 그려진 하카타에 상륙한 원나라 군사와의 전투장면에 상상력을 더해서 입체감을 나타낸 구도이다. 앞에서 말한 유지 타케오(湯地丈雄)·다카하시 구마타로(高橋熊太郎)의 『원구(元寇)』에도 ‘てつはう(테츠하우)’가 작렬하는 「몽골습래회사(蒙古襲来絵詞)」의 삽화가 그려져 있고¹,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어서, 화약병기에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3 후술하는 좌야전려상인(佐野前励上人)에 의해 동상 앞 광장에 세워졌으나, 다이쇼(大正) 중기에 큰 폭풍우로 인하여 쓰러졌다. 太田弘毅編著『元寇役の回顧—記念碑建設史料—』錦正社, 2009, p. 164.

4 이상, 太田, 2009 및 西本匡伸編『よみがえる明治絵画—修復された矢田一嘯「蒙古襲来絵図」—』, 福岡県立博物館, 2005에서 인용.



그림 1 야다잇쇼(矢田一嘯) 몽골습래회도(蒙古襲來繪圖) 「하카타 상륙」 本佛寺 우키와시 홈페이지 <らし> 歴史・伝統文化 元寇の油絵. 本佛寺 소장
http://www.city.ukiha.fukuoka.jp/imgkiji/pub/detail.aspx?c_id=71&id=22 2017년 7월 10일 열람



그림 2 「몽골습래회사(蒙古襲來繪詞)」前卷, 繪 7. 궁내청 소장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C5%8Dko_Sh%C5%ABrai_Ekotoba.jpg?uselang=ja 2017년 7월 10일 열람)

원의 군세는 이미 중앙아시아지방에서 백전을 경험한 용맹한 장졸로서 그 지휘가 정연하고 진퇴가 자유자재이다. 전장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특히 독화살을 쏘고, 불화살을 쏘았으며, 그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져 천둥소리처럼 울렸으며 이를 맞은 사람은 아무리 용맹하다 하더라도 곧 목숨을 잃었다...⁵

5 湯地・高橋, 1893, p.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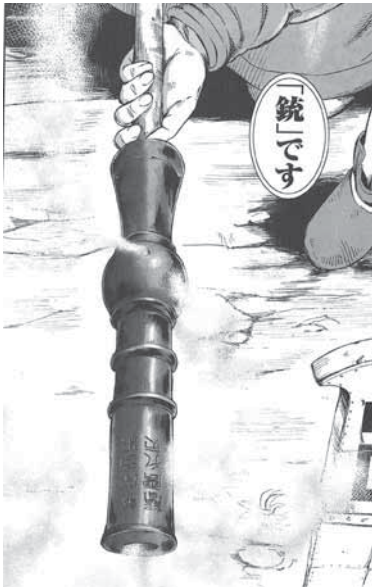


그림 3-a 총 (다카기 나나히코, 『앙골모아 - 元寇合記』 第4 卷, p. 42에서 인용)



그림 3-b 天可汗 (同 第5 卷, p. 106에서 인용)



그림 3-c 울루스 (동 第1 卷 p. 54에서 인용)

오늘날 몽골군을 그리는 그림이나 영상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더 선진적인 화약병기의 묘사이다. 특히 근년 들어 그 시대에 존재했던 것이 온전히 증명되지 않은 종류의 화약병기를 몽골군이 이미 실용화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려지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근년 다카기 나나히코 (たかぎ七彦)의 만화『앙고르모아 원구합전기 (元寇合戦記)』에서는 다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쿠빌라이시대에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금속관형 화기가 등장한다⁶(그림 3-a). 이 사람의 작품은 면밀한 조사에 따른 참신한 묘사를 특징으로 한다. 가령 당나라가 선비족의 왕조이며, 당나라 황제가 ‘천가한 (天可汗)’으로 세계에 군림했다던가⁷(그림 3-b), 몽골 제국을 ‘울루스’라고 기술하는 것은⁸(그림 3-c), 근년의 연구동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몽골인 등장인물의 대사나 군기 (軍旗)에 파스파문자, 위구르문자 몽골어가 많이 사용되어 이국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그림 3-d). 이에 비해 야다 잇쇼의 파노라마화에서는 원나라 군사의 깃발은 기본적으로 한자로 ‘우군 (右軍)’, ‘동로 (東路)’, ‘대원수사 (大元水師)’ 등이었다. 몽골 측의 인물을 그릴 때, 때로는 그들의 가치관의 독자성을 표현하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측면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림 3-e, f) 글로벌세계의 다양성을 반영한 극히 현대적인 표현감각이라 할 수 있다.

6 다카기 나나히코 『앙골모아 元寇合戦記』 第4 卷, 角川書店, 2015, pp. 37-38.

7 同上, 第5 卷, 2016, p. 106. 唐 = 「鮮卑系王朝」說이나 唐太宗의 ‘천가한’ 칭호에 대해서는 森安孝夫 『실크로드와 당제국』 講談社, 2007, p. 138, 164참조.

8 同上, 第1 卷, 2015, p. 54.



그림 3-d 파스와 문자·위구르 문자, 몽골어 (同 第 6 卷 p. 46 에서 인용)



그림 3-e 몽골 장군 (同 卷 3, p. 171 에서 인용)



그림 3-f 몽골 장군 (同 卷 3, p. 172 에서 인용)

최근, 중국대륙의 사례에서 흥미로운 것은 광둥성 (廣東省) 강문시 (江門市) 신회구 (新會區) 에 있는 송원 애문해전 문화유람구 (宋元崖門海戰文化遊覽區) 이다. 1276 년, 애문 (崖門) 에 별궁을 두고 있던 남송의 어린 군주인 조하 (趙昀 송나라 端宗) 를 원나라가 해전으로 멸망시켰는데, 별궁이 있던 자리에 만들어진 테마파크이다. 남송 측의 시점에서 만들어졌다. 공원 가장 안쪽에는 양태후 (楊太后) 를 모시는 자원묘 (慈元廟), 문천상 (文天祥) · 육수부 (陸秀夫) · 장세걸 (張世傑) 을 모시는 대충사 (大忠祠), 송나라 군사를 모시는 의사사 (義士祠), 이렇게 3 개의 새로운 묘우 (廟宇) 가 나란히 서 있다. 이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은 홍콩, 마카오 주민들 외에 미국에 사는 화교들이 각출했다 (그림 4-a). 대 (對) 몽골 전쟁의 기억이 아주 먼 지역에 떨어져 사는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원내의 건물 중 한 곳에는 최근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남송과 원의 전쟁을 그린 파노라마화가 전시되어 있다. 그 중 한 장에는 원나라 군사가 대구경의 대포를 발사하는 그림이 있다 (그림 4-b). 또한 입구 근처의 건물에서 해전의 모습을 그린 재현 CG 영상이 스크린에 비춰지고 있었으나 그 영상에도 원나라 함대가 대포를 일제히 사격하는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4-c). 원내의 전시에 따르면 원군이 대포를 사용했던 것을 포함하여 해전을 상세하게 그렸다는 지방문헌의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었다. 확실히 그곳에는 ‘포 (砲)’ 를 사용했다는 기술이 있다. 그러나 이 ‘포’ 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것을 가려내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2. 만자니크와 화약병기—군사기술의 동서교류

화약병기가 세계사에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15 세기 이후 유럽인들이 아시아와 신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전제조건으로 조선기술, 항해기술과 함께 화약병기의 개량을 들 수 있다. 또한 그 이전 시대에 몇 번이나 유라시아 역사를 크게 뒤바꾸어 놓은 기마유목민족의 세력이 정주 농경민사회의 제국에 대해 열세에



그림 4-a 宋元崖門海戰文化遊覽區
2016년 2월 23일 필자 촬영



그림 4-c 같은 곳 재현 CG 영상



그림 4-b 같은 곳 파노라마화

놓이게 된 한 요인으로서도 후자에 의한 화약병기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빨리 화약병기의 개발을 추진한 것은 중국왕조였다⁹. 더구나 그것을 전쟁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북방 기마 유목민족계의 정권이었다.

유라시아대륙에 동서로 길게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세운 몽골—그 최대 병기는 기마유목민족 나름의 조직력과 기동력이었다. 그러나 특히 중앙아시아 호라즘 왕조를 정복할 때 바그다드 침공 과정에서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공략할 필요 때문에 여러 가지 병기를 도입하였고 나아가 남중국 원정에서는 수군도 창설되었다¹⁰. 몽골 제국은 중국이나 호라즘 등의 정복과정에서 각지의 다양한 기술 (및 기술자 집단)을 흡수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 그것은 군사기술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발표에서는 미해결된 문제가 많은 몽골 제국의 화약병기 사용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9 Jerry H. Bentley, *Old World Encounters: Cross-cultural Contacts and Exchanges in Pre-modern Tim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181-184; Needham, Joseph. *Science & Civilization in China*, Vol. 5: Chemistry and Chemical Technology, Part 7: Military Technology: the gunpowder epic.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템프르, 로버트著, 조셉·니담 序文, 牛山照代訳『圖説 中国の科学と文明』河出書房新社, 1992, 改訂版2006, pp. 380-387 (원저: Robert Temple [Foreword by Joseph Needham]), *The Genius of China: 3000 Years of Science, Discovery & Invention*, Patrick Stephens Ltd., 1986; Carlton Publishing House, 2006).

10 蕭啓慶「蒙元水軍之興起与蒙宋戰爭」『漢學研究』第8卷第2期(16호), 1990, pp. 177-200; 向正樹「蒲寿庚軍事集團とモンゴル海上勢力の台頭」『東洋學法』89(3), 2007, pp. 80-82.

11 松田孝一「モンゴル帝国における工匠の確保と管理の諸相」『2000-2001年度 科学研究費 補助金 基盤研究(B)(1) 研究成果報告書 碑刻等史料의 종합적 분석에 따른 몽골제국·元朝의 정치·경제시스템의 기초적 연구』(研究代表者: 松田孝一; 課題번호: 12410096), 2002, pp. 171-200.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문헌과 고고학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림 5 『집사(集史)』 아라비아어 사본에 그려진 평형추형(平衡鍾型) 투석기(에딘버러대학 도서관 소장) (<https://en.wikipedia.org/wiki/File:MongolsBesiegingACityInTheMiddleEast13thCentury.jp>, 2017년 7월 10일 열람)

몽골 제국이 정복전쟁 과정에서, 중동에서 개량된 평형추형(平衡鍾型) 투석기인 만자니크(그림 5)와 같은 성벽공격용 병기 등 새로운 군사기술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¹². 만자니크의 본래 의미는 투석기이다. 얼마만큼 큰 거석을 날려서, 유라시아 대륙의 도시에 흔히 있었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것이 주된 사용목적이었다. 『집사(集史)』에는 1258년의 훌라구 서정(西征) 때 주변의 산에서 돌을 모아 투석기로 날려 성벽에 구멍을 뚫었다는 기록이 있다. 거석을 날릴 수 있는 만자니크가 바그다드 함락의 결정타가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쟁에서 화약병기가 사용된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집사(集史)』에 따르면 그것은 중국에서 온 것이었다. 『집사(集史)』 훌라구칸기(記)에 따르면, 1251년 제4대 황제 몽케가 동생 훌라구에게 바그다드원정을 명했을 때 중국에서 3종류의 병기를 취급하는 기사 1천명을 보냈다. 이들을 취급하는 병기의 종류에 따라 페르시아어로 Manjanīqī, Naftandaz, Charkhandaz 라고 적었다¹³. 이는 각각 페르시아어로 ‘Manjanīq 를 취급하는 자’, ‘Naft 를 투사하는 자’, ‘Charkh 를 투사하는 자’ 를 의미한다. Manjanīq 는 앞서 쓴 만자니크이며, Naft 는 본래 석유를 의미하는 말이었으나 화약이라는 뜻도 있다. Charkh 는 화전(소위 로켓)과 같은 것일 것이다. 종전에 이들은 ‘돌·석유·창을 투사한다’라든지 ‘포수·화염방사수·대공수’라는 식으로 해설되어 있다.

12 杉山, 1992, p. 237; 1995, p. 177.

13 콘스탄틴 무라자 도슨著, 佐口透訳『モンゴル帝国史』4(東洋文庫235)平凡社, 1973, p. 138; 拉施特主編, 余大鈞訳『史集』第3卷(漢訳世界學術名著叢書)北京:商務印書館, 1997, p. 138; Фазлаллах Рашид ад-Дин, Джами‘ат-таварих: критический текст А.А. Али-Заде, Москва: Изд-во Наука, 1965, Persian text, p. 22.

몽골제국 시대의 용례에 대해서는 Naft 를 석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아랍어나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는 올바른 판단일지도 모르나, 석유 못지않게 화약이 병기로 사용된 중국에서도 그 용례가 통할지는 많이 재고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이븐 바투타 여행기에 중국 정크선의 탑승자로서 Naft 를 던지는 병사에 대한 기술이 있다. 여행기에 역주를 붙인 야지마 히코이치(家島彦一) 씨는 Naft 에 대해 “돌을 면으로 감싸 석유를 묻혀서 점화하고...” 라고 추정해서 말하고 있다¹⁴. 그러나 Naft 라는 말은 나중에 화약이라는 뜻도 갖게 된다. 이븐 바투타 여행기는 중국 정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며 더구나 이븐 바투타보다 70 년도 더 이전에 ‘테츠하우(てつほう)’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Naft 를 화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바그다드 포위전 때, 탈출하려는 적군에 대한 포격으로 부카테무르라는 장군이 이끄는 군이 ‘qawārīr naft’ 를 사용했다는 기사가 있다¹⁵. Qawārīr 란 페르시아어로 ‘플라스크’ 나 ‘병’ 을 의미하며, 아랍어 qārūra(t)(의미는 유리병, 약병)의 복수형 qawārīr 에서 유래한 것이다. “나프톨을 뭔가 깨지기 쉬운 용기에 넣은 것” 이리라. 만약 naft 가 화약이라면 내몽골이나 규슈에서 출토되고 있는 도기제품의 화약으로 만든 공일 것이다(그림 6). 이 화약공이 구(舊) 금조(金朝)의 화북출신의 한인부대의 병기라면, 『금사(金史)』에서 볼 수 있는 ‘진천뢰(震天雷)’에 가까운 것이라 보인다. 즉 바그다드 함락의 결정타는 어디까지나 투석기였으나, ‘진천뢰’와 유사한 화약병기도 마찬가지로 활약했다는 것이다.



그림 6 てつほう(테츠하우) 마쓰우라(松浦)시 매장문화재센터

1268 년에서 1273 년까지 몽골에 의한 상양(襄陽) 공격 시, 원정군 수뇌부의 한 사람인 위구르인 장군 에리크가야가 서역과 같은 강력한 투석기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서, 황제 쿠빌라이가 일칸국(旭拉可家) 당주 아바카에게 의뢰하여

14 이븐=바투타著, 이븐=주자이이編, 家島彦一訳注『大旅行記』(東洋文庫691)第6巻, 平凡社, 2001, p. 128; 184, 注163.

15 Фазлаллах Рашид ад-Дин, 1965, Persian text, p. 57.

아라오와딩(阿老瓦丁)과 이스마인(亦思馬因)이 중국에 파견되어¹⁶, 상양의 성벽을 파괴했다.

중국에는 화약병기인 진천뢰가 있었으나, 만자니크만큼 강력한 투석기가 없었다. 반대로 서역에는 만자니크는 있었으나 화약의 탄환을 그것으로 날리는 발상이 없었다. 각각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융합한 유연함과 구상력이야말로 유라시아세계제국을 구축한 몽골의 대단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두 종류의 화약병기와 ‘포(砲)’의 딜레마

몽골제국(원) 시대는 일찍부터 화약병기를 발달시켜 사용해온 중국으로서도 화약병기가 전쟁에 광범위하게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대로 보인다. 이 시기의 화약병기 사용에 대한 기술한 한자문헌은 매우 풍부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원 시대에 ‘포’라고 불린 것들 중에서 그 실제적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화약병기로는 아래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도기로 된 폭탄(도제폭탄)과 금속관형의 사격성 화기의 2 종류가 있었다는 것, 그 조합이 몇 가지나 되었으리라는 것, 이들을 지칭하는 한자어가 확실치 않다는 것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자어에서 예로부터 화약병기를 지칭하는 글자로는 ‘포(砲, 나중에는 炮)’를 사용해 왔다. ‘砲’는 본래 ‘礮’라 쓰였고, 거석을 던지는 기계를 지칭하며, 화약병기가 등장하기 이전 『후한서(後漢書)』 원소전(袁紹傳)에 그 용례가 나와 있다. 한자 왼쪽의 석(石)자 변은 뜻을 나타내고 성(聲)부의 ‘包’가 소리를 나타낸다(일설에는 굉음을 표현한다고 함). 이것이 아마도 금(金)에서 원(元)에 이르는 시기에 화약병기를 지칭하는 글자가 되었다. 하카타만이나 이마리(伊万里)만에서 실물도 발굴되고 있는 화약병기인 ‘테츠하우(てつほう)’의 한자표기도 그런 것이리라. 그런데 동시에 이 시기에는 전술한 투석기의 만자니크가 ‘회회포(回回砲)’라 불리고 있었다. 따라서 개개의 용례에서 ‘砲’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는 즉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고고학 발굴의 성과를 살피고 문헌의 용례를 자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래에서 몇 가지 더 가설적인 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a. 도제폭탄(陶製爆彈)

‘테츠하우(てつほう)’란 직경 15센티, 도기제의 구형 그릇에 화약을 넣어 폭발시키는 것이다. 1281년의 일본 원정 때 4천 척의 몽골 군함이 침몰했다는 나가사키현 마츠우라시(松浦市) 다카시마(鷹島) 해저에서는 투구나 화살다발 등의 많은 유물과 함께 ‘테츠하우(てつほう)’가 발견되었다. 해저유물은 외부를 둘러싼 조개껍질 탓에 형상을 판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또한 금속유물은 녹과 조개껍질이

16 『元史』卷128, 阿里海牙傳, p. 3125(中華書局); 同卷203, 工芸傳, 亦思馬因, p. 4544 「亦思馬因, 回回氏, 西域旭烈人也. 善造砲, 至元八年與阿老瓦丁至京師. 十年, 從國兵攻襄陽未下, 亦思馬因相地勢, 置砲于城東南隅, …」; 蘇天爵『元朝名臣事略』卷2, 丞相楚國武定公(阿里海涯), p. 33(中華書局) 「九年, 公請以西域礮攻樊城…」.

두껍게 붙어 있어 본래 모양을 알아보려면 3차원적인 입체상을 고속, 고출력으로 촬영할 수 있는 엑스레이 CT 스캐너를 활용한다. 다카시마에서는 내용물이 남아 있는 ‘테츠하우’도 발견되어 엑스레이와 CT 조사에 따르면, 내부에 장방형 모양으로 잘린 철판, 도기편양(陶器片様)이 채워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철판에는 기포가 있어 주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들이 화약의 폭발과 동시에 파쇄, 비산하여 강한 살상능력을 실현했다고 생각된다. 입쪽 부근에는 섬유질의 흔적이 보여 도화선 내지는 유기물의 안 뚜껑(內蓋)이 있었다고 생각된다¹⁷.

일본 원정에 ‘테츠하우’를 투입한 황제 쿠빌라이 시대, 원나라 군대가 화약부대를 활용하였다는 기술은 적지 않다. 한(漢)족 장군 장영(張榮)의 아들인 군좌(君佐)는 남송 평정전투에서, ‘화포(火砲)’를 사용했으며¹⁸, 전술한 나얀의 반란에서도 원의 이정(李庭)이 결사대에게 ‘화포’를 가지고 야습하여 자폭하게 해서 적을 대혼란에 빠뜨렸다는 기사가 있다¹⁹. 또한 원이 남송의 잔당들을 멸망시킨 애산전투에서 남송 함대에 대해 ‘포(砲)’를 사용하는 방식이 검토되었다는 기술도 있다. 이 제안에 대해 ‘포’를 사용해도 “불이 일어나면 즉시 배가 날라간다. 싸우느니만 못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던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게다가 후속 전투 장면에서 “弧弩火石交作”이라는 묘사가 있어서, 해전에서 화기를 사용했음을 뒷받침해준다²⁰.

b. 금속관형 사격성 화기(金屬管形射擊性火器)

더욱이 놀랄만한 일은 근 현대의 총이나 대포의 조상쯤으로 보이는 금속관형의 사격성 화기까지도 몽골 제국군이 널리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화총(火銃)’ 등으로 쓰고 있는 동제, 철제의 이런 병기가 송대의 죽통(竹筒)을 이용한 ‘화통’ 같은 것으로부터 파생되어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서 명나라 때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²¹.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이미 아마도 10개를 훨씬 넘는 수의 ‘화총’이 원대의 것으로 추정되어 박물관에 전시 소장되고 있다. 근년, 내몽골 몽원문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파그파문자로, 대덕 2년(1298년)이라고



그림 7 파스파문자 大德 2 年 銘銅火銃
내몽골 원문화박물관

17 今津節生「4. 長崎県松浦市鷹島海底遺跡出土品の 엑스레이와 CT 調査」『蒙古襲来, 元の軍船からみえてくるもの』(鷹島神崎遺跡国史跡指定記念심포지엄要旨集), 2013, pp. 287-300.

18 『元史』卷 151, 張榮伝, p. 3582.

19 『元史』卷 162, 李庭伝, p. 3798.

20 『元朝名臣事略』卷 6, 元帥張獻武王, 中華書局本, p. 106.

21 劉旭『中国古代火藥火器史』鄭州, 大象出版社, 2004, p. 31, 53.

새겨진, 길이 34.7 센티미터, 구경 10 센티미터의 동화총(銅火銃)이 진품으로 인정되었으며(그림 7)²², 지금까지 년도(紀年)를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간주되어온 중국 국가박물관 소장의 1332 년 동화총(銅火銃)을 능가하는 최고의 물건이 되었다.

이 동화총은 원의 상도유적(上都遺跡) 주변의 민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상도 수비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대덕 2 년이라 하면 쿠빌라이정권 말기에 제국을 뒤흔든 징기스칸의 남동생의 일족인 나얀, 카다안의 반란을 진압한지 6 년 후이며, 원은 아직 동부 몽골리아 방면으로 경계를 풀 수가 없어서 화기부대를 배치하여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c. 선상(船上)에서의 화약병기 사용?

1984 년 중국 산둥성(山東省) 등주항(登州港)의 봉래수성(蓬萊水城)에서 3 척의 고선(古船)이 출토되었다. 그 중 1 척은 남은 길이가 28.6 미터, 남은 폭 5.6 미터였으며, 전장 32.2 미터, 폭 6 미터의 중(中) 규모 전함으로, 원대 말기에서 명대 초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오래된 배와 함께 석탄(石彈), ‘동포(銅砲)’, ‘철포(鐵砲)’가 출토되었다고 한다²³. 화총을 사용한 해전을 구상하고 만들어졌다면 화기를 장착한 군선이 중국에 출현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경악할만한 사례이다.

마무리

이상과 같이 화약병기를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몽골 제국상의 변화, 그리고 군사기술에서 본 몽골 시대의 유라시아 교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몽골 제국의 화약병기 사용의 기술사적인 고증도 중요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메이지와 현대 일본의 원구 이미지를 대비해볼 때, 화약병기가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유지 타케오(湯地丈雄) 등은 『원구』 결론 부분에서 중앙아시아 땅인 투르키스탄 등이 징기스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것은 충신의사(忠臣義士)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애국심’이 모자랐던 탓이라 하고, ‘우리 대일본제국의 인민’들은 도키무네(時宗)의 영단과 여러 장군들의 담대한 용맹함뿐 아니라 애국심이 없었다면 강적을 물리치고 우리 제국의 위용을 해외에 빛내고 일본남아의 용기를 세계에 알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²⁴. 또한 유지는 아다 잇쇼가 그린 원구대유화의 화집에 쓴 서문에 청일전쟁 후인 1897 년 당시의 정세를 “전 세계(宇内)의 형세는 동양의 위기,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가을”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평화롭게 친목을 도모하며 지내고 있지만, 전후에

22 鐘少異, 齊木徳·道爾吉, 硯鴻, 王兆春, 楊泓「內蒙古新發現元代銅火銃及其意義」『文物』2004 年 11 月(總第 582 号), pp.65-67+3plates.

23 席龍飛『中国造船史』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0, p. 210;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煙台市博物館, 蓬萊市文物局『蓬萊古船』北京: 文物出版社, 2006: 彩圖 20, 41, 도판 4.

24 太田, 2009, p. 106.

경계해야 할 바 또한 전날에 배가되는 것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²⁵. 그 배경에는 러일전쟁을 앞두고 구미열강에 대항하면서 국가의 생존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메이지 일본이 처한 상황이 짙게 반영되어 있다. 이는 또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도 어딘가 비슷하다.

유라시아 동방에 유례없는 충격을 가져다 준 몽골의 일본 침공에 대한 기억은 만화나 TV 드라마, 영화 등의 표현의 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어떤 영감을 사람들에게 줄 것인가. 일본을 둘러싼 극동 정세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대국화와 해양진출은 화제가 되기 일쑤이다. 세계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해양과위의 확대는 명나라의 정화(鄭和)로부터 실로 600 년만에 일어난 현상이다. 외양함대의 운용이라는 의미에서는 “정화에 의한 대항해는 몽골제국의 해양정책의 계속일 것”이라고 한다²⁶. 정화의 대항해 시대에는 일본열도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몽골의 일본 침공 때는 쓰시마와 하카타 등이 전쟁터가 되었다. 만화『앙골모아』에서 그려진 하이테크의 상징으로서의 화약병기는 대략 730 년만에 선진적인 군사대국으로서 해상에 대두하는 이웃나라에 대한 두려움의 상징이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

야다 잇쇼의 파노라마화에서는 잔학성이 과장되어, 몽골의 일본침공의 공포에 가득 찬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앙골모아』에서 원군 군사의 전리품을 서로 뺏는 추악한 면이 그려지기는 해도 그것이 일본 측 등장인물의 배신이나 극악무도한 행위보다 더 심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본래 이 작품에는 유지·야다와 같은 애국주의적인 주제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화약병기의 묘사에 대해서도 송원애문고전장(宋元崖門古戰場)의 재현 그래픽에 비하면 얕전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적대하는 타자는(그 극악무도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기와 구별되고, 이로써 인식되는 것 이외에) 실제보다 강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다. 일본, 유럽, 이슬람 사료에서 보이는 몽골군의 이미지를 비롯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기록에 그런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라크의 구 후세인 정권의 핵 의혹도 그런 면을 가질 것이다. 몽골군의 공포스러운 이미지는 일반적인 과장 표현이 리얼리티를 가지지 않게 된 지금, 신형 화약병기에 의한 것 외에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감사의 말

다카기 나나히코씨, 가도카와 서점(『앙골모아 元寇合戦記』) 및 가쓰우라시 교육위원회 문화재과 문화재계(테츠하우)에서 줄고의 관련 이미지 사용을 흔쾌히 허락해주었다.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원문 일본어, 번역: 이혜리)

25 太田, 2009, p. 128.

26 『新編高等世界史B 최신판』 帝国書院, 2002, p. 147.

지정토론

몽골 제국과 화약병기(火藥兵器)- 메이지(明治)와 현대의 '원구(元寇)' 이미지

[질문자: 초그트, 답변자: 무카이 마사키]

— 초그트

내몽골대학의 초그트입니다. 무카이 선생님의 논문 「몽골 제국과 화약병기」에 관해서입니다만, 메이지 시대 그리고 현대 일본인이 원구(元寇)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원구 그림을 통해 근·현대의 일본인에 대한 원구의 영향을 소개하는 것이 논문의 주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의 침입에 대해 각국이, 그보다는 각국의 후세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른 인식과 이해를 하고 자기 나름의 해석이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자기 민족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족에 따라 인식이나 이미지도 달라집니다. 무카이 선생님은 주로 메이지 시대와 현대의 일본 지식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대상으로 해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풍부한 시사를 주는 말씀을 해주셔서 원구에 관한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상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 속 병기의 고찰을 통해 원대(元代)에 사용되었던 화약병기에 대해 규명하고 또 사료에 바탕을 둔 해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흥미 깊게 들었습니다. 몽골·원 시대의 역사, 특히 몽골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연구할 때는 역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교류나 국제화라는 면에서 생각한다면 매우 흥미 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원 시대에, 세계의 '일체화' 나 '글로벌화' 등의 용어가 있었지만, 실은 이 시기도 병기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카이 선생님 말씀처럼, 화약병기는

이 시기로부터 차츰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해도 아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방금 장지아(張佳) 선생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남송 시대에는, 현재 중국측 사료에 남아 있는 기록으로, 1123년 이성계가 구리로 된 화약병기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금사(金史)』에도 관(管) 모양의 화약병기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금과 송이 대진했을 때는 화약병기도 약간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의 화약병기는 주로 대나무나 목재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제조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사용에 그다지 편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 이후로는 송, 금 시대의 기초를 바탕으로 금속제 화약병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기록을 통해 화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화총의 출현은 당시 대적하는 양측의 입장에서도, 당시의 전쟁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몽골·원 시대의 과학기술의 진보라고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몽골·원 시대의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가령 중앙아시아의 천문학, 아라비아의 수학 등 여러 학문이 도입되고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카이 선생님 발표는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원대 중 후반에 화총이 전쟁에서 사용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원장(朱元璋)과 장사성(張士誠)의 싸움에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분명히 그런 병기가 아직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류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발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의 대덕(大德) 2년에 화총이 등장했습니다. 사진도 보여주셨지만, 내몽골의 몽원(蒙元) 문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구리 화총에 관해서인데, 몽원문화박물관은 어디에 있는지요? 어떻게 이 화총을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 무카이

도시샤대학의 무카이 마사키입니다.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실은 저는 그 박물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2004년경인가, 베이징대학에서 이 박물관의 전시품을 가져와서 전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소개로는 몽원문화박물관이라는 곳은 민간에서 출토한 것을 이리저리 수집한 것이어서 고고학적으로는 확실히 어느 때의 유물인지, 어디서 출토된 것인지, 분명치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 후 아마 내몽골의 어느 선생님이 이들 출토품에 새겨진 글을 해독하는 등의 연구를 통해 문물을 소개했다는 정도 밖에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몽골 몽원문화박물관이라고 하는 민간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수년 전에 NHK 취재반도 보러 간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 자신은 거기가 어디인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초그트

약간 보충하자면, 실은 올해 내몽골대학의 어떤 학생도 원나라 병기에 관해 석사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대덕(大德) 2년의 구리 화총을 예로 들었는데, 그 화총이 제작된 곳이나 그 이상의 자세한 것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서 출토된 것인지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신빙성 있는 사료적 증거가 없을까 하는

관심에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논문 6



조선왕조가 편찬한 『고려사』에 수록된 원의 일본 침공에 관한 서술

쑤 웨이궈

(孫衛國, 남개대학)

요지

조선왕조는 건국 초기에 편년체로 『고려사』를 편찬하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 세종시기에 왕조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고려사』를 기전체로 바꾸어 편찬했으며 총 139권으로 구성되었다. 『고려사』에 실린 일본 원정은 고려의 자주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원과의 지혜로운 교섭, 정벌을 위해 고려가 제공한 군량, 인력 등을 자세하게 수록했다. 아울러 고려를 배신하고 원에 귀화한 고려인은 ‘반인(反人)’으로 간주하고 「반역전」에 수록했다. 이는 종번(宗藩) 체제하에서 자주성을 위한 고려의 노력을 보여준다. 「충렬왕세가(忠烈王世家)」와 「김방경전(金方慶傳)」에 수록된 일본 원정사는 고려의 장군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인물이었으나, 몽골의 최고사령관은 독단적이고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했으며 게다가 ‘태풍’까지 겹쳐서 정벌을 실패로 돌아가게 한 원인이 되었음을 밝혔다. 『원사(元史)』나 일본 사서에 비해 『고려사』에 수록된 일본 원정에 관한 기술은 매우 편파적이다. 동아시아 3국의 역사적 사건을 연구함에 있어 우리는 ‘일국의 역사’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역사의 진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작하며

지원(至元) 11년(1274)과 지원 18년(1281), 쿠빌라이는 2차에 걸쳐 일본 원정을 단행했다. 이는 동아시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유명한 사건이다. 원의 속국이었던 고려는 일본 침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원은 고려에게 원정을 위한 함선, 군용 물자 제공을 강요했다. 고려 역시 원에 협력하여 원정군을 파견했다. 조선왕조 정인지(鄭麟趾)의 『고려사』에 수록된 내용은 일본원정에서의 고려의 포지션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정에 대한 고려의 입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고려사』에 수록된 일본원정사는 주로 「원종세가(元宗世家)」, 「충렬왕세가」, 「병지(兵誌)」, 「김방경전」 등에 수록되었다. 내용이 분산적이긴 하나,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는 원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또 원정 과정에서 원의 요구에 대한 고려의 교묘한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종번관계(宗藩關係)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조선왕조의 『고려사』 편찬 의도와 경위

1392년, 이성계는 왕위에 오른 후, 왕조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명에 사신을 보냈다. 그는 ‘권지국사(權知國事)’의 이름으로 한상질(韓尙質)을 명나라에 보내 ‘화녕(和寧)’, ‘조선(朝鮮)’으로 국호를 신청했으며 명나라와의 종번관계를 적극 추진했다.

명 태조 주원장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하사했으며 이성계는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다. 기사(箕子)가 주(周) 무왕(武王)의 책봉을 받았던 것처럼 명 황제의 책봉을 받음으로써 중주국의 인정을 통해 정통성을 확립했다. 아울러 건국 초의 급선무로, 이성계는 고려사 편찬을 서둘렀으며 역사를 통해 신 왕조를 합법화하고자 했다. 한국 학자들에 따르면 “고려시기의 역사를 통해 고려왕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향후 통치 방향을 확립했다.”¹ 상술한 배경속에서 조선왕조는 고려사 편찬을 시작했다.

편찬 초기에는 편년체로 역사편찬을 시작했다. 태조 4년(1395) 이성계는 정도전 등에게 고려실록 등 역사자료에 근거해 편년체의 『고려국사』 편찬을 명했으며 총 37권의 『고려국사』가 완성되었으나 이 책은 이미 없어지고 전해오지 않는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에 각 왕의 『실록』과 검교시중(檢校侍中) 문인공(文仁公) 민지(閔漬)의 『강목(綱目)』과 시중(侍中) 문충공(文忠公) 이제현(李齊賢)의 『사략(史略)』, 시중(侍中) 문정공(文靖公) 이색(李穡)의 『금경록(金鏡錄)』을 모아서 편집하여, 좌씨(左氏)의 편년체(編年體)를 모방하여 3년 만에 37권이 완성되었다. 살펴보건대, 이 책에는 잘못된 내용이 많고, 대체적인 내용은 원종을 긍정하고 외람된 기록이 많아서 나중에 정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² 본 사서는 단시일내에 완성되긴 했으나 참고 자료가 한정적이고 특히 이성계에 관한 내용이 부실해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본 사서의 다수 내용은 『고려사절요』에 수록되었으며³ 향후 고려사 편찬의 기반을 마련했다.

태종 14년(1414), 태종은 춘추관사(春秋館事) 하륜(河崙), 변계량(卞季良) 등에게 『고려국사』 개수를 명하였으나 2년 뒤 하륜이 사망하자 중단되었다. 세종 1년(1419)에 개수를 명하여 세종 3년(1421)에 완성하였으나 세종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세종 5년(1423)에 변계량, 유관(柳觀), 윤회(尹淮) 등에게 개찬을 명해 이듬해에 『수교고려사(讎校高麗史)』가 완성되었으나 의견 차이로 인해 발간되지 못했다. 세종 13년(1431) 세종은 춘추관사 신개(申概), 권제(權躋) 등에게 고려사를 개수할 것을 명하였으며 다양한 고려사 자료를 참고했다. 세종 24년(1442)

1 진상승, 「명나라 사건에 대한 조선 왕조의 정관」, 『제3회 한국전통문화 국제학술세미나 논문집』(산둥대학교출판사, 1999년), p. 924.

2 박인호 저, 전영·김금자·정경일 번역, 『한국사학사』(홍콩아주출판사, 2012년), p. 55.

3 『동문선(東文選)』 권 93 「진고려사서문」 서울: 경희대학교출판사, 1968년(采摭各朝实录, 及檢校侍中文仁公閔漬『綱目』、侍中文忠公李齊賢『史略』、侍中文靖公李穡『金鏡錄』, 汇而輯之. 仿左氏編年之體, 三年而成, 为卷三十有七. 顧其書, 頗有舛誤. 至于凡例, 以元宗以上, 事多僭擬, 往往有所追改者)

8월에 『고려사전문(高麗史全文)』이 완성되었다. 이 책은 세종 30년(1448)에 일단 인쇄되었으나 편찬자의 요지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포중지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편찬을 위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했다.⁴

조선왕조는 건국 후 몇 십년 동안 고려사 편찬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만족할 만한 사서는 만들지 못했다. 세종 31년(1449)에 김종서(金宗瑞), 정인지 등은 『고려사』를 다시 쓰라는 명을 받고 편년체를 기전체로 바꿔 편찬했다. 『진고려사전(進高麗史箋)』에 따르면 “그 범례(凡例)는 모두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본받았으며, 대의(大義)에 있어서는 모조리 성재(聖裁)에 품신(稟申)하였습니다. 본기(本紀)를 피하고 세가(世家)로 한 것은 명분(名分)의 중함을 보인 것이요.”⁵ 편년체는 왕조의 정통성 확립에 부적절하므로 태조 건국 초부터 사서를 편찬하기 시작해 역대 왕에 걸쳐 몇 부나 만들었지만 조선 왕들의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다. 그러므로 기전체로 개찬할 수 밖에 없었다. “기전체는 편년체보다 기존 역사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구조에 대한 이해 등의 면에서 장점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고려시기 역사를 편찬하려는 조선 통치자들의 의도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⁶ 문종 1년(1451) 8월에 최종 완성되었으며 총 139 권으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은 목록(目錄) 2 권, 세가(世家) 46 권, 지(志) 39 권, 연표(年表) 2 권, 열전(列傳) 50 권이다. 그 후 김종서는 기전체 『고려사』를 토대로 편년체를 개찬했으며 이듬해 2월에 『고려사절요』 총 35 권을 만들었다. 두 사서는 전대 왕조의 역사 편찬을 통해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조선 통치자들의 목적을 실현했다.

『고려사』에는 “세가”로 왕의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명문의 중요함을 보였으나 송, 원 등 중국 황제의 연호는 사용하지 않고 고려왕 재위 기간의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고려왕조의 상대적 독립성을 보여주었다. 사실상 고려 건국 이후, 오대, 송, 요, 금 황제의 연호를 사용했다. 고려 원종부터는 몽골 연호를, 충렬왕부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원의 연호를 사용했다. 중원 왕조와의 교섭과정에서 고려를 신복(臣服)케 한 왕조는 오로지 송뿐이었으나 양국의 종번관계 유지기간은 가장 짧았다. 그 뒤로 종주국은 요, 금, 원으로 바뀌었으며 고려는 이러한 유목민족이 세운 왕조에 정치와 군사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신복했지만 문화적인 면에서는 신복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의 관찬사서 『고려사』에는 본기(本紀)를 사용하지 않고 세가 체제를 사용함으로써 번왕의 명분을 보여주었지만 중국 황제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고려왕 재위 기간의 연호를 사용했다. 이러한 기년 방식은 번국(藩國)의 입지를 인정하면서도 순순히 신복하지 않는 강한 자주의식을 보여주며 『고려사』 편찬의 기본 배경이 되었다.

몽골과 고려의 교섭은 고종 5년(1218)에 몽골군이 거란의 유민(遺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고려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양국은 동맹관계를 맺고 공식 교섭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몽골은 여러 차례 고려에 재물을 요구해 고려의 불만을 샀다. 양국 간 전쟁은 귀국하던 몽골 사신이 피살되면서 발발했다. 1231~1258년, 고려에 대한 몽골의 침략은 일곱차례나 되었으며 고종 46년(1259)에 고려 태자 왕전(王僊)을 몽골에 보내어 양국은 종전에 합의했다. 그 당시 마침 몽골

4 박인호, 『한국사학사(学史)』, p. 55.

5 박인호, 『한국사학사(学史)』, p. 57.

6 『동문선(東文選)』 권44『진고려사전』(凡例皆法于迁史, 大义悉稟于圣裁. 避本纪为世家, 所以示名分之重)

대칸(大汗)이 사망하면서 쿠빌라이가 왕위에 올랐고 원을 세웠다. 얼마 후, 고려의 고종이 사망하자 쿠빌라이는 사신을 보내 왕전을 고려로 돌려보내 왕위에 오르게 했다. 원종 즉위 후 양국의 평화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쿠빌라이는 고려의 협력을 받아 일본원정을 시작했다. 조선은 고려를 중심으로 『고려사』를 편찬했으므로 일본원정사에 대한 서술도 조선왕조식의 “몽골침공” 버전이다.

2. 일본 원정에 대한 『高麗史·世家』의 편찬 원칙과 사료의 선택

일본원정을 시작하기 전, 쿠빌라이는 일본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 오랜 기간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다. 따라서 고려왕조는 어쩔 수 없이 원의 길잡이가 되었다. 이 부분은 『고려사』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부득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고려의 태도와 원의 압박 속에서 독립과 자국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고려사』의 서술 원칙은 고려왕조를 중심으로 자국의 의도와 입장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의 준비단계로 원의 무리한 요구와 고려의 소극적인 대응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원종 7년(1266), 일본 원정을 시작하기 전에 쿠빌라이는 고려를 경유해서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다. 고려와 일본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낸다는 고려인 조이(趙彝)의 밀고를 들은 쿠빌라이는 조서(詔書)와 함께 사신 흑적(黑的)과 은홍(殷弘)을 고려에 파견하고 고려에 대해서도 사신을 파견할 것을 명했다. 고려는 어쩔 수 없이 추밀원(樞密院)의 송군비(宋君斐)와 시어사(侍御史) 김찬(金贊)을 시켜 흑적 등과 함께 일본에 가게 했다. 그러나 결국 일본에 도착하지는 못했다. 원종 8년(1267) 정월에 송군비, 김찬과 몽골 사신은 거제까지 갔다가 풍랑이 심해 돌아왔다. 원종은 송준비에게 흑적과 함께 원나라 황제에게 보고하도록 명했으며 주소(奏疏)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첫째, 일본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 즉 풍랑이 심한데다 일본인들은 “무례하기 짝이 없어” 몽골 사신의 신변안전을 염려해 부득이하게 포기했다는 것. 둘째, 고려와 일본이 친하게 지낸다는 조이의 중상모략에 대한 해명, 특히 “본국은 일본과 가깝게 지낸 적이 없으며 가끔 쓰시마 섬의 주민들과 무역을 진행할 뿐, 다른 일본인과는 한번도 교류한 적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조이의 거짓말은 근거가 없다는 것. 셋째, 원 세조 즉위 이후, 고려에 대한 융은(隆恩)을 아끼지 않았으므로 “성은이 망극하오니 항상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필요로 한다면 반드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맹세합니다(聖恩天大, 誓欲報効, 如有可為之勢, 而不尽心力有如天日)” 라며 미미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하였다. 이는 결의를 나타내는 상주서(上奏書)이자 고려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명하는 상주서이고 외교사령(辭令)을 열거한 것이다. 몽골은 처음으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당시 고려는 이 사건에 흥미가 없었고 소극적 태도로 대응했을 뿐이었다.

물론, 고려의 소극적인 의도를 몽골은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다. 8월 초하룻날, 흑적, 은홍 및 송군비는 몽골의 문책 조서를 가지고 고려로 돌아왔다. 고려의 핑계와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쿠빌라이는 고려가 책임 회피를 위해 잔꾀를 부리고 성실하지 못하다며 거세게 질타했다. “덕 없는 자는 하늘의 버림을 받으리라. 인간은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데 경은 이미 여러 번 식언을 했으니 스스로 반성하라”. 이와 더불어 몽골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할 것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반드시 성은에 보답할 것을 맹세한다”는 고려의 태도를 재확인하면서 지금이 바로 고려가 몽골에 보답해야 할 시기임을 지적했다. 몽골의 온갖 압박 속에 고려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할 수 밖에 없었으며 원정의 길잡이가 되었다.⁷

십 여일 뒤, 고려왕 원종은 기거사인(起居舍人) 반부(潘阜)에게 원과 고려의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가게 했다. 원의 국서에는 이르기를, “고려는 짐의 동부에 위치한 번국이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건국 이래 중국과 교통했던 걸로 알고 있으나 짐이 즉위한 후 귀국과의 교류가 중단되었으니 사신을 파견해 짐의 의지를 전하노라. 앞으로 양국이 서로 우호적으로 친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바이다. 성인은 세상을 자기집처럼 여긴다고 했으니 서로 교통하지 않고서야 어찌 한 집안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 귀국에 출병할 터이니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⁸ 쿠빌라이는 사신을 통해 일본과 교류할 것을 원했고 일본도 이에 동의할 것을 바랐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군사를 일으켜 압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려도 일본에 국서를 보내 몽골에 대한 고려의 입장을 밝혔으며 일본에 대해 원의 사신에게 굴복할 것을 권했다. 다시 말해, 원은 기존에 일본과 교류가 없었고 또 일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지만 쿠빌라이는 고려를 통해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 의사를 전했다. 고려는 원의 강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양국을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쿠빌라이의 조서를 일본에 전달함과 동시에 고려의 국서를 보냄으로써 사신을 통한 교류를 제안했다. 일본은 사신까지 파견해 선의를 베풀고자 했던 몽골을 무시했다. 그 후, 쿠빌라이는 일본에 조양필(趙良弼)을 사신으로 보냈다.

상술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려사』의 「원종세가」에는 몽골의 협박을 받은 고려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던 역사 사실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그 배후에는 어쩔 수 없이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던 무력함과 소극적인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사서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술한 조서에서 나타난 몽골의 협박적 메시지를 통해 몽골의 강대함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몽골에 대한 조선 사관(史官)들의 혐오감이 나타난다. 사실상, 고려 사신을 통한 의사 전달은 핑계에 불과하며 일본에 대한 쿠빌라이의 야망은 사절을 통한 교류뿐만이 아니었다.

원종 12년(1271) 정월, “몽골은 조양필, 쿠린치(忽林赤), 왕국창(王国昌), 홍다구 등 40 여명을 일본에 보냈다.”⁹ 몽골 사신은 쿠빌라이의 조서도 함께 가지고 갔으며 이는 몽골이 고려를 통해 일본에 파견한 첫번째 사절단이다. 이 사절단은 2 차에 걸쳐 파견되었는데 첫번째는 조양필을 국신사(國信使)로 보냈으며 조양필은 고려의 “행신(幸臣)”인 강윤소(康允紹)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두번째는 쿠린치, 왕국창, 홍다구 등 장병들을 예비 신사로 보냈다. 특히 홍다구는 원래 고려인이었으나

7 박인호, 『한국사학사(学史)』, pp. 56-57.

8 “天命難違，人道責誠，卿先後食言多矣，宜自省焉” 『고려사』 권 26 「원종세가 2」, 원종 8년 8월 병진.

9 『고려사』 권 26 「원종세가 2」, 원종 8년 8월 정축(高麗，朕之東藩也；日本密迹，開國以來，亦時通中國，至于朕躬，而无一乘之使以通和好，尚恐王國知之未審，故遣使持書布告朕志，冀自今以往，通問結好，以相親睦。且聖人以四海爲家，不相通好，豈一家之理哉！以至用兵，夫孰所好，王其圖之.)

그의 아버지가 몽골에 귀화했으므로 그 역시 몽골 장병이 되었다. 사서에는 특히 홍다구가 교영(郊迎)하러 나온 고려왕 원종에게 “불배(不拜)” 했음을 지적했다.¹⁰ 다시 말해 고려왕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사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통해 홍다구의 거만함을 표현했으며 이에 대한 고려 군신(君臣)과 사관들의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이 몽골의 요구를 무시하자 몽골은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했으며 우선 군량 준비부터 시작했다. 충분한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몽골은 혼도(忻都)에게 군병을 데리고 고려에서 둔전(屯田)을 만들게 했으며 고려에 농우(農牛) 3000 마리, 농기구와 종자 등을 요구했다. 고려는 전중감(殿中監) 곽여필(郭汝弼)을 몽골에 파견하여 진정표(陳情表)를 올려(蒙古遣殿中監郭汝弼前往蒙古上陳情表) 몽골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다며 거절했다.

원군(元軍)이 봉주(鳳州)에 둔전(屯田)하고, 농우(農牛), 농기구, 종자, 군량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사옵기에 아뢰옵니다. 농사용 소는 앞서 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小邦)의 도읍에는 농우를 사육하는 가구가 없으며 타지의 농민들이 사육하기는 하나 1, 2 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가구는 경작에 쓰거나 서로 임대하기도 합니다. 현재 타지의 농우도 전라도의 식량 이전으로 인한 기아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농기구에 관련해서는 소방 주민들 중에 워낙 농기구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적으므로 귀국에서 요구한 수량을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종자의 경우, 백성들은 해마다 경작을 통해 수확한 후 일부는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식량으로써 자가소비합니다. 군량에 관련하여 귀국 군대에게 제공한 후 소방의 비축은 역적들의 약탈 및 둔전의 군병 및 토벌 군병에게 공급한 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외신민(中外臣民)에 대한 징수가 거둬들어 혹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을까 걱정되며 종자, 여물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을 군량을 몇 만석이나 공급해야 하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¹¹

상술한 진정서를 통해 자국의 어려움을 어필함으로써 몽골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고려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고려사』에는 이러한 진정서와 몽골의 요구에 대응하는 고려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서술했다. 조선의 사관들은 당시 종주국이었던 명나라에 대해서도 똑 같은 감정으로 사서를 편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명은 원처럼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처녀(處女)와 화자(火者)에 대한 요구와 환관 사신의 파견 등으로 인한 압박을 받았다.¹² 따라서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종속국의 무력함과 반항 의식을 표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물론 그 효과는 미미했을지라도 조선헌조가 순순히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주 의식을 갖고

10 『고려사』 권 27 「원종세가 3」, 원종 12년 정월 기묘

11 『고려사』 권 27 「원종세가 3」, 원종 12년 정월 기묘

12 『고려사』 권 27 「원종세가 3」, 원종 12년 3월 병인(鳳州屯田, 農牛, 種子, 軍糧等事. 若乃農牛, 如前表奏, 小邦京中鮮有畜使者, 外方農民雖產之, 饒者畜養亦不過一二頭, 貧者多以耒耨, 或相賃牛而使之. 今外方牛畜, 悉因全羅道糧餉轉輸, 以至飢困, 損失者大半. 衣器, 則小邦人民元來未有贖厄者, 此皆不得如數, 并當隨力供辦. 種子, 則百姓趁年畊作, 以修貢賦用, 其餘以為糧料. ……軍糧, 則大軍之後, 小邦元來蓄積, 除逆賊攘奪外, 悉因供億留屯軍馬及追討軍馬, 罄竭無余. 中外臣民征斂者累度, 猶不連續, 且又泛計種子, 芻秣, 接秋軍糧凡萬萬石, 此則何從而致之耶!)

있음을 보여준다.

진정서가 통하지 않자 단사관(斷事官) 심혼(沈渾)을 파견해 진정과 청원을 반복하였으며 쿠빌라이가 명(命)을 철회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대략 말하기를,

여기 백성도 황제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농우와 농기구, 종자를 전부 잃게 되면 그들은 할 일을 잃게 되고 굶주림과 과로로 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역적의 반열에 들어설지 모릅니다. 황제께서도 이러한 결과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¹³

이 진정서를 보면 고려는 최대한 몽골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도 백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농우, 농기구, 종자를 다 빼앗아 간다면 백성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으며 혹 이로 인해 역적이 될 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 백성들도 황제의 백성” 이므로 황제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고려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역시 몽골에 대한 고려의 투쟁을 보여준다.

원종 13년(1272) 정월, 일본에 파견되었던 조양필은 일본 사신 12명을 데리고 고려로 돌아왔다. 고려의 국왕 원종은 대도(大都)에 사람을 보내 원에 보고하게 했으며 축하 의사를 표했다. 같은 해 12월, 원은 초유(招諭)를 목적으로 조양필을 다시 일본에 보냈지만 지난번처럼 순조롭지는 않았다. 원종 14년(1273) 3월, 조양필은 일본 다자이후(太宰府)에 도착했으나 국도(國都) 진입을 거절당하자 다시 고려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몽골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함과 동시에 혼도와 홍다구를 필두로 한 몽골군은 원종 14년(1273) 4월까지 삼별초에 점령당한 한반도 동남 연해의 여러 섬을 점거하고 진도(珍島), 탐라(耽羅)를 평정하였으며, 일본 침략을 준비했다. 원정 경위에 대해서는 「충렬왕세가」에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다.

1차 일본 원정 때의 소극적인 대응과는 달리 2차 일본 원정 과정에서 고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전쟁의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몽골 장병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고려에 대한 몽골의 이익침해를 막고자 했다. 2차 일본 원정 결정 당시에 고려 충렬왕은 대도에서 직접 황제의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충렬왕은 7개의 희망조항을 상주했다. 1. 우리나라 군대로서 탐라(耽羅)를 지키고 있는 자들을 동정(東征)의 군대에 보충할 것. 2. 고려군, 한군(漢軍)보다는 오히려 몽골군을 전선에 세울 것. 3. 홍다구(洪茶丘)의 직임(職任)을 더 높여주지 말고 그 성공을 기다려 상을 줄 것이며, 신(臣)으로 하여금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을 관장(管掌)케 할 것. 4. 우리나라의 군관(軍官)에게 모두 패면(牌面, 훈장 종류)을 하사할 것. 5. 한지(漢地)의 바닷가[濱海] 사람을 초공(梢工)과 수수(水手)에 충당할 것. 6. 안찰사(按察使)를 보내 백성의 고통을 위문할 것. 7. 신(臣)이 몸소

13 이에 관해서는 진학림(陳學霖), 『明王朝の人物と伝説』(홍콩: 홍콩중문대학교출판사, 1997)을 참조.

합포(合浦, 馬山)에 이르러 군마(軍馬)를 검열하여 보내도록 할 것.¹⁴

위의 자료가 보여준 것처럼 고려 국왕은 이번 원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신하를 통해 몽골 조정에 돌아가 황제로부터 직접 원정에 관한 명을 받을 것을 요청했으며 신하를 통해 전달받지 않는 등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충렬왕은 군사 배치에 관해서도 일곱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그는 한군과 고려군을 감소하고 몽골군을 더 징발할 것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수수(水手)도 한지(漢地)인으로 충당하고 고려 수수에만 의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려의 책임과 부담을 줄였다. 둘째, 숙적인 흥다구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다른 직위를 위임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리첩목아(閣里帖木兒)와의 협력을 통해 원정을 지휘할 것을 요청했다. 즉 충렬왕은 원정과정에서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기 위해, 또 고려 국정에 대한 정적(政敵)의 간섭을 막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였다. 『고려사』에도 그의 이러한 행보를 집중적으로 서술했다. 비록 쿠빌라이는 충렬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많은 관심을 보였다. 9월 병신(丙申)일, 몽골 원정군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명령이 원정 총사령관 저택에 도착했다. “첫째……필요로 하는 군량, 배, 뱃사공, 수수 등 모든 군사물품은 하달된 문서에 적힌 분공(分工)에 따라 준비시켜 필요 시 사용하도록 하며, 착오가 없도록 하라. 둘째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어 건초에 불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이해관계에 관련되는 일이므로 하달된 문서에 적힌대로 공문을 써붙여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죄를 물으라.”¹⁵ 이 두가지 규제는 곧 충렬왕의 제안에 대한 피드백이며 원정군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고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았다. 『고려사』에는 고려에 대한 몽골군의 악영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2차 원정 과정에서의 충렬왕의 행보를 통해 몽골군의 악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의 노력과 성과를 엿볼 수 있다.

『고려사』는 원정 준비 단계에서의 고려의 소극적인 태도에서부터 2차 원정시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고려 충렬왕의 적극적인 행보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을 통해 종주국인 원에 대한 고려의 대응 및 투쟁 과정을 반영했으며, 따라서 고려의 독립 의식을 보여주었다.

둘째, 전쟁 전후, 인력, 식량, 여물 등 물자의 소모로 인해 고려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역시 『고려사』에 상세하게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고려사』에서 원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식에 관해서는 고려의 무력함을 충분히 반영했지만, 고려가 소모한 물자, 직면한 어려움, 원정을 위해 만든 함선, 소모한 인력, 식량, 여물 등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일본원정을 위해 고려가 치른 대가를 충분히 반영했다. 예를 들면 “(원종)15년 봄 정월, 원나라는 총관(總管) 찰홀(察忽)을 보내와 군함 300 척을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장인, 역부(役夫), 자재 등을 모두 고려에 부담 시켰으며……독촉을

14 『고려사』 권 27 「원종세가3」, 원종 12년 3월 정사(噫! 此百姓皆是皇帝之百姓, 乃此农牛、农器、种子一皆收夺, 使失其业, 则恐百姓决定饥死, 其又在此者役烦力竭, 不堪困苦. 而从逆贼者, 靡有歉艰, 则焉知愚民有所贰于彼哉! 圣鉴若知如此, 必曰何不揆力陈实, 早达宸所, 使我百姓至于此极? 然则谁当任其责?)

15 『고려사』 권 29 「충렬왕세가2」, 원종 6년 8월 신묘. (王以七事请: 一以我军镇戍耽罗者, 补东征之师; 二减丽汉军, 使阁里帖木儿益发蒙军以进; 三勿加洪茶丘任职, 待其成功赏之, 且令阁里帖木儿与臣管征东省事; 四小国军官皆赐牌面; 五汉地滨海之人并充梢工水手; 六遣按察使廉问百姓疾苦; 七臣躬至合浦阅送军马.)

심히 하였고……교주도(交州道)에 보내 부부사(部夫使)로 삼아 각 지역에서 장인, 역부 3만 오백여명을 모집하여 조선소에서 일하도록 했다. 그때 역마가 끊기질 않고 각종 업무가 번잡하며 또한 기한이 급하여 벼락같이 추진되니 백성들의 모진 고초가 더욱 이를 데 없었다.”¹⁶ 원종 15년(1274) 2월 갑자일, 고려 국왕은 별장(別將) 이인(李仁)을 원에 파견해 원정을 위한 고려의 기여와 소모한 식량 물자 등을 일일이 보고하게 했다. 특히 고려가 직면한 어려움과 백성들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원에 “연말 공여를 감면해주시어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렸다.¹⁷ 즉 고려의 국력 회복을 위해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을 원에 요청했다.

경제면에서 고려는 원과 매우 꼼꼼하게 따졌으며 자국이 공급한 식량, 여물 등 물자를 원에 상세하게 보고했으며 일일이 정산했다. 충렬왕 3년(1277), 고려는 중서성(中書省)에 사신을 파견해 알리기를 “소방(小邦)은 지원 7년 이래, 진도, 탐라, 일본 원정에 참여했으며 함포진 변방군, 탐라 주둔군, 염백주(鹽白州) 군 등을 위해 한두(漢斗) 기준으로 연간 18,629 석 2 두, 소와 말 여물 32,952 석 6 두를 공급했습니다. 이는 백성에게서 징수한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요구한 둔전군 3,200 명 및 활단적(闊端赤) 등의 식량은 어디서 구하란 말입니까!”¹⁸ 특히 한두(漢斗) 기준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고려가 전쟁을 위해 공급한 식량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아울러 위에 상술한 내역은 1차 원정 시 고려가 공급한 식량과 여물이다. 「병지(兵誌)」에는 2차 원정 시 군량 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적었다.

충렬왕 3년(1277) 2월, 제왕으로부터 관료 및 서민에 이르기까지 식량을 징수해 흥다구의 군량을 보충했다. ……8년(1282) 4월, 일본원정을 위해 지원한 군량은 123,560 여 석에 달했다. 9년(1283) 2월, 녹전(祿轉)을 바치지 않은 자에게 군량을 보충할 것을 명했다. 3월, 제왕 및 백관(百官), 상공업자, 노예, 승려 등에게 군량을 바치도록 명했으며 제왕(諸王), 재추(宰樞), 복사(僕射), 승지(承旨)는 쌀 20 석, 치사재추(致仕宰樞), 정 3 품 관료, 문무 4,5 품 관료는 10 석, 문무 6 품 관료, 시위호군(侍衛護軍)은 8 석, 문무 7,8 품 참상해관(參上解官)은 6 석, 동반(東班) 9 품 참외부사교위(參外副使校尉) 남반(南班) 9 품은 4 석, 정잡권무대정(正雜權務隊正) 3 석, 동서 승려 1 석, 백정 노비 등은 10 말, 갑인대호(賈人大戶) 7 석, 중호(中戶) 5 석, 소호(小戶) 3 석을 바치도록 했다. 70 세 이상의 경우 남녀 상관없이 징수대상에서 제외했다.¹⁹

16 『고려사』 권 29 「충렬왕세가 2」, 충렬왕 6년 9월 병진(其一……據本國見管糧儲船只稍工水手, 一切軍須, 請照驗行下合屬, 如法準備, 听候區用, 勿值臨時失誤. 其一, 經行去處, 竊恐不畏公法之人, 放火燒草, 事系利害, 請照驗行下合屬, 出榜禁約, 如違, 罪有所歸).

17 『고려사』 권 27 「원종세가 3」, 원종 15년 정월((元宗)十五年春正月, 元遣總管察忽監造戰艦三百艘, 其工匠役徒一切對象, 全委本國應副……興役催督甚嚴……于交州道各為部夫, 使征集工匠役徒三萬五百餘名, 起赴造船所. 是時, 驛騎絡繹, 庶務煩劇, 期限急迫, 疾如雷電, 民甚苦之.)

18 『고려사』 권 27 「원종세가 3」, 원종 15년 2월 갑자(歲令供給, 罔有期限, 將無奈何! 茲實憫焉! 乞皆蠲免, 以惠遠人)

19 『고려사』 권 28 「충렬왕세가 1」, 충렬왕 3년 2월 정묘.(小邦自至元七年以來, 征討珍島、耽羅、日本大軍糧餉, 悉于百姓科收, 尔后見在合浦鎮邊軍、耽羅防護軍、鹽白州歸附軍并闊端赤, 一年都支人糧一萬八千六百二十九石二斗, 馬牛料三萬二千九百五十二石六斗, 皆以漢斗計. 亦于百姓科收, 今者所遣屯田軍三千二百并闊端赤等糧料, 更于何處索之!)

상술한 자료는 고려왕조가 군량 확보를 위한 방법을 서술했다. 첫째, 상술한 내용에서 보다시피 2차 원정 기간의 군량 확보를 위해 고려는 왕에서 병사 및 서민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군량을 바쳐야 했다. 둘째, 이는 일본 원정은 고려 사회 전반의 악재가 되었으며 그 누구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차 원정 전, 몽골군이 고려에서 군둔(軍屯)을 설치해 고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였지만 2차 원정 때에는 군둔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고려는 온 국민을 동원해야 했다. 셋째, 『고려사』 중에서도 특히 「병지」에서 군량 확보 문제를 서술했다. 「世家」에서 군량 등의 공급 문제를 상세하게 서술한 것은 이 부분의 역사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려사』 권 29 「충렬왕세가 2」의 충렬왕 6년(1280) 10월 무술 조(條)에는 원의 중서행성(中書行省)의 이첩(移牒)의 내용을 특별 수록했는데 주로 병사들의 도주 이야기와 징계방법을 소개했으며 이 부분은 일본 원정 전쟁에 대한 소개에 비해 몇 배 이상의 분량을 차지한다. 즉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하며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조선 관찬 사관들의 묘한 심리상태를 반영한다. 6년 11월, 중서성에 준비 상황을 보고하기를, “소국에서 이미 병선 900 척과 뱃사공과 수수 15000명, 군사 10000명을 준비하였으며, 군량은 중국 석수로 계산하여 11만 석이요, 기계까지도 모두 준비되었으니, 행여 힘을 다하여 성상의 은덕에 보답할까 하옵니다.”²⁰ 준비물을 세세하게 보고함으로써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표명한 부분도 엄청난 분량의 상주문으로 작성했다. 이 권에는 많은 분량의 상주문 2개를 수록했으며 이는 일본 원정을 위한 고려의 노력과 원정을 위해 치른 대가를 반영한다. 조선의 사관들은 고려의 준비와 노력 없는 일본원정은 있을 수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비록 일본원정 과정에서 고려는 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지만 고려 사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고려사』 「충렬왕세가」에는 2차의 일본원정 과정을 간단하게 서술했으며 고려 장군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지원 11년(1274) 10월, 여원연합군은 1차 일본 원정을 시작했다. 일본은 이 전투를 “분에이노에키(文永之役)”라고 부른다. 『고려사·충렬왕세가』에는 이 전쟁에 대해 몇 줄로 요약해서 적었다. 사서에 서술하기를,

겨울 10월 을사, 도독사(都督使) 김방경으로 하여금 중군(中軍)을 이끌도록 하고 박지량(朴之亮), 김흔(金忻 = 金綬)을 지병마사(知兵馬事), 임개(任愷)를 부사(副使)로 삼았으며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 김흔(金侁)을 좌군사(左軍事)로 삼고 위득유(韋得儒)를 지병마사, 손세정(孫世貞)을 부사로 삼았으며 상장군(上將軍) 김문비(金文庇)를 우군사(右軍使)로 삼고 나유(羅裕), 박보(朴保)를 지병마사로, 반부(潘阜)를 부사로 삼아 삼익군(三翼軍)이라고 불렀다. 삼익군은 원의 도원수(都元帥) 홀도(忽敦), 우부원수 홍다구, 좌부원수 유복형과 더불어 몽골군, 한군 25000명, 우리 군사 8000명, 사공, 인해, 수수 6700명 및 전함 900여 척을 거느리고 일본원정에 나섰다. 이키섬(一歧島)에 이르러 1000여 급을 격살한 뒤 길을 나누어 진격하였으니 살해한 자가 매우

20 『고려사』 권 82 「병지 2」

많았으며 전쟁은 해가 질 무렵에 멈췄다. 마침 밤에 풍량이 심해 함선은 바위에 부딪혀 부서졌고 김흔은 익사했다.”²¹

지원 18년(1281), 원은 2차 일본 원정을 진행했으며 일본은 이 전투를 ‘고안노에키(弘安之役)’라고 불렀다. 이 전투의 경위에 대해서도 『고려사』 「충렬왕세가」에는 몇 줄로 요약해서 언급하기를,

7년 5월 무술, 혼도, 홍다구 및 김방경, 박구(朴球), 김주정(金周鼎) 등은 수군을 거느리고 일본 원정에 나섰다.

계해, 행중서성 총파가 보고하기를, 26일, 장병들이 이키섬으로로 향할 때 수군 113명, 뱃사공 36명이 풍량을 만나 행방불명되었다. 낭장(郎將) 유비(柳庇)를 보내어 보고하였다.

6월 임신, 김방경 등은 일본 병사들과의 전투에서 3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다음날 다시 전투를 벌였으나 홍다구는 패배했고 범문호가 전함 3500척과 군사 10만 여명을 이끌고 이르렀다가 때마침 태풍을 만나 만군(蠻軍) 모두 익사했다.

8월 기묘, 함포에서 출발한 별장 김홍주는 행궁에 도착해 일본원정군이 패하였으며 원수 등이 함포로 돌아왔다고 보고했다.

11월 임오, 각 도 안렴사(按廉使)들이 보고하기를 “일본 원정이군 9천 9백 60명, 초공, 수수가 1만 7천 29명이었는데 그 중 살아서 돌아온 자가 1만 9천 3백 97명이다”라고 하였다.²²

상술한 두 사료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차례의 전쟁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이는 『고려사』 「충렬왕세가」는 일본원정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역사 사건이 아님을 의미한다.

둘째, 서술 내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서에서는 고려 장군과 군사 편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1차 원정에서 고려군은 8,000명에 불과했지만 좌, 중, 우측의 지휘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원의 장군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언급했을 뿐이다. 비록 고려군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고려사』의 집중적인 서술 대상이 되었다. 2차 원정도 여전히 고려의 장군 위주로 서술했으며 장군의 이름까지 수록했다. 이번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전투도 고려 장군 김방경이 거느린 고려군이 해냈으며 300명을 베었다고 기록한데 반해, 원의 전투에 대해서는 패전한 사례만 기록했다.

셋째, 전쟁 경위에 대한 소개도 아주 간략하게 서술했다. 두 차례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대풍량”이라고 기록했다. 1차 원정 때 “이키섬에 이른 후 1000여 명에 달하는 목을 베었으며 길을 나누어 진격해 많은 적을 사살했으며 해가 질 무렵에야 전투를

21 『고려사』 권29 「충렬왕세가2」, 충렬왕 6년 11월 기유(小国已备兵船九百艘, 梢工水手一万五千名, 正军一万名. 兵粮以汉石计者十一万, 什物、机械不可缕数, 庶几尽力, 以报圣德.)

22 『고려사』 권28 「충렬왕세가1」, 원년 10월 을사.(冬十月乙巳, 都督使金方慶将中军, 朴之亮、金忻知兵马事, 任恺为副使; 金侁为左军使, 韦得儒知兵马事, 孙世贞为副使; 金文庇为右军使, 罗裕、朴保知兵马事, 潘阜为副使, 号三翼军. 与元都元帅忽敦、右副元帅洪茶丘、左副元帅刘复亨, 以蒙汉军二万五千、我军八千、梢工引海水手六千七百、战舰九百余艘征日本, 至一歧岛, 击杀千余级, 分道以进, 倭却走, 伏尸如麻, 及暮乃解. 会夜大风雨, 战舰触岩崖多败, 金侁溺死)

멈췄지만 밤에 풍량이 심해 전함이 바위에 부딪혀 패배했다(至一歧島, 击杀千余级, 分道以进, 倭却走, 伏尸如麻, 及暮乃解. 会夜大风雨, 战舰触岩崖多败). 원정 과정에서 먼저 승리했다가 패배했는데 밤에 “태풍”을 만났기 때문이다. 즉 일본이 “신풍(神风)”이라 불렀던 바람이다. 2차 원정 때는 이튿날 “태풍으로 인해 행방불명되었으며”, “태풍으로 인해 만군이 모두 익사했다”고 썼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원정 실패의 직접원인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두 차례 전쟁의 손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첫 번째 사료에는 전함 침몰 외에도 특히 김흔의 익사를 강조했으며 그는 익사한 고려 장병 중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장군이다. 그리고 『연표』에 서술하기를, “10월, 김방경과 원의 원수 홀돈, 홍다구 등이 일본 원정을 시작한 후 이키섬 전투에서 패했으며 13,500여 명에 달하는 군사를 잃었다”고 기록했다.²³ 두 번째 사료에서는 원군의 사망 상황을 기록했으며 일본원정이 수많은 사상자를 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연표 2』에서는 “원 지원 18년, 충렬왕 7년 5월, 김방경과 혼도, 홍다구는 일본 원정에 나섰다가 패가대(霸家臺)에 이르러 패전했으며 10만 명에 달하는 군사를 잃었다.” 이는 1차 원정에 대한 서술과 흡사하며 적은 분량으로 요약했으며 원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를 반영했다. 『고려사』 「충렬왕세가」에 수록된 일본원정의 주인공은 고려군이며 원나라 군은 조연으로, 일본 해전은 배경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고려사』는 주체성을 강조한 사서이며 이번 전쟁에 대해서도 고려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서술했다고 볼 수 있다.

3. 일본 원정에 참여한 고려 장군들에 대한 『고려사』의 서술

『고려사』는 인물을 중심으로 편찬한 기전체 사서이며 인물전기를 통해 역사사건을 서술했다. 이번 전쟁에 참여한 고려 장교들 중에서 『고려사』에 인물전기로 수록된 것은 주로 「김방경전」 및 그의 아들 김흔의 전기, 부하 박구의 전기, 「김주정전(金周鼎伝)」, 「라유전(羅裕伝)」, 김문비전(金文庇伝)의 부록 「이정전(李貞伝)」 등이 있다. 그 밖에 이장용(李藏用), 홍복원(洪福源), 조이(趙彝)의 전기가 있다. 이러한 인물전기 중에서 일본원정을 상세하게 서술한 것은 「김방경전」이며 기타 인물전기에는 간단하게 언급했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역사인물의 생애에 따라 긍정적으로 서술한 전기, 예를 들어 「김방경전」이 있는가 하면, 조이와 홍복원처럼 반면교사로 삼아 「반역전」에 수록한 것도 있다. 즉 『고려사』의 인물 선정과 서술방식은 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려사』의 「반역전」은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는 “공자(孔子)는

23 『고려사』 권29 「충렬왕세가2」(七年五月戊戌, 忻都、茶丘及金方庆、朴球、金周鼎等以舟师征日本. 癸亥, 行省总把报: 是月二十六日, 诸军向一歧岛, 忽鲁勿塔船军一百十三人、梢手三十六人, 遭风失其所之. 遣郎将柳庇告于元. 六月壬申, 金方庆等与日本战, 斩首三百余级; 翼日复战, 茶丘军败绩, 范文虎亦以战舰三千五百艘、蛮军十余万来会, 值大风, 蛮军皆溺死. 八月己卯, 别将金洪柱自合浦至行宫, 告东征军败, 元帅等还至合浦)

是月, 忻都、茶丘、范文虎等还, 元官军不返者, 无虑十万有几. 十一月壬午, 各道按廉使后: 东征军九千九百六十名、梢工水手一万七千二十九名, 其生还者一万九千三百九十七名)

『춘추(春秋)』를 지을 때, 난신적자(亂臣賊子)와 지역에 할거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에게 특히 엄격하였으며, 죽은 자라도 용서 없이 성토했으니 이는 후세의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충성으로 순종하는 신하는 일신이 영달(榮達)하고 그 가문을 보존하여 아름다운 이름이 후세에 전해졌다. 그러나 반역자는 가마솥에 삶기는 형벌을 받았으며 그 일족은 몰살되고 제사는 끊기었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이에 반역전을 짓는다.”²⁴ 고 하였다. 『고려사』는 고려인임에도 불구하고 원과 함께 같은 고려인을 해친 자는 「반역전」에 기록했는데 일본원정 장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홍복원전」과 「조이전」이다. 조이는 “진사에 급제하였으나 이후 고려를 배반하고 원으로 도망쳐 원에 가서 여러 나라 말을 해득하여 수재라 일컬어졌다(中进士, 后反, 入元称秀才, 能解诸国语, 出入帝所)”. 『고려사』에 의하면 그는 몽골군을 거느리고 고려를 침략한 적은 없지만, 쿠빌라이에게 진언하기를 “고려와 일본은 친하게 지냅니다. 일본에 사신 파견 시 본국에 길안내를 명하십시오. (高丽与日本邻好, 元遣使日本, 令本国乡导)” 이러한 진언으로 인해 고려는 송군비를 원의 사신과 동행하게 했다. 그 뒤로 여러 번 고려에 대해 참소한 적이 있다. 『고려사』에는 “조이는 항상 고려에 대해 중상모략을 일삼았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彝常以谗毁为事, 竟不得志而死)” 고 기록했다. 『고려사』에는 고려를 중상모략하려는 자들을 비난했으며 「김유(金裕)와 이추(李樞)도 역시 고려를 배반한 자들이다. (有金裕、李樞者, 亦反人也)” 고 밝혔다.²⁵ 「반역전」에 수록된 인물은 ‘반인(反人)’이라 불렸다. 이는 부귀영화를 위해 나라를 배반한 자들에 대한 사관들의 혐오감을 보여준다.

홍복원은 홍다구의 아버지이며 「반역전」에 수록된 인물이다. 『고려사』에는 홍다구전을 별도로 편찬하지 않고 「홍복원전」에 홍다구의 행보를 기록했다. 홍복원은 원래 서경낭장(西京郎將)이었으나 고종 12년(1233)에 선유사(宣諭使) 정의(鄭毅) 등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한 후 몽골로 도망갔다. “홍복원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동경총관(東京總管)이 되어 고려의 군민(軍民)을 다스리게 되니, 원나라에 투항한 40여 성의 백성들이 모두 그에게 소속되었다. 홍복원이 고려를 모함하면서 몽골군을 따라 왕래하자……이때부터 원나라 군사들이 해마다 침략해 와서 주군(州郡)들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는데, 모두 홍복원의 인도에 따른 것이었다. (福源在元为东京总管, 领高丽军民, 凡降附四十余城民皆属焉. 谗构本国, 随兵往来……然自是元兵岁至, 攻陷州郡, 皆福源导之也)” 그 후 영녕공의 몽골 황실 출신 부인의 미움을 사 죽임을 당했다. “가산을 몰수한 후 그 처와 아들 홍다구, 홍군상(洪君祥) 등에게 형틀을 씌워 압송해 갔다. 그 후 홍복원의 여러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원통하게 여겨 온갖 수단을 동원해 고려를 모함하였다.”²⁶ 원종 2년(1261), 쿠빌라이가 즉위한 후 홍복원을 위해 원한을 씻어주고자 홍다구에게 부친의 관령귀부고려군민총관(管領歸附高麗軍民惣管) 벼슬을 이어받도록 했다. 그 뒤로 홍다구는 원나라 조정에서 벼슬을 했으며 고려출신 배경을 이용해 원나라의 고려 관련 사무를

24 『고려사』 권 87 「연표 2」

25 『고려사』 권 87 「연표 2」(元至元十八年, 忠烈王七年五月, 金方慶与忻笃(都)、茶丘征日本, 至霸家台战败, 军不还者十万有奇)

26 『고려사』 권 127 「반역전 1」 서문(孔子作『春秋』, 尤严于乱臣贼子及据地以叛者, 其诛死者而不贷, 所以戒生者于后也. 夫人臣忠顺, 则荣其身, 保其宗, 而美名流于后; 叛逆者未有不脂润鼎镬, 赤其族而覆其祀者, 可不戒哉! 作「叛逆转」)

처리했다. 그러나 홍다구는 고려를 배려하기는커녕, 중상모략을 일삼았으며 고려왕과 대신들은 그의 악행에 이를 갈았다.

고려왕 충렬왕은 홍다구를 무척 경계했으며 쿠빌라이에게 홍다구를 원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진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구가 있어 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심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구는 군사에만 능할 뿐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일까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군대를 파견해야 하신다면 많은 적든 타타르 군을 파견해 주시고 다구의 군대는 소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²⁷ 홍다구의 국정간섭으로 인해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충렬왕은 직접 황제에게 홍다구를 소환해 원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진언했다. 이에 대해 쿠빌라이가 주의를 주자 충렬왕은 “다구의 참소”라고 반박했고 이어 쿠빌라이는 “다구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충렬왕이 말하기를 “흔도는 타타르인이므로 고려에 있어도 좋지만, 홍다구와 그의 고려군은 늘 문제를 일으키오니 홍다구와 그의 고려군을 소환하시고 흔도의 타타르군으로 대체해주시시오.”²⁸ 라고 하였다. 충렬왕은 타타르인을 선택할지언정 홍다구가 고려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다. 고려왕과 홍다구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다. 당시 홍다구는 탐라를 지키고 있었으므로 쿠빌라이는 흔도와 홍다구를 소환했으며 고려는 이 기회를 틈타 탐라 수호 임무를 떠맡았으며 탐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일본원정기간, “(먼저) 홍다구를 감독조선관군민총관(監督造船官軍民總管)으로 임명했다. 항구가 기한을 정해 놓고 함선의 건조를 심하게 독촉하는 한편 부부사(部夫使)를 각지로 보내 기술자를 징집하자 국내 모든 지역이 큰 고을 겪었다. 황제는 또 홍다구를 시켜 고려의 식량 사정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그를 동정부원수(東征副元帥)로 삼았다. 홍다구는 충청도지역의 뱃사공들과 선원들이 기일에 맞추어 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부사인 대장군 최면(崔沔)을 장형에 처한 후 대부경(大府卿) 박휘(樸暉)로 교체했다.”²⁹ 이 사료는 원이 고려를 징용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지만 주로 홍다구가 전쟁을 이용해 고려를 괴롭히는 악행을 수록했다. 그는 동정부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압박했으며 다루가치(達魯花赤)만큼 잔인한 인물이었다. 비록 홍다구의 전기는 따로 편찬하지는 않았지만 홍복원전에서 이미 그 악행을 일일이 밝혔다. 이 전기에서 언급한 고려에 대한 원의 징용이란 홍다구의 악행들을 기록하기 위한 배경일 뿐이다. 비록 홍다구를 원나라 사람으로 간주했지만 「반역전」에는 그를 배반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반역전」에 조이를 수록했듯이 이것 역시 홍다구에 대한 조선 사관들의 비판적인 정서를 반영한다. 원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을 괴롭히는 고려인은 모두 “반인” 취급을 했으며 「반역전」에 수록했다.

홍원복과 조이 등을 「반역전」에 수록한 것에 반해, 김방경은 긍정적인 역사인물로 기록되었다. 김방경은 병부상서(兵部尚書)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역임했다. 일본원정 과정에서 두 차례 모두 고려군 총수로 임명되었으며 그의 전기에는 두 차례의 전쟁에 대해 많은 분량을 들여 기록했다. 1차 원정에 대한 「김방경전」의 기록을

27 『고려사』 권 130 「반역4·조이전」

28 『고려사』 권 130 「반역4·홍복원전」(籍沒家产, 械其妻及子茶丘、君祥等以归. 福源诸子憾父之死, 谋陷本国, 无所不至)

29 『고려사』 권 28 「충렬왕세가1」, 충렬왕 4년 7월 갑신(“然茶丘在焉, 臣之为国, 不亦难哉! 如茶丘者, 只宜理会军事, 至于国家之事, 皆欲擅断. ……上国必欲置军于小邦, 宁以鞑鞑汉儿军, 无论多小而遣之, 如茶丘之军, 惟望召还”)

살펴보자.

(원종) 15년, 황제는 일본을 원정하고자 김방경과 홍다구에게 조서를 내려 전함을 만드는 일을 감독하게 했다. 이 전함 건조를 만양(蠻樣·) 방식대로 만든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장차 기한을 맞추기가 어려우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근심했다. 방경은…… 고려의 방식대로 전함을 건조하도록 허락을 받아 군사들을 독려해 전함을 만들었다. 이해에 원종이 죽고 충렬왕이 즉위했다. 김방경은 홍다구와 더불어 단신으로 개경에 와서 위로의 인사를 드리고 함포로 돌아왔다. 함포에서 도원수 홀돈 및 부원수 홍다구, 유복형과 함께 전함을 사열했다. 김방경은 중군을 거느리고 박지랑과 김흔 및 지병마사 임개를 부사로 삼았다. 추밀원부사 김선은 좌군사로, 위득유와 지병마사 손세정은 부사가 되었다. 상장군 김문비는 우군사, 나우와 박보 및 지병마사 반부는 부사가 되었는데 이를 3익군이라고 일컬었다. 김흔은 곧 김수이다. 그리고 몽한군 25000명, 고려군 8000명, 뱃사공, 인해, 수수 6700명, 전함 900척을 거느리고 함포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진군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여진군이 제 날짜에 오지 못하자 곧 출발하여 쓰시마로 들어가 적을 무찔렀다. 이키섬에 이르니 왜군이 해안에 진을 치고 있었다. 박지랑과 김방경의 사위인 조변이 그들을 추격하자 왜병들이 항복을 청하다가 다시 싸웠다. 홍다구와 박지랑, 조변이 1000여 명을 쳐 죽였다. 삼랑포에 배를 남겨 두고 길을 갈라서 진격하여 적군을 많이 죽였다. 왜군이 돌격해 와서 중군을 치니 장검이 바로 좌우에서 번득였지만 김방경은 박아 놓은 말뚝마냥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다. 김방경이 신호용 화살 하나를 뽑아 쏘면서 큰소리로 외치자 왜군들은 놀라 달아나 버렸다. 한편 박지랑, 김흔, 조변, 이당공, 김천록, 신혁 등이 힘써 싸우니 왜군이 대패하여 시체가 산더미처럼 많았다. 모든 군사들이 왜군과 싸우다가 해가 저물어서야 싸움을 멈췄다. 김방경이 홀돈과 홍다구에게 말하기를 “병법에 적지에 들어가 싸우는 군대는 그 강한 기세를 당할 수 없다고 했소, 지금 아군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이미 적지에 들어와 군사들이 제각각 힘껏 싸우고 있으니, 이것은 곧 맹명(孟明)이 배를 불사르고 회음후가 강을 등지고 진을 친 것과 같소. 그러니 다시 싸우도록 합시다.” 라고 하자 홀돈이 말하기를 “ 병법에 적은 수의 군사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 많은 수의 적군들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고 하였으니 피로하고 부족한 군사들을 몰아서 날로 늘어나는 적군과 싸우게 한다는 것은 좋은 계략이 아니니 군대를 돌려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라고 했다. 그러던 중에 유복형이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먼저 배로 돌아가게 되니 드디어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다. 마침 밤에 세찬 비바람을 만나 많은 전함들이 바위에 부딪쳐 부서지거나 침몰되었으며 김선은 물에 빠져 죽었다. 함포에 도착하여 포로들과 노획한 병장기들을 황제와 왕에게 바쳤다. 왕은 추밀부사 장일(張鑑)을 보내 그들을 위로하고 김방경에게 먼저 개경으로 돌아오도록 하여 그에게 상주국판어사대사(上柱國判御史臺事)로 관직을 올려주었다.³⁰

「김방경전」에는 2차 원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30 『고려사』 권28 「충렬왕세가1」, 충렬왕 4년 7월 갑신(忻都, 靺鞨人也, 可則可矣. 使茶丘在, 則與高麗軍妄構是非, 虽忻都不能不信, 望令茶丘與高麗軍皆還于朝, 以靺鞨漢兒軍代之.)

충렬왕 7년 3월에 군사를 내어 동정(東征)할 때 김방경이 먼저 의안군(義安軍)에 이르러 병장(兵仗)을 사열하고 왕은 함포에 이르러 크게 제군(諸軍)을 열병했다. 김방경이 혼도, 홍다구, 박구, 김주정 등과 더불어 출발하여 일본의 세계촌 대명포에 이르러 통사(通事) 김저(金貯)로 하여금 격(檄)으로 설유(說諭)하였다. 김주정이 먼저 왜(倭)와 교전하며 제군이 다 내려 같이 싸워 낭장 강인, 강사자 등이 죽었다. 6월에 김방경, 김주정, 박구, 박지량, 형만호 등이 일본병과 싸워 3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일본군이 돌진하자 관군이 무너지고 홍다구가 말을 버리고 달아나거늘, 왕만호가 다시 가로질러 50여 명을 쳐 죽이자 일본군은 물러가고 겨우 홍다구를 구할 수 있었다. 그 다음날, 다시 싸워 패하고 군중에 또 크게 전염병이 돌아 사망자가 무려 3000여 명에 달했다. 따라서 혼도, 홍다구 등이 여러 번 싸웠지만 불리한 처지에 놓였고 또 범문호가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자 군사를 돌이켜 철수할 것을 의논하기를 “성지를 받들고 3개월 분량의 식량을 가지고 왔으나 이제 한달 식량이 남았으니 남군(南軍)이 오기를 기다려 합공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니 제군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얼마 후에 범문호가 1만 군을 거느리고 도착하니 배가 무려 9000척이었다. 8월에 태풍을 만나 아군 1만 여명이 익사해 시체가 파도를 따라 포구에 밀려들었다. 아군은 드디어 군사를 철수하기로 했다.³¹

상술한 2개 사료는 일본원정의 또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이는 『고려사』에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버전이며 『충렬왕세기』의 서술보다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록했다. 이 사료는 김방경의 용맹함과 공로를 기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김방경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김방경은 고려의 명장이며 명문가 출신이자 눈부신 공훈을 세운 역사인물이다. 일본원정에서 보다시피 김방경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장군임에 틀림없다.

둘째, 사료에서 보다시피 김방경은 이번 전쟁의 승패를 주도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1차 원정 때 그는 신호용 화살 하나를 뽑아 들고 크게 외치자 왜군은 도망갔으며, ……왜군은 크게 패배해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심지어 몽골 총수도 김방경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쟁에서 유리한 입지에 처했을 때 그는 계속해서 추격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것을 권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폭풍우로 인해 전함이 침몰해 크게 패배했다. 2차 원정에서도 김방경이 거느린 고려군이 300여 명의 목을 베는 등 첫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몽골군은 패배를 거듭했으며 홍다구는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며 태풍을 만나 만군(蠻軍)은 모두 익사했다. 전쟁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며 또 이러한 비교를 통해 김방경의 공로를 두드러지게 반영했다.

셋째, 『고려사』의 기타 사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료 역시 전쟁터에서의 고려군의 활약을 기록한 것이므로 과장된 표현과 거짓표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 사실상, 사료의 편파적인 서술을 벗어나 분석하면 이 전쟁은 원나라가 일으켰고 고려는 어쩔 수 없이

31 『고려사』 권130 「반역4-홍복원전」(以茶丘为监督造船官军民总管。茶丘克期催督甚急，分遣部夫，使征集工匠，诸道骚然。帝又命茶丘提点高丽农事，又命为东征副元帅。茶丘以忠清道梢工水手不及期，杖部夫，使大将军崔沔以大府卿朴暉代之。)

동참했으므로 전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으며 전쟁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주도자가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고려사』의 일부 내용은 과장된 부분과 거짓 내용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김방경과 기타 장군의 대화가 바로 그렇다. 조선의 사관들은 이러한 대화를 들었을 리가 없을뿐더러 설령 고려의 역사자료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대화내용까지 세세하게 적었을 리가 만무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적절한 선에서 구상해낸 것으로 보이며 김방경의 중요성과 공로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사』에는 여기 저기에서 이러한 부분을 찾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려사』의 인물 판정 기준은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다. 고려를 배반하고 원나라 편을 들어준 자들은 모두 “반인”으로 찍혀 「반역전」에 수록됐다. 조이, 홍복원이 가장 대표적이다. 김방경은 동정전쟁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고려 장군이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전기는 김방경을 중심으로 대화를 통해 일본원정을 보다 생생하게 엮었으며 김방경을 전쟁의 승부를 결정하는 핵심인물이라고 기록한데 반해, 몽골 장군들은 이번 전쟁이 실패하게 된 주된 원인이며 일본원정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록했다.

4. 맺는 말

조선 관찬사서 『고려사』의 「충렬왕세가」와 「김방경전」에는 일본원정에 대해 2개 버전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취지는 다르지 않고 모두 전쟁에 대한 고려와 고려 장병들의 공로를 반영하고자 함이다. 아울러 고려는 이번 전쟁의 승부를 가르는 관건이며 전쟁 패배의 원인은 몽골 장병들의 독단적이고 거만한 태도로 인한 것이며 결국에는 태풍으로 인해 대패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프랑스 역사학자 미셸 드 세르토에 의하면 관찬 사서는 국가의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한다. 즉 “기존 자료에 근거해 특수한 방식으로 일부 환경 속의 여러 요소를 편집함으로써 보다 논리적인 서술을 진행한다.” 그러므로 이 버전은 조선왕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명나라의 관찬 사서인 『원사』와 일본의 관련 사서와 큰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만약 『고려사』와 『원사』를 대조한다면 아마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김방경에 대한 홍다구의 무고사건 등이 그렇다. 『고려사』에는 김방경이 공로를 포상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 당파의 배척을 당해 반역을 꾀한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이에 고려에 원한을 품고 있던 홍다구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정서성에 김방경에 대한 고문을 주장한다.³² 홍다구는 온갖 수단을 이용해 김방경을 괴롭혔으며 쿠빌라이가 이 일에 관여하고 나서야 김방경의 누명을 벗겨주었다. 그러나 『원사·고려전』에는 “14년 정월, 김방경 등은 반역을 꾀했으며 혼도, 홍다구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대응했다.”³³ 이 사서에서는 김방경을 반역자라고 기록했지만 『고려사』에는 홍다구가 김방경을 무함했다고 기록해 완전히 다른 입장을 서술했다. 『고려사』와 『원사』는 많은 사건을 서술함에 있어서 내용이 아주 다른데 김방경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려사』속의 김방경은 핵심인물로 기록되었지만, 『원사』에는 반역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기록했다. 홍복원에 대해서도 『원사』에는 공신(功臣)이라고 기록했으나 『고려사』에는 「반역전」에 수록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동아시아 3국의 중요한 역사 사건을 이해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입장과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³⁴ 진인각(陳寅恪)의 명언대로 “타국의 고서와 자국의 사서를 상호 보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³⁵ 중요한 것은 국가, 민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하나의 국가가 아닌 동아시아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면 진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원문: 중국어, 번역: 이금화)

32 『고려사』 권 104 「김방경전」(元宗)十五年, 帝欲征日本, 诏方庆与茶丘监造战舰. 造船若依蜜样, 则工费多, 将不及期, 一国忧之. 方庆……用本国船样建造. 是年元宗薨, 忠烈即位, 方庆与茶丘单骑来陈慰, 还到合浦, 与都元帅忽敦及副元帅茶丘、刘复亨阅战舰. 方庆将中军, 朴之亮、金忻知兵马事, 任恺为副使, 枢密院副使金仇为左军使, 韦得儒知兵马事, 孙世贞为副使; 上将军金文庇为右军使, 罗佑、朴保知兵马事, 潘阜为副使, 号三翼军, 忻即绶也. 以蒙汉军二万五千、我军八千、梢引海水手六千七百、战舰九百余艘, 留合浦以待女真军, 女真后期. 乃发船入对马岛, 击杀甚众. 至一歧岛, 倭兵陈于岸上, 之亮及方庆壻赵扑逐之, 倭请降, 复来战. 茶丘与之亮、扑击杀千余级, 舍舟三郎浦, 分道而进, 所杀过当. 倭兵突至, 冲中军, 长剑交左右方庆如植, 不少却, 拔一喝矢, 厉声大喝, 倭辟易而走. 之亮、忻、扑、李唐公、金天禄、申奕等力战, 倭兵大败, 伏尸如麻. 忽敦曰: “蒙人虽习战, 何以加此!” 诸军与战, 及暮乃解, 方庆谓忽敦、茶丘曰: “兵法: 千里县军, 其锋不可当, 我师虽少, 已入敌境, 人自为战, 即孟明焚船淮阴背水也, 请复战.” 忽敦曰: “兵法小敌之坚, 大敌之擒, 策疲乏之兵, 敌日滋之众, 非完计也, 不若回军.” 复亨中流矢, 先登舟, 遂引兵还. 会夜大风雨, 战舰触岩崖多败, 仇堕水死. 到合浦, 以俘获器械献帝及王, 王遣枢密副使张镒慰谕, 命方庆先还, 加上柱国判御史台事.)

33 『고려사』 권 104 「김방경전」(七年三月, 出师东征. 方庆先到义安军阅兵仗王至合浦, 大阅诸军. 方庆与忻都、茶丘、朴球、金周鼎等发, 至日本世界村大明浦, 使通事金贍檄谕之. 周鼎先与倭交锋, 诸军皆下与战, 郎将康彦(康师子)等死之. 六月, 方庆、周鼎、球、朴之亮、荆万户等与日本兵合战, 斩三百余级. 日本兵突进, 官军溃, 茶丘弃马走, 王万户复横击之, 斩五十余级, 日本兵乃退, 茶丘仅免. 翼日复战, 败绩. 军中又大疫, 死者凡三千余人. 忻都、茶丘等以累战不利, 且范文虎过期不至, 议回军, 曰: 圣旨令江南军与东路军必及, 是月望会一歧岛, 今南军不至, 我军先到数战, 船腐粮尽, 其将奈何? 方庆默然. 旬余, 又议如初. 方庆曰: 奉圣旨, 费三月粮, 今一月粮尚在, 俟南军来合攻, 必灭之. 诸将不敢复言. 既而, 文虎以蛮军十余万至, 船凡九千艘. 八月, 值大风, 蛮军皆溺死, 尸随潮汐入浦, 浦为之塞, 可践而行. 遂还军.)

34 미셸 드 세르토·니푸성 번역『역사편찬』(베이징: 중국인민대학교출판사, 2012년), p. 11.

35 『고려사』 권 104 「김방경전」

지정토론

조선왕조가 편찬한 『고려사』에 수록된 원의 일본 침공에 관한 서술

[질문자: 김보광, 답변자: 쉰 웨이귀]

— 김보광

쉰 웨이귀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은 가천대학교의 김보광입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고려사 편찬과정에서 편년체로부터 기전체라고 하는 사서의 구성방식 등에 조선시대의 인식 같은 것이 들어 있다는 기본적인 주장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코멘트랄까, 약간의 첨언을 붙이고자 합니다. 방금 발표 중에는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한국어 통역을 듣고 있던 중에, 발표문 후반부쯤에 조선의 어떤 사관들이 아마 상상을 해서 적었을 것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려사라고 하는 사서의 특성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에 생산된, 즉 고려시대에 작성된 문서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사관들이 편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상상이나 임의로 넣은 문장이나 단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고려시대 사람들이 남긴 말 즉 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글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전체라고 하는 구성 과정에서 자료의 구성이나 선별 등에서 분명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었겠지만, 일단 선별된 기록의 내용, 문장에는 고려시대 사람들의 표현이 담겨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고려 후기에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쓴 기록들이 대거 고려사에 인용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려 전기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일화로, 고려가 송나라에 보낸 외교문서에 송의 연호와

거란·요(遼)의 연호를 동시에 쓴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인식에서 그대로 썼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적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고려사 편찬의 대원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사의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일본 원정과 관련해서 고려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이 당연한 말씀이지만 제 생각을 조금 더 보태 본다면 이게 고려사라고 하는,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고려의 입장이 들어 있고, 또 조선에서 바라보는 고려의 입장이 당연히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본 원정이라고 하는 13 세기의 큰 사건이 만약 성공한 사건이었다면 군사작전 부분이라든가, 성공한 뒤의 부분이 매우 강조되었을 텐데, 이 2 차에 걸친 전쟁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전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려로서는 전쟁 과정에 대한 강조보다는 전쟁 준비과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 아니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또는 조선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 또는 강조하는 방향으로 고려사가 편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김방경의 경우, 그의 열전에 아주 자세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1300 년에 죽었습니다. 죽은 후 그의 묘지가 남아 전해지고 있는데요, 무덤에 같이 묻는 비석이랄까,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방경의

관력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물론 일본 원정에 참여한 사실, 즉 1차와 2차 모두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참여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강조된 부분은 1차 정벌 이전에 그가 고려 왕이었던 충렬왕과 함께 쿠빌라이를 만나러 갔을 때, 쿠빌라이가 잔치를 열어주고 김방경을 몽골 승상의 자리에 앉혔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김방경이 몽골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강조한 기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1300년에 작성된 고려시대 사람들의 기록에서도 전쟁 자체보다(이 전쟁은 패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자체는 굉장히 간략히 기록했고) 오히려 그 이전에 그가 몽골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또 그의 관력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이 고려사라는 사서가 조선시대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인식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조선시대 사람들이 고려시대 특히 일본 원정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부분을 더 잘 알려면 『고려사』 보다는 이것보다 조금 뒤에 편찬된 『동국통감』이라든가, 조선 후기에 편찬된 『동사강목』과 같은, 조선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직접 기술한 역사서를 참고하는 것이 오히려 이 전쟁에 대한 조선인들의 기억이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더 유용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쑤 웨이궈

남개(南開)대학의 쑤 웨이궈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선 고려사는 고려 당시의 사료에 바탕을 두고 편찬된 것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료를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사료에 무엇을 쓰고 무엇을 뺄 것인가, 이 문제에는 역시 당시 조선왕조의 의지가 반영됩니다. 상상에 의한 내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김방경(金方慶)전」(중국어판 『予稿集』 68쪽)에 ‘김방경려성대갈(金方慶厲声大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김방경의 말이나 행동 등이 매우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중국인은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연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인물들의 대화가 오가는데, 예컨대 ‘홍문(鴻門)의 잔치(宴)’에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매나 행동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상에 의한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좀처럼 사료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고려사』는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기록하지 않았는가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고려의 사료를 바탕으로 쓴 것이지만 편찬 과정도 실은 선택의 과정이며 역사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그 자체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상이나 영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편집된 것이고, 당시에 또 마찬가지로 문자로 역사를 편집하고 역사를 구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김방경 비문에 관해서인데, 비문은 매우 중요한 사료의 하나입니다. 김방경은 당시 쿠빌라이와 면회하고 승상의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단, 비문을 사료로 사용할 때는 때로 신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그 비문이 유일한 사료라면 그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문을 쓴 사람은 대개 친족이나 친구이기 때문에 일부 꾸며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대(明代)의 사가 왕세정(王世貞)의 말을 빌리면, ‘국사인자이선폐진(國史人恣而善蔽真)’ 즉 가족이 편찬한 역사에는 아첨과 영합적인 것, 겉에 발린

말들이 많습니다. 단, 만약에 다른 사료를 증거로 보완할 경우에는 비문을 사용해도 물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려사』에서 조선왕조의 서술을 전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고려사』 외에 『동국통감(東國通鑑)』 등 다른 사료도 읽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논문은 주로 고려의 정사(正史)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논문 7



일본원정을 둘러싼 고려 충렬왕의 정치적 의도

김 보광

(金 甫桃, 가천대학교)

요지

몽골 제국의 등장과 확산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은 몽골이 고려에 진공하면서 고려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몽골이 고려에 영향을 끼친 기간은 크게 '항몽(抗蒙)'이라 부르는 전쟁기와 '간섭기(干涉期)'라고 하는 전쟁 후 시기로 구별할 수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일본 원정'은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한다. 이는 몽골이 고려에게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도록 하는 초유(招諭)를 요구하였다가 초유가 실패한 이후에 몽골이 고려를 데리고 직접 일본 정벌을 추진한 정복사업이었다.

지금까지는 '일본 원정'이라는 사건은 몽골이 주도하고 고려는 여기에 동원된 전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당시 고려의 국왕(원종 및 충렬왕)은 1차 원정과 2차 원정 사이에 소극적 회피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인 가담으로 그 태도가 바뀌고 있음이 엿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을 놓고 당시 고려왕이던 충렬왕(忠烈王)이 태도 변화를 일으킨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태도 변화에 담긴 충렬왕의 의도와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한다.

13세기 후반 충렬왕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최근에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연구의 특징 중 하나를 들자면, 고려를 바라보는 입장의 변화이다. 곧 고려가 일방적으로 몽골에 의해 동원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이 시기 몽골의 영향력이 강하게 투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 또는 국왕이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고려-몽골 관계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렬왕의 지위가 매우 상징적이다. 그는 고려 국왕이면서, 몽골과 왕실 간 혼인을 한 최초의 왕이고, 뒤에는 정동행성(征東行省)이라는 몽골의 지방최고단위의 장관인 승상이 되었다. 그런데 몽골의 부마라는 지위, 또는 몽골과의 왕실 간 혼인은 고려가 먼저 제안한 내용이었으며, 정동행성은 몽골이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렬왕은 행성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도 요청하였다. 다시 말해서 고려왕인 충렬왕은 몽골 제국의 위세를 빌어 왕권을 확립하고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몽골의 부마, 승상이라는 요소를 통해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였다.

1170년부터 백 년간 지속된 무신정권 시기에 고려의 왕권은 지속해서 약화되어 갔다. 1270년에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왕정이 복고되었지만 이제는 몽골과의 관계 진전에 따라 고려의 기존 체제에 변화가 나타났다. 당장 충렬왕과 쿠빌라이의 딸

쿠틀룩케르미쉬(齊國大長公主)와의 혼인처럼, 고려와 몽골 사이에 왕실 혼인이 성사되었고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6부 중심의 관제가 첨의부(僉議府)와 4사(司) 체제로 몽골의 요구에 따라 격하, 개편되었다. 그리고 다루가치와 같은 몽골의 관인, 군대가 고려에 상주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결과적으로 고려의 왕권을 안정,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재설정하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몽골은 사신 조양필(趙良弼)을 일본으로 보내 항복하도록 권유하였고, 외교적 접촉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쟁을 준비하였다. 사신의 파견이나 2차에 걸친 전쟁에 고려는 모두 몽골에 협조하였다. 1차 원정 당시, 고려는 1274년에 고려는 30,500명을 징발하여 900척의 배를 건조하였고, 고려군 6천명, 수부(水夫) 6,700명이 동원되었고, 1281년의 2차 원정 시에는 전함(戰艦) 900척, 군사 1만명, 수부 17,000명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막대한 인적, 물적 부담에 의해 고려는 심각한 곤란을 겪었고, 부담의 막중함을 여러 차례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 특히 충렬왕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려측의 호소와는 다른 맥락이 보인다. 충렬왕은 원정 준비의 부담을 호소하면서도 일본 원정을 반대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호응하는 모습도 보인다. 특히 1차 원정 당시 몽골군과 고려군 지휘부의 혼란상을 패전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2차 원정에서는 지휘부의 통일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고려측 장수들을 만호직(萬戶職)에 임명하고 금패(金牌), 사여(賜與) 등 몽골식 관제에 따른 지휘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몽골은 충렬왕의 요청을 수락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고려왕, 곧 충렬왕을 정동행성 승상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고려왕이 행성의 승상을 겸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충렬왕이 주목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일본 원정 사업에 대한 몽골의 강력한 의지를 왕권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충렬왕은 몽골 풍습이나 제도에 따른 부분을 강조하였다. 곧 몽골 지배층의 일원인 '부마'의 의무를 강조하여, 몽골이 자신에게 지휘권을 인정하게 하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둘째, 첫 번째의 연장선에서 몽골에 지휘권을 요청하고 이를 고려 장군들에게 적용시키게 되면서 고려군은 몽골군과 일원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고려군을 몽골의 군사제도인 '만호(萬戶)'로 자신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지휘권에 대한 충렬왕의 요청을 몽골이 수용하고 거기에 더해 충숙왕(忠肅王)을 행성 승상으로 임명함으로써, 몽골은 고려왕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결국 일본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충렬왕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의도는 충렬왕이 승상이 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들어가며

몽골 제국의 등장과 확산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은, 몽골이 고려에도 진출하면서 큰 영향을 주었다. 몽골이 고려에 영향을 끼친 기간은 크게 '항몽(抗蒙)'이라 하는 전쟁시기와 '간섭기(干涉期)'라고 하는 전쟁 이후의 시기로 대별할 수 있는데, 1219년에 처음 시작되어 14세기 중·후반까지 거의 200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친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일본 원정 (日本遠征)’은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몽골이 고려에게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도록 하는 초유 (招諭)를 요구하였다가 초유가 실패한 이후에 몽골이 고려를 데리고 직접 일본 정벌을 추진한 정복사업이었다.

과거 ‘일본 원정’이라는 사건은 몽골이 주도하고 고려는 여기에 동원된 전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 원정에 고려가 동원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발표자가 주목한 부분은 충렬왕 (忠烈王)의 입장이 1차 원정과 2차 원정 사이에 소극적 회피에서 적극적 가담으로 바뀌고 있음이 간취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태도 변화에 담긴 충렬왕의 의도,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최근의 연구 경향에 따르면 고려가 일방적으로 일본 정벌에 동원되었음을 강조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고려가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주로 이명미에 의해 천착된 것으로, 고려왕이 몽골 제국의 위세를 빌어 왕권을 확립하여 국왕위 (國王位)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 원정 추진 조직인 정동행성 (征東行省)의 승상을 충렬왕이 겸하게 되면서 국왕의 위상이 확고해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몽골 제국에서 부마 (駙馬)라는 위상을 확보하게 된 고려왕, 곧 충렬왕의 입장에 따른 ‘조군 (助軍)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이 두 견해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충렬왕이 몽골 제국의 승상과 부마 등의 요소를 통해 정치적 효과를 기대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충렬왕의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1. 일본 원정의 진행 과정

고려가 일본 원정에 참여하게 된 시초는 몽골사신을 안내하여 일본을 초유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부터이다. 1266년 (원종 7) 몽골이 흑적 (黑的)과 은홍 (殷弘)을 사신으로 일본에 파견하면서 고려로 하여금 그들을 안내하게 하자 송군비 (宋君斐), 김찬 (金贊) 등이 호송을 맡았으나, 거제도에 이르러 풍파가 험하다는 이유로 귀환하였다. 그 다음해에 몽골은 일본 초유를 고려에 위임하였고 고려는 반부 (潘阜)를 파견하여 몽골 및 고려의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가게 하였으나, 일본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몽골인과 고려인이 일본에 파견되었으나 구류되거나 피살되어 몽골의 일본에 대한 외교적인 초유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모두 6차례에 걸친 사신 파견이 실패로 돌아가자, 몽골은 일본을 직접 정벌하고자 하였다. 이에 고려에서 전함을 만들기도 하였고, 흑산도 (黑山島)를 위시한 고려의 남단 (南端)에 사신을 파견하여 지형을 정찰하기도 하였다. 또 군량 (軍糧)의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려에 둔전 (屯田)을 설치하고 1271년 (원종 12)에는 그 경영을 위해 둔전경략사 (屯田經略司)를 설치하여 몽골군을 봉주 (鳳州), 금주 (金州), 염주 (鹽州), 황주 (黃州), 백주 (白州), 해주 (海州) 등 10여 곳에 파견하였다. 고려는 전쟁으로 인한 황폐화 속에서도 몽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크게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1274년 6월에 일단 일본 원정 준비가 끝이 났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동정도원수부(東征都元帥府)의 혼도(忻都)와 홍다구(洪茶丘)가 이끄는 몽한군(蒙漢軍) 25,000명을 중심으로 하여 제 1차 일본 원정이 단행되었다. 여기에는 고려도 김방경(金方慶)을 도독사(都督使)로 하고 군사 8,000명, 뱃사공 6,700명 그리고 전함 900척을 준비하여 참전하게 되었다. 1차 원정 당시에 하카다 일대에서의 초반 전투에서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은 승리하였지만, 전쟁의 결과는 거꾸로 패배였다. 이때 김방경이 이끄는 고려군은 하카다 일대에서 승세(勝勢)를 타고 있었다. 날이 저물자 혼도(忻都)는 일단 퇴각할 것을 주장하였고, 김방경은 기세를 몰아 다시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혼도의 주장대로 몽골과 고려의 군대는 일단 퇴각하게 되었다. 잘 알다시피 이때의 퇴각은 연합군의 패배로 연결된 결정이었다. 어찌되었든 몽골의 주장에 따라다가 1차 원정은 실패하였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만도 13,500명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고려와 몽골의 지휘부 사이에 전세(戰勢)에 대한 판단과 대처를 놓고 견해가 달랐다는 점이다.

제 1차 일본 원정이 태풍으로 전쟁을 해보지도 못한 채 실패로 끝나자, 몽골의 쿠빌라이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본에 선유사(宣諭使)를 파견하는 한편, 전쟁 준비를 계속 지시하였다. 그러다가 1279년(충렬왕 5)에 남송(南宋)을 완전히 정복하여 어느 정도 여력을 갖추게 되자 일본 원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 때 고려는 남쪽 연변을 침략하기 시작한 왜구의 퇴치 및 몽골 제국 내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충렬왕은 일본 원정의 추진기관인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의 승상에 임명되어(1280), 고려에 주둔한 혼도와 홍다구 등과 같은 몽골 장수들의 횡포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는 또다시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 때 고려는 군사 10,000명, 사공 15,000명, 전함 900척, 군량 11만 석을 위시하여 많은 무기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생산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 2차 일본 원정은 고려에 위치한 정동행성 휘하의 고려군, 몽한군 및 중국의 강남지방에 위치한 정일본행성(征日本行省) 휘하의 강남군(江南軍)까지 합세하여 일본을 공격하였으나, 태풍을 만나 10여만 명의 인명 손실을 낸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2. 일본 원정에 대한 고려의 태도: 일본 초유(招誘) 및 1차 정벌 시기까지

여기에서 발표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려의 태도이다. 먼저 일본에게 항복을 권유해야 했던 초기 상황을 보자.

- 1) 정묘 8년(1267) 봄 정월 송군비(宋君斐)와 김찬(金贊)이 몽골 사신과 함께 거제도 송변포(松邊浦)에 도착해서 풍파가 험난한 것을 보고는 두려워서 돌아왔다. 왕이 송군비에게 다시 흑적(黑的)을 수행하여 몽골로 보내고는, (몽골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조서에서 말씀하신 사신을 인도하여 일본과 우호 관계를 맺는 건에 관해서는, 배신(陪臣) 송군비와 김찬 등을 보내어 사신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거제현에 도착해서 멀리 대마도를 바라보다가 큰 바다가 10,000 리(里)나 되고 풍량이 하늘까지 닿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위험한데 어찌 상국(上國)의 사신을 받들고서 위험을 무릅쓰고 함부로 나아가겠는가? 비록 대마도에 도착한다고 해도 저들은 완고하고 사나워서 예의가 없으니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라도 생기면 장차 어찌하겠는가?’ 라 생각하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또 일본은 본래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다만 대마도 사람들이 때때로 무역하기 위하여 금주(金州,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시)를 왕래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후 인자한 덕을 입어서 30년 전쟁 끝에 겨우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어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은이 하늘같이 크니 은혜 갚기를 맹세합니다. 만일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몸과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해가 굵어보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丁卯)八年 春正月 宋君斐·金贊與蒙使, 至巨濟松邊浦, 畏風濤之險, 遂還. 王又令君斐, 隨黑的如蒙古, 奏曰, “詔旨所諭, 道達使臣, 通好日本事, 謹遣陪臣宋君斐等, 伴使臣以往. 至巨濟縣, 遙望對馬島, 見大洋萬里, 風濤蹴天, 意謂 ‘危險若此, 安可奉上國使臣, 冒險輕進? 雖至對馬島, 彼俗頑獷, 無禮義, 設有不軌, 將如之何?’ 是以, 與俱而還. 且日本素與小邦, 未嘗通好, 但對馬島人, 時因貿易, 往來金州耳. 小邦自陛下即祚以來, 深蒙仁恤, 三十年兵革之餘, 稍得蘇息, 綿綿存喘. 聖恩天大, 誓欲報効. 如有可爲之勢, 而不盡心力, 有如天日.”] (『高麗史』 권 26 世家 26, 元宗 8년 (1267) 正月)

2) 계축일(癸丑日), 몽골에서 흑적과 은흥 등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조서를 보냈다. “이제 그대 나라 사람 조이(趙彝)가 와서 말하기를, ‘일본은 고려와 가까운 이웃나라인데 법률과 정치가 제법 훌륭합니다. 한·당 이후로 때때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흑적 등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우호 관계를 맺으려 하니, 그대는 사신이 그 땅에 도달하도록 안내하여 동쪽 사람들을 깨우치고 중국의 의(義)를 사모하도록 하라. 이 일은 경(卿)이 책임지고, 풍량이 험하다는 말로 핑계대지 말고 이전에 일본과 통한 적이 없다고 하며 혹시 그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보낸 사신을 거부할까 염려된다고 핑계대지 말라. 경의 충성심은 이 일로 드러날 것이니 각별히 힘쓰라.” [癸丑 蒙古遣黑的·殷弘等來, 詔曰, “今爾國人趙彝來告, ‘日本與爾國爲近隣, 典章政治, 有足嘉者. 漢唐而下, 亦或通使中國.’ 故今遣黑的等, 往日本, 欲與通和, 卿其道達去使, 以徹彼疆, 開悟東方, 向風慕義. 茲事之責, 卿宜任之, 勿以風濤險阻爲辭, 勿以未嘗通好爲解. 恐彼不順命, 有阻去使爲托. 卿之忠誠, 於斯可見, 卿其勉之.”] (『高麗史』 권 26 世家 26, 元宗 7년 (1266) 11월 계축 (25))

이상의 사례를 보면, 고려는 외교적으로 일본을 초유하게 된 상황을 곤혹스러워 하면서, 이 문제를 최대한 회피하려 했다고 생각된다. 만약 일본이 외교적 초유에 응해서 몽골에 항복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몽골이 전쟁을 해서라도 일본의 항복을 받으려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그 전쟁에 고려가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의 반응도 항복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점은 1268년에 고려가 일본으로 보낸 국서(國書) 중에 “갑자기 다른

형식의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바다를 건너가면 귀국(貴國)이 우리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략〉 쿠빌라이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몽골의 사신을 바닷가까지 데려왔지만 바람이 험난하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돌아갔다. 이는 우리 나라가 귀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가마쿠라 유문[鎌倉遺文] no.9845 고려국첩장안[高麗國牒狀案])을 통해서도 짐작된다.

그리고 이어진 1차 정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는 몽골측에 전쟁 준비를 위한 부담이 고려가 준비하기에 무리한 양(量)임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다.

3. 2차 정벌을 둘러싼 충렬왕의 의도

그러나 2차 정벌 과정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이제까지 몽골이 고려에 일본의 조유를 요구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거꾸로 고려에서 일본 정벌을 먼저 거론하는 것이다. 다음을 보자.

3) 왕이 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일본은 일개 섬에 사는 오랑캐일 뿐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귀순(歸順)하지 않고 감히 왕사(王師)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신(臣)이 생각해보니(황제의) 덕(德)에 보답할 것이 없으니, 원컨대 다시 배를 만들고 곡식을 모아(일본의) 죄를 물어 토벌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왕은 돌아가서 재상(宰相)들과 깊이 의논한 다음 사람을 보내서 아뢰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王又奏曰, “日本一島夷耳, 恃險不庭, 敢抗王師, 臣自念, 無以報德, 願更造船積穀, 聲罪致討, 蔑不濟矣.” 帝曰, “王歸與宰相熟計, 遣人奏之.”] (『高麗史』 권 28, 충렬왕 4년(1278) 7월 甲申(3))

충렬왕은 쿠빌라이에게 고려가 먼저 일본을 정벌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가 쿠빌라이에게 일본 정벌 사업을 권유하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이 대화는 당장 고려-몽골 사이에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김방경 무고사건(金方慶誣告事件)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몽골이 원하던 일본 정벌에 대해 고려가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수 있다. 어찌되었든 이 언사 속에는 일본정벌이라는 사업을 고려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며, 가능한 부담을 피하고자 했던 1차 정벌 때까지와는 가장 큰 차이로 하겠다.

그렇다면 일본 정벌을 둘러싸고 1차까지와 2차 때의 고려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제 이 점을 살피고자 한다. 2차 정벌에 충렬왕이 이전보다 적극성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대체로 고려가 몽골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흉다구 등 고려에 있는 몽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파악한다. 물론 이러한 점을 부정할 수 없으며, 크게 보아 이러한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당시 고려측의 정치적 배경은 되나, 태도 변경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국왕의 입장에서 고려-몽골이라는 국가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도 고려(顧慮)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볼 때, 바로 1차 정벌과

2차 정벌을 준비한 주체인 고려국왕의 차이가 보다 직접적인 이유라 생각된다. 원종과 충렬왕은 부자지간으로, 100년에 걸친 무신정권 때문에 왕권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려는 지향을 지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몽골을 이해, 수용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다음의 에피소드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4) 서북면(西北面)에 왕이 거동(舉動)하여 공주를 맞이하였다. 순안공(順安公) 종(棕), 광평공(廣平公) 혜(諱), 대방공(帶方公) 징(激), 한양후(漢陽侯) 현(僊), 평장사(平章事) 유천우(兪千遇),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장일(張鎰), 지주사(知奏事) 이분희(李汾禧), 승선(承宣) 최문본(崔文本)·박항(朴恒), 상장군(上將軍) 박성대(朴成大),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 이분성(李汾成)이 따라 갔다. (a)왕(충렬왕; 필자)이 분희 등에게 변발(辮髮)하지 않은 것을 꾸짖으니 대답하기를, “신 등이 변발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몽골 풍속에 정수리에서 이마까지 그 모양을 모나게 하고 가운데만 머리카락을 남기고 깎는데, 몽골말로 ‘케구르(怯仇兒)’ 라고 하였다. 왕은 원 나라에 들어가 조회할 때에 이미 변발을 하였으나 국인(國人)은 아직 하지 않았으므로 꾸짖는 것이다. 뒤에 송송례와 정자여가 변발하고 조회하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따랐다. 이전에 인공수가 원종에게 원 나라 풍속을 따라 복색을 고치기를 권하자, (b)원종이 “나는 차마 조종의 법을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 나 죽은 다음에 경들이 마음대로 하라.” 라고 말하였다. [幸西北面, 迎公主. 順安公棕廣平公 帶方公激漢陽侯僊平章事兪千遇知樞密院事張鎰知奏事李汾禧承宣崔文本朴恒上將軍朴成大知御史臺事李汾成從行. 王責汾禧等不開剃, 對曰, “臣等非惡開剃, 唯俟衆例耳.” 蒙古俗, 剃頂至額, 方其形, 留髮其中, 謂之怯仇兒. 王入朝時已開剃, 而國人則未也, 故責之. 後, 宋松禮鄭子璵開剃而朝, 餘皆效之. 初, 印公秀勸元宗, 效元俗, 改服色, 元宗曰, “吾未忍遽變祖宗之法. 我死之後, 卿等自爲之.”] (高麗史節要 卷 19 忠烈王 即位年 (1274) 10 月)

위는 1274년에 제국대장공주가 고려로 입국할 때 충렬왕이 맞이하기 위해 나갔다가, 몽골풍습에 따른 헤어스타일인 변발을 놓고 생긴 일화이다. (a)와 (b)는 변발에 대한 원종과 충렬왕의 입장을 대비시켜 보여준다. (b)에서 보는 것처럼 원종은 변발을 비롯해 복색을 몽골식으로 고치는 것을 못하겠다고며 신료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하라고 말하였다. 반면, (a)에서 충렬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변발을 하고서는 아직 변발을 하지 않은 이분희를 책망하고 있다. 이는 충렬왕이 아버지인 원종보다도 적극적으로 몽골의 영향력을 수용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2차 정벌을 제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렬왕의 언급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충렬왕은 정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7가지 요청을 하였다.

5) 왕이 7가지 항목을 요청하였다. “1. 탐라(耽羅)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군대를 동정군(東征軍)에 보충할 것, 2. 고려군(高麗軍)과 한군(漢軍)을 줄이고 도리첩목아(閣里帖木兒, 체리테무르)로 하여금 몽골군을 더 징발하여 출정할 것, 3. 흉다구의 직임을 더 높이지 말고 그가 성공하기를 기다려서 상을 줄

것, 또 체리테무르(闍里帖木兒)로 하여금 신(臣)과 함께 일본 원정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할 것, 4. 우리나라의 군관(軍官)에게 모두 패면(牌面)을 하사해줄 것, 5. 한지(漢地)의 바닷가 사람들을 초공(梢工)과 수수(水手)로 충당할 것, 6. 안찰사(按察使)를 파견하여 백성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할 것, 7. 신이 직접 합포(合浦, 지금의 창원, 마산)에 가서 군사와 말을 점검하여 보낼 것”이었다. 황제가 “건의한 것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였다. [王以七事請, “一, 以我軍鎮戍耽羅者, 補東征之師, 二, 減麗漢軍, 留闍里帖木兒, 益發蒙軍以進, 三, 勿加洪茶丘職任, 待其成功賞之, 且令闍里帖木兒, 與臣管征東省事, 四, 小國軍官, 皆賜牌面, 五, 漢地濱海之人, 并充梢工水手, 六, 遣按察使, 廉問百姓疾苦, 七, 臣躬至合浦, 閱送軍馬.” 帝曰, “已領所奏.”] (『高麗史』 권 29 世家 29, 忠烈王 6년 (1280) 8월 乙未 (23))

6) 우리나라의 군인과 백성은 일찍이 진도, 탐라, 일본 3 곳에서 여러 번 전공(戰功)을 세웠는데도 아직 상을 받지 못하였으니, 앞드려 바라건대 이전의 전공을 조사해서 각각 패면을 하사하여 후대 사람들을 권장하기를 바랍니다. 군인 1,000 명마다 총관(總管)과 천호(千戶) 각 1 명, 총파(總把) 각 2 명이며, 아래와 같이 이름을 열거합니다. 원하건대 상장군(上將軍) 박지량(朴之亮), 대장군(大將軍) 문수(文壽), 라유(羅裕), 한희유(韓希愈), 조규(趙圭), 친종장군(親從將軍) 정수기(鄭守琪), 대장군(大將軍) 이신(李伸), 박보(朴保), 노정유(盧挺儒), 안사(安社) 등 10 명을 총관(總管)으로 삼고, 대장군(大將軍) 조변(趙抃), 장군(將軍) 안적재(安迪材), 허홍재(許洪材), 김덕지(金德至), 서정(徐靖), 임개(任愷), 김신정(金臣正), 이정익(李廷翼), 박익환(朴益桓) 등 10 인을 천호(千戶)로 삼고, 중랑장(中郎將) 류보(柳甫), 김천록(金天祿), 이신백(李臣伯), 신흥(辛奕), 최공절(崔公節), 려문취(呂文就), 안흥(安興), 이순(李淳), 김복대(金福大), 차공윤(車公胤), 이강공(李唐公), 랑장(郎將) 박성진(朴成進), 고세화(高世和), 중랑장(中郎將) 송인윤(宋仁允), 랑장(郎將) 옥환(玉環), 계부(桂富), 김천고(金天固), 이정(李貞), 서광순(徐光純), 함익심(咸益深) 등 20 명을 총파(總把)로 삼기 바랍니다. [小國軍民, 曾於珍島·耽羅·日本三處, 累有戰功, 未蒙官賞, 伏望追錄前功, 各賜牌面, 以勸來効. 每一千軍, 總管千戶各一, 總把各二, 花名, 抄連在前. 請以上將軍朴之亮, 大將軍文壽·羅裕·韓希愈·趙圭·親從將軍鄭守琪·大將軍李伸·朴保·盧挺儒·安社等十人爲總管, 將軍安迪材·許洪材·金德至·徐靖·任愷·金臣正·李廷翼·朴益桓等十人爲千戶, 中郎將柳甫·金天祿·李臣伯·辛奕·崔公節·呂文就·安興·李淳·金福大·車公胤·李唐公, 郎將朴成進·高世和, 中郎將宋仁允, 郎將玉環·桂富·金天固·李貞·徐光純·咸益深等二十人爲總把.] (『高麗史』 권 29 世家 29, 忠烈王 6년 (1280) 11월 己酉 (11))

위의 두 기록을 보면, 충렬왕은 고려 장수에게 몽골 관직을 요청하고 있고, 또 대상 후보자를 제시하고도 있다. 이처럼 고려군 장수에 대한 만호(萬戶) 임명, 패면(牌面)의 사여(賜與) 등을 충렬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는 몽골 관직 등의 수여가

고려왕의 요청 아래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충렬왕의 의도가 강하게 담긴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충렬왕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선 그는 요청 사항 중 홍다구의 승진을 제한하고 공적을 기다려서 포상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서, 홍다구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겉으로는 몽골과의 동일한 관함을 사용하여 일원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실상 고려군을 몽골군에서 분리하여 지휘상의 혼선을 방지하여 실제로는 고려군 지휘부의 인선 과정에 자신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

이러한 충렬왕의 요청을 쿠빌라이는 모두 수용하였으며, 고려에 호부(虎符) 등을 내려주었다. 이에 충렬왕은 김방경을 비롯한 고려의 장수들에게 몽골의 관명과 인장(印章)을 다음과 같이 내려줄 수 있었다.

7) 원 황제가 왕을 책봉하여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중서좌승상(中書左丞相) 행중서성사(行中書省事)로 책봉하고 인신(印信)을 하사하였다. 또 김방경을 중봉대부(中奉大夫) 관령고려군도원수(管領高麗軍都元帥)로,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박구(朴球)·김주정(金周鼎)을 소용대장군(召勇大將軍) 좌우부도통(左·右副都統)으로 임명하고 모두 호두금패(虎頭金牌)와 인신(印信)을 하사하였다. 조인규(趙仁規)를 선무장군(宣武將軍) 왕경단사관(王京斷事官) 겸 탈탈화손(脫脫禾孫)으로 임명하여 금패와 인신을 하사하였고, 박지량(朴之亮) 등 10명을 무덕장군(武德將軍) 관군천호(管軍千戶)로 임명하여 금패와 도장을 하사하였다. 조변(趙抃) 등 10명을 소신교위(召信校尉) 관군총과(管軍總把)로 임명하여 은패(銀牌)와 인신을 하사하였고 김중성(金仲成) 등 20명을 충현교위(忠顯校尉) 관군총과로 임명하였다. [帝冊王爲開府儀同三司中書左丞相行中書省事, 賜印信. 又以金方慶爲中奉大夫管領高麗軍都元帥, 知密直司事朴球·金周鼎爲召勇大將軍左右副都統, 並賜虎頭金牌·印信. 趙仁規爲宣武將軍王京斷事官兼脫脫禾孫, 賜金牌·印信, 朴之亮等十人爲武德將軍管軍千戶, 賜金牌及印, 趙抃等十人爲召信校尉管軍總把, 賜銀牌及印, 金仲成等二十人爲忠顯校尉管軍總把.] (『高麗史』 권 29 世家 29, 忠烈王 6년(1280) 12월 辛卯(23))

그리고 김방경, 박구(朴球), 김주정은 1281년 3월 임자에 함포로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고 있어, 이때의 몽골 관직 임명이 일본 정벌을 위한 편성 과정의 소산임을 알 수 있다. 곧 충렬왕이 고려의 장수들에게 몽골의 군관직을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것이 수용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몽골 관직을 지닌 고려의 장수들이 2차 일본 정벌에 참여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때 충렬왕이 관직을 몽골에 요청한 의도는 몽골군과 동일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데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과 관련하여서는 충렬왕이 만호(萬戶) 등 몽골의 관직이나 금패 등 지위를 ‘하사’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서 군통수권 등을 확립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충렬왕은 몽골 관직에 대한 일종의 인사권 행사를 통해 통수권 장악, 나아가 그들의 충성심까지 확보하였다. 곧 만호 등의 지위의 임면이나 여탈 등 인사권을

통해 국왕의 신료에 대한 장악력을 높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정동행성의 존재이다. 정동행성이 몽골이 일본 정벌을 위해 설치한 군사령부 성격의 군전행성(軍前行省)이라는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된 사실이다. 1280 년에 2 차 정벌의 준비 과정에서 설치된 정동행성은 이번에는 고려에 두어졌고, 충렬왕이 정동행성의 승상으로 임명되었다. 곧 몽골은 1280 년 6 월 무렵에 일본 정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1280 년 10 월에는 충렬왕을 정동행성의 좌승상, 같은 해 12 월에 우승상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일본 원정이 끝난 1283 년 6 월에는 다시 충렬왕이 정동중서성의 좌승상으로 임명되어서는 아타카이(阿塔海)와 함께 정동행성의 일을 함께 처리하였다. 이제 충렬왕은 정동행성 내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자리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의 관직만을 지닌 대다수의 고려 관인들에게 고려왕은 유일한 명령권자이자 일국의 지배자라는 위상을 무리없이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행성관 등 몽골의 관제로 편입된 고려 출신 관인들에게 고려왕은 ‘유일한’ 군주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몽골 황제의 위상과 영향력이 더욱 컸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왕은 몽골 관료체계 내의 고위직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행성의 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성의 승상이라는 지위가 절실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명령권자는 형식상 몽골의 황제이지만, 고려왕이 만호, 총관 등 군관을 비롯한 몽골 관직에 고려 관료들을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려왕은 몽골 관직자인 고려인과 군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 2 차 일본 정벌에 적극적이었던 충렬왕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결론을 대신하여

충렬왕은 몽골황제의 부마이면서 정동행성의 승상으로, 한 몸에 고려국왕, 부마, 승상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이를 통해 그는 고려 내에서, 그리고 몽골 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이를 위한 과정에서 충렬왕은 몽골의 일본정벌, 특히 2 차 정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충렬왕의 의도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후 나얀의 반란 과정에서 평양으로 나아가고, 쿠빌라이에게 조군(助軍)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몽골에서 차지하는 왕실의 일원이라는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 다시 말해서 몽골에 의존하여 왕권의 위상을 확보, 강화하려던 충렬왕의 선택은, 고려의 정치적, 외교적 스탠스를 한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정토론

일본 원정을 둘러싼 고려 충렬왕의 정치적 의도

[질문자: 체렌도르지, 답변자: 김보광]

—— 체렌도르지

몽골국과학원 역사연구소 체렌도르지입니다. 김보광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 2차 일본 원정 때 충렬왕이 한 역할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고려사』의 기록만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사(元史)라든지 중국측의 다른 문헌 자료에 있는 것을 검토하셨는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 김보광

감사합니다. 가천대학교 김보광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사를 비롯한 한국측 사료가 중심입니다. 중국 측 사료 특히 원사(元史)는 거의 고려 측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대를 다룰 때는 이런 것을 꼭 다 봤습니다만, 본 발표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려사』에 바탕을 두고 서술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체렌도르지

그것만으로는 모자라지 않을까, 다 사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려사』에도 틀리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김보광

예, 옳은 말씀이고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려 측 자료에서는 아무래도 원종(元宗)이나

충렬왕의 입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제 논문의 목표가 충렬왕의 의도를 좀 더, 그 이전의 아버지 때와는 이렇게 달랐다는 것을 살펴보는 데 있었기 때문에 다소 강조나 편향이 있을 수 있는 『고려사』에 의존한 감이 많기 있기는 하지만,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완성할 때는 지적해주신 대로 다른 자료에서 조금 더 방증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체렌도르지

사료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자들은 과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충렬왕이 몽골 황제(계승)권에 아주 가까웠다는지, (황제계승권) 7위였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하는데, 7위라는 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얼핏 그 말만 듣고 황제가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황제계승권으로부터) 얼마나 먼 것인지, 이런 점도 앞으로 검토해보시고 주의 깊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발표논문 8



대몽(對蒙)전쟁·강화(講和)과정과 고려 정권을 둘러싼 환경 변화

이 명미

(李命美, 서울대학교)

요지

몽골과의 전쟁 및 교섭, 그리고 강화(講和)에 이르는 과정은 고려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무신정권이 종식되고 왕권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 과정에서 보이는 고려 왕권 - 정권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환경변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전 시기 고려의 외교교섭 대상들과는 달리, 몽골은 유목국가로서 주변과의 관계 형성 방식을 전쟁시기부터 강화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30~40년에 이르는 전쟁과 교섭 과정에서 고려는 이러한 요구들에 온전히 응하지는 않았으나 그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였는데, 그 결과물의 한 가지로 드러나는 양상이 고려 종실(宗室)들의 외교적, 정치적 활동이다. 이러한 양상은 정치단위 수장 간의 직접적인 대면 및 그것을 포함한 개인간·가문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몽골의 관계 형성 방식과 관련된 것이었다. 고려왕조 체제에서 태자를 포함하여 종실들은 그 정치적·외교적 활동이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몽골과의 전쟁을 계기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고려종실의 활동양상은 전쟁 이후까지도 이어지며 고려 - 몽골 관계 및 그 안에서의 고려국왕권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고려 - 몽골간에 '완전한' 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고려 원종(元宗)이 무신집권자 임연(林衍)에 의해 폐위되었다가 복위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는데, 이 과정 역시 몽골과의 관계로 인한 고려왕권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일단을 보여준다. 기존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고려 국왕들은 중국황제의 '책봉'을 받았으나 이는 사후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실제 고려 국왕의 즉위와 퇴위(혹은 폐위)는 온전히 고려의 내부적 사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자(이후의 충렬왕)의 청혼과 청군(淸軍)이 받아들여지고 군대를 대동한 몽골 조사(詔使)가 파견되면서, 고려왕권은 '실질적인 책봉'과 '황실과의 통혼'이라는 두 가지 관계를 통해 황제권과 직결되었다. 이는 기존에 국가 간 관계의 형식으로 존재했던 '책봉'이 실질화하는 변화인 동시에, 몽골에서 정치단위 간 관계를 매개·유지하는 중요한 형식인 통혼이라는 가문 간 관계 형성 방식이 고려 - 몽골 관계에도 작용하게 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고려왕권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고, 그러한 변화는 이후 고려 - 원 관계 속에서 발생한 여러 정치적 사건들을 발생시킨 구조적인 변화였다고 볼 수 있다.

1. 머리말 - 강화(講和)를 위한 몽골의 요구조건, ‘몽골적 관계’의 형성 방법

1231년, 몽골은 고려를 침입해 왔고, 당시 최씨무신정권 하에 있던 고려 조정은 강화도(江華島)로의 천도(遷都)를 단행했다. 이후 30여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화(講和)와 전쟁을 반복하면서, 몽골은 강화의 조건으로 몇 가지 사항을 일관적으로 요구했다. 여기에는 강화도로 옮긴 도읍을 다시 개경(開京)으로 옮길 것에 대한 요구(出陸遷都)와 함께 국왕의 친조(親朝), 납질(納質), 우역(郵驛) 설치, 공호수적(供戶數籍), 조군(助軍), 군량조달, 다루가치 설치 등 몽골이 정복지에 대해 요구했던 보편적 사안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6사(事)’라 지칭된다. 이러한 요구사안들은 몽골이 복속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지는 않으면서도 정치·군사·경제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본 발표문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국왕의 ‘친조’와 ‘납질’ 요구이다. 특히 이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몽골이 다른 정치단위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식, 다시 말해 유목사회에서 정치적 네트워크가 형성, 유지되는 방식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지배가문 간의 세대를 거듭한 통혼 역시 이러한 방식 가운데 하나이며, 고려왕실 또한 그 대상이 되었으나, 이는 애초에 몽골 측에서 고려에 대해 요구했던 사안이라기보다는, 고려 무신집권자에 의한 국왕 元宗 폐위라는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소 ‘돌발적으로’ (고려세자에 의해) 제기되고 성사된 것이었다. 이에 비해, 국왕의 친조 및 왕실의 자제를 질자(姪子), 투르카(禿魯花, turkha)으로 보낼 것에 대한 요구는 몽골이 이미 전쟁초기부터 해왔던 것이었다.

몽골에서 ‘납질’을 요구했던 데에는 일차적으로는 강화를 통해 전쟁을 종료하면서 복속국 수장의 자제를 ‘인질’로 들이고자 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종료라는 단기적 ‘사건’ 이후 양자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르카으로 몽골에 들어간 이른바 ‘인질(人質, 질자)’들은 대개 케식(怯薛, kešig)에 들어가 몽골 황제·왕실 및 지배층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지배층으로 재교육되었다. 이러한 점은 이 시기에, 그리고 이후에 몽골로 간 고려 宗室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강화를 위해 국왕의 ‘친조’를 요구한 것 역시 정치단위 首長 간의 직접적 관계형성에 대한 요구라는 점에서 ‘납질’ 요구와 맥락상 통한다. 몽골에서 정치단위 수장(首長) 간의 직접적 관계가 정치단위 간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전쟁을 통해 세력의 규합과 분열이 반복되었던 유목사회의 특성, 그리고 分封을 통해 구성되었던 몽골 국가체제의 분립적·분권적 성격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몽골에서 전쟁 중에 있던 국가 혹은 정치단위와 강화를 맺기 위해서는 그 국왕, 혹은 首長과의 직접적인 관계 [개인 간·가문 간 관계] 성립이 중요했고, 그를 표현하는 수단이 곧 수장들이 황제를 직접 대면(面對)하여 복속을 표하는 친조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수장 가문의 자제를 몽골에 보내어 입시(入侍)하게 하는, 투르카(禿魯花) 파견이 필요했으며, 필요에

따라 수장의 친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¹

이러한 수장 개인 간·가문 간 직접적 관계 형성은² 그간 주로 사신(使臣)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책봉(冊封)과 조공(朝貢)이라는 형식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던 국가 간 관계형성 방식에 익숙했던 고려의 입장에서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이에 고려 측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요구된 바 그대로는 아니지만 나름의 해석을 가하여 대응했고, 그러한 대응이 양자 관계의 진전에 따라 변화하면서 몽골과의 관계가 고려 사회, 특히 그 정치적 환경에 미친 영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 역시, 본 발표문이 이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아래에서는 강화를 위한 몽골 측 요구조건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국왕 친조 및 납질 요구에 대한 고려 측 이해와 대응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응방식이 양국 관계 안정 이후 어떻게 변화하며, 그러한 변화양상이 반영하는 이 시기 고려 - 몽골 관계의 특징 및 그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2. 국왕 친조(親朝) 요구에 대한 해석과 대응 - 종실의 외교활동: 강화 교섭의 사행단 인솔

몽골은 1231년(고려 고종 18) 1차 침입 이후, 고려가 강화를 맺은 상태에서 강화 전도를 단행하자, 이를 이유로 곧 다시 침입해 왔다. 그리고 철군의 조건으로 국왕이 몽골에 와서 직접 황제를 만날 것, 즉, 친조를 요구했다.³ 이는 1차 침입 이후 국왕의 친조 없이 맺은 강화가 강화전도로 그 불안정성을 드러낸 가운데 이루어진 요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 측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몽골의 침입과 국왕 친조 요구는 계속되었으며, 결국 1258년 최씨정권 종식 이후 태자(太子)의 친조를 통해 양국 간 강화가 성사되었다.

고려 측에서 국왕 친조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데에는 심리적 거부감 및 무신집권기라는 정치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인데, 고려는 국왕 친조라는 몽골 측 요구를 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요구에 내재한 안정적 관계 성립의 맥락에 응하기 위해 나름의 대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화 교섭 과정에서 종실들의 활동 및 강화 이후 종실들이 정사(正使)로서 활동했던 양상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고려의 종실이 정사로서 사행단을 인솔하는 양상은 몽골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사행 양상 가운데 하나로, 이 시기 고려 - 몽골 관계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몽골과의 관계에서 고려 종실이 사행단을 이끈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이에 몽골에서 친조는 제왕(諸王)·봉군(封君)이 칸에게 신복(臣服)하는 상징이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배반으로 인식되었다. 몽골에서의 친조, 조근(朝覲)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李治安, 1989, 『元代分封制度研究』, 天津古籍出版社, 297-299쪽.

2 몽골 지배층의 개인 간·가문 간 관계의 구체적 형태 및 그 의미와 관련해서는 김호동, 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96-100쪽 참조.

3 고종 19년(1232) 11월, 몽골 황제에게 보낸 진정표의 내용 가운데, 황제의 조서 내용을 운운하며 국 왕이 직접 조근(朝覲)하는 문제와 관련한 고려 측 입장을 표명한 부분이 있는 것을 통해(『高麗史』 권 23, 고종 19년 11월), 이에 앞서 고려에 전달된 몽골 황제의 조서에 국왕의 친조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 19년 11월 이전, 같은 해 7월에 몽골의 조서가 전달된 바 있다(『高麗史』 권 23, 고종 19년 7월 경진[庚辰] 삭[朔]).

〈표〉 고려 종실이 몽골사행단을 이끈 사례 (전거: 『고려사』, 『고려사절요』)

번호	사행 시기	인물	사행 목적
1	고종 26년 (1339) 12월	신안공 왕전 (新安公 王詮)	전쟁 중 교섭
2	고종 32년 10월 임오 (壬午)	신안공 왕전 (新安公 王詮)	전쟁 중 교섭
3	고종 40년 12월 갑신 (壬申)	안경공 왕창 (安慶公 王曄)	전쟁 중 교섭
4	고종 44년 12월	안경공 왕창 (安慶公 王曄)	전쟁 중 교섭
5	원종 원년 (1260) 4월 병인 (丙寅)	영안공 왕희 (永安公 王僖)	황제 즉위 하례
6	원종 2년 4월 을유 (己酉)	태자 왕심 (太子 王諶)	아릭부케 평정 하례
7	원종 6년정월 을미 (乙未)	광평공 왕순 (廣平公 王詢)	원종 친조 시 후의에 사례
8	원종 8년 11월 갑오 (甲午)	안경공 왕창 (安慶公 王曄)	신년하례, 일본초유 관련보고
9	원종 11년 8월 무진 (戊辰)	세자 왕심 (世子 王諶)	성절하례, 배중손 반역보고
10	원종 13년정월 갑신 (甲申)	제안후 왕숙 (濟安侯 王淑)	‘대원 (大元)’ 국호제정 하례
11	원종 14년정월 계해 (癸亥)	대방후 왕징 (帶方侯 王澂)	세자 혼사 허락 사례
12	원종 14년윤 6월 기미 (己未)	순안후 왕종 (順安侯 王宗)	황후 • 황태자 책봉 하례
13	충렬왕 즉위년 (1274) 9월 무술 (戊戌)	제안공 왕숙 (濟安公 王淑)	공주 하가 (下嫁) • 국왕 작위 계승 사례
14	충렬왕 12년 5월 경오 (庚午)	제안공 왕숙 (濟安公 王淑)	황태자 친킴 (眞金) 사 망 조의
15	충렬왕 18년윤 6월 병술 (丙戌)	세자 왕장 (世子 王璋)	성절 하례
16	충선왕 즉위년 (1298) 정월	평양후 왕현 (平陽侯 王玠)	선위 (禪位) 허락 사례
17	충렬왕 복위년 (1298) 9월	중원후 왕온 (中原侯 王溫)	복위 (復位) 사례
18	충렬왕 29년 11월 무인 (戊寅)	제안공 왕숙 (濟安公 王淑)	전왕 귀국 요청
19	충숙왕 7년 (1320) 6월 기사 (己巳)	단양대군왕후 (丹陽大君王瑋)	황제 즉위 하례
20	충숙왕 8년 3월	단양대군왕후 (丹陽大君王瑋)	연호개정 • 태후책봉 하례

고려 종실이 몽골 측에 사신으로 파견된 사례는 전쟁 중 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진 4개 사례와 몽골과 강화가 이루어진 1259년 이후의 16개 사례, 총 20개 사례가 확인된다. 이 가운데 원종(元宗) 재위기간 중의 사례가 8개로, 이 시기에 종실 정사 파견이 집중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특히 원종 대 첫 번째 사례인 원종 원년(1260) 4월의 사행은 고려-몽골 간 강화가 성사되고 원종이 즉위한 후 처음으로 몽골에 파견한 사행이기도 했다.

몽골과의 관계에서 종실이 정사로서 사행단을 이끌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사례들이 대개 특별한 사안과 관련한 의례적 사행이었다는 점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실들이 사행단을 이끈 사례에는 물론 신년·성절 하례(賀禮)와 같은 정례적 사행도 포함되었으나, 황제의 정적(政敵) 평정 하례나 왕실 간 통혼 성사에 대한 사례(謝禮) 등 특별한 사안에 대한 하례 혹은 사례를 위한 사행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종실을 정사로 파견한 것이 몽골과의 관계 초기,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 사안과 관련한 사행의 격을 높이기 위한 고려 측 인선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외교를 위한 국가 간 사행에서 사신, 특히 정사의 격(格)은 곧 사신 파견 주체가 상대국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정사의 ‘격’을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드러낼 것인지는 사행의 목적 및 파견 주체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고려 전기, 송(宋)과의 관계에서 파견되었던 고려 측 사신들의 경우를 볼 때, 고려에서는 그의 가문 배경 및 관품(官品), 학식 등을 사신 인선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⁴ 그런 점에서, 종실을 정사로 파견한 것은 고려의 입장에서 가문 배경이나 관품 등을 기준으로 한 정사의 격을

4 박용운, 1995·1996, 「高麗·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上)·(下)」 『한국학보』 21·22.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 몽골과의 관계에 최대한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종실이 정사로 파견된 사례가 몽골과의 관계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이러한 양상이 관계의 대상이었던 몽골로부터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구체적 일면은 고려 종실의 사행이 시작된 초기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에서 종실이 사신으로 파견된 최초의 사례는 1339년(고종 26) 신안공(新安公) 왕전(王詮)의 사행이다. 이 사행을 비롯해 고종 대에는 총 4 차례 종실 사신 파견 사례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행들은 그 사행의 목적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시 전쟁 과정에서 전쟁 종식의 전제조건으로 몽골 측이 요구했던 국왕 친조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몽골은 제 2차 침입 이후부터 강화를 위한 조건으로 국왕의 친조를 요구했다. 이후 1235년(고종 22)부터 시작된 3차 침입을 마무리하면서, 몽골에서는 고종 26년(1239)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여 국왕이 몽골에 친조할 것을 다시 요구했고, 12월, 고려에서는 신안공 왕전과 소경(少卿) 송언기(宋彦琦)를 몽골에 보냈다.⁵ 이후 고종의 둘째 아들이자 원종의 동생인 안경공(安慶公) 왕창(王昌) 역시 1253년(고종 40)과 1257년, 두 차례에 걸쳐 몽골에 파견되었는데, 이 역시 당시 새롭게 황제위에 오른 헌종(憲宗) 몽케가 군사적 침입과 함께 국왕 혹은 왕자(태자인 것으로 생각됨)의 친조를 요구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⁶ 이를 통해 볼 때, 종실의 사행은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몽골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국왕 친조를 피하면서 몽골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고려 측 임기응변책의 하나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고종은 몽골의 사신들이 왕이 강외(江外)까지 나와 영접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나가지 않고 신안공 왕전을 보내어 사신들을 맞이하게 했으며,⁷ 몽골 군대가 침입해 와서 국왕과 태자가 직접 항복할 것을 요구했을 때에도 영안공(永安公) 왕희(王僖)를 대신 보냈다.⁸

이러한 종실의 사행이 고려 측에서 기대한 바와 같이 몽골 측에 대해 국왕이나 태자의 친조 혹은 직접 항복을 온전히 대신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239년(고종 26) 몽골에 갔던 신안공 왕전은 이듬해 9월에 돌아와서 황제가 국왕의 친조를 요구했음을 다시 전했고, 안경공 왕창은 ‘왕자(王子)’였지만, 1257년(고종 44) ‘왕자 입조(入朝)’ 요구에 따른 그의 입조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몽골에서는 다시 태자(太子)의 친조를 요구해 왔다. 그리고 태자 왕전(王倂, 뒤의 원종)의 친조를 통해서야 양국 간 강화가 성립될 수 있었다. 즉, 당시 몽골 측에서는 국왕·태자와의 직접적 관계를 요구했을 뿐 종실을 사신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전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고려 측은⁹ 그러한 몽골 측 요구의 맥락을 ‘고려의 입장’에서 조율하여 종실을 사신으로 파견했고, 이러한 양상은 강화 이후에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5 『高麗史』 권 23, 고종 26년 4월, 8월, 12월

6 『高麗史』 권 24, 고종 40년 8월 기미(己未), 경오(庚午), 10월 신미(辛未), 12월 임신(壬申); 44년 7월 임신, 12월.

7 『高麗史』 권 23, 고종 37년 6월 경자(庚子)

8 『高麗史』 권 24, 고종 45년 6월 병신(丙申)

9 강화 이후에도 고려 측에서는 국왕의 친조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원종 5년 몽골 측 친조 요구에 대한 고려 측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려사절요』 권 18, 원종 5년 5월).

스스로 몽골에 입조하여 강화를 성사시킨 후 즉위한 원종은 세조 쿠빌라이의 즉위를 하례하기 위해 그가 몽골에 보낸 즉위 후 첫 사행단을 종실 영안공 왕희 인솔 하에 파견했으며, 얼마 후 쿠빌라이가 즉위 과정에서 경쟁했던 아리부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하례하기 위한 사행단은 아들이자 태자였던 왕심을 정사로 삼아 보냈다. 그리고 위 표에 보이듯이 이러한 사행은 이후에도 몇 차례 이어졌다. 스스로 친조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직 통훈과 같은 몽골적 관계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고려 - 몽골 관계에서, 원종은 전통적으로 국가 간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 수단이었던 사행의 격을 높이는 것을 통해 몽골과의 강화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행의 격을 높이는 것은 이전 시기 사신 인선 기준에 비추어 사행단을 이끄는 정사의 격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 '고려에서 인식한' 몽골적 맥락에서 종실을 사신으로 보내는 것이 결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종실의 정사 파견은 스스로 태자로서 입조한 경험도 있고, 자신의 입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논의 과정을 알고 있었던 원종이 자신의 입장에서, 고려가 경험해 왔던 중국왕조와의 관계 및 사행 양상에 몽골의 관계 형성 방식에 보이는 특징적 면모를 일정부분 수용하고 절충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몽골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고려와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몽골과, 다분히 동아시아적 관계의 맥락에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던 고려 사이에 아직까지 온전히 동의, 정착되지 않은 고려 - 몽골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그러한 관계를 바라보는 원종과 고려 측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원종(元宗) 대 고려 - 몽골 관계에서, 수장개인·수장가문 간의 직접적 관계 형성과 유지라는 몽골적 관계 요소는 그 자체로 기능하기보다는 정례적·의례적 사행이라는 국가 간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이러한 양상은 충렬왕대 이후 왕실 간 통훈이나 국왕 친조와 같은 직접적 관계들이 고려 - 몽골 관계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점차 줄어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표에서 보다시피, 종실을 정사로 파견하는 사례는 원종 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충렬왕(忠烈王) 대 이후, 특히 1298년 충렬왕과 충선왕(忠宣王) 간에 발생했던 중조(重祚) 사건 이후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우선 충렬왕 대 이후로는 국왕 스스로가 몽골황실과 통훈을 하기도 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친조에 임하게 되는 등, 개인 간·가문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 몽골적 관계 요소들이 전면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굳이 종실의 정사 파견이라는 절충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달리 말하면 고려와 몽골의 관계에서 정례적·의례적인 사행이 갖는 비중과 의미가 축소되어가는 양상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점은 사행 자체에서 실무적 사행의 비중과 의미가 증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양국 간 관계를 안정시키고, 안정된 관계를 주기적으로 상호간에 환기·유지하는 주요한 수단이 사행, 특히 정례적·의례적 사행 밖에 없었던 시기의 국가 간 관계에서와 달리, 고려 - 몽골 관계에서는 고려 국왕이 몽골 황제·황실과 직접 형성한 관계 등 고려와 몽골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른 수단들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갖고 등장하게 되면서, 사신의 격을 통해 사행의 격을 높이고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갖는 비중이 이전에 비해 축소된 상황과 관련된다.

한편, 충렬왕 대 이후 종실 정사 파견 사례가 확연히 줄어들게 된 데에는 고려 - 몽골 관계에서 종실이 갖는 의미 및 비중 문제도 관련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 시기 고려 - 몽골 관계의 성격과 그에 기반한 고려의 권력구조 문제, 국왕 위상의 변화와 관련된다. 고려 - 몽골 관계는 책봉과 조공이라는 형식을 통해 형성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가 간 관계 요소와 통혼 등을 통해 형성되는 몽골적 (유목사회에서의) 개인 간·가문 간 관계 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관계였다. 이러한 관계에 기반해 형성되었던 몽골 복속기의 권력구조 하에서 이루어진 고려 국왕의 위상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고려국왕의 몽골황제의 제후로서의 위상이 외교질서 상에서만 아니라 고려 내부적으로도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 몽골 황제권이 실질적 최고권으로 존재하고 그와의 관계 (개인 간·가문 간 관계 포함)를 통해 권력이 부여되는 구조 아래에서 고려국왕은 몽골황제·황실과 유사한 관계를 형성한 다른 권력주체와 경쟁을 해야 하게 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과정들을 통해 왕조체제 아래에서 고려왕실이 갖고 있던 혈연적 정통성의 권위의 비중이 얼마간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 책봉 - 조공 관계에서 형식적으로 기능하던 고려·고려국왕의 제후국·제후 위상이 실질화한 변화에 더하여, ‘부마(駙馬)’의 위상 (통혼이라는 관계)을 통해 ‘매우 특별하지만 변동 가능하며 다원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관계’에 고려국 왕권이 상당부분 의존하게 된 점, 그리고 ‘행성승상(行省丞相)’이라는 위상을 통해 관료로서의 속성이 일정부분 고려국왕 위상에 이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왕 위상의 변화는 이전 시기 고려라는 정치단위 안에서 자체적인 논리에 기반하여 최고권으로 존재해 왔던 고려국 왕권이 몽골 복속기에 들어와 그 상위의, 그리고 경쟁 관계의 다른 권력들과의 관계들 속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변화라는 점에서 ‘상대화’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 - 몽골 관계 및 그에 기반한 권력구조는 1269년 원종 복위 과정을 통해 성립되었으나, 고려국왕과 신료들이 이러한 몽골과의 관계 및 그에 기반한 권력구조의 전모를 인지하고 활용 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려국왕과 신료들이 이러한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의 특징을 온전히 인지하게 된 것은 1298년 충렬왕과 충선왕 간 중조(重祚) 과정을 통해서였다. 이를 통해 고려국왕과 신료들은 고려국왕이 황제와 형성한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왕이 폐위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며, 이후 충숙왕 대(代)에 발생했던 변왕(瀋王) 옹립운동의 과정은 왕실 직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황제·황실과 형성한 관계가 국왕 - 황제 간 관계보다 더 밀접하고 강고한 경우 그 관계를 기반으로 국왕 위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¹⁰ 이러한 상황에서 국왕이 몽골에 파견하는 중요한 사행을 원종이 인솔하게 하는 것은 다소간 정치적 부담을 안은 행위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충렬왕대 이후 종실을 정사로 파견하는 사례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에 대한 인식 문제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한다.

3. 투르각(禿魯花, turxax) 파견과 종실의 케식 참여

사행(使行)을 통한 종실의 활동은 원종 대(代) 이후, 특히 충렬왕 대 중조

10 이상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이명미, 2016,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정동행성 승상 부마 고려국왕, 그 복합적 위상에 대한 탐구』, 해안 참조.

이후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고려 종실들의 정치적·외교적 활동은 다른 통로를 통해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몽골의 케식(怯薛, kešig) 제도이다. 고종 28년(1441) 4월, 고려에서는 현종(顯宗)의 후손인 종실 영녕공(永寧公) 왕준(王俊)을 왕의 아들이라 ‘속이고’ 양반 자제 10명과 함께 몽골에 투르각으로 보냈다. 이는 몽골 측 요구사항인 ‘6사(六事)’ 가운데 한 가지인 ‘납질(納質)’ 요구에 응하는 것인 동시에, 전년 몽골 측의 국왕 친조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왕준은 그가 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점이 ‘발각’ 되었으나 그의 몽골 조정에서의 활동이 인정되어 계속 몽골에 체재하면서 료심(遼瀋) 지역 총관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고려 측의 최초 투르각 파견은 위와 같이 다소 ‘애매하게’ 이루어졌으나, 이후 몽골 측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르각이 파견되었고, 이렇게 투르각으로 파견된 고려의 종실들은 케식에 참여했다. 케식은 숙위(宿衛)의 몽골식 표현으로, 칭기스칸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신임을 받았던 대표적 누케르(nöker) 가문들을 비롯해 새롭게 복속한 정치단위 수장의 자제나 친족들을 포함한 몽골 황실의 친위대이다. 이는 몽골제국의 핵심 지배층을 구성하는 집단이었다. 케식에 다른 정치단위 수장의 자제들을 소환하여 참여하게 한 것은 몽골의 입장에서 다른 정치단위의 복속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측면도 갖지만, 이들을 몽골 지배층으로 훈육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¹¹ 또한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케식에 참여하는 동안 몽골 정치세력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 정치적 기반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고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충목왕(忠穆王)과 충정왕(忠定王)을 제외한 고려국왕들은 모두 즉위 전 몽골에 가서 케식생활을 했다. 충렬왕은 원종 12년(1271, 세조 지원[至元] 8년)부터 왕위를 계승한 원종 15년(1274, 지원 11)까지, 중조를 거쳤던 충선왕은 충렬왕 16년(1290)~24년(1298, 성종[成宗] 대덕[大德] 2) 정월, 그리고 같은 해 8월 폐위된 이후 1308년에 복위하기까지(무종[武宗] 지대[至大] 1), 이후 같은 해 11월에 몽골로 간 이후 티벳으로 유배가게 되는 충숙왕 7년(1320, 영종[英宗] 즉위)까지 케식생활을 했다. 충숙왕(忠肅王)은 충선왕이 복위하면서 케식으로 소환되어 왕위를 계승하는 충선왕 5년(1313, 인종[仁宗] 황경[皇慶] 2)까지 케식생활을 했고, 충혜왕(忠惠王)은 충숙왕 15년(1328, 천순제[天順帝] 치화[致和] 1·명종[明宗] 천력[天曆] 1)부터 17년(1330, 문종[文宗] 지순[至順] 1)까지 케식생활을 하다가 왕위를 계승했으나, 충숙왕이 복위하게 되면서 다시 케식에 소환되었다가 불성실한 생활을 이유로 충숙왕 후 5년(1336, 순제[順帝] 지원 2)에 고려로 귀국 조치되었다. 공민왕(恭愍王) 역시 충혜왕 복위 후 케식으로 소환되어 1351년 왕위를 계승하기까지 케식생활을 했다.¹²

몽골 케식에 참여했던 고려종실은 세자에 한정되지 않았다. 몽골과의 관계 초반에는

11 森平雅彦, 2001, 「元朝ケシク制度と高麗王家-高麗·元 關係における禿魯花の意義について」, 『史學雜誌』第110編 第2號.

12 케식 참여기간은 대체적인 것으로 연도 단위를 중심으로 표시했고 일시적으로 귀국한 것은 표시하지 않았다. 고려국왕의 즉위 전 케식 참여 상황 및 고려 종실들의 케식 참여 상황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森平雅彦, 위 논문, 2001 참조.

왕실 직계가 아닌 인물들이 투르카스로 파견되기도 했고,¹³ 위 고려국왕들의 사례 가운데에도, 충숙왕과 공민왕의 경우처럼 ‘세자’가 아닌 상태에서 케식에 소환되었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충선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충숙왕은 충선왕이 복위한 후, 그 형인 세자 왕감(王鑑)과 함께 몽골에 숙위로 소환되었다. 몽골 측에서 두 왕자를 함께 보내도록 한 데 따른 것이었다.¹⁴ 공민왕 역시, 그의 형인 충혜왕이 복위한 후 숙위로 소환되었으니, 세자로서 케식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공민왕 즉위 후 충혜왕의 서자였던 석기(釋器)를 소환한 것 역시 그를 케식에 들이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몽골에서 ‘세자’가 아닌 고려 종실들을 숙위로 불러들인 것이 그를 차기 국왕위 계승권자로 둠으로써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려 했던 것인지의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려의 신료들은 이렇게 몽골에 케식으로 가게 된 종실을 사실상 차기 왕위 계승권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려 신료들이 왕기(王祺, 뒷날의 공민왕)가 케식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를 ‘대원자(大元子)’라 칭했던 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¹⁵ ‘원자(元子)’란 원래 왕의 맏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원자가 곧 세자, 왕위 계승권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때 고려의 신료들이 충혜왕의 동생인 왕기를 굳이 ‘대원자’라 칭했던 것은 그가 ‘세자’에 책봉된 것은 아니지만 몽골에서 숙위 생활을 하게 되면서 차기 계승권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고려신료들이 인식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몽골의 케식제도가 고려 왕위계승 후보자격을 제공하고 그 정치적 환경을 조성 하는 제도로서 일정부분 인식되고 기능하게 된 가운데, 기존에 이러한 역할을 했던 고려의 太子制度는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광종(光宗)대(代)에 도입된 고려시대 태자(太子)제도는 크게 책봉과 동궁관(東宮官) 운영으로 나누어진다. 대개 재위 중인 국왕(現王)의 맏아들을 태자로 책봉함으로써 혈연적 정통성을 기반으로 한 권위가 부여된다면, 동궁관 임명과 운용은 그가 즉위한 후 국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미리’ 조성해주는 역할을 했다. 태자의 교육과 호위를 담당한 동궁관은 그 자체가 태자의 국왕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이후 국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야 할 관료들과의 관계를 미리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동궁관에 임명된 인물들은 대개 임명 당시 고위 관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태자가 왕위에 오른 후 고위 관직에 오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¹⁶

더하여, 태자제도는 후계를 둘러싼 정국 분열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면에서 현 국왕의 정치적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태자 책봉이 국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결정적이겠지만, 동궁관의 구성에서도 확인되듯이 태자의 정치적 인적 기반은 사실상 현 국왕의 그것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13 몽골과의 강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고종 28년(1241) 몽골에 투르카스로 갔던 영녕공(永寧公) 왕준(王準), 충렬왕 대 대방공(帶方公) 왕징(王澂) 및 그의 아들 중원공(中原公) 왕온(王溫)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외에 충선왕으로부터 번왕위(藩王位)를 계승했던 왕고(王高) 및 그 손자로서 번왕위를 계승한 왕독타부화(王篤朶不花) 역시 케식에 참여했다.

14 『고려사』 권 124, 尹碩傳.

15 『고려사』 권 38, 공민왕 충서 충혜왕 후 2년 5월.

16 김창겸, 2008, 「고려 현종대 동궁관 설치」 『한국사학보』 33.

이러한 고려의 태자제도는 몽골과의 관계에서 다소간 변화를 보인다. 우선 격식 면에서 고려의 왕위계승권자인 태자가 제후국의 위상을 반영한 ‘세자’로 격하되었다. 한편, 고려전기의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태자의 책봉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대개 현왕의 맏아들을 태자로 삼고(立太子, 爲太子) 동궁관을 임명하여 태자부(太子府)를 구성하여 교육을 시킨 후, 적절한 시기에 그를 태자로 책봉 했다(冊太子). 태자를 세운(立太子) 이후 태자를 책봉(冊太子)하기까지의 시차는 다양하다. 원종 대에서 충렬왕 대까지의 세자제도 운용은 고려전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세자제도’는 충선왕 대에 들어오면서 크게 변화하여, 왕권과 왕위계승 과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기능을 거의 상실한 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충선왕의 장자 왕감과 차자(次子) 왕도(王燾, 뒤의 충숙왕)는 각기 1310년(충선왕 후 2) 정월과 1313년(충선왕 후 5) 3월에 ‘세자’로서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기록을 통해 모두 세자였음이 확인된다. 이들이 세자가 된 시기는 왕감은 충선왕이 복위한 1308년 8월 이후 1310년 정월 이전, 그의 동생인 왕도는 왕감이 사망한 1310년 5월 이후, ‘세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은’ 1313년 3월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충선왕의 두 왕자에 대해서, 특히 왕위를 계승한 충숙왕에 대해서는 그 책봉과 관련한 기록뿐 아니라 세자부(世子府) 구성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이 유의된다. 이러한 점은 이후의 세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충숙왕의 장자이자 세자인 왕정(王禎, 뒤의 충혜왕)에 대해서는 그가 1328년(충숙왕 15)에 ‘세자로서’ 몽골에 숙위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세자 책봉이나 세자부 구성과 같은 관련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충숙왕이 변왕과의 분쟁으로 몽골에 소환되어 머물다가 고려로 귀국한 것이 1325년에 이르러서였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1328년 왕정(王禎)이 세자로서 숙위를 위해 몽골로 가기까지 3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 변왕과의 왕위계승 분쟁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서 세자 책봉과 세자부 설치 등이 필요했을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선행하는 원종 대나 충렬왕 대의 세자 책봉 및 관련 제도 운영 양상에 비교되는 지점이다.

충혜왕의 장자로 왕위를 이었던 충목왕(忠穆王)에 대해서는 ‘세자’라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충목왕이 즉위 당시 8살이었음을 고려할 때, 어린 나이로 인해 충혜왕 재위시 ‘아직’ 세자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충선왕이 복위한 후 맏아들을 세자로 세우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정치기반 확보를 위해 그에 수반되었던 세자부 설치나 세자의 지위를 확정하는 세자 책봉 등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양상은 기록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왕의 공식적 왕위계승자로서의 태자 - 세자가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 그를 책봉하는 의례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태자 책봉례(冊封禮) 이후 관련한 사면령을 내리거나 태자의 생일을 절일(節日)로 삼아 기념하기도 했던 고려전기의 전례를 고려한다면, 실제 책봉이 이루어지고도 그 기록이 남지 않았던 당시 상황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충정왕과 공민왕은 모두 ‘선대왕(前王)’의 아들이 아니기도 하여, ‘세자’가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특히 충선왕 대 이후 태자 / 세자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게 된 것은 이 제도의 기저에 있는 왕위계승과 관련한 고려 전래의 관념이 가졌던 권위와 규정력이 몽골과의 관계에서 상당부분 약화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게도

고려 왕권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시대 왕조체제에서 태자가 국왕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면서도 왕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권력이 국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으며, 그의 정치적 기반이 국왕의 그것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차기 왕위계승권자가 고려 국내에 있지 않고 몽골 조정에서 케식에 참여하게 된 가운데, 국왕은 자신의 후계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태자제도를 통해 구성되었던 태자의 정치적, 인적 기반이 국왕의 그것에 포함되어 있었음에 비해, 케식제도를 통해 구성되는 세자 혹은 왕위계승 후보자의 세력기반은 국왕의 그것과 교집합을 갖는 동시에 차집합을 갖게 되었고, 이 차집합은 숙위기간 및 해당 종실의 역량에 따라 확장 가능했다.

또한 고려국왕들은 이 시기 거듭되었던 계승 분쟁 과정에서 폐위된 국왕들의 신병도 장악하지 못했다. 각기 1298 년과 1332 년에 몽골에 의해 폐위되었던 충선왕과 충혜왕은 모두 몽골로 소환되어 숙위기간을 다시 거친 뒤 각기 부왕이 사망한 후 복위했다. 1332 년 폐위 후 다시 케식에 들어갔던 충혜왕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귀환 조치되었던 것을 보면, 이들을 몽골로 소환, 케식에 참가하게 한 것은 ‘재교육’의 의미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몽골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간에, 폐위된 국왕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들은 ‘이전 왕(前王)’의 신병을 ‘현재 왕(現王)’이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으로 ‘전왕’의 복위 가능성을 남겨 둠으로써 고려의 권력중심을 이원화시키고 국왕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른바 ‘반원(反元) 개혁’을 단행했던 공민왕이 몽골이 소환한 충혜왕의 서자 석기(釋器)에게 반역죄를 씌워 주살하고자 한 것이나, 이후 당시 몽골에 있던 충선왕의 열자(孽子) 덕흥군(德興君) 타스테무르의 송환을 요구했던 것은 모두 이러한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한편, 케식제도는 국왕을 둘러싼 정치적 인간관계망, 즉 신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자 혹은 왕위계승 가능성을 가진 종실이 몽골에 숙위하는 과정에 고려신료들이 수행하게 되면서, 이들은 이전 태자부의 동궁관들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왕위 후계자가 고려 내에서 현 정권과 밀착된 고려신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닦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떨어진 몽골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0 여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그를 수행한 신료들과의 관계 및 몽골 내 세력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수종신료(隨從臣僚)들이 그들이 수종했던 인물이 왕으로 즉위한 후 이른바 ‘측근세력’으로서 그 주요한 정치적 기반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¹⁷

이러한 수종신료들 가운데 일부는 그들 스스로가 케식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케식 참여는 해당 신료 당대에 끝나지 않고 그 자제를 통해 대를 이어 계승되었다. 즉, 몽골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국왕이 자신의 핵심적 정치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통로의 하나였던 케식제도가 한편으로는 고려의 신료들이 국왕의 통제에서 벗어나 황제권과 직접 연결되는 것을 항상적,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존 국왕을 정점으로 형성되었던 고려의 정치적 인간관계망이 황제를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다.

17 몽골 복속기의 측근세력에 대해서는 김광철, 1991, 『고려 후기 세족층(世族層) 연구』, 동아대학교출판부; 이익주, 1996, 「고려·원 관계의 구조와 고려 후기 정치체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4.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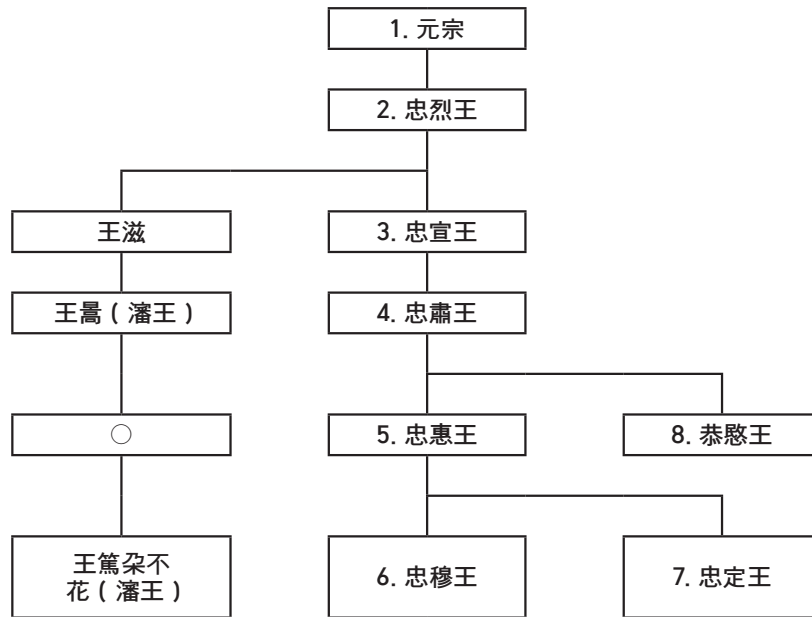
몽골은 고려와의 관계에 기존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국가들 간 관계를 상당부분 규정하였던(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른바 ‘책봉 - 조공’이라는 의례적 형식 이외에 유목집단들 간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수장 및 수장가문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몇 가지 방식들을 적용시키고자 했다. 30년에 이르는 전쟁 과정에서 강화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국왕 친조와 질자(투르카) 파견 요구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고려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익숙했던 국가 간 관계에 비추어 나름의 해석을 가하며 대응했다. 이러한 가운데, 몽골과의 관계 이전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고려 종실 및 태자의 정치적·외교적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는 변화가 발생했다.

고려 - 몽골 관계 초기 이러한 종실 혹은 태자/세자의 정치적·외교적 활동은 주로 고려 대 몽골이라는 관계의 구도 속에서 고려 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이루어졌다. 전쟁 당시 강화 교섭의 주체로 내세워지거나 관계 초반 정사로서 사행단을 이끌었던 종실들의 활동이 그러하며, 초기 투르카으로 파견되었던 방계 종실이나 태자/세자의 활동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전개와 함께 몽골황제권을 실질적 최고권으로 한 권력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이러한 양상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즉, 실질적 최고권인 황제권과의 관계에 따라 권력이 부여됨에 따라 - 이러한 ‘관계’에는 1:1로 맺어지는 군주 대 군주의 관계뿐 아니라 일(一) 대 다(多)로 형성될 수 있는 개인간·가문간 관계도 포함되었다 - 고려국왕들은 국왕위에 올라 이를 유지하고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몽골 황제·황실과의 관계에 의존해야 했을 뿐 아니라 유사한 관계를 형성한 다른 권력주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世子가 몽골 조정에서 케식생활을 하게 되면서 세자의 신병 및 그 정치적 인간관계는 고려국왕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게 되었고, 중조가 빈발하는 가운데 폐위된 국왕 역시 우선은 몽골로 소환되어 케식에 들어가게 되면서 현 국왕은 폐위된 전 국왕에 대한 신병을 스스로 장악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몽골과의 관계 및 그에 기반한 권력구조 아래에서 고려 종실 혹은 세자는 반드시 고려국왕과 정치적 입장을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종실 정사 파견과 같이 고려 측에서 몽골 측 요구에 나름의 해석을 가해 진행했던 부분은 확연히 줄어드는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몽골이 다른 정치단위와의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운용했고 제국 운영의 근간이 되었던 케식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종실/세자의 정치적 활동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즉, 수장 개인 간 혹은 지배가문 간의 직접적 관계를 통해 정치단위 간 관계가 형성·유지되었던 몽골의 관계형성방식은 고려에도 상당부분 적용되었고, 이는 고려왕권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러한 변화는 고려 - 몽골 관계 속에서 발생한 여러 정치적 사건들을 발생시킨 구조적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몽골 복속기 고려국 왕위계승도



지정토론

대몽(對蒙)전쟁·강화(講和)의 과정과 고려 정권을 둘러싼 환경 변화

[질문자: 쉰 웨이궈, 답변자: 이명미]

— 쉰 웨이궈

남개대학의 쉰 웨이궈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원 시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가 반드시 동의하실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서양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국 학자들은 곧잘 원 또는 몽골 제국 시대가 중국 역사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곤 합니다. 어제 도 나이토 코난(内藤湖南)의 ‘당송변혁론(唐宋 革論)’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송은 당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송과 명의 차이도 꽤 큼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역시 원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원조가 중국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몽골 제국이 초원 민족의 인신적 지배종속관계를 중앙 왕조의 제도에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송대(宋代)의 군신관계는 상당히 느슨한 것이었으나 원대에 와서 그것이 주종관계로 변했고 나아가 명·청 시대에 와서 군신관계는 무척 엄격해져서 군주의 지위는 매우 높고 신하의 지위는 아주 낮아 졌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인신적 지배종속관계를 중앙정권에 적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미 선생님 논문은 바로 고려와 몽골의 종번(宗藩)관계를 들어 인신적 지배종속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숙위(宿衛)·케식(怯薛)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숙위제도라는 것은 실은 일종의 사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국왕, 왕자 또는 왕세자가

몽골의 왕궁에 가서 숙위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실은 오히려 양국의 사적인 관계를 더욱 심화한 것입니다. 본래 종번(宗藩)이라고 하는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 새로이 개인, 가족, 인척 관계를 도입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종번 관계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 것입니다. 요컨대 원과 고려 사이에 인척 관계 또는 양자 관계가 구축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미 선생님 논문으로부터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 논문과도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만, 고려왕조는 불교를 중시하면서 실제로는 유교를 도입했습니다. 유교의 화이관(華夷觀)으로 보면 몽골 민족에 의해 성립된 몽골 제국·원(元)은 분명 오랑개(夷狄)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려왕조에 대한 정통성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조선왕조가 청(淸)의 신하가 되고 나서 오랫동안 반청(反淸) 사상이 활발해지고 나아가 청을 토벌한다고 하는 북벌사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사상은 고려왕조 시대에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지만 다소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 고려의 국왕이나 신하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명미 선생님께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숙위(宿衛)제도의 고려 왕조 정권에 대한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숙위제도는 원에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고려 왕세자는 원의 궁정으로 가서 장기간 궁궐에 머무르면서 원의 궁 내부의 정치투쟁에도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숙위제도는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의 두 측면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에서는 고려에 대한 숙위제도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는데, 원조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상입니다.

— 이명미

서울대학교의 이명미입니다. 좋은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질문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고려왕조가 유교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야만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몽골 정권에 대해서, 후에 조선이 청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거부반응을 가지지 않았는지, 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관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글썄요, 우선 고려 왕실이 기본적으로 통혼에 의해 부마가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몽골 정권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적 중국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라고 할까, 그 후로 관계가 안정되고부터는 몽골이 야만족이라는 식의 인식은 어디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만 말이지요. 전쟁기에는 사실 몽골 사신들이 보여준 굉장히 야만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이질감을 느끼는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이후로는 그런 것들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려 나름대로 이것을 합리화시켰다 할까, 딱히 합리화라기보다 실제로 그렇게 인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문집자료들을 통해 보면 특히 세조 쿠빌라이 이후로, 쿠빌라이가 물론 몽골의 대칸(大汗)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중국 황제로서 여러 가지로 한화(漢化)하고, 소위 한법(漢法)을 많이 도입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고려 문인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닌, 비록 이민족 왕조이긴 하지만 문화적으로 중국화했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후에 청에 대해 조선이 보였던 것과 같은 반감은 고려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케식제도의 영향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크게 고려 왕조의 정권에 대한 영향, 원에 대한 영향으로 나누어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려 왕조의 정권에 대한 영향은 사실상 아까 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책봉조공관계가 줄곧 이어져 오던 것이 원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몽골 황제가 일부러 국왕을 책봉하거나 폐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가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발표에서 잠깐 나왔던, 몽골측의 의도가 어땠는지에 관계 없이 고려측에서는 이 케식에 참여하게 된 종실을 상당부분 왕실 후계자로 인식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신분의식 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려에서는 원래 모계가 천한 자식의 경우에는 열자(孽子)라고 해서 왕위계승권이 없었지만 이 시기에 오면 설령 고려의 신분제도에서는 열자라서 왕위계승권이 없어도 케식에 참여함으로써, 또는 원 황실과의 관계를 통해, 무언가 그런 가능성을 부여 받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그런 양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의 케식제도, 고려의 종실이 케식에 참여하게 된 것이 원에 미친 영향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충선왕의 사례일 것 같습니다. 충렬왕의 아들이기도 한 충선왕은 세조 쿠빌라이의 외손이기도 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원에 머물면서 원의 무종(武宗)을 옹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논문 9



북원(北元)과 고려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우왕(烏王) 시대의 관계를 중심으로

체렌도르지

(其林道尔吉, 몽골국과학원)

요지

명나라 군대에 수도를 잃고 북쪽으로 물러난 1368~1388년 시기의 원을 '북원'이라고 부른다. 북원 시기는 중원의 패권자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확실하기 어려운 과도기적인 시기였다.

북원과 고려의 관계는 크게 '공민왕 시대의 관계'와 '우왕 시대의 관계'의 두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공민왕 대에는 원과 명에 각축을 벌이는 틈을 타서 고려는 자주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쳐 나갔다. 1369년 공민왕 정권은 원과 관계를 단절하고, 명과 사대관계를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 영토를 정벌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민왕의 이러한 조치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성급한 판단이었다. 그러면서도 공민왕은 사실상 북원과도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양단 관계를 맺었다.

1372년을 전후한 시기에 북원은 내외적으로 안정을 회복하고 고려에 대한 외교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공민왕이 친명 정책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고려에 대한 회유정책은 실패하였다.

공민왕을 계승한 우왕 대부터 고려와 북원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고려는 단지 명과 사대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국교가 단절된 북원과도 관계 재개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반대세력의 치열한 반대로 인하여 우여곡절 끝에 달성되었다.

고려의 북원과의 관계 재개는 공민왕의 일방적인 외교 정책을 수정하고 명을 견제하려는 북원과 고려의 실질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된, 당시 동아시아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본고에서는 우왕대 고려의 북원과의 관계 추진 과정, 그리고 이 관계가 당시 동아시아 역사에 미친 영향 및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북원에 대한 고려의 외교노선 변화

북원과 고려의 관계는 크게 '공민왕 시대의 관계'와 '우왕 시대의 관계'라는 두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공민왕 시대에는 원과 명에 각축을 벌이는 틈을 타

고려는 자주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쳐 나갔다. 1369년 공민왕 정권은 원과 관계를 단절하고, 명과 사대관계를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 영토를 정벌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민왕의 이러한 조치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성급한 판단이었다. 그러면서도 공민왕은 사실상 북원과도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한 양단 관계를 맺었다.

1372년을 전후한 시기에 북원은 국내 외의 안정을 회복시키고 고려에 대한 외교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그러나 공민왕이 친명 정책을 고수하였기에 고려에 대한 회유정책은 실패하였다.

공민왕을 계승한 우왕 대부터 북원과 고려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공민왕이 시해된 뒤 북원이 심왕 톡토부하(脫脫不花)를 고려왕으로 임명했음을 보면 당시에 퍼졌던 북원이 국왕을 교체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친명 외교 노선을 고수했던 공민왕이 1374년 9월 시해된 뒤, 공민왕이 주도했던 친명 외교노선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¹

공민왕이 시해되고, 동년 11월쯤 공마(貢馬)를 징발하러 고려에 파견되었던 명나라 사신 임밀(林密), 채빈(蔡斌) 등이 돌아가는 길에 개주참(開州站)에 도착하였을 때 호송관(護送官) 김의(金義)가 명(明) 사신인 채빈과 그 아들을 죽인 다음 임밀을 붙잡아 북원으로 도망간² 사건이 일어났다. 명에 청시(請諭)·승습사(承襲使), 고부사(告訃使)로 파견되었던 사신들은 이 사건을 듣자 중도에서 귀환하였다. 이로써 고려와 명 사이의 우호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었다. 이후에도 명의 문책을 두려워한 관리들이 사신으로 가지 않으려 함으로써 고려는 공민왕 시해와 명사(明使)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적절하게 해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왕의 왕위 계승을 통보하고 그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워졌다.

1374년 11월 나가추(納哈出)가 문하라부하(文哈剌不花)를 보내 낙타 두 마리와 말 네 필을 바쳤는데³ 이것은 공민왕이 시해된 이후로 북원에서 처음 온 사신이었다. 아마도 북원은 이 사신을 통해서 공민왕 사후 고려 정세를 파악하려고 하였을 듯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에 이인임(李仁任) 정권에서는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김서(金潛)를 북원에 보내 공민왕의 상사(喪事)를 고함으로써⁴ 공민왕의 시해 사실은 명보다 북원에 먼저 통보되었다. 우왕 즉위 후 이인임 정권에서는 명과 북원 모두를 사대의 대상국으로 인정하고 우왕 책봉을 요청 하였다. 즉 공민왕 말기의 친명 일변도의 외교노선에 변화가 있었다.⁵

그러나 김서를 북원에 보낸 일은 공민왕의 상사를 고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는 우왕 책봉과는 무관하였다. 상사를 고하는 것과 왕위 계승 승인에 대한 요청은 별도의 일이었다. 즉 공민왕 상사를 알리는 동시에 공민왕대까지 계속되었던 친선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렇게 선제(先帝) 사신을 파견한 일을 북원이 역이용하여 우왕 책봉에까지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벌어진 일들도 이를

1 김순자, 『韓國 中世 韓中關係史』, 해안, 2007, 82쪽.

2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1, 11월.

3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1, 11월.

4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1, 12월.

5 김순자, 앞에 나온 책 (2007), 83-84쪽.

뒷받침한다.

우왕 원년(1375) 정월에 나가추가 사자를 고려에 파견하여 정식으로 관여하였다. 즉 나가추는 '전 왕은 아들이 없는데 지금 누가 왕위를 이었는가?' 라고 물었다. 나가추의 이 질문은 이 때 북원은 공민왕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므로 심왕(瀋王) 고(高)의 손자 독토부하를 봉하여 이미 고려왕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인임 등은 비록 명·원 모두에 대한 양면외교 노선을 택하였으나 왕권 자체를 북원의 요구대로 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동년 4월 이인임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효사관(孝思觀)에 나아가 태조의 훈령에 맹세하기를, '본국의 무뢰배들이 심왕의 손자를 끼고 북쪽 변방에 와서 왕위를 엿보니, 우리 동맹하는 신하들은 힘을 다하여 막아서 새 임금을 돕고 받들겠나이다. 이 맹세에 변함이 있으면, 천지와 종묘 사직이 반드시 은밀한 주벌을 내릴 것'⁶⁾ 이라고 하였다. 즉 이인임 등은 심왕을 고려왕으로 옹립한 사건에 반대하여 자기들이 추대한 우왕의 지위에는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책이었다.

같은 달에 판사박사경(朴思敬)이 북원에서 돌아와 명덕태후(明德太后)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나가추의 말하기를, '너희 나라 재상이 김의를 보내어 왕이 죽었는데 후사가 없으니 심왕을 받들어 왕으로 삼기를 원한다고 청하기에 황제께서(심왕을) 봉하여 너희 임금으로 삼았다. 만일 전 왕에게 아들이 있다면 조정에서 절대 심왕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⁷⁾

이 말을 들은 공민왕의 어머니 명덕태후가 이인임을 불러 '재상이 김의를 원나라에 보냈다는 말은 내가 들은 지가 오래다. 경들은 알지 못하는가.'⁸⁾ 라고 물었다. 여기서 언급되는 박사경을 언제 북원에 보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북원으로 파견된 김서의 부사(副使)로 보는 견해⁹⁾가 있다.

때 마침 명의 사신을 죽이고 북원으로 도망간 김의의 부하가 고려에 돌아왔는데 이 때 이인임과 안사기(安師琦)는 그를 후하게 대접하였다. 이를 본 박상충(朴尙衷)은 임금에게 글을 올렸다.

김의가 사신을 죽인 죄를 응당 추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상들이 범인의 수행 원들을 후하게 대우했음은 안사기(安師琦)가 김의를 사주하여 사신을 죽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곧 그 죄를 밝히지 않으면 지금부터 나라의 재앙이 시작됩니다.¹⁰⁾

6 『高麗史節要』 권 30, 辛禑 원년 4월.

7 『高麗史』 권 126, 列傳 39, 姦臣 2, 李仁任: "納哈出謂臣言, 爾國宰相, 遣金義請云, 王薨無嗣, 願奉瀋王爲主故, 帝封爲爾主. 若前王有子, 朝廷必不遣瀋王也."

8 『高麗史節要』 권 30, 辛禑 원년 4월: "太后召仁任曰, 宰相遣金義如元, 予聞此言久矣. 卿等獨不知乎."

9 池內宏, 「高麗末における明及北元との關係」 『史學雜誌』, 29-1, 2, 3, 4/ 1917, 『滿鮮史研究』 中世 第三冊, 1963, 282쪽.

10 『高麗史』 권 112, 列傳 25, 朴尙衷: "尙衷上疎曰: 金義殺使之罪, 在所當問, 宰相待其從者甚厚. 是師琦嗾義殺使, 其迹已見. 今若不正其罪, 社稷之禍, 自此始矣."

이 상소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이때에 와서 태후가 그 상소를 도당(都堂)에 내리고, 안사기를 옥에 가두게 하였다. 안사기가 남의 집으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칼을 뽑아 자결하자, 그 사체를 처형했다.¹¹ 이 사실을 지켜 보던 이인임은 ‘김의를 원에 파견한 것은 찬성사(贊成事) 강순룡(康舜龍), 지밀직(知密直) 조희고(趙希古), 동지밀직(同知密直) 성대용(成大庸) 등이 한 짓이다’고 하여, 그들을 모두 멀리 귀양 보냈다.¹²

이어서 동년 4월 고려는 판밀직(判密直) 이자송(李子松)을 서북면(西北面) 도순문사(都巡問使) 겸평양윤(平壤尹)으로, 찬성사(贊成事) 지윤(池淵)을 서북면 도원사(都元帥)로, 문하평리(門下評理) 류연(柳淵)을 동북면(東北面) 도원사(都元帥)로 임명하고 각 도의 병사를 징발하여 북원의 침공을 방비케 하였으나 얼마 후에 국경 정세가 평안하다는 정보를 받고는 곧 중지하였다.¹³

고려는 단지 대외적으로 압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심왕에 협력할 소지가 있는 인물들이 국내에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승(僧) 소영(小英)이 자기 수하 몇 명을 북방에 보내 비밀리에 심왕에게 서신을 전하여 ‘이제 나라의 형편이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또 임금이 신하의 아침에 넘어가서 국권이 오로지 권세 있는 신하의 수중에 있으니 만약 이때에 군사를 인솔하고 오면

대사를 성취할 것이다’¹⁴고 하였다. 또한 우왕 원년(1375) 9월에 니성(泥城) 원수 최송철(崔公哲)의 휘하 2백여 명이 반란을 일으켜 군민(軍民)들을 살해하고 강(압록강)을 건너갔다.¹⁵ 이 사례들은 우왕 즉위 초 친원세력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인임 정권은 어떤 대책을 써서라도 심왕이 고려국왕에 옹립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1375년 4월 이인임은 백관과 함께 연명으로 글을 써서 북원의 중서성에 바치려 하였다. 그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조 황제가 왕업(王業)을 이룩할 때 우리나라 충경왕(忠敬王)이 일찌감치 황제를 알현하기 위해 입조하여, 황제의 은혜를 입어 귀 조정의 세습 왕들 및 부마들의 예에 준하여 왕위를 받았다. 그리고 충렬왕에게 공주를 주어 부마를 삼아서 충선왕을 낳고 충선왕은 충숙왕을 낳았고 모두 왕위를 세습하였다. 그런데 영종(英宗) 황제 때에 강양군(江陽君) 왕자(王滋)의 아들 울제이투(完澤禿), 심왕(瀋王) 고(高)가 있었는데 그는 우리나라 왕실의 지파(支派)로 갈려 내려간 자인데 왕위를 쟁취하려고 망동하였으나 귀 조정이 판별하여 주어서 실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선왕 바얀테무르(伯顔帖木兒)는 바로 충숙왕의 친아들로서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24년에 유언으로 그의 친아들인 원자(元子) 우(禡)에게 왕위를 물려받도록 지시하였다. 삼가 판밀직 김서(金潁)를 보내 선왕의 부음을 전하게 하였더니 그가 귀 조정에 갔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된 바, 울제이투 심왕의 손자

11 『高麗史節要』 권 30, 辛禡 원년 4월.

12 『高麗史節要』 권 30, 辛禡 원년 4월.

13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원년 4월.

14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2년 7월: “今國家, 臣弑其君, 主諛臣諂, 國柄專在權臣, 若引兵來, 大事可成.”

15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원년 9월.

특토부하(脫脫不花)는 우리나라로 출가 온 공주의 후손도 아니면서 엉뚱한 야망을 품고 왕위를 쟁취하기 위하여 날뛰고 있다. 이는 세조 황제가 제정한 바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니 금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¹⁶

그러나 좌대언(左代言) 임박(林樸), 전교령(典校令) 박상충(朴尙衷), 전의부령(典儀副令) 정도전(鄭道傳)은, '선왕께서 계책을 결정하여 남쪽의 명나라를 섬겼으니, 이제 북쪽의 원나라를 섬긴다면 부당하다.' 하고 서명하지 않았다.¹⁷

즉 이인임 정권은 북원의 군사작전에 대비하는 동시에 외교로 타개하였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원에게 고려왕으로 옹립한 특토부하를 폐위시키기를 요청하였다. 이 글이 북원에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이에 대해서 고려에서 문천식을 북원에 파견하여 이 글을 전달하였다는 추측이 있다.¹⁸ 그러나 북원에서 우왕 2년(1376) 10월 고려에 전달한 후흐테무르(擴廓帖木兒)의 서신에 '바얀테무르(伯顏帖木兒王)에게는 아들 모니노가 있었고 나라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국사를 보고 있다는 사정을 초르지(抄兒志)로부터 알았다' 고 했기 때문에 상기한 글은 북원에 전달되지 않았던 듯하다. 초르지는 우왕 2년 2월에 고려에 왔다 간 사람으로 만약에 문천식이 위의 글을 북원에 전달했다면 북원이 그 뒤에 온 초르지에게서 고려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당시 이인임 정권이 특토부하를 거부한 것은 정세에 맞는 적절한 조치였다. 전 임금이 살해되고 새로운 왕이 책봉도 못 받은 마당에 비록 허명에 그치더라도 특토부하를 왕으로 추대한다면 위협하였고, 무슨 계락을 써서라도 이를 막아야 하였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1375년 5월 북원이 사신을 파견해 왔다. 그는 그 전에(1374년 12월) 김서를 북원에 보내 공민왕의 상사를 알리자 북원에서 보내온 사신이였다.

이 사신이 갖고 온 서신에서 이르기를, '바얀테무르왕(공민왕)이 우리를 배반하고 명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너희 나라의 임금을 죽인 죄를 용서한다.' 고 하였다. 이때에 이인임과 지윤이 원나라 사신을 맞고자 하니, 삼사좌윤(三司左尹) 김구용(金九容), 전리총랑(典理摠郎) 이승인(李崇仁), 전의부령 정도전, 예문응교(藝文應敎) 권근(權近) 등의 격렬한 반대에 봉착하여 사신은 개경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인임 등은 찬성사 황상(黃裳)을 서북면 도체찰사로, 좌부대언(左副代言) 성석린(成石璘)을 체찰사로 임명하여 강계(江界)로 파견하여 북원사신을 위로하여 되돌려 보냈다. 이 결과 이들이 고려에 와서 직접 특토부하의 왕위 계승 문제를 거론하여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혼란을 예방하였다.¹⁹

1375년 8월에 니성(泥城) 만호(萬戶)는 '심왕 모자가 반역자 김의와 진봉사(進奉使) 김서(金潛)의 무리를 거느리고 이미 신주(信州)에 도착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이에 고려가 두려워하여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북원의 내침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이 소식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때 압록강 이북에서 빈번히 약탈 사건이 발생하여 고려에서는 김의가 북원의 군대를 데리고 왔다고

16 『高麗史』 권 126, 列傳 39, 李仁任.

17 『高麗史節要』 권 30, 辛禡 원년 4월.

18 池內宏, 앞에 나온 논문, 294쪽

19 盧啓鉉, 『高麗外交史』, 甲寅出版社, 1994, 635쪽.

의심하였는데 심왕의 군대가 아니고 난민임이 확인되었다.²⁰ 그 후로 약 반년 동안 북원과 고려 사이에는 사신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려는 우왕 2년 (1376) 2월 이원실 (李原實)을 보내 나가추를 방문하게 하였다. 같은 해 5월 북원에서 오초르지 (吳抄兒志)가 오니 우왕이 이를 후대하였다.²¹ 명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북원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툽토부하의 고려왕 옹립 문제도 풀리지 않아 우왕 즉위 자체도 불안정함을 느끼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 조정에서 나가추를 통해 북원과의 공식 관계 재개를 시도하였다. 이때까지 고려는 북원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북원에도 고려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그러나 나가추에게 사신을 보낸 지 며칠 뒤, 안주 (安州) 부원수 왕안녕 (王安寧)은 심왕이 죽었다고 보고하였다.

북원과의 외교관계 재개를 둘러싼 고려 관리들의 갈등은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고, 당시의 정치세력을 친명과, 혹은 친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입장을 비판하면서 이 갈등은 단순히 외교관계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려의 국내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대립의 결과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무장들이 북원과의 외교관계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명이 고려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반명 (反明)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고, 특히 명 사신 살해 사건으로 인해 명과의 외교관계를 수습하기 어렵게 된 사실과 북원이 툽토부하를 고려왕에 책봉함으로써 고려를 군사력으로 위협한 상황을 지적하였다.²² 북원과의 공식 관계 재개는 단순히 군사 충돌을 막거나 우왕 책봉을 받기 위한 행위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당시 북원에서 고려를 군사적으로 압박한 일은 없었으며 북원의 군사가 고려 영토를 공격하러 왔다는 정보가 거짓이었음이 뒷날 밝혀졌다.

대체로 북원과의 관계 재개는 대내적 및 대외적인 두 가지 목표 하에 이루어졌다. 대내적으로는 당시 집권자였던 이인임 등이 그들의 집권을 지속하기 위해서 대외적 안정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명에 대하여 한편으로 사신을 보내면서, 또 원과도 관계를 가짐으로써 양국의 위협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였다.²³ 북원과의 관계 재개는 명과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인임은 명 사신 살해사건과 연결시켜 원과 연고가 있는 찬성 강순룡 (康舜龍), 지밀직 조희고, 동지밀직 성대용 등을 유배 보내 친명 세력의 비난에 대해 자신의 명분을 세웠다.²⁴ 또한 이인임, 지윤 등이 명과 관계를 끊고 북원과 관계를 재개하려고 한다고 하여 이들을 사형에 처하기를 요청한 반대 세력을 대거 숙청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인임 등은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고 대외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시행해 나갔다. 한편 북원과의 관계 재개는 대외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선학들이 지적한 우왕 책봉 등은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사실 우왕 즉위 시점에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북원에서는 토곤테무르가

20 『高麗史』 권 114, 列傳 27, 楊伯淵.

21 『高麗史節要』 권 30, 辛禡 2년 5월 庚午.

22 金塘澤, 「고려 우왕 원년 (1375) 원과의 외교관계 재개를 둘러싼 정치세력 간의 갈등」, 『震檀學報』 83, 1997.

23 高惠玲, 「李仁任 政權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第 91 輯, 1981, 24-25 쪽.

24 Ibid. 20 쪽.

대도(大都)에서 북쪽으로 피신한 혼란기와는 정세가 많이 달라졌다. 북원은 1372년 명의 대규모 정벌군을 격파하고 정국도 안정되었다.

한편 요동의 나가추도 1372년 우가장(牛家庄)을 공격하여 요동의 명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운남에 있던 북원 잔존 세력도 그대로 명에 대항하면서 버티고 있었다. 즉 1374년을 전후한 시기에 북원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비교적 안정을 되찾았다. 공민왕은 원이 곧 멸망한다고 판단하여 명과 사대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실제 상황은 추측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북원은 쉽게 무너질 존재가 아니었고 고려도 이를 실감하게 되었다. 약소국이 국가를 지키는 방법은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을 잡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도는 없었다. 그러나 공민왕 말기 고려의 대외정책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한, 바꾸어 말하면 북원을 배척하고 명 측에 치우친 극단적인 것이었다. 원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북원 영토에 대한 수 차례의 정벌도 단행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명이 고려를 좋게 간주한 것은 아니었다. 명의 요동 정벌에 대한 장려는 고려를, 원을 궁지에 몰기 위해 이용한 일시적인 방법이었고 그들의 속셈은 완전히 달랐다.

요동의 북원세력이 무너지면 명의 다음 대상은 고려였다. 명은 1371년부터 요동 경영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국제 정세의 변화를 고려의 집권자들은 알고 있었다. 특히 북원과 관계 재개를 이끌었던 이인임, 지윤, 최영 등 무장들은 북원과 손을 잡고서 날이 거듭될수록 고려에 압박을 가해오는 억압적인 명을 견제하려고 방향을 바꾸었다. 그들은 명의 공격 등 비상사태가 생길 경우 북원의 군사 원조를 받아 항쟁하는 방법도 고려하였다.

고려의 북원과의 관계 재개는 명을 견제하려는 북원과 고려의 실질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된, 당시 동아시아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인임 등 고려의 집권자들은 반대세력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원과의 관계 재개 정책을 고수하였다. 고려는 북원과 연합하여 명을 견제하거나 적어도 이를 통하여 명을 압박하여 양보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2. 사대관계 재개 과정과 그 종말

1376년 7월, 1년 반 전에 북원에 파견된 ‘판밀직사사 김서가 나가추의 영문에서 도망쳐 돌아왔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건대, 북원이 그를 볼모로 잡았을 가능성도 있다. 북원 조정은 고려가 파견한 오초르지를 통해 고려 정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었고, 이인임 등 집권자들의 본의를 알았다. 이는 1376년 10월, 북원이 병부상서 부케테무르(孛哥帖木兒)를 파견하여 전달한 후흐테무르(擴廓帖木兒)의 서신에서²⁵ 확인된다. 그 서신에는 당시 고려에 대하여 북원이 실시해 온 정책, 그간 양국 사이에 벌어진 일, 북원과 명과의 관계, 명나라의 본성이 무엇인가 등 중요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즉 후흐테무르는 ‘우왕 아버지인 공민왕과 친하게 지냈음을’

25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2년 10월

언급하고, 계속해서 고려와 북원과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에서 사돈 간으로' 바뀌었으며, '공민왕이 죽은 뒤에 그에게 자손이 없다고 하기에 우왕 일가 사람으로 대를 이어 주기로 했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에 관한 조서를 전달하는 사신을 파견했으나 고려에 가서 막혔고, 고려가 과오를 뉘우쳐 깨닫기만을 기다렸으며, 이제야 고려가 파견한 오 초르지를 통해 고려가 원을 배반하지 않았음을 알았고, 바얀테무르왕에게는 아들 모니노가 있어 국사를 맡고 있다 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라 사람들이 왕자(즉 우왕)에게 복종한다 해도 아직 원나라 조정의 책명을 받은 바 없으므로 고려 인심의 동향도 그 지지와 반대가 아마 절반씩 될 것이다'라며 당시 고려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왕의 책봉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하며, 이를 풀어줄 주체는 북원임을 일깨웠다.

또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길 때 반드시 신임을 얻어야만 비로소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고 타이르면서, '고려가 원나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꼭 주원장을 섬긴다면 그 때에 주원장은 고려를 집어삼킬 것이고, 고려가 아무리 대국을 섬기는 예를 극진히 하더라도 명은 고려의 재물을 빼앗고, 인민을 이동시키고, 사직(社稷)까지 고치는 등 무슨 지경에 이를지 알 수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끝으로 원은 '국토를 회복할 대계를 짜는 중이며 고려는 황제의 명령에 순응하고자 한다면 곧 군사를 훈련하고, 군마를 잘 먹여서 우리와 함께 적을 앞뒤로 견제함으로써 원의 중흥 사업에 공헌하라!'고 하면서 '서신을 받고 하루 속히 사신을 보내면 원에서는 반드시 좋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설득과 위협을 동반하였다. 훗날 명과 고려와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볼 때 명의 본 성에 대한 북원의 추측이 맞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서신에서 양국관계에 대해 '사돈 간 관계'라고 재차 언급한 것은 북원이 쿠빌라이 시대에 맺어진 부마 관계라는 몽골 우위의 관계를 스스로 버리고 기황후의 모국으로써 고려를 사돈으로 인정하는 평등 관계로 격상시킨 것으로,²⁶ 북원은 고려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이러한 계책을 썼다.

그리고 1376년 10월 나가추도 우승상(右丞相) 구주(九住)를 보내 왔고 고려에서 간 문천식을 돌려보냈다. 문천식은 공민왕 17년(1368) 10월 황태자의 생신을 축하하러 원에 파견된 사신인데 그가 8년 후에 고려로 돌아온 것이다. 우승상 후흐테무르의 서신을 받은 고려 조정은 우왕 2년(1376) 10월 밀직부사(密直副使) 손언(孫彦)을 북원으로 보내 우왕의 왕위 계승 문제와 관련한 백관연명서(百官連名書)를 북원 중서성(中書省)에 보냈으며 거기에는 우왕이 공민왕의 유지(遺旨)로 즉위하였고 북원 황제의 책봉 조서가 내릴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렸다. 동년 10월 고려는 개성윤(開城尹) 황숙경(黃淑卿)을 나가추에게 보내 나가추의 사신 구주의 내방에 답례하였으며, 12월 나가추가 사신을 보내 은과 양(羊)을 선물로 바쳤다.²⁷ 다음 해인 우왕 3년(1377) 정월에 나가추가 사신을 보내 양과 말을 선물로 가져왔다. 그리고 2월 북원에서 한림승지(翰林承旨) 불라드(孛剌)를 파견하여 왕을 책봉하는 명령과 술과 해동청(海東靑)을

26 윤은숙, 「아유시리다라의 활동과 麗·蒙 관계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및 몽골과학아카데미 공동주최 『한·몽 관계의 어제와 오늘』 2010 한·몽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울란바타르, 2010, 237쪽.

27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2년 10월.

가지고 왔다.²⁸

북원의 우왕 책봉에 대해서 ‘기울어 가는 북원으로서는 툭토부하를 끝까지 고려왕으로 밀고 나갈 힘이 없었으며 그러할 바에야 고려 권신의 요구에 따라감으로써 고려의 환심이라도 얻어 두자는 계책이었다’²⁹ 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이때는 툭토부하가 이미 죽은 뒤였기 때문에 사실 북원에는 고려국왕으로 내세울 만한 인물도 없었다.

이리하여 북원은 우왕 3년(1377) 2월에 우왕을 책봉하였으며, 이로써 공민왕 18년 이후 단절되었던 책봉 - 조공관계가 다시 성립되었다.³⁰ 북원이 우왕을 책봉할 때 또한 윤환(尹桓) 등 6명에게도 평장사(平章事) 벼슬을 주었다. 이어서 나가추는 문하라부하를 파견하여 친선을 도모하였고, 북원은 두메다이(豆末撻)를 파견하여 공민왕 신위에 제사를 지냈다. 북원이 고려에 대해 이와 같이 환심을 베풀자 고려는 비로소 북원의 연호인 선광을 사용하였다.³¹ 동시에 ‘내외의 옥사를 판결할 때 오로지 지정조격(至正條格)을 따르라!’³² 는 명을 내렸다.

1377년 3월에 고려는 삼사좌사(三司左使) 이자송(李子松)을 북원으로 파견하여 왕의 책봉에 대한 사례의 글을 올리는³³ 동시에 북원 황제를 비롯한 통치자들에게 예물을 보냈다. 또한 나가추에게 예의 판서(禮儀判書) 문천식을 답례사(答禮使)로 보내 많은 예물을 주어 친선을 굳건히 다졌다. 나가추에게 보낸 문천식이 6월에 북원에서 귀환한 다음, 북원에 간 사은사 이자송도 돌아왔다. 이때 ‘원나라 조정의 신하들은 이자송이 조복을 입고 예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가 울면서, 「우리 조정이 북으로 옮긴 이후 군사 대열 사이에서 피곤하게 지낼 때에는 오늘 다시 예의를 보리라고 생각지도 못하였다」 고 하면서 심히 후대하였다’³⁴ 한다.

고려 국왕을 책봉하고 그 권신들의 환심을 샀다고 판단한 북원은 7월에 선휘원사(宣徽院使) 체릭테무르(徹里帖木兒)를 고려에 파견하여 정료위 협공을 요청하였다.³⁵ 이것은 북원으로서는 중흥의 의지로서 강력한 제안이기는 하나 고려는 북원과 명에 대하여 양면외교를 구사했던 때이므로 이를 수락하기도 반대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처지였다. 그래서 이 제안을 수용하기보다 잘 설득하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제안 자체를 유야무야하게 만들려고 하였다.³⁶ 우왕은 북원 사신에게 금띠와 안장을 얹은 말을 선물로 주었으나 사신은 받지 않았다. 고려가 북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같은 해 8월 고려는 계품사(啓稟使) 진천군(晉川君) 강인유(姜仁裕)를 북원으로 보냈으며³⁷ 강인유는 9월에 사람을 보내 그 동안의 사정을 알려 왔다. 그 내용은 평장 문전성(文典成)과 대참정(大參政) 장해마(張海馬)가 나가추와 함께 군사를 조련하고 군마를 살찌워서 고려군이 오기를 기다려 정료위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28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2월.

29 盧啓鉉, 앞에 나온 책 (1994), 638쪽.

30 김순자, 앞에 나온 책 (2007), 85쪽.

31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2월.

32 『高麗史』 권 84, 志 38, 刑法 1, 職制, 辛禡 3년 조: “中外決獄一遵至正條格.”

33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3월.

34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6월.

35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7월.

36 盧啓鉉, 앞에 나온 책 (1994), 639쪽.

37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8월.

것이었다.³⁸

이에 고려는 군부판서(軍簿判書) 문천식을 북원에 파견하여 날씨가 추운 겨울을 핑계로 군대의 동원이 어렵다고 전하였다. 즉 군대 동원을 정식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연기 작전을 썼다. 그리고 고려는 11월에 황숙경(黃淑卿)을 북원으로 파견하여 동지 명절을 축하하고³⁹, 12월에는 왕승(王昇)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⁴⁰ 같은 달 나가주가 사신을 고려에 보내 양 1백 60 두와 모우(毛牛) 3두를 선사하였다.⁴¹

그러나 정료위 정벌은 북원만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왜적이 전주에 침입하였을 때 도당(都堂)에서 원수 선택에 관하여 상의하였는데, 당시 집권대신의 하나였던 지윤은 '왜적은 단지 변방을 소란케 할 따름이니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일 명나라의 대군이 정료위에 근거지를 잡은 다음에는 반드시 공격하기 어려워지니 병력을 돌려서 요를 공격하는 것이 상책이다'⁴²고 주장하였다. 왜적의 전주 침입이란 1376년 9월 왜적이 전주를 함락시킨 일을 말한다. 이것은 북원에서 정료위를 협공하자고 제의하기 1년 전의 일이다. 따라서 지윤의 이 말은 고려의 집권자들이 북원과의 관계 재개를 시도하면서 명의 요동 진출도 견제할 생각을 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한편 우왕 즉위 초부터 고려는 북원과의 관계 재개를 추진하는 동시에 1374년 말 명나라 사신 살해사건이 일어나면서 더욱 악화된 명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우왕 책봉을 받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명은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은 채 고려를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을 펼쳤다.

더욱이 1376년 8월 '정료위(定遼衛)에서 가을에 고려를 침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정보를 접한 고려는 각도(道)에 사람을 파견하여 군대를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⁴³ 정료위가 고려를 친다는 말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 소식은 고려와 북원 관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 명은 국내문제에 급급하여 고려를 침공할 처지가 아닌데다 이보다 불과 2개월 전에 보낸 문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살피지 않고 서둘러 고려를 치기에는 너무 성급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풍문에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명과 고려와의 관계를 조심히 살펴 온 북원이 당시 명과 고려의 관계 개선 경향이 보이지 않음을 알고 이러한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376년 8월 이후, 고려와 북원과의 우호관계가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데에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가 북원과 사대관계를 맺자 명도 고려에 대하여 유화정책을 썼다. 1377년 12월에 명은 그 동안 억류하고 있던 고려인 정언(丁彦) 등 358명을 돌려보냈다. 그러자 고려는 1378년 3월 판선공사사(判繕工寺事) 류번(柳蕃)을 명나라에 보내 황제의 은혜에 사례하고 또 예의판서 주의(周誼)를 보내 공민왕의 시호와 왕위 계승의 책명을 요청하는 표문을 올렸다.⁴⁴ 그리고 동년 6월, 고려

38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9월.

39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11월.

40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12월.

41 Ibid.

42 『高麗史』 권 125, 列傳 38, 姦臣 1, 池瀛; 『高麗史節要』 권 30, 辛禡 2년 10월.

43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2년 8월.

44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4년 3월.

사신(行人)인 최 원 (崔源), 전 보 (全甫), 이 지 부 (李之富) 등도 석방하여 돌려보냈다. 한편, 1378년(우왕 4년) 7월, 북원의 사신이 와서 투구스테무르(豆叱仇帖木兒)의 즉위를 알리려 하자 우왕은 병을 핑계로 마중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사신이 강요하므로 왕이 행 성 (行省)에 나가서 맞이하였다.⁴⁵ 동년 8월에 주의와 유번이 명으로부터 귀환하였는데, 그들은 명나라 예부상서(禮部商書) 주몽염(朱夢炎)이 황제의 교지를 기록하여 고려 사람들에게 보여 준 글을 가져왔다. 이 문서의 주 내용은, 명은 고려에 대하여 내정 간섭도 사신 억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은 오히려 명에 대한 고려의 자세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강한 것이었다.⁴⁶

그러나 얼마 후 동년 9월에 고려는 명나라 홍무 연호를 다시 사용하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북원 황제가 죽고 새 황제가 즉위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사용해 온 연호를 계속 쓰기가 어려워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려에 대한 명의 유화정책과도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가 홍무 연호를 사용하여 친명태도를 보이자 명은 고려에 대한 유화정책을 예전의 압박정책으로 바뀌 나갔다. 고려는 1378년 10월에 심덕부(沈德符)를 명나라에 보내 새해를 축하하는 동시에 판도판서(版圖判書) 김보생(金寶生)을 보내 최원 등을 돌려보낸 일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였지만 고려에 대한 명나라의 태도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강경노선으로 선회하였다. 1379년 정월, 요동 도지휘사가 진무 임성(任誠)을 파견하여 홍무 3년 11월 고려군이 포로로 잡은 요양 지방의 관민 남녀 1천여명과 고려로 도망쳐 온 명나라 군사들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⁴⁷ 그 이유는 고려가 군사를 보내 북원을 도와준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명의 고려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원은 거의 1년만인 1379년 6월에 첨원 보비(甫非)를 파견하여, 교사(郊祀)를 지내고 연호를 천원(天元)으로 개칭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나가추도 문하라부하를 고려에 보내 왔다. 우왕은 문하라부하가 돌아갈 때 ‘승상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서로 형제라 칭하였다’고 하면서 저포와 마포 각 150 필씩을 주어⁴⁸ 그들에게 친근감을 나타냈다. 또 고려는 동년 7월에 영녕군 왕빈(王彬)을 북원에 파견하여 교사를 지내고 연호를 바꾼 일을 축하하였다. 12월에 나가추가 매(鷹)와 양을 선물로 보내 왔다.

이처럼 고려는 명의 홍무 연호를 사용한 뒤에도 북원과 계속 통교하였다. 명과의 관계가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고려로서는 북원과 의 관계를 끊으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려가 명과의 사대관계를 회복하더라도 북원과 관계를 유지하는 양단정책을 고수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왕 6년(1380) 영녕군 왕빈이 북원의 조서를 가지고 돌아왔으며, 같은 해 2월에 북원은 예부상서 시자문(時刺問), 직성사인(直省舍人) 대도려(大都閫)를 파견하여 우왕을 태위(太尉)로 책봉하니 왕이 백관을 인솔하고 교외로 나가서

45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4년 7월.

46 盧啓鉉, 앞의 책 (1994), 643쪽.

47 『高麗史』 권 134, 列傳 47, 辛禡 5년 정월.

48 『高麗史』 권 134, 列傳 47, 辛禡 5년 6월.

그들을 영접하였다. 3 월에 고려는 밀직부사 문천식을 북원으로 보내 절 일 (節日) 을 축하하고 책봉에 대해 사례하였다. 동년 7 월에 북원은 사신을 파견하여 대사를 반포하였으며, 나가추도 사신을 보냈다.

북원과 사신 왕래는 그 이후로는 극히 줄었다. 나가추 사신이 마지막으로 우왕 9 년 (1383) 1 월에 고려에 왔으며, 옛날과 같은 우호관계를 맺자고 제의하였다. 북원 조정에서 고려에 파견한 사신은 마지막으로 1384 년 10 월에 화녕부 (和寧府) 까지 왔다. 고려는 호군 임 언 충 (任彦忠) 을 보내 이 사신을 위로하고 타일러 돌려보내게 하였는데 교통이 두절되어 반년이나 체류하다가 돌아갔다. 그 후로는 북원과 고려 사이의 사신 왕래는 단절되었다. 그 이유는 1385 년에 요동에 대한 명나라 경략의 시작과 관련되었다. 명은 나가추를 공격하기 전인 1384 년에 나가추와 고려의 중간지점에 거주하던 여진 부락을 공격하여 나가추와 고려의 연결을 차단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나가추 직할 영토를 경유해야만 고려에 왕래할 수 있었던 북원 중앙 정부 사신의 경우도 그 왕래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재개가 가능한 잠재적인 상황이었다.

결론을 대신하여

공민왕을 계승한 우왕 시대부터 고려와 북원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고려는 명과 사대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동안 국교가 단절된 북원과도 관계 재개를 시도하였다.

고려에서 1369 년 마지막으로 사신을 파견한지 5 년만인 1374 년에 북원에 고부사 (告訃使) 를 파견했음을 보면 양국 관계를 재개하는 요청은 고려에서 먼저 나왔다. 일찍부터 고려와 관계 재개를 시도했던 북원 측은 이러한 기회를 잘 이용해 나갔다.

고려의 북원과의 관계 재개는 명을 견제하려는 북원과 고려의 실질적인 필요에서 비롯된, 당시의 동아시아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인임 등 고려의 집권자들은 반대세력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원과의 관계 재개 정책을 고수하였다. 그 결과 우왕 3 년 (1377) 2 월에 북원이 우왕을 책봉해 줌으로써 공민왕 18 년 이후 단절되었던 책봉 - 조공관계가 다시 성립되었다. 북원이 고려에 이와 같은 환심을 베풀자 고려는 비로소 북원의 연호인 선광 (宣光) 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북원의 주 목적인 명에 대한 공동작전 제안은 회피하였다. 고려는 북원과 명이라는 두 강대국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택 하 지 않고 양국과 동시에 관계를 맺으면서 세력균형을 유지하여 실리를 도모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북원과의 사대관계를 이용하여 명을 압박함으로써 1378 년 고려는 명으로부터 우왕의 책봉을 받았다.

이리하여 명과 북원 두 나라를 모두 사대의 대상국으로 인정한 관계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고려가 사대의 주 대상으로 설정한 나라는 명이었다. 특히 명과의 관계가 재개된 우왕 4 년 이후에는 고려는 북원과도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명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삼고 있었다. 우왕 6년까지 북원과의 사신 교환도 북원을 사대의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두 나라에 대해 모두 사대 형식을 취한 것은 당시의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었다. 고려가 북원과 관계를 맺은 목적은 명의 과도한 공물 요구를 견제하고 신왕(新王)인 우왕의 책봉 문제를 해결함에 있었다는⁴⁹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려의 훨씬 더 큰 목적은 동아시아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었다. 즉 북원과 손을 잡음으로써 한층 더 강해지는 명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에 있었다. 반면 고려와 북원 간의 우호관계는 고려에만 유익한 것은 아니었다. 북쪽으로 물러나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북원으로서 한 동안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고려와의 관계 재개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고려와의 관계가 개선되면 고려와 연합하여 명을 협공하고 적어도 원 제국에 속했던 국가들이 외면한 당시에는 국가의 국제적 명예와 권위를 회복할 좋은 기회였다. 즉 군사적·외교적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북원에게 고려와의 우호관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북원 시기에 양국 간에 교환된 사신의 횟수의 거의 1/5이 북원이 고려에 파견한 사신이었다는 사실이 보여준다.

우왕 시대의 북원과 고려 간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고려가 최초로 북원과 전형적인 책봉 - 조공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다. 우왕 3년부터 2년간 지속된 이 관계는 원 간섭기에 비하면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160여년 전 몽골과 고려관계가 성립될 때 고려가 원했던 관계의 형태였다.

49 김순자, 앞의 책 (2007), 87쪽.

참고문헌

1.史料

鄭麟趾 등, 『高麗史』,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번역, 누리미디어.

『明史』, 北京, 中華書局, 1997.

『元史』 (A Mongolian translation from Chinese by Ch. Dandaa), Volume I-XXII, Foreword and textological study by Ts.Tserendorj, The Institute of History, The National Library of Mongolia., Ulaanbaatar, 2003-2004.

2.저서

1)한국어

김순자, 『韓國 中世 韓中關係史』, 혜안, 2007. 盧啓鉉, 『高麗外交史』, 甲寅出版社, 1994.

윤은숙, 『몽골제국의 만주 지배사』, 소나무, 2010.

2)몽골어

Ч.Далай, Монголын түүх (1260-1388), УБ., Эрдэм, 1992.

3.논문

1)한국어

高惠玲, 「李仁任 政權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第 91 輯, 1981.

金塘澤, 「高麗 禑王 元年 (1375) 元과의 외교관계 再開를 둘러싼 정치세력 간의 갈등」, 『

震檀學報』 83, 1997.

윤은숙, 「아유시리다라의 활동과麗·蒙 관계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및 몽골 과학아카데미 공동주최 『한 - 몽 관계의 어제와 오늘』 2010 한·몽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울란바타르, 2010.

책메드 체렌도르지, 「14 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북원과 고려의 관계」,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0

許興植, 「高麗末 李成桂의 세력기반」, 『歷史와 人間의 對應: 高柄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한울, 1984.

2)기타

池内宏, 「高麗末における明及北元との關係」 『史學雜誌』, 1917, 29-1, 2, 3, 4
Ts.Tserendorj, 「A royal rescript of Emperor Ayushridar of Mongolia to the Koryo king and some issu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ern Yuan and Koryo」, Acta Historica, No10,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Education, Ulaanbaatar, 2009.

지정토론

북원(北元)과 고려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우왕(禡王) 시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질문자: 장 지아, 답변자: 체령도르지]

— 장 지아

북 단(復旦)대학의 장 지아입니다. 원(元)·명(明)시대에 고려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명에서도 몽골에서도 어떻게 하면 고려를 잘 구슬릴 수 있을까 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수수께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금 체령도르지 선생님께서 우왕 시대 북원과 고려의 관계 발전에 관해 자세히 소개해주셨습니다. 체령도르지 선생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줄곧 의문을 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고려 말기의 공민왕에 관한 것입니다만, 원조 말기의 공민왕의 행동으로 보건대, 명에 기울어져서 원과 관계를 단절했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민왕이라는 인물은 고려 말기에 전략적 사고가 아주 뛰어난 군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위기간 중 군대를 파견해서 원과 함께 장사성(張士誠)을 토벌하는 고우(高郵)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승리 일보직전까지 가서 패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공민왕은 사실 원조의 실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후에 일련의 반원(反元)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예컨대 고려의 원 지배지역을 공격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조선의 함경도 지방은 거의 그 시절에 공민왕이 개척한 땅입니다. 또 공민왕과 원이 아무리 해도 화해할 수 없었던 이유의 하나는 공민왕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에 기 황후 가족을 살해한 적이 있고 그것이 고려와 북원 사이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의 세력이 확대되자 곧장 명으로 기울어져 원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잘 이해되지 않는 점은 우왕이 즉위하면서부터 왜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바로 원조로 기울어지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려사』를 읽을 때 한 가지 의문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려 말기에 고려 국내에는 문신(文臣)과 유신(儒臣)을 중심으로 한 친명파(親明派)와 무신(武臣) 중심의 친원파(親元派)가 있었다고 하는데 체령도르지 선생님께서는 이 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분류는 우리의 공통인식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고려의 국왕이 왜 몽골과 통혼관계를 맺었을까,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장인(丈人)의 권력, 즉 몽골 세력을 빌어 국내의 무신들의 지위를 누르고 무신 전체 상황을 타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다면 왜 무신들은 나중에 친원파가 되었을까요? 이상 두 가지 질문입니다.

— 체령도르지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공민왕의 태도가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우왕은 공민왕의 친명 정책을 배척하고 친원(親元) 정책으로 되돌아갔는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나요?

우리는 역사를 해석할 때,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도(大都)를 떠난 토곤 테무르가 몽골의 고향으로 왔는데 그 때부터 한 20 년간은 명나라도 국내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웠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곤란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때 몽골이 대도를 떠났다, 버렸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원과 국교를 단절하고 명과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조선시대 사람들도 비판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조치였다, 왜냐하면 정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모르는 상황에서 몽골을 버리고 배척하여 명 쪽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식으로, 잘못했다기보다는 너무 성급했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사람들이 아는 한에서, 원은 멸망했고 명은 강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막상막하로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했는데, 너무 빨리 이런 정책을 택했다, 이렇게 공민왕을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민왕이 완전히 원과의 관계를 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원으로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원에서 오는 사신들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단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왕은 왜 그런 정책을 실시했느냐, 그게 아주 궁금하죠. 제가 아까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몽골 이전 부분은 전부 다 말하지 못하고 끝냈습니다. 한 절반 정도만 읽고, 다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잘 전달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민왕 초기 때의 상황이 우왕이 즉위한 즈음에 와서 많이 바뀐 것입니다. 공민왕이 추측하듯이 ‘곧 원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그 몇 년 후인가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고려의 집권자·통치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명나라도 명과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고려에 대해 양보를 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원과 내통하고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더욱 강경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직 원이 있는데도 이런 정책을 펼치는 명이 만약 원이 망하기라도 하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려의 집권자들도 복원을 이용해서 명을 압박하는, 그렇게 해서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으로서 세력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왕 때 이런 정책을 실시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친원파, 친명파와 여러 가지로 그 당시를 설명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려는 늘 자국의 이익만, 실리만 중시했으므로 이렇게 두 강대국이 있을 때는 어느 하나라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보면 친원파, 친명파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에 고려라는 왕조가 있다가 나중에 조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바뀌는데 복원이라는 존재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외교적으로.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의 갈등,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갈등.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외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원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명이 의심을 했고 그 결과 이성계도 정권을 무너뜨릴 때 정당화했던 명분이 그거잖아요. 원 쪽에 붙었던 그런 세력을 몰아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원이 그 당시 멸망했다고 해서 몽골의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문화적인 영향(고려에 대한), 그런 것이 죄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우왕 같은 경우는 친원 정책, 처음에는 명을 잡으려다가 이것이 실패하니까 방향을 바꿔서 친원 정책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논문 10



14세기 몽골 제국 음식문화의 고려 유입과 변화

조원

(趙阮, 한양대학교)

요지

13세기의 몽골 제국 건국 이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한 이래 각 지역에서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 문화적인 접촉과 자극 그리고 변화는 몽골 제국 시대의 물질문화 영역 중에서도 음식 문화에 크게 반영되었다. 13세기 몽골이 유라시아대륙을 정복한 후 각 지역에서 몽골 황제에게 식사를 헌상하여 14세기에는 제국의 중심부에서 식문화의 다양화와 융합이 발생했다. 식문화의 변화는 제국 중심부에서 점차 주변지역까지 확대되었다. 1260년 몽골과 고려의 화친 체결 후 고려에는 불교로 금지되어 있던 육식문화가 유입되었다. 몽골제국의 식문화가 고려에 융합하는 형태로 유입된 것이다. 고기를 다루는 방법과 다양한 조리법이 유입되고 양은 젓소와 돼지고기로 대체되었으며 원의 음료문화도 얼마간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불교의 쇠퇴와 함께 차를 대신하는 음료가 발달하였다. 14세기 『음선정요(飮膳正要)』에 소개된 청량음료수인 사아별(舍兒別)의 조리법에 관한 지식이 17~18세기 조선후기의 일용 생활서인 『산림경제』와 농서 『임원경제지』에 갈증을 해소하는 물로 소개되어 있다.

본 발표에서는 몽골 제국 식문화의 다양화와 고려지역으로의 유입 과정을 검토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몽골의 식문화 유입의 흔적을 찾아보고 13세기 몽골 제국의 확대 속에 대두되는 몽골 제국의 글로벌 현상의 특징과 그 의미를 고찰한다.

1. 서론

13세기 몽골 제국이 건설된 이래로, 대규모의 인적 이동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각 지역 문화들간의 교류가 전개되었다. 문화적 접촉과 자극 및 변용의 현상은 몽골 제국이시기 물질문화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음식문화에 농후하게 반영되어 있다. 12-13세기 몽골초원에서 육류와 유제품을 주식으로 섭취하던 몽골의 지배영역이 정주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유목민들의 곡류 섭취가 늘어나게 되었고 몽골이 중국 전역을 정복한 이래로 중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채소와 과일 역시 몽골 지배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 몽골이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한 이래로 각 지역의 음식문화가 몽골 대칸(大汗)에게 진상되면서 14세기 몽골 대칸의 궁정에서는 음식문화의 다양화와 융합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음식문화의 변화는 비단 제국의 중심부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제국의 주변지역에서도 나타났다.

몽골의 지배는 몽골인들의 식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한인들의 음식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몽골 서역인들의 이주에 따라, 몽골, 회회(回回, 이슬람)의 음식문화가 전해졌다. 한인들도 몽골 술인 아이락, 마유주 등을 섭취했으며, 무슬림 음식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이시기 일일 삼찬(三餐)의 음식문화도 보편화되었다.¹ 이러한 현상은 비단 중국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역의 음식문화에도 나타났다. 한반도에서는 고려후기가 되면서 몽골의 영향으로 육류 섭취가 활발해졌다.²

그 영향관계에 관해 일찍 민속학계에서 주목하였는데, 몽골의 고기국인 술랭과 우리의 탕문화, 육수에 밥이나 면을 넣어 만드는 방식, 육포와 같은 건조육을 만드는 방식, 몽골의 게데스와 한국의 순대를 비교하여 양국간의 음식문화의 유사성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³ 한편, 몽골이 100여년간 탐라를 군사적 요충지로 삼으면서 제주의 언어, 습속 및 음식문화에는 몽골의 잔재가 남아 있다. 그 가운데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몽골 음식문화의 영향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이에 따르면 130년간 몽골군의 주둔으로 몽골식 순대인 게데스, 육포, 소주, 탕 문화가 탐라에 전해졌으며, 제주의 향토음식인 몸국은 몽골의 음식문화가 제주의 환경에 맞게 향토화된 음식문화의 사례로 보고 있다. 몸국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해조류인 모자반을 넣어 만든 것인데 몽골식 탕국이 제주의 풍토에 맞게 변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

몽골은 제국 건설 이후 특정 지역의 문화를 다른 지역으로 유통시키는 문화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음식문화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나타나는데, 몽골 본토의 음식문화뿐만 아니라 몽골이 정복하고 있던 지역의 음식문화가 몽골 정복 시기와 그 이후에 타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고려말 중국에서 발전해온 증류법은 몽골을 통해 한반도에 들어왔다. 몽골은 정복지역의 증류기술을 활용하여 마유 음료를 증류주화하였고, 여기에 아라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러한 증류문화는 몽골의 지배력이 미치는 지역에서 각 지역에 보급되었다. 고려에 전해진 증류주는 소주(燒酒)라는 이름으로 불렸다.⁵

한편 몽골 지배하의 중국에서는 각 지역간 문화적 교류 속에서 백과사전적인 저작들이 편찬되었는데, 이러한 류서(類書)들에 나와있는 요리 관련 항목이나 음식관련 전문서적을 통해 대원제국의 다원적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음식문화를 엿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상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거가필용사류전집(居家必用事類全集)』과 『사림광기(事林廣記)』에 당시 민간에서 식용되던 음식들이 소개되어 있어, 당시 음식문화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더불어 몽골지배층들을 위해

1 史衛民,『元代社會生活史』(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5),105-106쪽.

2 金尙寶,『한국의 음식생활문화사』(파주,광문각,1997),331-332쪽. 근래 국내에서도 몽골 음식문화의 한반도 유입과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3 김천호,「한·몽간의 肉食文化 比較」『몽골학』4,1996.

4 이종수,「13세기 탐라와 원제국의 음식문화 변동 분석」『아세아연구』59-1,2016,143-179쪽.

5 박헌희,「燒酒의 흥기-몽골 시기(1206-1368) '중국'에서 한반도로 증류기술의 전파」『중앙아시아연구』21-1,2016,69-93쪽.

조리되었던 요리들을 정리하여 편찬된 『음선정요(飮膳正要)』는 대원제국 음식문화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유서에 나와있는 일부 조리법들은 17-18세기 조선 후기 일용생활서인 『산림경제(山林經濟)』와 농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몽골 제국 음식 조리법에 관한 지식의 유통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산림경제』와 농서 『임원경제지』에 나와있는 육류조리법 및 음료에 관련된 기록들을 바탕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몽골 제국 음식문화의 고려지역으로의 유입 현상의 추이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13세기 몽골 제국의 정복과 팽창이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져온 문화적 영향의 단면을 파악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고려 음식문화의 한반도 유입의 배경 - 고려와 몽골의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1260년 몽골과 화친을 맺고 교류가 재개된 이래로 몽골과 고려간의 인적·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졌고, 원 제국의 음식문화도 자연스레 한반도로 전해졌다.⁶ 원 제국의 음식문화가 고려에 유입되는 데에는 매개가 되었던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1218년 합진(哈眞)과 찰랄(札剌)이 1만명의 몽골군을 이끌고 거란족을 제어하기 위해 고려에 침경(侵境)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1368년 원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군사에서 몽골 지배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력들이 고려를 방문하거나 장기간 거주하였고 이들에 의해 타국의 문화가 한반도에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몽골인뿐 아니라 몽골 제국의 색목인 관원, 이슬람 상인, 한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고려에 하가(下嫁)한 고려의 황후들, 그들의 배종(陪從)인 케링쿠(怯憐口)들을 통한 문화 유입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1274년 충렬왕과 쿠빌라이의 딸 쿠틀룩케르미시(忽都魯揭里迷失)가 혼인하면서 양국의 통혼이 상례로 정착되었고, 공민왕대까지 80여년간 모두 7명의 몽골 공주가 고려에 왔다. 이들은 종종 고려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자연스레 그녀들의 사속인인 케링쿠(怯憐口)들이 고려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부상했다.⁷ 이들 케링쿠는 몽골 유력 지배층 가문에 종속된 노예로서 몽골의 공주를 따라 고려에 왔는데 그 수적인 규모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들 이외에 왕족 여인이 시집갈 때 수종하는 가신(家臣)을 의미하는 잉신(媵臣) 즉, 배신(陪臣)들도 몽골 공주를 따라 고려에 왔다. 대표적으로 인후(印侯)로 알려진 몽골인 코라타이(忽刺歹), 회회(回回)인 생계(三哥), 탕구트인 시투르(式篤兒)가 있다. 이외에도 고려인 차신(車信)이 쿠틀룩케르미시를 보좌했다.

6 조선 후기의 농서이자 일용서적인 『산림경제』와 『林園經濟志』에는 대원제국시기의 『居家必用』에서 소개되어 있는 요리법들이 인용되어 있다. 『居家必用』이 고려 혹은 조선의 어느 시점에 유입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대원제국 음식문화와 관련된 지식이 한반도로 유입·수용된 사례로 볼 수 있겠다. 관련 연구는 주영하 편, 『동아시아 책의 문화사와 조선시대 음식의 지식체계: 『거가필용사료전집』을 중심으로』(2017, 출판예정) 참고.

7 고명수, 「충렬왕대 怯憐口(怯憐口) 출신 관원」 『사학연구』 118, 2015, 235-236쪽.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건대 몽골 공주가 고려에 하가할 때에 몽골, 색목, 한인, 고려인으로 구성된 다양한 종족 출신의 배신 5-6 명과 노복들이 공주를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원제국의 음식문화는 이들 몽골 왕후를 위시한 몽골 지배층을 통해 고려에 소개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에 파견된 몽골인 다루가치(達魯花赤)들이 있다. 이들은 몽골 제국 초기부터 점령지를 다스리기 위해 파견한 감독관으로서 1232 년 처음으로 개경(開京)과 서경(西京) 및 북계(北界)에 72 명이 파견되었다가 고려인들에 의해 살해된 바 있다. 이후 1260 년 고려와 몽골의 화의가 이루어지면서 수르다이(東里大)와 강화상(康和尚)이 다루가치로 임명되었는데, 이들의 주 임무는 고려왕실의 출륙(出陸)을 감독하고 주둔해 있는 몽골군을 통솔하는 것이었다. 임무가 완료되면서 이들은 귀국하여 돌아갔다. 이후 원종 10 년(1269) 고려 권신 임연(林衍)이 원종을 폐위시키자 이를 계기로 다루가치들이 파견되었고, 1270 년 2 월 톡토르(脫朶兒)가 고려의 다루가치에 임명되었다. 이후로 1278 년까지 7 명의 다루가치가 고려에 파견되었는데, 몽골인 출신으로는 톡토르(脫朶兒)와 흑적(黑的)이 있고 이외에 한인 초천익(焦天翼), 이익(李益), 장국강(張國綱)과 거란인 석말천구(石抹天衢)가 고려에 파견되었다. 이들 몽골에서 파견된 관원들은 고려 지배층과 통혼관계를 맺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1270 년 다루가치 톡토르의 요구에 따라 고려의 대신 김려가문과 통혼을 맺었다.⁸ 1283 년에는 고려에 부임한 탐라 다루가치 타라치가 내시의 정부의 딸을 그의 처로 삼은 일이 있었으며⁹, 1289 년 몽골 사신 아쿠타이가 고려의 공신 관료 홍규의 장녀와 혼인을 하였다.¹⁰ 이상의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몽골과 고려의 통혼의 사례들을 통해 몽골의 풍습과 문화가 고려사회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원 제국의 명으로 고려에 매 수렵과 사육에 종사하는 응방(鷹坊)들이 설치되었다. 원에서 설치한 응방의 규모는 250 호로 파악되고 있다. 그 관리자들은 윤수, 박의 등 고려인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매의 관리를 위해 몽골 대칸은 매를 수렵하고 사육하는데 능한 응방자(鷹坊子) 낭기아타이(郎哥歹) 20 인을 고려 경상도 영주 등지로 보냈다.¹¹ 이로 미루어 응방의 운영을 위해 몽골인들이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66 년 이래 일본 교섭과 남송정벌에 대비하여 고려에 전함 축조와 군액의 부담을 지웠는데, 1269 년 임연의 난을 계기로 몽골군대가 고려에 주둔하게 되었다. 당시 고려에 파견된 군대의 규모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임연의 주벌(誅伐)을 목적으로 대신 몽케투(蒙哥都)가 이끄는 2000 명의 몽골군이 파견되어¹² 서경에 주둔하였다. 한편 두련가(頭輦哥) 국왕이 이끈 대규모의 군대도 서경으로 이동하여 원종을 호송했다. 1270 년 12 월 원 조정에서는 군사 2 천을 고려에 증치하여 둔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힌두와 사추에게 군 5000 을 거느리고 둔전케 하였고¹³, 홍다구에게는 고려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영민(領民) 2 천을 데리고 둔전하게 하였다. 둔전의 목적은 일본정벌을 대비코자 한 것으로 이 외에도 왕경(王京), 동녕부(東寧府), 황주(黃州), 봉주(鳳州)

8 『高麗史』卷26「元宗世家」

9 『高麗史』卷29「忠烈王世家」

10 『高麗史』卷106「洪奎傳」

11 『高麗史』卷124「嬖幸傳」

12 『高麗史』卷26「元宗世家」

13 『元高麗紀事』

등 11 곳에 둔전을 배치하고 경락사를 두었다.¹⁴ 이후 1275년 남송군으로 구성된 만자군(蠻子軍) 1400인을 해주(海州), 염주(鹽州), 백주(白州)에 정착시켰고, 1276년 원에서 양중신(楊仲信)에게 폐백(幣帛)을 주어 그 중 500명에게 처를 구해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¹⁵ 1278년 다루가치가 철수하면서 쿠빌라이의 명에 따라 둔전군도 모두 폐지되었으나, 일부는 잔류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¹⁶ 고려에서 둔전을 경작한 이들은 몽골인, 한인, 남송인, 고려인 등으로 그 인적 구성인 다양했으며, 앞서 보았듯이 고려에 정착해 있는 동안 고려인들과 통혼하는 사례들도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원제국에서 온 둔전세력들을 통해서도 원제국의 음식문화가 고려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소주의 증류 기술이 고려지역의 둔전을 위해 징발되었던 몽골인들을 통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¹⁷

한편, 1273년 탐라로 거점을 옮긴 삼별초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여몽연합군이 결성된 이래로 원에서는 제국 말기까지 탐라를 직할지로서 통치하였다. 이 시기 탐라에 임관한 몽골 다루가치, 주둔군 및 牧人들은 탐라에 거주하면서 몽골 문화의 자취를 탐라지역에 남겼다.¹⁸ 탐라 다루가치는 둔전병과 주민에게 말과 소 목장을 개설하여 사육하게 하였고 몽골의 영향은 제주의 육식문화와 고깃국, 술과 같은 지역 음식문화 속에 농후하게 남아 있다.

고려를 방문했던 몽골인들 뿐만 아니라 대원제국을 방문했던 고려인들을 통해 원의 음식문화가 소개되었을 가능성 또한 크다. 실제로 충정왕(忠定王)을 따라 대원제국을 방문한 바 있었던 문인 민사평(閔思平)의 『급암시집(及菴詩集)』에는 ‘음선경(飲膳經)’ 즉 ‘음선정요(飲膳正要)’가 언급되는데,¹⁹ 이는 1330년 원(元) 문종(文宗) 특 테무르 시기 태의원(太醫院)의 음선태의(飲膳太醫)였던 흘사혜(忽思慧)가 대간을 위해 집필한 약선서(藥膳書)이다. 여기에는 풍부한 원 제국의 요리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민사평의 시에 언급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고려 후반에 『음선정요』와 여기에 소개된 원 제국의 음식들이 고려에 알려졌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3. 한반도 음식문화에 나타난 원 제국의 영향²⁰

고려시대 초기부터 조정에서는 목축을 권장하였으나, 말은 전투용과 운반에 사용되었고, 소는 농경에 주로 이용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우마(牛馬)의 식용 비중은 낮았다. 특히 고려에서 불교가 융성하면서 여러 차례 도살금지령이 반포되었고²¹,

14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2013, 178쪽.

15 『高麗史』 卷28 「忠烈王世家」

16 『高麗史』 卷29 「忠烈王世家」

17 李盛雨, 『韓國食品社會史』, 敎文社, 1984, 216쪽.

18 몽골의 탐라 지배와 탐라에 거주한 몽골인들에 관해서는, 배숙희, 「元나라의 耽羅 통치와 移住, 그리고 자취」 『중국사연구』 76, 2012 참조.

19 “丹穀吹香風淡淡, 皺皮弄色雨冥冥, 心知此物真仙味, 故入皇元飲膳經”(閔思平, 유호진 역, 『及菴詩集』,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3).

20 본장은 필자의 논문 조원, 「『飲膳正要』와 大元제국 음식문화의 동아시아전파」 『역사학보』 233, 2017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1 “禁屠殺, 肉膳亦買市廛以進”(『高麗史』 卷2 光宗19년); “自今年限三年, 禁中外屠殺.”(『高麗史』 卷8 文宗20년1월)

성종(成宗) 시기에는 육식을 금하는 칙령까지 내려졌다.²² 그 영향으로 육식 문화가 더욱 발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도경(高麗圖境)』의 풍속(風俗) 편에는 고려인들의 연회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 상차림이 다음과 같이 소박하게 묘사되어 있다. “지금 고려인은 평상 위에 또 작은 소반[小俎]을 놓고, 구리 그릇을 사용하는데 말린 고기(鱸腊)와 생선, 채소를 섞어서 내놓지만 풍성하지는 않다.”²³ 서금(徐兢)은 고려인들의 육식에 관해 「잡속(雜俗)·도재(屠宰)」 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고려의 정치는 매우 어질어 부처를 좋아하고 살생을 경계한다. 따라서 국왕이나 재상(相臣)이 아니면 양과 돼지를 먹지 못한다. 또한 도살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다만 사신이 방문하게 되면 미리 양과 돼지를 기른다. (그 가축을) 도축할 때는 손발을 묶어 타는 불 속에 던져 그 숨이 끊어지고 털이 없어지면 물로 씻는다. 만약 다시 살아나면 몽둥이로 쳐서 죽인 후에 배를 가르는데 장위(腸胃)를 모두 자르고 똥과 오물을 씻어낸다. 따라서 국이나 구이를 만들더라도 고약한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니, 그 서툰 것이 이와 같다.”²⁴

이 기록을 통해 당시 고려 왕실을 포함한 지배층을 제외하고 육식 섭취가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에서 육식은 잔치나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특별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육식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고려인들의 도축 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고려의 북변 지역은 거란 및 여진과의 접촉을 통해 수렵부족의 음식문화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려의 내지에서의 육식문화가 보편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260년 몽골과 고려의 화친이 이루어진 이래로 고려지역에서는 육식문화가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고려사』를 쓴 사가는 충렬왕의 후비 제국대장공주가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서 통곡하면서도 여전히 예전처럼 육류를 섭취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사가들의 시선에는 상중에도 육식을 금하지 않고 육류를 섭취했던 몽골인 후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듯 하다. 육식이 주식이었던 몽골인 공주는 고려 왕실에 와서도 일상적으로 고기를 섭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몽골인들이 고려에 들어와서 육식이 일상식으로서 섭취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몽골 대칸은 몽골과 고려가 화친을 맺은 이래로 고려왕에게 양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1263년 쿠빌라이는 원종에게 조서를 보내면서 양 500 마리를 보냈고, 원종이 이를 제왕 및 5 품 이상의 관리들과 나누었다.²⁵ 1297년에도 충렬왕의 생일을 맞아 원제국의 태후가 양 50 마리와 고니 10 마리 및 몽골 칸실의 술을 하사했으며,²⁶ 충렬왕 시기 왕실에서 개최한 연회에서 술과 양고기로 잔치를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²⁷ 이로 미루어 몽골과 화친이 이루어진 이래로 몽골인들의 주식이자 북중국에서 많이 섭취되었던

22 ; “禁屠殺, 斷肉膳”(『高麗史』卷3 成宗8年12월))

23 徐兢, 『高麗圖境』 권22 「雜俗·鄉飲」

24 『高麗圖境』 권23 「雜俗·屠宰」

25 『高麗史』卷25 「元宗世家」

26 『高麗史』卷31 「忠烈王世家」

27 『高麗史』卷31 「忠烈王世家」

양이 고려왕실을 중심으로 지배층의 식탁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고려의 풍토가 양의 사육에 맞지 않아 양의 사육은 성행하지 않았다. 이렇듯 고려 후기에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제사와 연회시에 양고기나 돈육이 사용되었으며 서민층에서는 널리 사육되었던 닭과 개가 식용되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²⁸

한편, 고려 말 육식의 보급과 더불어 경작에 활용되던 우육을 식용으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몽골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육의 식용에 관해서는 양육과 돈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상류층 일부에서만 우육을 식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몽골과 고려가 화친을 맺은 이래로 몽골 조정에서는 소와 고니를 징발하여 공납하도록 명하였다. 1271년 원종시기 몽골에서 농우 6000마리를 요구하였으며 고려에 와있던 둔전병들에게도 우육은 경작용뿐 아니라 식용으로도 중요했다. 원의 농우 징발의 요구와 더불어 고려에서는 목우(牧牛)를 하였는데, 이는 소의 수량을 증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레 식육관(食肉觀)이 고려사회에 자리잡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파악된다.²⁹

『거가필용(居家必用)』의 경집(庚集)에는 원대 민간의 요리문화가 소개되어 있다. 『거가필용』에 편찬된 조리법들은 17세기 조선에서 편찬된 실학서인 『산림경제』에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김상보는 원말(元末)의 류서(백과사전) 『거가필용』에 나오는 요리들은 17세기 조선시대의 ‘치선(治膳)’ 편에 60% 이상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려 후기 원으로부터 육류 요리법들이 전해진 것으로 보았다. 다만 원 육류요리의 주재료였던 양고기 대신에 고려와 조선에서는 우육과 돈육을 활용하였다고 보았다.³⁰

『거가필용』에서 소개된 육류 조리법 가운데 『산림경제』에 인용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가필용』의 소육품(燒肉品) 부분에서 소육(燒肉), 양박(羊膊), 양륙(羊肋), 양이설(羊耳舌), 야계(野鷄), 암순(鷄鶩), 양진방(羊胛肪), 야압(野鴨)이, 자육품(煮肉品)의 자제반육법(煮諸般肉法)으로 양육(羊肉), 패육(敗肉), 자려마(煮驢馬), 자비육(煮肥肉), 우육, 마육, 장육(獐肉), 녹육(鹿肉), 웅장(熊掌)이 『산림경제』에 원용되었다. 소육(燒肉)은 ‘고기를 구워 차려내는 법으로 화로에 굽는 양을 제외하고, 모든 고기는 모두 꼬챙이에 꿰어서 기름·소금·장·고운 양념·술·초를 적시고 풀을 얹게 발라서 숯불 위에서 뒤집으며 익을 때까지 구운 후 밀가루 껌질을 벗겨내고 차리는 방법’으로, 양박, 양륙, 양이설 등 양의 앞다리, 양의 갈빗대, 양의 귀와 혀의 구이 요리가 소개되어 있다. ‘자제반육법(煮諸般肉法)’은 소, 양, 나귀, 말, 사슴, 노루, 오소리, 기러기 고기, 곰 발바닥 등 질긴 고기, 기름기 많은 고기, 상한 고기 등의 각종 육류를 삶아 먹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³¹ 고려 후기 이후로 한반도에서 육식을 섭취하기는 했지만, 건조와 조림 이외에 조리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북송시기부터 원대까지의 다양한 조리법들을 담고 있는 『거가필용』의 육류 조리과 관련된 풍부한 지식들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 제국이 형성된 이래로 몽골과 몽골지배하에 있던 각 지역의 문화가 동아시아에

28 李盛雨, 『高麗以前の韓國食生活史研究』, 鄉文社, 1978, 362-363쪽.

29 李盛雨, 『高麗以前の韓國食生活史研究』, 364쪽.

30 金尙寶, 앞 책, 331-332쪽.

31 김혜숙, 『『거가필용』사료전집』의 음식 조리법의 내용과 조선에서의 인용』 『동아시아 책의 문화사와 조선시대 음식의 지식체계』, 77-80쪽.

유입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몽골과 고려왕실이 화친을 맺은 이후 왕후, 관료, 상인, 군인 등의 신분으로 고려에 온 이들을 통해서 고려 사회에서 상류층에 한하여 소비되고 불교문화의 영향하에 소비가 제한적이었던 육류의 섭취가 보다 보편화되고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육류의 보급과 더불어 몽골의 정복 이후에 생산이 늘어난 것이 락(酪)과 소(酥)이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락죽(酪粥)을 상膳(常膳)으로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³² 락죽은 타락죽(駝酪粥)으로도 불렸는데, 흥미롭게도 타락(駝酪)은 몽골어로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요구르트를 의미한다. 이는 조선시대 어공(御貢)으로서 왕가에서 섭취했을 뿐 아니라, 조선 상층부에서도 상식되었고,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에도 이를 대접을 했다. 조선시대 구목과 목축을 관할하던 사복사(司僕寺), 내의원(內醫院) 등에서 진봉을 담당했다. 조선전기 타락죽과 같은 유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던 집단이 있었는데 이들을 소유적(酥油赤)이라 하였다. 이들은 황해도 평안도에 있던 몽골인들로, 도살업에 종사하던 자들로 조선초기 조선 왕실의 식사를 공급하던 사옹방(司饔房)에 소유(酥油)를 상납하였다. 그러나 세종 3년(1421) 조정에서는 이를 폐지하도록 명하였다.³³ 이러한 소유치(酥油赤)의 존재들은 이미 고려말기부터 한반도 북부에 거주해왔던 몽골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조선초기 몽골인들이 유제품의 제작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유제품을 주식으로 하는 몽골의 음식문화가 조선 왕실에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제품은 언제부터 한반도에서 식용되었던 것일까?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명종(明宗) 연간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역임하였던 이순우(李純佑)가 팔관회(八關會)에 사용하기 위해 소젖으로 연유(煉乳)를 만드는데 사기(四機)의 젖소들이 모두 동원되어 소와 송아지가 상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는 상주를 올렸다.³⁴ 이로 미루어 고려시대 상층부에서 특별한 행사에 유제품이 제조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말기가 되면 유제품의 생산이 보다 전문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고려말 우왕(禡王) 대에는 유우소(乳牛所)라고 하는 어용 유제품을 제조하는 전문적인 기구를 두었고, 여기에서 우락(牛酪)이 만들어져 왕에게 올려졌고,³⁵ 왕은 이를 근신들에게 보양식으로 하사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미루어 고려말 유제품을 제조하는 전문 기구를 두고 유제품을 왕실에 진상하게 하였던 제도가 조선에까지 이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겠다. 또한 고려말 왕실에서 유제품을 常食하는 풍습은 유제품을 주식으로 삼는 몽골의 풍습에서 기인한 것으로 고려에 하가한 몽골 왕후들과 관료들을 통해 몽골적인 음식문화가 전파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육류와 유제품의 섭취 이외에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몽골 제국에서 음용되던 음료 사아별(舍兒別)의 전파이다. 조선시대에는 불교의 쇠퇴와 함께 차 대신 음료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몽골 제국이시기에 음용되던 음료가 한반도에도 소개된다. 조선후기 일용생활서인 『산림경제』에는 갈수(渴水), 즉 청량음료로 ‘목과갈수(木瓜渴水)’와 ‘오미갈수(五味渴水)’가 나와

32 『朝鮮王朝實錄』 34 「仁祖實錄」 仁祖 14년(국편영인본).

33 『朝鮮王朝實錄』 2 「世宗實錄」 世宗 3년.

34 『高麗史』 卷 99 「李純佑傳」

35 『高麗史』 卷 135 禡王 11년

있고,³⁶ 『임원경제지』에는 어방갈수(御方渴水), 임금갈수(林檎渴水), 목과갈수(木瓜渴水), 포도갈수(蒲萄渴水), 향당갈수(香糖渴水)가 소개되어 있는데³⁷ 그 조리법은 『거가필용』의 ‘갈수번명섭리백(渴水番名攝里白)’의 항목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음선정요』에는 몽골 대칸이 음용하던 사아별로 소개되어 있다.

‘갈수번명섭리백(渴水番名攝里白)’은 번명(番名) 즉 페르시아어로 섭리백(攝里白)이라 불리는 갈수로서, 그 종류로 계피, 정향, 계화 등을 넣어 만든 어방갈수, 헛 능금 즙을 졸여 만든 임금갈수, 양매즙을 짜서 만든 양매갈수(楊梅渴水), 모과를 넣어 만든 모과갈수, 오미자즙을 꿀과 함께 졸여 만든 오미갈수, 포도즙에 꿀 등을 넣고 먹는 포도갈수, 송당, 곽향잎, 생강 등을 넣고 졸여 만든 향당갈수, 갈분, 울금, 산치, 감초 등을 물에 섞어 만든 조청량음법(造淸涼飲法) 등의 청량음료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오미자즙을 넣어 졸여서 만든 오미갈수의 제법이 『음선정요』에 나왔던 오미자 사아별과 상당히 유사하다.

사료	원문
『飲膳正要』	五味子舍兒別：新北五味十斤，去子，水浸，取汁；白沙糖八斤，煉淨．右件一同熬成煎
『居家必用』	五味渴水：北五味子肉一兩爲率．滾湯浸一宿．取汁同煎．下濃豆汁對當的顏色恰好．同煉熟蜜對入．酸甜得中．慢火同熬一時許．涼熱任用．
『事林廣記』	五味渴水：北五味子肉一兩爲率．滾湯浸一宿．取汁同煮．下濃黑豆汁對當的顏色恰好．同煉熟蜜對入．酸甜得所．慢火同熬一時許．涼熱任意用之．
『山林經濟』	五味子滾湯浸一宿．取汁同煮．下濃豆汁對當的顏色恰好．同煉熟蜜對入．酸甜得中．慢火同熬一時許．涼熱任意用之．

38

『음선정요』와 『거가필용』, 『사림광기』, 『산림경제』의 오미자갈수는 제법에 있어서 오미자즙을 당분과 함께 졸인 후 식혀 마신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조선후기에 편찬된 『산림경제』의 오미자갈수 제법은 『거가필용』의 제법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가필용』의 요리법을 참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부조리과정을 살펴보면, 식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다소 상이한 점이 발견된다. 『음선정요』에 백설탕(白沙糖)이 사용된 것과는 달리 『거가필용』, 『사림광기』, 『산림경제』에서 오미자와 함께 콩즙을 넣어 달이고 마지막에 꿀을 타서 식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거가필용』, 『산림경제』에 콩즙을 넣는다고 기술된 것과 달리, 『사림광기』에 검은 콩즙(黑豆汁)의 특정재료가 기술되어 있다. 오미자갈수 제법에 있어 오미자를 제외한 식재료 활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각 지역의 풍토와 환경의 차이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된다.

『음선정요』에서는 단맛을 내는 조미료로서 설탕과 백사밀(白沙密)이 다양한

36 洪萬, 『山林經濟』(파주, 景仁文化社, 1973).

37 徐有榘, 『林園經濟志』(서울, 保景文化社, 1983).

38 한국전통지식포털 <http://www.koreantk.com/ktkp2014/kfood/kfood-view.view?foodCd=109513>(검색일: 2016년 8월 20일)

요리에 활용되고 있다. 당시 설탕 생산을 전담하는 설탕국(砂糖局)은 항주(杭州)에 소재하고 있었고³⁹, 이와 더불어 천주(泉州) 영춘(永春)지역이 백설탕의 주요 산지였다. 이곳에서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설탕 제조 기술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술은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천주 지역에 정착한 이 지역 출신 기술자들을 통해 유입되었고 이를 통해 제조된 백설탕이 대도의 몽골 궁정에 진상되었던 것이다.⁴⁰ 당시 원의 궁정에서 음용하던 오미자 갈수는 서역에서 전해진 백설탕 기술이 더하여져 진귀한 음료로서 진상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기타 일용서에 나오는 오미자 갈수는 당시 접근이 용이했던 콩즙을 활용하여 제조한 서민적인 음료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미갈수에 오미자와 더불어 녹두가 사용되었다. 이 또한 당시 한반도의 주요 생산물이자 식재료로 많이 활용되었던 녹두의 구입이 용이했고 우리의 입맛에 익숙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4. 결론

13 세기 몽골이 대제국을 건설한 이래로 몽골 제국의 영향력은 동아시아의 정치, 사회, 제도 각 분야에 깊은 영향을 남겼다. 본고에서는 몽골의 침입이 동아시아 지역에 남긴 흔적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보았다.

몽골 제국일시기 유라시아 대륙을 망라하여 광범위한 규모의 교류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역동은 제국의 중심부와 정복 지역 문화에 변동을 가져왔으며, 때로는 지역 문화의 지형을 바꾸어 놓기도 했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 대로, 대원제국의 중심부는 각 지역 문화가 접촉하고 교류되는 장이었다. 몽골의 개방주의 정책에 따라 몽골, 위구르, 티벳, 페르시아, 한인, 고려인 등이 관료로 등용되었으며, 쿠빌라이시기 해운 체계의 정비로 통해 물자 운송의 인프라가 확립되면서 각 정복지역 물자가 대도로 집결되는 등 인적·경제적 차원에서 제국의 중심부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다. 이시기 문화적 다양성과 융합의 현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음식문화이다. 대칸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로부터 동남연해, 고려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에서부터 오는 다양한 조공품들로 각 지역의 산해진미를 맛볼 수 있었다.

1260 년 몽골과 화친을 맺고 교류가 재개된 인적 교류가 활발해졌고, 제국의 음식문화도 자연스레 한반도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고려에 하가한 몽골 왕후들과 사속인들, 다루가치를 비롯한 몽골 관원들, 주둔군과 둔전세력들을 및 원 제국을 방문했던 고려인들을 통해 원 제국의 음식문화가 전해졌고, 자연스레 고려의 음식문화에 새로운 요소와 인식을 더하여 변화를 가져왔다. 음식문화는 문화의 요소 가운데에서도 장기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해 수용되는 분야이다. 원 제국의 음식문화 가운데 일부가 고려와 조선에 수용되었다는 것은 몽골과 고려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접촉을 반영하고 있다.

1260 년 몽골과 고려의 화친이 이루어진 이래로 고려지역에서는 불교영향으로

39 “杭州砂糖局宦皆主體，回回富商也”『山居新話』(『四庫筆記小說叢書本』，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1).

40 尙衍斌，앞 책，66-69 쪽.

약화되어 있었던 육식문화가 유입되었다. 그러나 대원제국의 음식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고려의 실정에 맞게 변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고기를 다루는 방식과 다양한 조리법이 유입되었으나 양 도축 및 소비의 방식이 우육 및 돈육으로 대체되었다. 고려 말 왕실과 상층부를 중심으로 유제품을 상용하는 문화가 생겨났고, 이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한편, 대원제국의 음료문화도 한반도에 유입되어 선택적으로 수용되고 변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조선시대에는 불교의 쇠퇴와 함께 차 대신 화채, 밀수, 식혜, 수정과 등의 음료 및 약이성(藥餌性) 음청류가 발달하게 되었다. 14세기 『음선정요』에 소개되었던 청량음료인 사아별의 조리법에 관한 지식이 17-18세기 조선후기 일용생활서인 『산림경제』와 농서 『임원경제지』에 갈수로 소개되고 있다. 사아별은 서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몽골궁정에 소개된 청량 음료로서, 송, 원대를 거쳐 중국지역에서 본토화되는 과정을 겪으며, 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백설탕을 대신하여 콩즙으로 단맛을 내게 되었다. 이후 갈수는 고려 말, 조선시기를 거쳐 한반도에 유입, 선택적으로 수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녹두가 오미자와 함께 주재료로 정착되었다.

지정토론

몽골 제국 음식문화의 고려 유입과 변화

[질문자: 하시모토 유, 답변자: 조원]

— 하시모토 유

훗카이도대학의 하시모토입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발표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일본에서도 『거가필요사류(居家必要事類)』가 유명해진 참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인이 라면, 면(麵)을 먹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에도(江戸) 시대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왔습시다만, 사실은 15세기 무로마치(室町) 시대부터였다는 것이 최근에 막 밝혀졌거든요. 무로마치 시대의 한 승려가 쓴 『음량헌일록(蔭涼軒日錄)』이라는 책에, 『居家必要事類』에 나오는 ‘경대면(經帶麵)’을 대접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간수를 사용한 면(麵)으로, 분류상 라면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일본인이 최초로 라면을 먹은 것은 15세기가 됩니다. 즉 일본에도 밀가루를 사용한 면(麵)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이 『居家必要事類』와 함께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일본에는 지금까지 보리라든가 율무라든가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아마 이 무렵에 밀(소맥)이 보급되었을 거라는, 따라서 라면도 이 때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만, 한국의 면 문화는 언제 어떤 형태로 시작되었는지, 밀가루든 보리든 뭐든 상관 없습니다만, 만약 알고 계시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려의 궁궐 안은 그 나름의 불교신앙이 독실한 공간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육식문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저항감,

알력, 주저랄까 그런 것은 없었는지요. 아마 그게 『사림광기(事林廣記)』 등의 판본 종류이지요?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 대체 누가 들여왔는지, 판본의 루트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려 불교 신앙의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기분으로 고기를 먹었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질문입니다만, 쿠빌라이가 원종(元宗)에게 양 오백 마리를 보냈을 때 같이 보냈다고 하는 「조서(調書)」, 그게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원

한양대학교의 조원입니다. 고려 음식문화에서 몽골 음식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을 고찰했는데, 실은 고려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어떻게, 베트남이나 다른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궁금했지만 자료가 없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라면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 자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 궁궐에서는 불교신앙이 돈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식문화에 대한 반응이랄까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사』에, 고려로 시집 온 몽골 왕비 중에서,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고려사』에 기록이 있습니다) 끼니마다 육식을 꼬박꼬박

먹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려사』에 굳이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나 보다 하고 저는 읽었습니다.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인들 눈에는 그것이 특별하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하고 판단했습니다. 고려의 불교신앙과 고려에서는 보편화되지는 않았던 그런 문화가 몽골을 통해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질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통혼관계와 긴밀한 접촉이 거듭되면서 이런 것들이 몽골을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 제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것, 대도(大都)에 불모(質子)로 잡혀 있던 고려 왕들이나 불모 출신의 왕들을 통해서도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졌고 상층부에서부터 그런 거부감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고려사에 나오는 기록, ‘양 500 마리 하사’는 『고려사』의 공식적인, 즉 국가가 편찬한 사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소를 바치고 공물을 바치게 했다든가(徵貢) 하는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인데, 면을 먹는 문화가 언제부터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밀가루가 아니라 다른 재료로 면을 만들었던 것은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면식을 하되 밀가루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밀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시모토 유

세 번째 질문했던 「조서(調書)」에 관해서입니다만, 사료의 전거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문서였는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 조원

『고려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고려사』에 나온 기록만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조서를 보냈다’고 하는 기술뿐이고 어떤 조서가 오고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 당시의 외교 문서에 나와 있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논문 11

'심첨호모(深簷胡帽)' 연구

- 몽원(蒙元)시대를 풍미한 여진족(女眞族) 모자의 변천사

장 지아

(張佳, 복단대학)



요지

명나라 홍무 연간에 반포한 '호복(胡服)' 금지령 중에는 원나라 때 유행했던 '심첨호모(深簷胡帽)'를 명시하여 언급한 대목이 있다. 원나라 시기의 각종 자료를 통하여 고찰해 보면, 당시 시대적 특징을 반영한 이 모자 양식이 바로 '만립'(幔笠, 혹은 纓笠, 방립[方笠], 사각립[四角笠子]으로도 부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립은 원래 금의 여진족 복식이었으나 후에 몽골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몽골의 정복 활동을 통하여 중국, 고려, 중앙아시아 심지어 페르시아 지역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 만립은 군주로부터 관료, 문인, 서민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널리 애용된 모자였다. 그리하여 원이 멸망하고 명이 건립된 후, 만립은 중국이 원에 의해 '오랑캐화(胡化)'된 중요한 징표로 한족 사대부들의 눈에 비쳐졌으며 그 뒤 급속히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후, 한반도에서도 만립은 역시 비슷한 역사적 운명을 맞게 되었다.

만립은 뚜렷한 시대적 특징을 지닌 복식이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원(元)의 복식에 대한 연구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그로 인하여 명의 모자 양식과 혼동하는 결과까지 낳았다. 만립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이미지 자료의 연대를 판정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에서 만립의 유행과 소멸에 대한 연구는 한 시대를 풍미한 '몽고풍' 복식의 흥망성쇠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며 동아시아 유가 지식인들의 '호한(胡漢)', '화이(華夷)' 관념의 변천과정 또한 엿볼 수 있게 한다.

시작하며

지원(至元) 11년(1274)과 지원 18년(1281), 쿠빌라이는 2차에 걸쳐 일본 원정을 단행했다. 이는 동아시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유명한 사건이다. 원의 속국이었던 고려는 일본 침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원은 고려에게 원정을 위한 함선, 군용 물자 제공을 강요했다. 고려 역시 원에 협력하여 원정군을 파견했다. 조선왕조 정인지(鄭麟趾)의 『고려사』에 수록된 내용은 일본원정에서의 고려의 포지션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정에 대한 고려의 입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고려사』에 수록된 일본원정사는 주로 「원종세가(元宗世家)」, 「충렬왕세가」, 「병지(兵誌)」, 「김방경전」 등에 수록되었다. 내용이 분산적이긴 하나,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는 원정에 대한 이해를

1. 서론: 어느 문헌자료의 교감(校勘)에서

홍무 원년 2월 임자(壬子, 1368년 2월 29일), 즉위한지 38일 밖에 안된 명 태조 주원장(1328-1398)은 역사상 유명한 “호복”¹ 금지령을 반포하여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복의관여당제(復衣冠如唐制)” 즉 의관을 당나라 제도 대로 회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로써 새로운 왕조가 문화적으로 “중국정통”의 계승자임을 표명하고자 하였다. 『명태조실록』에서는 이 칙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詔復衣冠如唐制。初，元世祖起自朔漠以有天下，悉以胡俗變易中國之制。土庶鹹辮髮椎髻，深檐胡俗，衣服則袴褶窄袖及辮線腰褶；婦女衣窄袖短衣，下服裙裳，無復中國衣冠之舊。甚者易其姓字，胡名，習胡語。俗化既久，恬不知怪。上久厭之。至是，悉命復衣冠如唐制。……不得服兩截胡服，其辮發椎髻、胡服、胡語、胡姓一切禁止。斟酌損益，皆斷自聖心。於是百有餘年胡俗，悉復中國之舊矣。²

이는 중국의 근세문화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헌기록인 바, 원사(元史)와 명사(明史)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에 의해 빈번히 인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칙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식 명칭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필자의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때 아직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역사연구소 교정본 『명실록』은 명청 시기의 여러 필사본들을 통합한 판본으로서 비록 교감을 거쳤다고는 하나 여전히 적지 않은 오류가 남아 있다. 이 칙령 중에도 문자상 모순되는 점들이 여럿 있으나 적당한 교감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쉽다.

1 본문에서 사용되는 “호복”, “호화”, “화이” 등 어휘는 표현적 편의를 위하여 역사적 관습을 따른 것일 뿐 다른 어떠한 가치 편향을 내포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둔다.

2 『明太祖實錄』 권 30, 대만중앙연구원 역사연구소 교정본, p525.

예를 들어 “심첨호속(深簷胡俗)”이란 이 글귀를 보자. 『홍무정운』 등 자서의 해석에 의하면 “첨(簷)”자는 고대 복식 중의 “폐슬(蔽膝)”에 해당하는 것³ 즉 무릎을 가리는 정도 길이의 짧은 두루마기 비슷한 옷으로서 이 문장에서는 그 뜻이 맞물리지 않는다. 『태조실록교감기』에서는 이 대목에 이르기를 “옛 교정본에서는 ‘속(俗)’을 ‘모(帽)’라 하였다”고 하고 있다⁴. 하지만 “심첨호모(深簷胡帽)”역시 문맥상 난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행인 것은, 명나라 가정(嘉靖) 연간으로부터 각 조대의 『실록』은 궁으로부터 필사되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명말에 이르러서는 『실록』을 필사하여 여러 가지 사서를 편수하는 것이 사가들 중에서 일시적인 풍조를 이루었다. 그 중 명나라의 주변종정(周藩宗正) 주목결(朱睦㮮, 1517-1588)은 홍무 조정의 정사를 분류, 찬록하여 『성전(聖典)]』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실록』의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심첨호모(深簷胡帽)”라 기록하고 있다⁵. 가정 연간의 『선부진지(宣府鎮誌)]』와 고염무(顧炎武)의 『일지록(日知錄)]』에서도 같은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모두 “심첨호모(深簷胡帽)”로 적고 있다⁶. 이 밖에도 칙령의 상하 문맥으로 판단해 볼 때, “변발추계(辮髮椎髻)”는 원나라 때의 머리 양식을, “고습작수(袴褶窄袖)”는 의상 양식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심첨호모(深簷胡帽)”가 원대(元代)의 모자 양식을 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의미상으로도 적절하다. 이상의 여러 점을 감안할 때 통행본 『명태조실록』 중의 “호복” 금지령에 나오는 “심첨호속(深簷胡俗)”이란 글귀는 “심첨호모(深簷胡帽)”로 교정함이 마땅하다. “첨(簷)”은 “첨(簷)”[異體字는 “檐”]의 형태적 오류이며 “속(俗)”은 위 문장에 나오는 “호속(胡俗)”의 영향으로 잘못 옮긴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심첨호모”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자 양식을 의미하는 것일까? 원대에 어느 정도 유행하였을까? 과연 명의 “호복” 금지령과 함께 민중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일까? 이러한 추가적인 질문들은 단순히 문자적 교감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명(元明) 시기의 역사 자료, 특히 당시의 사회생활 실상을 보여주는 이미지 자료들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2. 명칭의 정정(訂正): 원(元) 대의 '와릉모(瓦楞帽)'라는 명칭의 잘못된 고증

한자로 볼 때 “심첨호모”는 “심첨(深簷)” 즉 “챙이 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자임을 알 수 있다. 원나라 때의 이미지 자료에 대한 고찰해 보면, 우리는 이런 유형의 독특한 모자가 당시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중국복식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찌감치 이러한 사실에 주의를 돌렸다. 심종문(沈從文, 1902-1988) 선생의 『중국고대복식연구』(1981, 홍콩 초판)에서는 원의 지순(至順) 연간

3 宋濂 외 편, 『洪武正韻』 권 6.

4 『明太祖實錄校勘記』, p103. 『교감기』에서는 이 대목을 “胡俗衣服”이라 하였는데 이 역시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5 朱睦㮮, 『聖典』 권 9 <易俗>, 『四庫全書存目叢書』 史部 제25책, 제342페이지에 수록됨.

6 嘉靖 『宣府鎮誌』, 『中國方誌叢書·塞北地方·察哈爾省』에 수록, 臺北成文出版公司, 1970, 권 20, p216; 陳垣, 『日知錄校注』, 安徽大學出版社, 2007, 권 28, p1624.

각본의 『사림광기(事林廣記)』에 기재된 “타쌍육도(打雙陸圖)” (그림 1 참조)를 고증하면서 최초로 그림 속의 관리가 쓰고 있는 챙이 깊고 모서리가 네 개인 네모난 모자를 “사방와릉모(四方瓦楞帽)”라고 명명하였다⁷. 심종문의 이 저서는 중국복식사 연구를 개척한 작품으로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이후의 복식사 저서들은 줄곧 “와릉모”라는 명칭을 답습하였다. 다만 훗날 “사릉(四楞)” 간혹 “육릉(六楞)”의 양식도 발견되었기에 연구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릉와릉모”, “육릉와릉모”와 같은 명칭을 만들어냈다.⁸

중국 고대의 명물(名物) 연구에 있어서의 난제는, 이미지 자료나 출토된 유물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명칭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물품들은 그 명명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확실한 문헌자료와 대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은 흔히 그 형태나 외관상 특징에 따라 명명하는 것을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삼았다. 사실상 “와릉모”라는 명칭은 원나라 때의 어떠한 문헌에서도 찾을 수 없는데, 심종문이 이렇게 이름 지은 것도 일종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다행하게도 일본에서 복각한 명조 홍무 4년본 『괴본대상사언잡자(魁本對相四言雜字)』(현존하는 제일 오된 그림식 식자 교과본) 중에서는 이런 모자 양식에 대해 분명하게 “만립(幔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⁹(그림 2 참조). 원대의 문헌에서는 이 모자를 “만립(幔笠)”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형태가 네모나서 다른 모자들과는 뚜렷이 구별되어 “방립”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챙이 깊은(深簷)” 그 독특한 외형 때문에 원나라 사람들의 문장에 적잖이 등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왕화경(王和卿)은 그 소령(小令) 산곡〈天淨沙·咏秃〉에서 만립을 써서 대머리를 감춘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笠兒深掩過雙肩，頭巾牢抹到眉邊。款款的把笠簷兒試掀，連慌道一句：“君子人不見頭面”¹⁰

곡 중에 나오는 “깊이 눌러 쓴 갓, 두 어깨를 가리네(笠兒深掩過雙肩)”라는 표현은 “챙이 긴” 만립의 특징에 대한 과장된 묘사임이 틀림없다.

여태껏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한 것들이 만약 “만립”(혹은 방립)이라는 역사적 본래 명칭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림 1



그림 2

7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一四六〈元代玩雙陸圖中官僚和僕從〉, 上海古籍出版社, 2011, p535.

8 趙剛 외, 『中國服裝史』, 清華大學出版社, 2013, p117.

9 『魁本對相四言雜字』, 『和刻本中國古逸書叢刊』제 15책에 수록, 鳳凰出版社, 2012, p344.

10 楊朝英 편찬, 『朝野新聲太平樂府』권 3, 中華書局, 1958, p110.



그림 3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심종문이 만립의 명칭을 임시방편으로 “(사방)와릉모”로 정한 것이 도리어 명대(明代) 복식사, 심지어는 원명(元明) 사회문화사연구의 방향을 크게 잘못 유도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와릉모”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발견된 원나라 문헌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지만 명나라 말기의 문헌 중에서는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명나라의 와릉모는 그 꼭대기가 접어진 모양이 기와를 닮았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명말 인물화 중에서 아주 많이 발견된다(그림 3 참조, 증경[曾鯨, 1568-1650]이 그린 장경자 초상화). 심종문의 『중국고대복식연구』가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이전, 명물사전 중 “와릉모”에 대한 해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예를 들면 화부(華夫)외편저 『중국고대명물대전(中國古代名物大典)』(제남출판사, 1993년) 중에서,

瓦楞帽，省稱“瓦楞”，一種頂部折疊如瓦楞的帽子，明代平民所戴。¹¹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심종문 이후의 복식사 관련 저작들과 최근 출판된 명물사전들에서는 많은 경우 명의 와릉모를 원대의 만립으로 간주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중국문화대사전』(중국문화학회 전문가위원회 편저, 2008년)에서는 “와릉모” 조항에서 “금, 원 시기에 이미 있었고 명대의 사대부들과 백성들이 착용하였다”고 함으로써 고찰과 논증을 거치지 않은 채 “와릉모”의 옛 해석과 심종문의 연구성과를 뭉뚱그려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필자가 아는 바로는 현재까지 금원(金元) 시기 문헌 중에서 명대 양식의 와릉모를 발견한 예가 없다). 『중국설계전집·복식유편』(장추핑 외편저, 2012년)에서는 “원대 와릉모” 조항에서 더 많은 내용을 혼합하여 “북방 유목민족 중에서 유행하던 모자 양식이며 명대에 그대로 받아들였다……명대에 와릉모는 평민들이 착용하였다”고 하였으며 각종 문헌을 인용하면서 와릉모가 명대에 유행하였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¹². 이외에도 유사한 혼용 사례들이 많으나 지면상 관계로 일일이 열거하지 않기로 한다.

“와릉모”에 대한 명명 오류는 원명 사회문화사연구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 원이 중국사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로 말미암아, 명에 대한 원의 영향은 줄곧 학계에서 주목받는 과제 중의 하나였다. 적지 않은 연구에서 명 말기에 와릉모가 유행한 것을 문화적인 시각에서 원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호풍(胡風)”이 유행한 전형적인 증거로 간주해 왔다.¹³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이러한 관점은 그야말로 원의 만립을 명의

11 華夫 외 편찬, 『中國古代名物大典』, 濟南出版社, 1993, p529.

12 張秋平 외 편찬, 『中國設計全集·服飾類編』, 商務印書館, 2012, p55; 黃能馥 외 편찬, 『中國服裝史』, 中國旅遊出版社, 1995, p197; 이외에도 지금까지 명나라 복식사 연구에 있어서 최고의 저술이라 할 수 있는 董進의 저서 『大明衣冠圖誌』 역시도 이 오류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아쉽다(北京大學出版社, 2016, p316).

13 羅璋, <漢世胡風: 明代社會中的蒙元服飾遺存研究>, 수도사범대학 석사학위 논문, 2012, pp.24-26.

와릉모와 혼동하여 생긴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3. 기원과 확산: 만립의 기원 및 아시아에서의 전파

홍무 원년의 금지령은 “심첨호모”로 하여금 “몽골”이라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붙게 하였다. 하지만 그 기원으로 놓고 볼 때 만립은 원대에 유행하였지만 몽골 복식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고고학적 자료를 검색해 보면 이런 유형의 모자 양식이 금대에 이미 중원지구에 나타났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존 자료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만립 이미지가 출현한 것은 산서성 고평(高平) 이문(李門) 촌에서 발견된 금의 정릉(正隆) 2년 석각 “여진인악무도”(그림 4 참조)이다. 이 이미지들은 농후한 여진(女真)의 풍격을 띠고 있는데 그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은 앞머리를 밀고 태를 땅았으며 뾰족신을 신고 점섭대(蹀躞帶, 옥으로 만든 띠의 일종)를 차고 있으며 춤과 음악에 피리와 북만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양송(兩宋) 시대 문헌 속의 여진인에 대한 묘사와 일치한다.¹⁴ 다만 만립의 모자 끝이 뾰족한 것이 원대의 일반적인 만립 양식과는 다른 점을 보인다. 원대에 보편적이었던 방형 만립은 금의 대안(大安) 2년(1210)의 것으로 추정되는 산서성 후마동기묘(侯馬董圮墓)의 벽돌 조각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윗부분에 모자가 있음).



그림 4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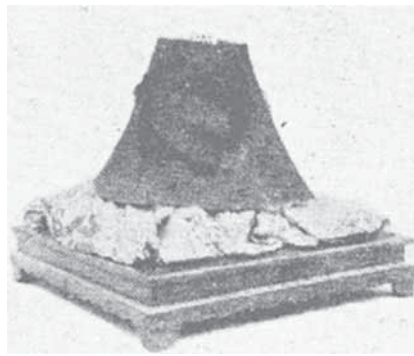


그림 6



그림 7

14 이 이미지에 대한 소개는. 景李虎, <金代樂舞雜劇石刻的新發見>, 『文物』 1991년 제12기에 수록, pp. 34-37 참조. 이 보고서 역시 선충원의 영향을 받아 그림 중의 만립을 “와릉모”로 적었다. 여진인들은 한족 문화를 대거 수용하기 이전에는 사용한 악기들이 비교적 단순하였다. <三朝北盟匯編>에 이르기를, “그들의 음악은 오직 북과 피리 만을 사용하며, 그들의 노래는 자고(鷓鴣)의 곡조 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여진족에 기원들 둔 이러한 모자 양식은 대체로 금 말기부터 중원 지구의 한족 민중들 중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원 초기의 북방 무덤에서는 이와 유사한 이미지와 실물 자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산서성 대동(大同) 풍도진묘(馮道眞墓, 1265년)에서는 등나무 줄기 만립 한 점, 시기적으로 조금 뒤인 왕청묘(王靑墓, 1297년)에서는 등나무 줄기 만립과 풀 만립이 각각 한 점씩 출토되었다¹⁵. 또한 섬서성 포성(蒲城) 동이촌(洞耳村) 벽화묘(1269년)에 그려진 벽화는 몽골국 시기의 북방 한족, 여진족과 몽골족의 세 문화가 융합된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그림 6, 7 참조). 성씨와 본관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묘지의 남녀 주인은 한족일 것으로 판단되나 그들은 몽골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으며 벽화 속의 인물들도 모두 여진(좌임[左衽], 만립)과 몽골(요선오[腰線袄], 고고관[毳毼冠]) 풍격이 혼합된 복장 차림을 하고 있다. 이상의 상황으로 짐작하건대 일찍이 원대로부터 만립은 이미 북방 여러 민족들의 중요한 일상 복장으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남방 지역의 상황은 달랐다. 장기간 금과 대치하면서 거대한 군사적 압력에 직면하였던 송(宋) 조정은 유학 이론 중의 “화이지변(華夷之辨)”을 강력한 정신적 무기로 삼아 남송 사회의 민심을 집결시키고 일제히 외부 압력에 대항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남송의 사상문화(예를 들면 남송 사대부들의 교과서로 사용되었던 호안국[胡安國, 1074-1138]의 『춘추전(春秋傳)』은¹⁶ 바로 오랑캐를 몰아내자는 “양이(攘夷)” 사상의 대대적인 표방을 특징으로 함)에 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도 나타났다. 남송 조정과 사대부들은 타민족 풍속습관의 침투에 높은 경각심을 보였다. 소흥(紹興) 연간 시국이 막 안정되었을 무렵, 송 고종은 “아직 수복되지 못한 나라 땅을 생각하여, 화하의 것(풍속)으로 오랑캐의 것을 되바꾸고자” 일반 백성들이 “오랑캐의 음악과 춤을 즐기고 무릎을 꿇고 술을 권하는 법을 따르는” 등의 여진족 오락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서를 내렸다¹⁷. 그리고 금으로부터 송으로 귀순한 “귀정인”들에 대해서는 안치해주는 동시에 “호복”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거듭 요구하였다¹⁸. 송 효종 건도(乾道) 4년(1168), 누군가가 임안(臨安) 백성들이 “오랑캐 풍속”을 따라배우는데 대하여 경고한 바가 있는데, 이는 남송 사회의 일상생활 속의 “화이” 관념을 반영하는 재미있는 기록이다.

臣僚言：“臨安府風俗，自十數年，服飾亂常、習為胡裝，聲音亂雅、好胡樂。如棹篴、不問男女、如吹鸛鳴、如撥琵琶、如作胡舞，所在而然。此皆小人喜新，初則效學以供嬉笑，久習之，非甚則上之人亦將樂之與之俱矣。臣竊傷悼中原士民淪于左衽，延首企踵欲自效於衣冠之化者，三四年卻不可得，而東南禮義之民，乃反墮于胡虜之習而不自知，甚可痛也。……伏望戒敕守臣，檢坐紹興三十一年指揮，嚴行禁止，犯者斷罪，令眾自然知懼矣。”詔從之。¹⁹

이 문헌 자료로 볼 때 금나라 복식은 확실히 남송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러한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심지어 그들은

15 대동시문물진열관, <山西省大同市元代馮道眞, 王靑墓清理簡報>, 『文物』1962년 제 10기에 수록.

16 牟潤孫, <兩宋春秋學之主流>, 『注史齋叢稿』에 수록, 中華書局, 2009, p69-87.

17 馬端臨, 『文獻通考』권 310, 浙江古籍出版社, 2000, p2436 참조.

18 李之亮 교정, 『宋史全文』권 24 상, 黑龍江人民出版社, 2000, 하책 p1640.

19 『咸淳臨安誌』권 24, 『宋元方誌』제 4책, 中華書局, 1990, p3775-3776.

남송 복식이 “이미 북방 민족과 구별이 없을 만큼 거의 같아져 버렸다”²⁰ 고 하는데, 이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남북방의 복식이 혼합되어 사실상 “동일”에 가까워진 상태에 이른 것은 최소한 원이 강남 지역을 통일한 뒤에 지리적으로, 나아가 심리적으로까지 화이의 경계선이 점차 소실되어버린 뒤의 일이다. 적어도 남송의 사신들이 남긴 대량의 문헌으로 봤을 때, 의관복식의 거대한 차이는 여전히 송과 금의 민중의 가장 직관적인 구별점이었다. 예를 들면, 건도 6년(1170),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범성대(范成大)는 도중에 개봉을 지나면서 본 것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다.

民亦久習胡俗，態度嗜好與之俱化。男子髡頂，月輒三四髡，不然亦間養餘發，作椎髻于頂上，包以羅巾，號曰“蹋踠”，可支數月或幾年。村落間多不復巾，蓬鬆如鬼，反以便。最甚者衣裝之類，其制盡胡矣。自過淮已北皆然，而京師尤甚。惟婦女之服不甚改，而戴冠者少，多結髻。²¹

순희(淳熙) 병신년(1176) 북에 사신으로 간 주휘(周輝) 역시 금의 통치지역인 수양(睢陽)에 들어서서 본 풍경을 기록하기를,

入境，男子衣皆小窄，婦女衣衫皆極寬大……無貴賤，皆著尖頭靴，所頂之巾，謂之蹋踠。²²

라고 하였다.

이 시기 중국은 남북이 분열된 지 반세기 밖에 안되었지만 북방 민중의 복장과 머리 양식은 이미 남방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은 범성대, 주휘와 같은 사신들이 남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국경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화이”적 심리 방어선은 북방 민족의 복식이 남으로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원대에 이르러서야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만립만 보더라도, 남송 말기에 이미 금과 몽골인들이 차지한 회하 이북 지역에서 유행하였으나 남송 본토에서는 그 영향력이 거의 미미하였다. 남송이 멸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덕우(德祐) 2년(1276) 2월, 좌상 오견(吳堅) 등은 기청사(祈請使)의 신분으로 몽골에 파견되었다. 황하를 건너 금의 통치지역이었던 옛 비주(邳州)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그 곳부터는 사람마다 갓을 썼고 의관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²³. 그러나 몽골이 남송을 정복함에 따라 원래 이역적이고 이족적인 색채를 지녔던 만립은 급속히 남방에서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유행 패션으로 자리 잡았다. 송렴(宋濂)이 남송 유민이자 무주(撫州)의 선비였던 이사화(李士華)를 위해 쓴 묘지명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會宋亡為元，更易方笠、窄袖衫，處士獨深衣幅巾，翱翔自如，人競以為迂。處士笑曰

20 劉復生，〈宋代‘衣服變古’及其時代特征：兼論‘肥妖’現象的社會意義〉，《中國史研究》1998년 제2기，p88-89. 송나라 복식이 받은 북방 민족의 영향에 대한 논술로는 본 논문이 가장 상세하다.

21 范成大，《攬轡錄》，孔凡禮 校訂本〈宋代日記叢編〉에 수록，中華書局，2002，p12.

22 周輝，《北轅錄》，顧宏義 校訂本〈宋代日記叢編〉，上海書店出版社，2013，p1134.

23 嚴光大，〈機請使行程記〉，王瑞來『錢塘遺事校箋考原』，中華書局，2016，p331.

: “我故國之人也, 義當然爾”。²⁴

고국의 의관 양식 바꾸기를 끝까지 거부했던 이사화와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의 유민에 불과했다. 반면에 적지 않은 사대부들은 벼슬길에 오르기 위하여 갓(만립)을 쓰고 북방 민족의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몽골 정복자들에 대한 순복의 표시로 삼았다. 강남이 평정된 초기, 몽골 조정은 문인 호장유(胡長孺, 1249-1323)를 수도로 불러들였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갓을 쓰고 갔다고 한다. 『농전여화(農田餘話)』에는 재미나는 일화가 있다.

趙文敏孟頫、胡石塘長孺，至元中有以名聞於上，被召入。見問文敏：“會甚麼？”奏曰：“做得文章，曉得琴書畫。”次問石塘，奏曰：“臣曉得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本事。”時所戴笠相偏欹，上曰：“頭上一個笠兒尚不端正，何以治國平天下！”竟不錄用。

야사의 이야기라서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갓을 쓰는 것이 원대 당시의 강남 지역에서 한 시기를 풍미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지순(至順) 연간 간행된 일용서적 『사림광기』에 이르기를, “갓은, 옛날에는 외국에서 생긴 것이나 오늘날에는 백성들이 모두 쓰고 다닌다”²⁵ 라고 하였다. 이미지 자료로 봤을 때에도 만립을 쓰는 것은 민족이나 사회적 신분의 제한이 없었다. 원의 문학가 우집(虞集, 1272-1348)은 그 전해져 내려오는 초상화(그림 8 참조)에서 머리에 검은 만립을 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원 말기의 소령에서는 장사성(張士誠)의 막부 문인을 풍자하기를 “까만 머리채 뺏뺏이 묶었고, 머리에는 네모꼴 모자 썼네(皂羅髻兒緊紮梢，頭戴方檐帽)”라고 하였다²⁶. 또한 복건성의 장락양씨 가족벽화(將樂楊氏家族壁畫)에 등장하는 마부 역시 같은 유형의 갓을 쓰고있다(그림 9 참조).



그림 8



그림 9



그림 10

24 宋濂, <北麓處士李府君墓碣>, 黃靈庚 교정본 『宋濂全集』 권 69, 人民文學出版社, 2014, p1647.

25 長谷眞逸, 『農田餘話』 권 2, 『四庫全書存目叢書』 子部 제 239 책, 제 p333-334.

26 『事林廣記』 後集 권 10, 『續修四庫全書』 제 1218 책, p373.

만립의 유행은 원 말기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심지어 황제마저도 그 유혹을 거부하지 못했다. 현존하는 원 황제들의 초상화 중에서 발립(鉢笠)을 제외하고 만립을 착용한 것들도 있다. 명나라 사람이 원의 주랑(周朗)의 『천마도』 속 원순제를 묘사한 그림을 보면, 원순제가 끝이 뾰족한 만립을 쓰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그림 10 참조). 만립이 유행했던 지역은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몽골 대군의 정복 활동과 더불어 아시아 각 지역으로까지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세기부터 고려는 전후로 요, 금과 국경을 마주하고 내왕이 잦았다. 비록 고려는 무력의 압박에 못이겨 부득이하게 두 북방민족 정권에 조공을 바치고 신하로 순복하였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후대 조선의 “소중화주의”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면서 중원 문명을 주동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초원 민족의 풍습이 침투되는 것은 가급적으로 피하려 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877-943)이 남긴 유명한 “훈요십조” 중의 한 조항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

我東方舊慕唐風，文物禮樂，悉尊其制……契丹是禽獸之國，風俗不同，
言語亦異，衣冠制度，慎勿效焉。

『고려사』에 기록된 이 대목의 진위 여부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 고려 문화계층의 “모화(慕華)” 의식이 내포되어 있음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고려 말의 문신 조준(趙浚, 1346-1405)은 고려 의관의 변천을 총괄하여 말하기를 “조상의 의관과 예악은 모두 당(唐)의 제도를 따랐으나 원대에 이르러서는 왕의 압력에 의해 중화의 것을 오랑캐의 것으로 바꾸었다”고 하였다²⁷. 『고려사』에 기록된 여복제도는 상당 부분 당과 송의 제도를 혼합한 것이었다. 북송 말기의 사신 서긍은 고려에서의 견문을 기록하면서 이르기를,

(高麗) 唐初稍服五采……逮我中朝，歲同信使，屢賜襲衣，則漸漬華風，被服寵休，翕然丕變，一遵我宋之制度焉，非徒解辮削衽而已也。²⁸

라고 하였다.

하지만 유가문화의 영향 하에서 발생한 고려의 이러한 “화이” 관념과 의관에서의 “모화” 정책은 원대에 이르러 철저한 변화를 겪게 된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에 대하여 아홉 차례에 이르는 치열한 저항전쟁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게 되어 몽골의 세계질서에 편입되기에 이른다. 비록 쿠빌라이가 고려는 관복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하였으나 고려 충렬왕(1274-1308 재위)은 몽골제국의 부마로서 철저한 귀순을 표명하기 위하여 직접 “머리채를 땅고 호복을 입었”을 뿐 아니라, 1278년에 조서를 내려 전국의 백성들이 몽골 복장을 입도록 명하였다.

27 瞿佑, 『歸田詩話』하권, 喬光輝, 『瞿佑全集校注』, 浙江古籍出版社, 2010, p473.

28 『高麗史』권 2 <太祖二>, 臺北文史哲出版社, 2012, 제 1책 p26.

令境內皆服上國衣冠，開剃。蒙古俗，剃頂至額，方其形，留發其中，謂之開剃。²⁹

명이 떨어지자 “나라의 재상에서부터 하층 관료에 이르기까지 머리를 깎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유생들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 고려가 어찌나 철저하게 복장의 몽골화를 실행하였던지 쿠빌라이마저도 듣고 놀랄 지경이었다고 한다.

(世祖)因問(高麗人)康守衡曰：“高麗服色何如？”對曰：“服韃靼衣帽。至迎詔賀節等時，以高麗服將事。”帝曰：“人謂朕禁高麗服，豈其然乎！汝國之禮，何遽廢哉！”³⁰

충렬왕 16 년 (1289), 고려의 유신 정가신(鄭可臣)이 머리채를 땅고 갓을 쓰고 원 세조의 면전에 섰는데 세조가 보기에도 이러한 기마 복장이 유생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아서 “갓을 벗으라고 명하였으며” “수재들은 머리를 땅을 필요가 없고 수건을 두르는 것이 합당하다” 고 하였다는 것이다³¹.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려에서의 만립의 유행을 막지는 못하였다. 고려말 공민왕, 우왕 시기, 만립(방립)은 심지어 관원(대언반주[代言班主] 이상은 전부 검은색 초방립을 착용) 들과 각 부서의 서리(흰색 방립 착용)들의 공식 관복이 되기에 이르렀다³².

몽골 정복자들은 만립을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로까지 가져갔다. 고창(高昌) 옛 성터에서 출토된 회흘문 각본 불본생(佛本生) 이야기 삼도에는 원본의 인도 인물들이 모두 만립을 쓰고 있고, 14 세기 초 일 칸국(伊利汗國) 역사학자 라시드(拉施特)가 편찬한 『사집(史集)』에 보면 만립을 쓴 몽골 군왕의 형상(그림 12 참조)이 나타난다. 원래 여진 복식이었던 만립은 몽골인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후 몽골 기병들의 발자취를 따라 아시아 각 지역에 전파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는 몽골의 정복 활동이 정권, 민족과 문화의 장벽을 허물어 버린 상징물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림 11



그림 12

29 趙浚, 『松堂集』 권 3, 『韓國文集叢刊』, 제 6 책 p425.

30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권 7, <冠服>.

31 『高麗史』 권 72 <輿服>, 제 2 책, p476.

32 『高麗史』 권 28 <忠烈王一>.

4. 장벽의 중축(重築): 만립의 소실과 동아시아 “화이” 관념의 변천

14세기 후반 원 제국의 멸망과 함께 서로 다른 민족 간의 자유로운 문화융합의 역사는 그 짧은 운명을 다하게 된다. 원 제국의 폐허 위에서 더욱 뚜렷해진 것은 서로 다른 정권 사이의 국경뿐만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민족 사이의 문화적, 심리적 경계선 또한 다시금 분명해지게 되었다. 새로 건립된 명 제국은 밖으로는 북원의 군사적 압력을, 안으로는 정권의 합법성 위기를 맞게 된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유가의 “화이지변” 기치를 재차 표방하는 것으로, 문화적으로는 “화하로 오랑캐를 되바꾸고”, “중국 선왕의 옛 것(제도)을 회복한다”고 선포하여 “몽골화 제거” 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이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급변 상황은 동아시아 세계에서 빠른 파급력을 갖게 된다.

홍무 원년의 호복 금지령에서 알 수 있듯이, 명이 새로 제정한 복식제도는 당의 제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의관을 바꾼다는 것은 “머리를 밀고 풀밭에서나 뛰어다니기 편한 낙후한 풍격을 버리고” “특히 당의 풍속을 존중하고 사모하는 것”이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민간의 풍속을 선도하여 “함께 옛 것을 회복하는 풍조를 이루고자 하였다”³³. 만립과 기타 금, 원의 북방 유목민족 복식과 머리 양식은 “원나라 오랑캐”의 말 잔등 위의 습관, “사치스럽고 거친” 풍속의 일부로 간주되어 금지되거나 혹은 일부 특수한 장소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이렇게 금하고 나서 만립은 명대의 이미지 자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특별히 지적할 것은, 일부 연구소에서 “명나라” 만립이라고 인용하고 있는 소수의 이미지는 자료의 연대를 잘못 판단한 것(『보녕사명대수륙화[寶寧寺明代水陸畫]』 등, 그림 13 참조)이 아니면 명대에 중간된 원나라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효미[李孝美]의 『묵보[墨譜]』 만력 중간본 등, 그림 14 참조)으로, 이러한 이미지들은 명대의 사회생활의 실상을 반영할 수 없으며 연구자들을 “그림으로 역사를 증명하는 함정”에 빠뜨리기 십상이다³⁴.



그림 13



그림 14

33 『高麗史』 권 105 <鄭可臣傳>.

34 『高麗史』 권 71 <輿服一>.

아래의 이야기는 호북금지령이 반포된 지 백여 년 후, 만립이 명나라 사람들에게 이미 상당히 낯선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홍치(弘治) 원년(1488), 조선의 관원인 최부(崔溥)가 풍랑에 떠밀려 중국의 절강 바닷가에 닿았는데 마침 상중이라 머리에 “심립(深笠, 즉 만립으로서 조선 시대에는 상복으로 발전되었음)”을 쓰고 있었고, 이 기이한 모습은 금방 중국인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桃渚所千戶陳華) 與一官人來看臣, 指臣笠曰: “此何帽子?” 臣曰: “此喪笠也。國俗皆廬墓三年, 不幸如我漂流, 或不得已有遠行者, 則不敢仰見天日, 以堅泣血之心, 所以有此深笠也”。

명나라 사람들은 최부가 쓰고 있던 챙이 깊고 얼굴을 많이 가리는 것에 대하여 호기심을 보였으며 그는 부득이하게 누차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백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만립은 중국 강남 지역에서 재차 유행하였으며 위로는 사대부로부터 아래로는 마부와 노복들에 이르기까지 널리 애용되었다. 이 사례는 원에서 명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만립이 명나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사라졌음을 말해준다.

몽골 제국이 붕괴된 후, 만립은 한반도에서도 역시 중국에서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였다. 고려 말에 대두된 국가 독립의식의 발전과 동시에 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고려 말 조선 초의 한반도에서도 역시 “호복” 금지운동이 일어났다. 명은 “복고”를 구호로 복식 개혁을 실시하였고 고려 유신들은 이를 “화하문명” 부흥의 표징으로 받아들였다. 고려는 명과 종번(宗藩) 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차례나 “대명 의관” 제도를 가져다 쓸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로써 “모화” 의사를 표출하였다. 동시에, 원의 복식을 철폐하고 명의 의관제도를 접수하는 것은 고려 내부에서도 “(고려) 조상의 강성함을 되찾는” 특수한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였다³⁵.

고려 공민왕 시기, 만립은 한 때 “대언반주” 이상의 고관들의 공식 관복으로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명의 제도를 따라 배워서 복식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만립은 “향리” 계층의 일상복으로 규정되었다³⁶. 조선 초기의 규정에 따르면, 향리는 한량 중에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관리들 중 향리만 고려식 복식을 유지하고 새 정권의 관복 제도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향리가 멸시의 대상이었음을 알게 한다. 명나라 초기에도 환관들에게는 몽골식 “일탑두(一塔頭)” 머리를 깎도록 하고 아전들에게는 깃털모자를 쓰도록 명하였는데 이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선 성종 3년(1472) 예조에서,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평안도 향리들도 『경국대전』에 따라 “흑죽방립(黑竹方笠)”을 쓸 것을 요구하였을 때, 평안도에서는 이를 강력히 거부하였다.

平安道江西縣吏康翰等上言啟: “本道諸邑鄉吏, 率以良民假屬, 故並著草笠, 其來已久, 不可依他道例著方笠, 請仍舊”。從之。³⁷

35 이 분야에 관한 내용으로는 줄고 『新天下之化: 明初禮俗改革研究』(復旦大學出版社, 2014)를 참조할 수 있다.

36 劉夏, 『劉尚質文續集』 권 4, 『續修四庫全書』, 제 1326 책, p155.

37 역사 연구 중 이미지 자료 사용 상의 주의점에 관하여서는, 繆哲, <以圖證史的陷井> (『讀書』 2005년 제 2기에 수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양민” 출신의 향리마저도 비천한 지위의 상징이었던 만립 착용을 거부하였으니 사대부들은 오죽하였으랴. 그리하여 사대부들은 최후의 경우처럼 상중이라 외출 시 상복을 입기가 불편할 때에 심첨만립을 쓰는 것으로 “하늘도 감히 쳐다보지 못하면서 피눈물 나는 마음을 다지는” 마음을 대변하였다. 더불어 조선에서 만립은 점차로 외출 시에 입는 임시 상복으로 변모해 갔다. 효종 때, 허적(許積)은 왕과 관복 제도에 대하여 논하면서 이르기를 “전에 (고려) 사대부들은 사각립을 썼는데 이는 오늘날 상중에 쓰는 방립이다”³⁸ 라고 하였다.

고 관의 관복에서 편의를 위한 상복에 이르기까지, 만립의 지위는 일락천장(一落千丈)으로 곤두박질쳤다. 뿐만 아니라 조선 선비들의 “소중화” 의식이 부단히 강화됨에 따라 만립은 상복으로서의 자격조차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정묘와 병자 호란을 거친 뒤, 학자들은 만립의 유래와 상복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정경세(鄭經世, 1563-1633)는 “평랑립(平凉笠)”으로 “금나라 오랑캐 복장”인 방립을 대체할지 여부에 대한 학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 상중 외출 시에도 상복을 입는 것이 마땅한 바, 간편을 도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³⁹. 이광정(李光庭, 1674-1756)의 의견은 비교적 모호하여 “방립이 비록 금의 오랑캐 복장이기는 하나 옛 유학들도 상중에 방립을 쓰고 출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서 “굵은 베옷과 새끼 띠 차림으로는 길을 다닐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행하는 조치라고 하였다⁴⁰.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경우는 견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方笠是金人之服，麗末宰相戴之，我朝中葉胥吏戴之，今則為喪人所著。其制尤為怪駭。東國喪服粗具禮制，而頭著虜笠，不可不改正者也。⁴¹

“금나라 오랑캐”로부터 전해진 만립은 민중의 일상생활에서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화이사상의 작용 하에 편의용 상복으로서의 지위마저도 도전과 반대를 받았다. 이는 원대에 상하를 막론하고 애용되면서 유행을 휩쓸었던 상황에 비해 볼 때 형편없이 추락되어버린 것이었다. 만립의 중국과 한반도에서의 유행, 쇠락과 소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인들 머릿 속의 화이관념의 모호, 대두와 강화에 이르는 흐름을 보여주는 풍향계이기도 하다.

5. 결론: 작은 모자와 커다란 역사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오랫동안 “와릉모”로 잘못 불리고, 전형적인 몽골 복식으로 여겨져 왔던 만립은 사실상 여진족에서 기원한 모자 양식이었음이 밝혀졌다. 비록 작은

38 崔溥, 『漂海錄』, 葛振家 校訂本, 線裝書局, 2002, p62.

39 고려에서 명나라 의관 제도를 접수하고 “호복”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 관하여서는, 졸작 <衣冠與認同: 明初朝鮮半島襲用‘大明衣冠’歷程初探>(『史林』2017년 제1기)을 참조할 수 있다.

40 조선총독부 중추원 간행본 『經國大典』 권 3 <禮典·儀章>, 1934, p231.

41 『成宗大王實錄』 권 21, 성종 3년 8월 정축일,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朝鮮王朝實錄』, 1968, 제8책, p680; 권 26, 성종 4년 정월 임인일, 『朝鮮王朝實錄』, 제9책, p2.

것에 불과하지만 그 유행의 변천사는 하나의 상징물과도 같아서, 12-14 세기 동아시아 여러 민족들의 정치 형세의 변화 및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화이”, “호한” 관념의 변천 과정을 직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북방 유목민족의 풍격이 농후한 만립은 금의 말기부터 이미 중원의 민중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하지만 송 왕실이 남방으로 천도한 뒤, 중원의 옛 지역은 남방 사대부들에게 문화적 타향으로 간주되었으며, 의관과 풍속 면에서 “화이지변” 의식을 강조하여 만립의 남쪽으로의 전파를 억제하였다. 고려는 요, 금과 변경이 맞닿아 있었으나 문화적으로는 “모화” 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유목민족의 복식을 멀리하였다. 13 세기 몽골인의 정복 활동은 동아시아 각 정권 사이의 지리적 변경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각 민족 사이의 문화적 장벽도 허물어 버렸다. 그리하여 만립은 몽골 기병의 발자취와 함께 아시아 각지로 널리 전파되었다. 화이관념의 약화와 더불어 풍조와 이익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북방 민족의 의관은 강남 지역에서 유행을 주름잡는 패션으로 부상하였다. 고려의 경우는 상하 모두가 급진적으로 “몽골화” 를 진행하는 방식으로서 “타타르 복식” 을 접수하였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사상적 배경 속에서 만립은 동아시아에서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몽골제국의 붕괴는 각 민족문화의 자유융합 시대의 종결을 의미한다. 날로 강화되는 화이사상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만립은 점차 민중들의 일상생활에서 사라져 역사 속의 먼 흔적으로 변해버렸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미지 자료의 연대를 판정하는 척도가 되었다 (그림 15, 16 참조). 작은 만립 하나가 몽골제국의 전후 정치와 문화의 거대한 변천을 대표하는 축소판 ‘사서’ 가 된 것이다.



그림 15



그림 16

〈그림자료의 설명〉

그림 1: 『打雙陸』. 元至順刊『事林廣記』 속집 권 6, 『續修四庫全書』 제 1218 책.

그림 2: 일본 復明洪武四年刊本『魁本對相四言雜字』. 『和刻本中國古逸書叢刊』 제 15 책.

그림 3: 『張卿子像』. 曾鯨 그림.

그림 4: 『女眞樂舞圖』. 『金代樂舞雜劇石刻的新發見』, 『文物』 1991 년 제 12 기.

그림 5: 大安 2 년 侯馬董圻墓의 벽돌 조각화. 『平陽金墓塋彫』 중에서 발췌.

그림 6: 『醉歸樂舞圖』 섬서 포성 동이촌 원나라 묘지 벽화 (至元 6 년)

『中國出土壁畫全集』 제 7 책.

그림 7: 王青墓출토 등만립. 『山西省大同市元代馮道眞王青墓清理簡報』, 『文物』 1962 년 제 10 기.

그림 8: 虞集像. 원나라 작가 미상 『名賢四像』, 『元畫全集』 제 4 권 제 5 책 중.

그림 9: 『人物輜輿圖』 (부분). 복건 將樂楊氏家族壁畫, 『中國出土壁畫全集』 제 10 책.

그림 10: 周朗 『天馬圖』 의 명나라 사람 모사본. 『故宮藏品大系·繪畫編』 제 5 책.

그림 11: 원나라 회화문 각본 佛本生 이야기 삽화 잔본.

그림 12: 『史集』 삽화 중의 몽골 군주.

그림 13: 『誤死針醫橫遭毒藥嚴寒衆』 (일부). 『寶寧寺明代水陸畫』 에서 발췌.

그림 14: 『和制』 . 만력 중간본 李孝美의 墨譜 삽화 중.

그림 15: 원제 『宋佚名百子圖』 (일부). 『宋畫全集』 제 6 권 제 2 책.

그림 16: 원제 『道子墨寶·地獄變相圖』 (일부). 『宋畫全集』 제 6 권 제 2 책.

지정토론

'심첨호모(深簷胡帽)' 연구 - 몽원(蒙元)시대를 풍미한 여진족 모자의 변천사

[질문자: 무카이 마사키, 답변자: 장 지아]

— 무카이 마사키

도시사대학의 무카이입니다. 매우 재미있는, 게다가 수준 높은 발표를 해 주셔서 크게 참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물건을 다루는 연구일 경우, 물건의 실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처럼 찾기가 힘듭니다. 도상(圖像)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나 문헌과 대조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 지아 선생님 발표에는 기존 연구의 오해를 바로잡는, 또는 쇄신하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러한 연구에 어떻게 착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로 참고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생각했습니다만, 예컨대 '복장이 수용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저항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인데, 북방, 중국의 북쪽에서는 몽골 모자가 수용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는 몽골이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아첨한다고 할까요, 맞추어 간다,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힘이 있다는 뜻이고, 패션으로 자연스럽게 수용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복장의 수용을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몽골 시대의 복장은, 모자도 그렇지만 여성복의 경우에도 허리 부분을 꼭 졸라매거나 합니다. 원래는 아마도 몽골 복장이라는 것은 말을 타기 위해, 소매나 허리를

묶어서 활동하기 편한 모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복도 남성복도 별반 변함없이 수용되었던 것일까요? 논문을 읽어보면 몽골 여성의 모자도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벽화에서 알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단순한 건지 모르지만, 남성이 몽골 복장을 수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꽤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성이 몽골 복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권력과는 별로 관계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흥미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 지아

북단대학의 장 지아입니다. 무카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해한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샛갓(笠)이라는 것이 어쩌서 북방지역에서 유행했는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진족이 화북을 점령했을 때 청(淸) 대와 마찬가지로 삭발하고 변복을 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즉 금(金)의 전기에 지배지역의 한족은 전원 여진족 머리 모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진족 복장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강제적인 문화정책, 위로부터 아래로의 정책입니다. 그에 비해 또 한 가지는 유연성이 있는 민족융합입니다. 금나라 후기에 와서 많은 여진족 사람들이 중원에 정주하게 되었고 민족 융합은 실로 여러 가지 풍속이

혼합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원 지역의 원대의 복식 문화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는 한족의 전통적인 것도 있지만 여진족 것도 있고 몽골족 것도 있었으며 그보다도 더 이문화적인 것도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방 민족의 복식이 원(元)에서 유행한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패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패션 조류에 따르는 것도 이유의 한 가지이겠지요. 또 그런 현상은 일종의 정치적인 투기자본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일찌감치 남쪽 지방이나 강남 지방의 한족 사람들이 몽골 민족 의상을 입음으로써 몽골의 지배에 복종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몽골의 머리모양이나 복식을 강제적으로 보급시키려 한 정책도 있었지만, 그 정책은 후에 철폐되었습니다. 남송을 정복했을 때 서민이 몽골인과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몽골의 복식문화를 받아들인 것은 초기에는 정치적 투자를 위한 것이고 후기에는 패션을 따르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여성이 샷갓(蔓笠)을 쓴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원의 한족 여성의 복장도 어느 정도 몽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 원의 한족 여성이 고고관(姑姑冠)이라고 하는 약간 변형된 모자를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몽골족 여성도 이런 모자를 쓰곤 합니다. 전통적인 한족 사람들이 보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아마 당시의 패션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 여성의 남편의 지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감사합니다.

전체토의

사회: 류 지에 (와세다대학)

논점정리: 조 광 (한국국사편찬위원회)

총괄: 미타니 히로시 (아토미학원여자대학)



류 지에 오늘 사회를 맡은 와세다대학의 류 지에 (劉傑)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총 열한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선 먼저 조광 선생님께서 이들 발표에 관한 논점 정리를 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또 이 포럼은 ‘국사들의 대화’이므로 그러한 관점에 입각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1. 논점 정리 -4개의 세션을 보고 나서

조 광 류 지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 국사편찬위원회의 조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참석하게 된 이 회의의 공식 명칭은 「제 2 차 일본, 중국, 한국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입니다. 원래는 「국사와 국사들의 대화」라고 하는 큰 주제 하에 진행된 회의입니다. 몽골의 침입과 13 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우리가 지난 이틀간 집중적으로 검토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몽골의 ‘몽골의

침입' 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글로벌화' 라고 하는 표현, 이 두 가지가 여기서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돌아해보면 몽골 제국은 아마 최초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성공한 세계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과 한국, 몽골 그리고 또 일본이 각각 어떠한 역사를 전개해 나갔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계화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합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로컬라이제이션의 일부분을 자극하고 추동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해 세계화가 일제히 진행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경계가 로컬라이제이션을 추구하게 된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할 때에는 로컬라이제이션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상호관계를 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얘기해 왔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실제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모두 열한 분의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4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몽골 임팩트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각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세계사적 시각에서 볼 때 이 몽골 임팩트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연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션의 경우에는 몽골 임팩트 그 자체가 단순한 정치적인, 아니면 군사적인 침입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기술적 영향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려는 시도의 세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세션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저항과 지배라고 하는 것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전개된 몽골 지배의 실상이 어떠했는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션은 음식문화와 의복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원래 외래 문화가 Acculturalization, 즉 '토착화' 되어 나간다고 할 때, 그것은 일반 민간의 생활문화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몽골 임팩트가 파스 몽골리카(몽골의 평화)로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활문화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중국 사회에서 몽골 모자가, 의복의 일종인 모자가 어떻게 변모되었는가 하는 점, 그리고 몽골의 음식문화가 고려에 어떻게 접목되었는가 하는 점을 얘기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략 이렇게 4 개의 세션에 걸쳐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이하에서는 각 개별 발표에 관해 그 주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윗카이치 야스히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몽골 임팩트를 강조해 주셨고 몽골 임팩트의 결과, 파스 몽골리카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가 하는 점을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의 문화적, 경제적 영향이라든지 정치적 충격 등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좀더 거시적 안목에서 고찰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 등 현지 조사를 거쳐 이와 같은 논문 작업을 해주신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초그트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아밀 아르군과 그가 후라산 등지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호구조사” 라고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초그트 선생님의 경우는 몽골식의 서아시아지역을 총괄하는 직책에 임명되어 영향력을 행사한 아르군과 그가 실시한 지배정책으로 가장 기초적인 호구조사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군에 대한 연구는 새롭게 천착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를 부과하고 지배를 관철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에 어떤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논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제 1 세션의 마지막 논문은 하시모토 유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몽골습래회사(繪詞)」를 해석한다」였습니다. 원래(역사학에서는) 그림을 사료로 활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20 세기 중반 이후 아날학파의 영향으로 사료의 범위가 극도로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림도 역사 해석에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몽골습래회사」의 종이 질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아니면 그림의 화풍 등을 분석해서, 즉 철저한 사료 비판을 바탕으로 해서 이 그림이 13, 14 세기를 거쳐 19 세기에 이르는 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는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이 철저한 사료 비판이 올바른 역사 이해를 이끌어 낸 것인데, 사료비판 내지는 그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매우 인상적인 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세션의 경우는 몽골 제국 시대 몽골인들의 명명(命名) 습관에 관한 고찰에 관해 에르둔바토르 선생님이 발표해주셨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일반 역사학자들에게 몽골어는 매우 생소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에르둔바토르 선생님의 경우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몽골의 작명 방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매우 친절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명방법에 대한 증명을 통해서 몽골과 타민족이 어떻게 융합되어 나갔는가 하는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발표는 무카이 마사키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몽골제국과 화약무기”입니다. 대중미디어와 문화재 등에서 몽골을 어떻게 파악했는가 라는 점에 주목하셨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연구 방법을 몽골사 연구에도 적용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 몽골의 이미지가 침략자에서 타민족으로 객관화되어 나갔으며 상호 문화교류의 가능성이라는 것도 이미지상으로는 개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 주신 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나 이미지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연구방법이 매우 독특하고 흥미로운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쉰 웨이귀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조선왕조가 편찬한 고려사에 나타난 원의 일본침공에 대한 서술”입니다. 동아시아 이해의 방향을 먼저 말씀해주셨는데요. 자국사, 타국사를 좌우에서 보완적으로 이해하고, 일국사적인 관점에서 자국사를 바라볼 때는 오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국사를 바라볼 경우에도 동아시아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조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려사 편찬과정이라든지 조선시대 사료분석에 개입되었을지도 모를 문제점까지도 지적해주신 매우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서, 김보광 선생님은 “일본원정을 둘러싼 고려 충렬왕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김보광 선생님은 충렬왕의 정치적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점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 2차 원정 때 몽골의 침략의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확보, 강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혀주셨습니다. 전쟁이나 외교, 아니면 모든 국제관계들이 단순히 어느 한쪽의 요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상호간의 협의와 상호간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을 밝혀준 논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 논문에서는 이명미 선생님이 “대몽 전쟁·강화 과정에서 고려 정권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검토해주셨습니다. 이명미 선생님께서는 몽골의 강화조건으로 국왕의 ‘친조(親朝)’라든가 인질에 관한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발표해주셨습니다. 인질이 몽골사회에서 어떠한 인적 관계를 형성하였고 역으로 고려의 정치에 그와 같은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밝혀주신 좋은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채령도르지 선생님은 “북원과 고려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우왕 시대의 관계, 특히 북원(北元)의 존재라고 하는 약 20여년 동안의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한 고려와 중국의 관계, 그리고 조선 왕조 건국의 배경까지 폭넓고 심도 있게, 매우 철저하게 분석을 하신 좋은 논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국제관계의 분석은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채령도르지 선생님은 이러한 접근을 시도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 4 세션에서는 한국에서 오신 조원 선생님이 “몽골 제국 음식 문화의 고려로의 유입과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특히 불교 국가인 고려의 전통에서 육식 문화가 어떻게 전파되고 정착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 그리고 음료 문화가 몽골을 통해서 고려에 어떠한 자극을 주었는가 하는 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아니 어쩌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관습을 증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설렁탕’을 먹게 될 겁니다. 이 설렁탕도 어찌 보면 몽골 음식인 ‘술렁’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렁탕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흔히 ‘선농단’(先農壇)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왕이 나눠준 음식이 ‘설렁탕’의 기원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유목민의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음식에서 간을 맞출 때에는 간장을 사용하는데 설렁탕만은 소금간을 합니다. 이건 유목민들의 관행이거든요. 그리고 ‘설렁’이란 말이나 ‘술렁’이란 말이나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몽골 음식의 흔적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문화의 영향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지아 선생님 논문 “『심첨호모(深簷胡帽)』 연구 - 몽원 시대 여진족 모자의 변천사”에서는 만립(幔笠)이라는 여진족 모자를 예로 들어서 몽골문화가 원대(元代)에 어떻게 정착되고 중국의 후대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이 만립이라는 모자는 조선의 굴건제복 양식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조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의복 문화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네 세션은 모두 다 ‘몽골 임팩트’와 ‘팍스 몽골리카’라고 하는 두 가지 상황에서 전개된 정치, 통치양식, 그리고 상호간의 교류와 문화 등을 폭넓게 구명한 것이었습니다. 실로 각국의 국사를 논하면서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관점에서 일국사적인 시각이 아니라 동아시아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풍부한 해석이 가능한지, 실례를 보여준 학술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에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연구자 선생님들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이 회의를 주관해주신 주최측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세 가지 문제제기

류 지에

조광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제 선생님들의 발표를 아주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체토론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토론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면 좋을지, 사회자로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실은 어젯밤 만찬에서 조광선생님께서 매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동존이(求同存異)’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역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조광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지, 통역에서 덧붙여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선생님께서 이 역사대화는 ‘구동존이’의 정신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동존이’란,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을 함께 추구하되 의견을 달리하는 점은 그대로 남겨 둔다’는 의미로, 매우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체토론이므로 ‘구동존이’라는 말을 한 글자만 바꿔서 ‘구동화이(求同話異)’로 했으면 합니다. ‘화’라는 글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이 ‘국사들의 대화’이므로 ‘대화의 화(話)’입니다. ‘구동화이(求同話異)’입니다. 또 한 가지 ‘화’는 녹는다·녹인다는 의미로 ‘화(化)’라는 글자입니다. 다른 것을 없애 나가자, 녹여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의 ‘화’입니다. ‘구동화이(求同話異)’ ‘구동화이(求同化異)’에 의해 오늘 오전 세션을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의견이 다른 점을 그대로 줄곧 존속시킨다·유보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일종의 응어리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봐서 서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역사, ‘국사들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금 조광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토론은 몽골제국의 임팩트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는 것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몽골제국의 임팩트를 우리가 냉정하게 각국의 국사의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것만으로 오래 전 몽골 시대의 사건을 진정한 의미의 역사로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지, 그것이 최대 이유인지 여부를 포함해서 지금부터 논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번 포럼의 대상은 아니지만, 근·현대 역사 속에서 일어난 다양한 일들에 관해 우리는 언제쯤이면 이렇게 냉정하게 대화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래 역사가들의 대화, 국사들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넘어 근·현대의 역사도 포함해서 이러한 자세로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가들이 취해야 할 당연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의가 언젠가는 가까운 장래에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제의 논의를 포함해서 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어제는 발표자 보고에 대한 질문이 중심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참가자 선생님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부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정도로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하다 보면 다소 장황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조금씩 논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몽골제국의 영향, 임팩트를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중국화’ 또는 ‘몽골화’ 등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몽골제국의 영향, 임팩트라고 하면 몽골제국 이래로 교역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후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이 지역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중국화의 일환으로 논의해 나갈 것인가, 이른바 조공시스템이나 책봉체제의 문제로 파악할 것인지, 그와 관련 되지만 가령 당·송 이래의 중국의 영향과 원 이래의 중국의 영향을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지 하는 것 등입니다. 당·송의 영향 위에 새로이 원의 영향이 보태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쇠신된 것인지 하는 문제이지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당·송 이래 아니면 그 네트워크 하에 형성된 영향에 관해 원 이후를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다지 큰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책봉 체제 또는 조공에 대한 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원 대에 와서 명의 책봉 체제의 리셋이라 할까, 재개, 그런 것과 원의 체제를 어떻게 관련 지으면 좋을까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를 심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지만, 몽골 제국의 지배의 역사를 ‘몽골사의 일부로서 중국이나 그 지역에 대한 통치’로 파악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사의 일부로서 몽골에 의한 통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국의 국사의 입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의 입장에서 본 몽골 제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본 몽골 제국은 어떻게 대화를 해야 좋을지 하는 점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크게 말하자면 이른바 몽골 임팩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가 처한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고려·조선의 입장입니다. 근대 이래, 지금도 밖에서 본 한반도의 문제에는 항상 ‘2개의 대국(大國) 사이에 낀 소국(小國)’이라는 시각, 문제가 있습니다. 몽골 시대는 ‘원과 명 사이에 있는 조선’, 근대에 와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조선’, 언제나 그러한 수동적 입장에 있는 한반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와 같은 한반도의 위상은 과연 이대로 좋은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이나 논의가 있을 수 있는지를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료의 문제’입니다. 이번 발표 가운데 얼마간 자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하시모토 선생님의 두루마리그림(繪卷)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자료의 신빙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료 해석 방법, 신빙성에 대한 철저한 해석, 자료를 활용 내지 응용하는 역사가로서의 상상력 사이에 어떤 균형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인데, 『고려사』에 바탕을 둔 역사 기술의 방법으로, 그것만을 근거로 해서 논의를 해도 될까 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쑨 웨이귀 선생님께서 국외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의 의미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자료에 대한 겸허한 자세, 역사 연구에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각국의 국사의 입장에서 상대국의 자료를 어떻게 취급하면 좋을까, 혹은 어떠한 사료의 활용방안이

요구되는가 하는 것도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발표나 질문을 들으면서 제 나름의 문제 관심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로 삼아서 논의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물론 이에 관계없이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들으신 후 느낀 감상을 포함해서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군가 말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럼, 어제도 조공·책봉 체제에 관해 약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부탁 드립니다.

3. 조공책봉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야마우치 신지

고베(神戸)여자대학의 야마우치(山内晋次)입니다. 저는 책봉체제라는 것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그것은 모델로서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30 여년 전에 동아시아사와 그것을 지탱하는 책봉체제라고 하는 논의는 니시지마(西嶋定生)라는 유명한 선생님이 제창하셨습니다만, 니시지마 선생님의 동아시아 이해와 그것을 지탱하는 책봉체제론이라는 것은 아마 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가설을 전제로 언제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저는 논문에서 비판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봉 체제라는 말을 일체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 틀렸나 하면, 제 논문 혹은 지금까지 과거 일본 학계의 니시지마 비판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본래 책봉이라는 것이 중화 왕조의 주변 지역에 대한 대응으로,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점입니다. 주변 민족·국가에 대한 중화 왕조의 대응, 꽤 폭넓은 바リエ이션, 요컨대 스펙터클 중의 한 가지 특징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이른바 동아시아 혹은 제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부 유라시아의 국제적인 상황이 결정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본래 니시지마 선생님이 동아시아 세계론 또는 그 기반인 책봉체제론이라는 것을 제창하신 실증적인 근거라는 것도 남북조의 극히 짧은 한 시기, 왜국, 한반도의 국가들, 중화 왕조 간의 정사(正史), 특히 중국의 정사를 바탕으로 한 이해, 그것이 무언가 중국 2천년의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그릇된 이미지가, 특히 일본사가(日本史家), 나아가 동양사 연구자들 중에서도 일부에 무언가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책봉이라고 하는 사실은 역대 왕조를 통해 존재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생각은 일단 폐기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밥상을 뒤집는 것 같지만,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견도 있고 국내 학계로부터 비판도 받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키아이치 야스히로

쇼와(昭和)여자대학의 유키아이치(四日市康博)입니다. 확실히 야마우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봉 체제만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물론 맞지 않는다고 할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이념은 존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고한 시스템이 아니라, 보다 단순화해서 군주와 신하의 관계, 군신 관계라는 것이 책봉 체제의 핵심이지만, 그것은 원래 국외가 아니라 국내의 군신지배체제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것이 국외로 연장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나 야마우치 선생님처럼 교역이나 국제 관계로 세계를 볼 경우에는 거기에 바탕을 두면

아무래도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외교의 경우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군신 관계라고 하는 명분을 무시하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명분에서 시작해서 그 후에 실제적인 관계라는 것이 나타나므로 외교상, 책봉적인 이념이 존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각 왕조에 따라 다르고 왕조 중에서도 군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군주 가운데서도 명의 광무제(光武帝) 등은 전기와 후기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고정된 모델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념으로 그와 같은 관계가 형식적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는 측면은 역시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세계의 모델인 것처럼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몽골의 침입의 경우도 외교가 우선 있었습니다. 갑자기 공격해 온 것이 아닙니다. 외교가 있어서 이를 수용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결렬되어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도 있는 법이므로 그런 경우에, 책봉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요소로서 책봉과 조공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일본 학계에서 동양사라 할까, 일본사에서는 책봉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므로 왜곡된 모델로 이해되어 온 경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마우치 신지

그렇다면 책봉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이군요. 중국의 정사를 보면 용어로서 책봉이 등장하는 것은 명대(明代) 정도입니다. 그 이전의 수·당(隋唐) 시대에는 책봉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오키카치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시대라든가, 왕조의 주체라든가, 그에 따른 군신 관계를 어떤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예컨대 수·당시대와 명대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식으로 비교하면서 연구를 진행한다면 반드시 책봉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용어를 좀더 모색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키카치 야스히로

저도 책봉에 대해 자세히 고찰한 것은 아니지만, ‘책(冊)’과 ‘봉(封)’의 두 단어로 구성된 개념인데, 어느 쪽도 역사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책봉으로 모든 것을 나타낼 수는 없다는 의견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통 이념은 무언가의 단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특별히 책봉이 아닌 단어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좀 알레르기가 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확실히 지금껏 일본은 책봉만 고집해 온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이념이 존재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그것까지 전부 부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야마우치 선생님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류 지에

지금까지는 일본인 연구자들끼리 국사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국 선생님들의 견해도 꼭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거 자오광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 자오광

복단(復旦)대학의 거 자오광(葛兆光)입니다. 조공 또는 책봉 체제에 관해서, 우선 분명히 존재한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실체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중국 주변 국가의 정권의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황제로부터

인수(印綬)를 받고 책봉을 받음으로써 실현되는 것입니다. 둘째, 중국의 입법,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몇 년마다 공물을 바치는 제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책봉체제든 조공체제든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공이라는 시스템 속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조공체제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은 일부 국가는 책봉을 받아들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중화제도를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존중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 책봉을 받는 국가의 숫자도 변합니다. 예컨대 청(淸)대에 오면 실제로 책봉·조공제도를 받아들인 국가는 불과 6 개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로부터 청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그 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니다. 일본은 아시카가 요시미치(足利義)·요시모치(義持)·요시노리(義教) 시대에 조공을 한 적이 있지만, 불과 세 번뿐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조공·책봉체제는 우선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변화를 거쳤습니다. 다만 그것은 많은 나라를 포함하는 방대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존중한다면, 이러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쑨 웨이귀

남개(南開)대학의 쑨 웨이귀(孫衛國)입니다. 저는 거 자오광 선생님과 동갑입니다.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미국인 학자 패어뱅크(中國名:費正淸)는 중국의『천하지행(天下之行)』이라는 논문집에서 중국의 책봉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천하 질서 또는 천하의 체제,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세계질서를 세 가지 레벨로 나누었습니다. 레벨 1은 '화화지구'(華化地區, Sinic Zone)입니다. 주로 한반도나 류큐(琉球), 안남(安南)으로 구성되며 일본은 때에 따라 레벨 1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레벨 2는 '내아지구'(內亞地區, Inner Asian Zone), 즉 아시아 내륙지구, 예컨대 북방 유목민족이나 동북 지방의 소수민족 등 중국과 군사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문화교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습니니다. 한편 명의상으로는 역시 책봉체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레벨 3은 '외권지구'(外圈地區, Outer Zone)입니다.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국가들은 명의상으로는 군사상으로는 중국과 책봉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책봉'이라 하더라도 주로 레벨 1 지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거 자오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의 전형적인 국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윗카이치 야스히로

지금 쑨 웨이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대 이래의 책봉체제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아마 야마우치 선생님은 한 시대의 책봉체제를 통시적으로 보는 것은 이상하다, 폐해가 있다고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쑨 웨이귀

그렇지요. 역시 중국의 책봉체제, 또는 천하 질서는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안과 밖'의 세계가 있습니다. 최초에는 서주(西周)시대에 시작되었으며 서주에는 '분봉제(分封制)'라는 제도가 있어서 분봉의 순서는 내번(內藩)에서 외번(外藩)으로, 즉 '안과 밖'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책봉체제는 서주로부터 명·청 시대에 걸쳐 존재했습니다.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예로 들어 여기서 진인각(陳寅恪)의 논점을 빌자면,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에 관해, 중국은 당대 이전에 한반도를 군현화하는, 즉 중국

지배하에 둔다고 하는 구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07년, 108년 무렵에 한 무제(武帝)가 한반도에 '4군'을 설치한 이래 전쟁이 계속되었고, 수와 당에 이르러서도 한반도를 자국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대 이래로 '신라'가 출현하면서부터 당시의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책봉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몽골이 한반도를 정복하였고 청이 한반도를 정복하였으나 한반도를 군현화하려는 구상은 사라지고 번부(藩部)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보건대 책봉 체제와 관련해서 한반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히 시대를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류 지에 야마우치 선생님, 어떻습니까?

야마우치 신파 실은 책봉체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시대를 통틀어 아마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뿐이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이견도 있겠지만요. 그러므로 확실히 한반도의 왕조와 중국 왕조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적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책봉·조공이라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시스템이라든가 전체의 천하질서로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약간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윗카이치 야스히로 역시 야마우치 선생님에게는 오해가 있다고 할까요, 오히려 책봉을 강고한 것이나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책봉은 기본적으로 영토와 서면(書面)과 왕호(王号)와 인수(印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몽골 시대의 이란, 즉 이르칸 왕조의 고문서를 이란 박물관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자 도장(朱印)이 찍힌 문서가 얼마간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원으로부터 이르칸 왕조가 왕인(王印)과 관인(官印)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원조가, 체제에 기초하여, 왕의 네모난 도장과 관리의 도장(특히 재상의 도장)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는 책봉은 분명 이란에 대해서도 실시된 것입니다. 실상은 어떤가 하면, 실은 전혀 다르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념적인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일단 책봉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야마우치 선생님은 아마 실효적인 관계로서 책봉관계는 한반도 이외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일단 지배라 할까, 관계를 맺은 국가와, 의례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고 엄숙하게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류 지에 됐습니까? 그럼, 서정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서 정파 복단(復旦)대학의 서정과(徐靜波)입니다. 책봉이나 조공체제에 관해 기본적으로 저는 문외한이지만, 방금의 거 자오광 선생님 의견에 전폭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첨부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거 자오광 선생님은 무로마치(室町)시대의 한 시기에만 '일본국왕'이라는 칭호가 있었고 그 외에는 일본은 거의 조공이나 책봉 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열도가 대략 통일되기

전에 즉 야마토 (大和) 정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미 일본의 일부가 중국 왕조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컨대 중국의 『후한서 (後漢書)』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는 없었던 시기입니다만, 중국의 후한시대, 57 년의 한의 광무제 때 왜 (倭)로부터 중국에 사자를 파견하여 무언가 조공의 행위가 있었고 그때 금인 (金印)을 받았습니다. ‘한 (漢)의 속국 (奴) 왜의 국왕’ ‘한’의 범위 내의 ‘왜의 국왕’이라는 금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 금인이 1784년 후쿠오카에 있는 시가노시마 (志賀島)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 밖에 남북조시대, 남조의 송대, 일본 문헌에는 ‘왜 5 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때 이미 몇 차례나 송에 조공을 바치고 있고 송으로부터 ‘정夷대장군 (征夷大將軍)’이라는 책봉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체로 5세기 무렵까지 계속되었는데, 607년 쇼토쿠 (聖德) 태자 때에 중국 수 나라에 사신 (遣隋使)을 파견하였고 그때부터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즉 책봉체제, 조공체제로부터 벗어났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 지에 감사합니다. 미타니 선생님 부탁 드립니다.

미타니 히로시 아토미 (跡見) 학원여자대학의 미타니 (三谷博)입니다. 장소나 시대가 약간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야기를 고려로 되돌리겠습니다. 이명미 선생님 발표에 대해 쉰 웨이귀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논의와 관계가 깊은 화이 (華夷) 관념에 대한 것입니다.

대체로 조선왕조에서는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 청조의 황제를 일종의 ‘오랑개 (夷)’로 보고 있었습니다. 화이 (華夷)의 이 (夷)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고려시대는 어쨌나, 고려인들은 중국 왕조를 오랑개 (夷)로 취급했는가, 중화 (華)로 취급했는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 특히 고려사를 전공하신 선생님께 논평을 부탁 드립니다.

류 지에 그럼 여기까지는 일본의 입장에서 혹은 중국 연구자로부터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국 연구자들께서도 미타니 선생님 논평을 포함해서, 무언가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장 지아 선생님부터 부탁 드립니다.

장 지아 복단 (復旦) 대학의 장 지아입니다. 천학이지만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려 전기에는 문화적인 정책이나 이상으로서는 역시 중화 왕조로부터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저는 논문에서 태조 왕건의 ‘훈요 10 조 (訓要 10 條)’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훈요 10 조’가 태조가 남긴 것이 아니라는, 그 신빙성을 의심하는 학자도 있지만, 고려사에 기록된 이상, 어느 정도 당시 고려 상층부의 문화적 태도나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고려는 중화의 유교사상을 깊이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이른바 ‘화이의 변 (華夷의 弁)’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상은 몽골 침략에 의해 붕괴되었습니다. 몽골의 상하질서 속에서 고려인은 ‘한인 (漢人)’과 동렬에 있었습니다. 중국 북방의 한족이나 기타 이민 민족 등과 같은 레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원의 후기 무렵인가, 매우 중요한 문헌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원과 고려가 통혼관계를 맺고 거기서, 고려의 어느 대신이 원의 황제에게 우리 고려인의 신분을 제 3등급의

‘한인(漢人)’ 으로부터 ‘색목인(色目人)’ 으로 한 등급 상향시켜줄 수 없는가라는 상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서 당시의 고려인은 ‘한인’ 이라고 하는 신분에 자부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한 등급 위의 ‘색목인’ 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고려의 ‘화이 관념’ 이 다시 살아난 것은 명나라 시대였습니다. 문화 보수주의를 채택한 명은 이른바 ‘용하변이(用夏變夷, 즉 중국의 풍속과 문화로 오랑캐의 풍속을 변화시킨다)’ 를 대의명분으로 삼아 몽골 문화를 크게 배제했습니다. 고려도 정국 변화에 따라 명의 흥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건국 후 그 자신의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명나라가 내건 대의명분을 따랐습니다. 조선 초기를 검토해 보면 사회문화 영역에서 명에게 배우고 명을 모방하려 한 재미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사·고려사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류 지에 이명미 선생님 어쨌습니까?

이 명미 서울대학교의 이명미입니다. 방금 두 분 선생님 질문과 관련해서, 우선 고려인이 중국의 한인과 같은 등급 혹은 한인과 색목인 사이의 등급에 속하며, 더 높은 지위를 요구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의 간섭기, 몽골 제국기에는 인민을 몽골인, 색목인, 한인(漢人), 남인(南人)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차별했다고 하는, 이른바 ‘4 계급론’ 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이러한 구분이 딱히 ‘차별’ 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계급이 갖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배종족으로서의 몽골인에 대한 우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러한 ‘구분’ 은 종족간 차별을 위해 설계된 ‘서열적 성격’ 을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법과 관습을 달리하는 집단을 구별하고 각각의 고유한 법 관습에 기초하여 법률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몽골 제국 내의 고려인의 처우문제도 이러한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인은 한인이나 색목인과 같은 등급이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문화적인 유사성이나 지리적인 근접성에서 한인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유형지를 설정하는 문제에서는 형별이기 때문에 원 거주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추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색목인과 같이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원의 간섭기 후반에, 유명한 기 황후가 등장한 후로, 고려 측으로부터 고려인을 ‘색목인’ 처럼 취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종래의 ‘4 계급론’ 의 이해에 따라 몽골 제국 내의 ‘고려인’ 의 지위를 상승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4 종족의 구분을 문화 법제적인 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명하는 근년의 이해에 따르면, 이는 특별히 지위 상승의 요구라기보다는 특정 사안에 관해(현재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한법(漢法)’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색목인과 동일하게 ‘고려’ 를 취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반도의 국가가 중국 왕조와 맺은 책봉·조공관계의 내용, 또는 고려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이는 몽골과의 관계를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공간에서

고려는 몽골 이전에도 기본적으로는 ‘이(夷)’로서의 입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국가제도에서는 격식 면에서 ‘이(夷)’의 제도와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를 고려시대사 연구자는 몽골과의 관계 이전의 고려의 제도에 대해 ‘황제국 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원은 중국의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당연한 것이지만 ‘황제국 제도’인 당과 송의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고려인은 우리는 ‘이(夷)’와 다름 없으므로 ‘이(夷)’의 제도로 바꾸어 사용해야 된다는 하는 그런 인식은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고려전기의 ‘황제국 제도’는, 고려인이 스스로를 ‘이(夷)’로서 인식하고 있지 않던 시기에, 중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몽골과 관계를 맺게 된 후에 크게 변화를 보입니다. 몽골과의 관계를 통해 고려의 제도는 확실히 ‘제후국 제도’로 변하게 되고, 거기에 고려인들이 스스로를 분명하게 ‘이(夷)’라고 인식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지극히 중국적인 화이관념의 강화는 지극히 몽골적인 요소를 배경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적인 관념으로 시작된 책봉이나 조공이라고 하는 것이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적용된 것은 오히려 몽골적인 관계에 의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려에 국한되지 않고, 몽골제국 이전의 중국 왕조는 표면적으로는 책봉을 하거나 조공을 받았지만 그 국가들의 내정에 관해서는 별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미약해서’ 개입할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잘 알지 못해서’ 개입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몽골제국이 등장한 후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몽골과의 관계에서는 매우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왕실 간의 통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그렇고, 조원 선생님이 연구한 다루가치 파견도 그 일환이지만, 인적 교류가 국가 차원 또는 개인 차원에서 빈번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몽골의 관료나 개인이 장기간 고려에 체재하게 되는 (또는 반대로 고려인이 장기간 몽골에 체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원이 고려 내부의 사정에 관해 잘 알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몽골은 세조 쿠빌라이 이래 한법(漢法)을 도입하여 자신들의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원이 고려의 ‘황제국 제도’를 ‘제후국 제도’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막연히 제 생각이지만, 기존의 한 문화나 중국의 제도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제도를 재편하는 것과, 전혀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몽골인이 그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제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도입할 때는 종래의 관행을 어느 정도 답습하지만, 몽골과 같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중국의 제도나 책봉·조공 등 타국과의 관계를 적용시킬 때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형태로 도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려와 몽골의 관계에서, 중국 전래의 화이의식과 책봉·조공이라고 하는 것이 몽골 이전보다 더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거기에는 통혼 등의 인적 교류나 몽골적인 관계가 한층 강하게 작용했다고 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단순한 책봉·조공 관계의 면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타니 히로시

한번 더 질문을 해도 될까요? 궁금한 것은 몽골 이전의 고려에 관한 것입니다. 즉

중국이 둘로 나누어져 있었을 때 어느 쪽에 조공을 했나 하는 것과 어느 쪽을 ‘화(華)’로, 또 어느 쪽을 ‘이(夷)’로 간주했나 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홍성민 와세다대학의 홍성민입니다. 제 전공이 10세기, 12세기의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미타니 선생님께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미타니 선생님은 왜 조선이 청에 대해 저항하듯이 고려의 유학자들이 화이관념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는 성리학적인 명분론이 굉장히 강한 시대였다는 점입니다. 고려는 유학을 수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자학적인 관념의 유학이 아니었으므로 이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천하관은 대체적으로 세가지 천하관이 있는데, 한가지는 중국 중심의 천하관, 또 한가지는 해동천하관,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형세론적 천하관입니다.

중국중심의 천하관은 당이나 송을 중심에 두고 고려를 주변에 두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해동천하관은 중국 이외의 바다 동쪽에 고려를 중심으로 하는 천하가 있다는 천하관입니다. 세 번째 형세론적 천하관은 중국이든 북방 이민족이든 상관없이 강한 나라를 늘 따른다고 하는 움직임이 형세론적인 천하관입니다.

이러한 것이 고려 전기에 관료들 사이에서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관료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치외교적 현안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제의 현상, 역사적인 현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자오관 조공체제에 관해서 첫째로 주의할 점은 조공체제·조공관념의 다중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방금 논의한 고려에 대해 보면, 실은 고려는 건국 이래 오랫동안 거란(契丹)·요(遼)에 대해 조공을 했고 거란(契丹)·요(遼)가 종주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 1100년 무렵이 되면 고려는 거란·요와 북송 양쪽에 동시에 조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류큐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 조공을 하는 동시에 중국에도 조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공은 다중적인 메커니즘이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조공에도 허와 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필요나 전략적 고려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베트남 남쪽에 있는 참파 왕국의 중국에 대한 조공은 안남에 대한 전략과 관계가 있습니다. 조공을 한 것은 중국이 직접적으로 안남을 위협하고 참파 왕국을 도와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의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満) 시대에 어쩌서 중국의 조공시스템에 편입되려고 했는가 하면 경제적 필요와 관련해서, 무역을 전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공체제를 연구할 경우, 역시 일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 다중성을 중시할 것, 그리고 허와 실 양쪽 측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나 전략, 또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기로 하지요. 자바섬과 술루 왕국(현재의 필리핀)이 왜 조공시스템에 편입되었나 하면, 합법성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역시 무역에서 장점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공체제’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정치적인 것, 또는 하마시타(濱下武志)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을 위한 것만으로 보는 것은 역시 일방적이고 단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원 한양대학교의 조원입니다. 조공·책봉과 관련해서 저도 약간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윗카이치 선생님 말씀대로 사료에 분명히 나와 있고 몽골에서도 그러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란을 주는 것 같은데, 몽골제국이 조공·책봉 시스템을 실제로 채용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몽골의 대칸(大汗)이라든가 지배층이 조공이나 책봉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는 것 또한 별개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중화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거기에 어떤 함의가 있는가 하는 것, 거 자오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가령 원대(元代)에도 쿠빌라이가 재상(宰相)제도, 재상이라든가 중서성(中書省)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그런 재상이라는 것이 필도치(必闡赤), 즉 문사(文士)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비체치(Bitsechi) 즉 중화왕조의 그것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문신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처우는 문서 행정을 중시하지 않았던 배경하에서는 실무를 처리하는 관료에 불과한 존재들이었다는 점으로 봐도, ‘조공’, ‘책봉’이라는 용어를 사용은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용했는가 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윗카이치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조공이라는 용어, 또 책봉이라는 용어는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것을 몽골인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용했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수단으로, 실상은 무역을 위해, 목적을 위한 수사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류 지에 감사합니다. 그럼 쑨 웨이귀 선생님 부탁 드립니다.

쑨 웨이귀 방금 거 자오광 선생님 말씀에 완전히 동감입니다. 그리고 거 자오광 선생님 관점의 하나를 빌리고 싶습니다. 역사문제를 연구할 때는 역사, 정치, 문화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 동일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공체제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왕조는 명대와 청대에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전적으로 동일합니다만, 패어뱅크도 이것을 동일하게 전형적인 조공 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덴티티·동일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크게 달라집니다. 한반도는 정치, 사상, 문화의 각 방면에서 명을 인정하고 있지만, 청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조공을 자랑이 아니라 수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조선의 국왕이 사망하면 반드시 중국 황제에게서 받은 시호(廟號)를 종묘 안에 있는 비석에 새깁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비문을 새겼지만 청나라 시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방금 미타니 선생님이 말씀하신 ‘화이관’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고려의 아이덴티티와 화이관에 관해 방금 이명미 선생님, 장 지아 선생님 말씀도 있었지만, 고려인은 제 3 등급의 ‘한인’에서 제 2 등급의 ‘색목인’으로 상향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아이덴티티입니다. 문화적 아이덴티티로 말하자면 고려왕조는 송나라만을 인정합니다. 고려는 동시에 요, 금, 송에게 조공을 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 인정한 것은 송나라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고려 국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판경(汴京)에 가서 송나라 사람이 되고 싶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형적인 예는 단군신화의 출현입니다. 『삼국유사』에

처음 등장하는 전설로, 독립·자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나라의 번(藩)이 되었던 시기에 해당하므로 문화적으로는 분리성이 높고 동일성이 없는 것입니다.

류 지에 지금까지 책봉체제나 조공체제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몽골의 입장에서 나오는 의견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언가 보충할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라도 좋으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몽골 제국’ 과 ‘원조(元朝)’

체랭도르지 몽골과학원의 체랭도르지입니다. 저는 조공·책봉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회자께서 언급하신 대로 몽골 역사학자들의 입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논란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몽골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조의 역사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딜레마 중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골 제국이나 원이 몽골 역사인가 아니면 중국사인가,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몽골 역사학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원이라고 하는 왕조는, 국가는 몽골이고 몽골 역사에 속한다. 물론 원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계 제국이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역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원을 자기 나라, 자신들의 조상이 세운 나라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사의 입장에서 원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사실은 원대(元代)에 중국은 몽골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몽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몽골의 지배기로 설명하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물론 원의 국가 제도에는 중국적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당시 그러한 전통 시대에, 이웃 국가들이 서로 교류하며 서로의 요소들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단지 국가제도의 일부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금 원대를 중국이라든가 한족이라고 말했지만, 이 시대는 몽골의 지배기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됩니다. 이것은 몽골 역사학계의 원사(元史)에 대한 입장이고 또 저 자신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 지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문제제기에서 약간 언급한, ‘몽골제국의 역사는 몽골사의 일부로서 중국에 대한 통치의 역사로 파악할 것인가’, ‘중국사의 일부로서 몽골의 통치에 의한 시대로 파악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중국에서 오신 연구자 여러분들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견을 듣기 전에 우선 제 3자의 입장, 일본 연구자 여러분으로부터 지금의 논의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가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카이 마사키 도시샤대학의 무카이(向正樹)입니다. 지금 문제에 관해서는 줄곧 이 회의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을 어떻게 부를까’ 하는

문제입니다. 종래에 일본에서는 원조(元朝)라고 하는, 중국 왕조의 무슨 조, 무슨 조 가운데 원조라고 하는 호칭이 꽤 오랫동안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몽골 제국 전체 중에서, 쿠빌라이와 그 자손이 지배하는 중국 및 중앙아시아의 일부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한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대원(大元) 울루스’라는 단어를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 선생님 같은 분들이 사용하기 시작해서 꽤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이라는 것은 쿠빌라이의 의도, 또는 당시의 인식으로는 몽골제국 전체의 이름이 대원이었으므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원, 쿠빌라이가 지배하는 영역을 가리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자신도 ‘원조(元朝)’라고 쓸 때는 중국왕조의 일부라고 하는 측면이 강해지곤 합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 저는 몽골 통치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고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좀 더 중시하고 싶은 입장이므로, ‘원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이번에 줄곧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실은 원조는 대칸(大汗) 울루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하나의 재미있는 호칭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또 조원 선생님 논문에서는 대원 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한국에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지, 별로 쓰지 않는 용어인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조원

방금 무카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원울루스, 대원을 쿠빌라이가 ‘예케몽고울루스’라는 몽골제국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관한 한국 학자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조(元朝)라는 표현, 대원(大元)에 대한 혼동은 있지만, 그 논문이 발표되고 난 후로는 원조라고 하는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대칸울루스라든가, 쿠빌라이가 다스리는 이 중원 지역을 대칸울루스라고 한다든가, 어떤 학자가 대원(大元)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도 본인은 그것을 기존의 원조를 대신해서 중국지역, 대칸울루스의 의미로 사용한다고 미리 밝혀 둔다든가, 아직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그런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몽골인들의 시각에서, 통치집단들이 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제국 연구를 하려는 경향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에르둔바토르

내몽골대학의 에르둔바토르입니다. 조공체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 전공인 몽골 제국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징기스칸이 건국한 이래 그 자손, 후계자와 함께 50여년에 걸친 정복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칙령 중에는 천하를 정복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모든 나라나 민족에 대해 자신의 지배하에 복속되지 않는 한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는, 철저하게 정복당하지 않는 한 전쟁을 계속한다고 하는 외교정책을 펼쳤습니다. 예컨대 징기스칸 시대부터 고려에 대해 30년간에 걸친 정복전쟁을 전개했습니다. 무려 30년입니다. 전쟁을 그만두는 조건이 무엇이었나 하면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고려의 왕 또는 왕의 아들이 몸소 몽골 제국 황제의 처소에 알현하러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원사(元史)』의 기록에 의하면 징기스칸은 금(金)이나 서하(西夏), 남송, 대리(大理), 티벳 등 40여개국을 정복했다고 하는데, 그런

몽골제국에 대해 조공을 할지 말지는 고려라는 국가의 존망 상황과 밀접히 관련된 극히 중요한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고려는 매우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30년간 인내한 끝에 조공 체제에 편입되어 명분상으로는 통혼 관계를 맺은 국가로, 독립성이 꽤 위협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몽골제국에 의해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고 세계 각국과 교류를 했습니다. 몽골·원(元) 시대는 고려 후세 백 년의 문학이나 예술, 특히 한문학과 철학의 발전에 다대한 영향을 미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몽골 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원조의 지배가 끝나고 16 세기에 또 한 사람의 징기스칸의 후계자, 아르탄칸이라는 사람이 현재의 내몽골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명과 조공 관계를 맺었습니다. 명조의 정치이념이 실현되고 몽골 지역에 평화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르탄칸은 어떤 인물이나 하면 쿠빌라이의 화신이라고 불린, 다른 몽골 황제를 안중에 두지 않는 인물입니다. 당시 현재의 티베트이나 청해성(青海省), 신강(新疆) 등의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켜 정복했습니다. 명조 측은 아르탄에 대해 자신의 한 국왕, 한 신하라고 간주했습니다. 그에 대해 몽골 측은 전쟁을 계속했고 아르탄칸도 그렇지만, 천 년에 이르는 전쟁의 역사를 계속했습니다. 다만, 북방 민족은 모두가 전쟁을 좋아하고 난폭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원인은 주로 경제와 기후에 있었습니다. 몽골은 남쪽 방향으로, 물론 서쪽으로도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지만, 주로 남방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남쪽은 기후적으로 살기 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몽골로서는 경제이익, 경제교류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공체제 시스템에서는 평화를 수호하는 동시에 경제교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공체제는 일종의 국제적 시스템이라는 식으로 이해해주었으면 합니다. 어느 쪽이나 하면 승자인가 패자인가, 영웅인가 약자인가를 결정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 지아

두 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약간 단도직입적이지만, 개인적으로 원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중국이란 무엇인가, 한족만의 중국인가, 중국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 지배자가 한족이 아니면 그것은 중국의 역사가 아닌가 등, 여러 가지로 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청의 지배자는 한족이 아니므로 청나라의 역사는 중국 역사로 보서는 안 되지 않나요? 또 한반도를 예로 들면, 일본 통치 시대의 조선, 그 50년 가까운 역사는 한국 역사가 아닌가요? 그에 대해 먼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학자도, 몽골의 학자도, 물론 지금은 두 개의 다른 국가이지만, 몽골·원 시대의 역사를 양국 공동의 역사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의 역사인지 몽골의 역사인지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별로 학술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의견으로, 지금 중국의 영토는 원 시대의 ‘대몽골올르스’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중국 학자도 이 역사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몽골올르스’라는 단어에는 시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가 적용되는 시대 범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나 하면, 몽골의 4대째 칸의 시대, 쿠빌라이까지는 이른바 대몽골올르스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시아에서 서아시아, 한층 더 먼 지역까지 이 개념에 들어맞습니다. 이는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정치적 실체입니다. 그러나 쿠빌라이 이후로는 아마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명백한 사실로서, 중앙아시아

제국의 국왕, 징기스칸이나 오고타이칸의 후계자들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내부 분쟁뿐만 아니라 쿠빌라이에 반대하는 세력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쿠빌라이칸 이래 대몽골울루스는 과연 정치적 실체인지 아니면 개념적 상징에 불과한 것인지,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조를 연구할 때, 원의 중요한 공헌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교통을 개통시켰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나 쿠빌라이 칸 이래로 유라시아대륙의 교통은 과연 상상하는 것처럼 통하고 있었는지 역사적 사실로 예를 들기 어렵습니다. 원 이후로 중국과 유라시아 대륙의 교류 활동은 어느 정도로 육상 통로를 이용하고 있었을까, 저는 사실을 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 ‘팍스 몽골리카’ 라고 하는 개념의 배후에는 역사의 곡절이나 모순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 지에

오늘 어째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나 하면 그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는 ‘국사들의 대화’ 입니다. 국사라는 것에는 예컨대 첫째로 각국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는 국사교육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 교과서 중에서 아마도 중국의 교과서, 일본의 교과서는 각각 다른 입장에서 서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생각해 봤을 때 이 국사들의 대화라고 하는 논의는 학술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각국의 교과서에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이상 각국의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로 이해한다는 데에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굳이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원의 영향, 몽골 제국의 영향에 대해 그 확산을 어디까지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을 오히려 문제로 삼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원이 중국을 통치하기까지 당과 송의 영향이 아시아에, 혹은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 하는 점과 그 후의 명 시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 양쪽의 영향을 근거로 해서 원의 영향의 확산을 어디까지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식으로, 역사의 문맥 가운데서 논의하는 것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러한 점, 그러한 입장에서 논의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에르둔바토르

방금 장 지아 선생님 말씀에서도 원조는 몽골제국인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선 쿠빌라이라는 인물은 징기스칸의 손자이며 원조를 세운 후부터 그 국가의 칭호를 뭐라고 했나 하면 비석에 몽골어로 ‘대원의 대몽골울루스’ 라고 새기고 ‘대원의 몽골제국’ 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방금 윗카이치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르칸국도 명의상으로는 원을 종주국이라고 하고 원을 대몽골울루스로 간주했습니다. 원의 황제 쿠빌라이에 관한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징기스칸이 살아있는 동안 쿠빌라이는 할아버지를 좋아해서 두 사람의 얼굴 생김새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물론 쿠빌라이는 손자이므로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서는 쿠빌라이 일족에 의해 편찬된 것이므로 쿠빌라이의 자손들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원의 황제가 사망한 후에는 반드시 지금의 북경으로부터 지금의 몽골로, 거기에 있는 징기스칸의 무덤 주변에 매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의 배신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상은 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장 지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논쟁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 저도 동감입니다. 예컨대, 원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봐서는 안 되는가, 청 지배하의 몽골의 역사를 몽골 역사로 봐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역시 다른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의 저명한 작가 루쉰(魯迅)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교과서를 읽고 징기스칸은 우리 중국의 황제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어른이 되어 책을 읽기 시작하고 러시아가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훨씬 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인은 징기스칸이 러시아 황제였다고 말해야겠지요.’ 루쉰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몽골인·몽골족 사람이 많이 살고, 국가라는 개념도 과거와 다르므로 이에 관한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장 선생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 윗카이치 야스히로

저는 장 지아 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인데, 에르둔바토르 선생님 의견에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제 무언가 하면, 이념적으로는 ‘원조가 대원울루스’ 라는 설명이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페르시아어나 아라비아어 등의 다른 자료에서는 원조가 생겨난 이후로는 4 개의 울루스가 생겼다는 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몽골제국이 4 개의 국가로 나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장 지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라는 곳은 다양한 민족이 여러 정권을 갖고 있었고 지배자만으로 그 민족의 국가다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런 유연한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원조는 한 또는 칸이라는 황제가 다스린 국가로, 다른 세 나라, 세 울루스는 모두 칸, 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형식상으로는 원조가 종주국인 셈이 됩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념상, 명분상의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4 개 국가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이 회의의 주제, 방금 류 지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적용하면, 저는 몽골 임팩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몽골만의 임팩트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몽골 제국의 패권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요소로 인한 임팩트가 발생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팩스 몽골리카라고 불리는 안정성이 있었던 반면, 그것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이면에 이슬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투르크라든가,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인 요소가 이동하면서 임팩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인가 몽골인가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물론 양쪽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역으로 이것은 남송 문화다 라든가 이것은 몽골 문화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완전히 분리되어버리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논의 가운데서 예컨대 이것은 주자학이므로 남송 문화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자학은 원대(元代)에 고려로 들어왔고, 선종(禪宗)도 원대(元代)에 일본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남송에 기원을 두었다 하더라도 몽골 임팩트라든가 패권, 팩스 몽골리카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이므로 그런 부분은 논의되어야 합니다.

■ 류 지에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그 제안을 염두에 두고 거 자오광 선생님께 의견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 거 자오광

이 회의는 ‘국사들의 대화’ 라고 하는 것인데, 국사들의 대화를 왜 개최하는가 하면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국의 입장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입장을

초월하는 것, 두 번째는 왕조나 시대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두 가지 초월을 달성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임을 실감하였습니다.

우선 원대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가 몽골의 역사가. 여기에는 역시 ‘입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국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이것은 중국의 역사 또는 이것은 몽골의 역사라고 말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의를 개최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는 최근에 역사교과서를 많이 수집했는데, 예컨대 베트남 역사교과서에는 ‘베트남은 베트남이므로 중국 장강(長江) 이남의 국토는 예로부터 베트남 영역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역사교과서에도 ‘금(金)의 초대 황제 아골타(阿骨打)는 고려인’이라고 적혀 있었고 아골타는 여진족을 이끌고 중국 북부를 평정했으므로 중국 북방지역은 예로부터 한국의 영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입장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는 역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역사 서술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국가의 입장을 초월한 글로벌 역사, 또는 광역사(廣域史)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중국에서 일부 역사학자가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 국가에는 이중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원의 역사를 연구하는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소계경(蕭啓慶)은 실제로 원은 중국사인 동시에 몽골사이기도 하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발표에도 정확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이 다소 있을지 모릅니다. 예컨대 윗카이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고려의 중국화’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실은 원(元)대는 ‘고려의 중국화’라고 하기보다는 ‘고려의 몽골화’라고 하는 편이 정확할지 모릅니다. 고려의 중국화란 한·당 시대로부터 유교 사상이나 한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을 가리키는데, 원, 몽골제국 시대에 구체적으로 보자면 역시 몽골 측의 영향이 컸습니다. 또 한 가지 전형적인 예로 ‘운남(雲南)의 중국화’라는 어법을 13, 14 세기에 사용할 경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13 세기 이전, 운남은 중국이 아니라 대리 남소국(大理南詔國)으로, 4 개의 문화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토번 문화(吐蕃, 즉 현재의 티벳 문화)’, 동남아시아의 ‘삼문화(즉 타이족 문화)’, ‘안남문화’ 그리고 지방의 ‘서남문화’입니다. 물론 한족 문화도 동시에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대에 운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역시 몽골이 운남을 중국의 판도에 편입시킴으로써, 운남을 몽골화시켰다는 것일 테지요. 여기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당시 중국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부단히 변화해 왔으므로 당시의 중국을 한족의 중국이라고 인식한다면, 당연히 그 한족의 중국을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동일시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 시대로 되돌아가 당시의 중국은 무엇이고 당시의 몽골은 무엇이었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나라의 문화적 영향이나 정치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의 입장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볼 때 역사를 존중하고 현대인의 선입견이나 자국의 고정관념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중국에도 지금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960 만 평방미터의 국토라는 개념의 틀에서 역사를 현대로부터 거슬러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고구려를 단순히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고려를 단지 외국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한 인식방법은

역사를 연구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의에서 우리는 자국의 고정적인 입장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또 현대인의 선입견으로 역사를 소급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틀간의 회의에서 역시 이것이 가장 큰 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의를 개최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난 번에는 3개국, 이번에는 4개국의 학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디 장벽을 뛰어 넘어 공통의 인식을 만들어냅시다.

윗카이치 야스히로

한 가지만 보충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국화라는 말을 쓴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한(漢)문화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국화라는 것은 한화(漢化)도 아니고 몽골화도 아닙니다.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의 중국도 아니고, 이른바 방금 홍 선생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천하관’이 있는데, 사대주의입니다. 크게 섬기면서도 자기를 중심으로 한 천하를 갖는 나라. 요컨대 중국 황제를 섬기면서도 자신의 나라에도 또 한 사람의 황제를 모신다는 의미에서 중국화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고려만이 아니라 일본, 베트남, 참파에도 있었던 현상입니다. 일본도 일단은 중국에, 송이나 원에는 조공을 하지 않았지만 명에게는 조공을 하면서도 국내에 황제가 있었고, 베트남도 국내에서는 황제라고 칭하면서도 또한 안남왕으로서 중국을 섬기고 있었으니, 그런 식으로 두 개의 천하를 갖고 있었다, 요컨대 자신의 나라를 중심으로 삼는 나라, 곧 중국이라는 의미로 중국화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 역사자료의 취급

류 지에

거 자오광 선생님께서부터 매우 고무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번 회의의 목적은 국경이나 시대를 초월한 우리의 공통분모를 많이 발견해나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구동화이(求同話異)’ 또는 ‘구동화이(求同化異)’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마다 국사 서술방식이 있게 마련이지만, 역사연구자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상대방의 국사는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서로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부터는 처음에 문제제기된 세 가지 ‘자료’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자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그림(繪卷, 에마키)을 포함해서 역사 자료를 취급할 때, 특히 몽골 침입에 관한 현재의 자료 상황과, 자료 취급방법에 관해 각국의 사정은 어떤지, 상대방의 자료 또는 타국의 자료를 사용할 때, 어떤 한계가 있고 지금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등 선생님들 각자의 연구에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타니 히로시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몽골 임팩트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일본에서 참가한 학자들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 난처합니다. 일본 학자들은 사료

연구에 능숙하신데, 꼭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토 유키

릿쿄대학의 사토 유키(佐藤雄基)입니다. 그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의 성립 경위가 무척 다르다는 것에 대해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경우 몽골·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원의 쇠퇴와 더불어 고려의 정치 정세도 매우 불안정해졌다는 이야기를 어제 자세히 들었습니다. 조선 왕조로 교체된 후에 몽골에 대한 종속 노선을 채택한 고려의 역사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전개되어 서너 차례나 거듭 국사가 편찬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근세나 근대에 오면서부터 자국중심주의, 내셔널리즘과 연결된 형태로 몽골의 기억, 신평(神風)이 불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매우 성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시대 가마쿠라(鎌倉)시대의 일본은 어떤가 하면, 하시모토 선생님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규슈의 신사는 자기들 기도 덕분에 바람이 불었다고 주장합니다. 가마쿠라 막부도 그것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현지에서 실제로 분전(奮戰)한 고케닌(御家人)에게는 별반 은상(恩賞)도 하사하지 않으면서 신사는 대단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해 나갑니다. 이때의 사사(寺社)측의 언설을 바탕으로 신평의 언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일본의 중심부, 가마쿠라 막부나 교토의 조정은 몽골 임팩트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면, 그것은 의외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대에 와서 국난을 물리쳤다고 선전될 정도로 동시대적으로는 흔적이 확실하게 남아있지 않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가마쿠라 말기, 몽골 침입 후에 『아즈마가가미(吾妻鏡)』라는 사서를 편찬하는데, 제 1차 몽골침략(1274년, 文永의役)에 앞서 1266년에 기술이 끝났기 때문에 그 후의 가마쿠라 막부의 역사는 해명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남북조 시대에 와서 여러 가지 역사서가 편찬되었습니다. 유명한 것으로, 소위 ‘군사기록(軍記)’인 『태평기(太平記)』, 그 외에 남북조시대에 몇몇 사서가 편찬되었습니다. 다만 저도 아직 정확히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몽골의 침입이 일본의 정치·사회에 미친 영향을 엿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은 얼른 기억나지 않습니다. 일본사학회에서는 몽골 침입의 임팩트로 사회가 변화했다는 논의가 최근 20~30년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시대 사료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치우쳐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무사가 ‘몽골을 격퇴하기 위해 분투했으므로 은상을 주심사’라는 고문서나, 규슈의 신사(神社)가 ‘자신들의 기도 덕분에 신평이 분 것이다’라는 식으로 기술한 것은 있지만, 그것이 국가의 역사에서 반드시 중시되어 온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적어도 그 후의 14세기, 남북조시대에는 회고하는 일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에도시대 그리고 근대에 와서 차츰 일종의 내셔널리즘과 연결되면서 재발견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몽골 임팩트라 하더라도 고려와 일본, 또는 원을 물리치고 성립된 명나라 시대의 역사상이 아주 다르지 않은가, 몽골이 갖는 의미에 관해 국사 간의 대화를 행할 때 각국에 전래되어 온 몽골에 대한 기억의 차이를 어떤 성격의 사료가 어떻게 남기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쑤 웨이귀

사료와 관련해서 제가 제출한 논문은 고려사에 나타난 원의 동정(東征)에 관한

서술에 관한 것인데, 실은 원의 일본 동정의 역사 그 자체를 자세하게 서술한 것이 아니라, 사학사 전문이므로 오랫동안 조선과 중국 사료의 비교연구를 해오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대의 사료에 관해 중국이나 조선,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왕조를 중심으로 한 관수사서(官修史書, 정사)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료를 만들 때, 어떻게 왕조의 정통성, 요즘 언어로 말하면 ‘정치적 정당성 (political correctness)’ 을 유지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들 일차사료를 이용할 때는 거 자오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조와 시대의 한계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는 원대의 역사에 관해 잘 모르지만, 명·청 시대의 사료에 관해 감회가 깊은 데가 있습니다. 만력(萬曆) 조선의 역(役), 즉 임진왜란 사료와 관련해서 중국의 서술에는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명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늘어나는데도 ‘만력 조선의 역’ 에 관해 제대로 된 연구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사료의 기술에 의하면, 『명실록(明實錄)』에서 청 왕조가 편찬한 명사(明史)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은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연구자로서 이 전쟁을 연구하는 경우, 만약 중국의 사료만을 이용하면 역시 편견을 가지게 되어, 연구를 하면 할수록 파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므로 한국에도 일본에도 풍부한 사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수년간 저는 한국 사료와 중국 사료를 비교연구하고 있습니다.

왕조와 국가를 초월한 각도에서 일·중·한 삼국의 사료를 이용해서, 실로 중국의 역사학자 진인각(陳寅恪)이 ‘이국(異國)의 사서’ 로 자국의 사서를 보완한다’ 고 한 것처럼, 이렇게 비교 연구를 진행하면 서술의 진위나 그렇게 기록한 이유, 또 그 배후에 숨어있는 목적 등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즉 동아시아의 시선, 혹은 국가나 왕조를 초월한 시선으로 역사문제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3국은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리적 배경을 공유하고 공통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역시 3국의 사료를 비교 고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에는 ‘사료 비판’ 이라고 하는 연구방법이 있는데, 3국 공통의 역사에 관련된 사료연구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히야 내몽골대학에서 온 나히야입니다. 사료에 대해서는 방금 쉰 웨이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쉰 웨이궈 선생님은 한국어와 중국어 사료를 사용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원대에 페르시아어로 씌어진 사료도 다수 존재합니다. 초그트 선생님과 에르둔바토르 선생님이 페르시아어 자료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두 분께 꼭 자료에 관한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초그트 사료는 역사연구에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사, 고려사에 관해서는 잘 모르므로 제 전공인 몽골사 연구에 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몽골사의 사료는 주로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몽골어, 대표적인 것은 『몽골비사(秘史)』입니다. 그리고 중국어, 대표적인 것은 『원사(元史)』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페르시아어 사료입니다. 세 가지 모두 원의 역사를 서술한 저작인데 강조하는 부분이나 기술 방법, 관점 등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므로 원의 몽골사를

연구하는 경우, 어느 사료에 비중을 둘 것인가는 연구자로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원의 역사 연구에 관해 현재 각국 학자들이 페르시아어 사료를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어 사료는 실제로 많지만, 이전부터 알려져 온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키카지 선생님도 몇 번씩 이란에서 조사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페르시아어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어, 터키어, 라틴어 등 다언어 사료를 사용해서 몽골시대의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몽골의 일본 동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은 같은 시기에 몽골은 서쪽으로 진출해서 동유럽에 도달했습니다. 동유럽에도 라틴어 등 기타 언어로 기록된 문헌이 있지만, 그것은 별로 연구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몽골제국 연구를 할 때, 우리는 세계적 범위로 역사자료를 수집해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원대의 역사는 세계사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르칸 왕조의 재상인 라시드 웃딘(Rashīd al-Dīn)이 편찬한『집사(集史)』라고 하는 역사서는 실로 세계사의 시각에서 기술된 저작입니다. 요약하자면 몽골시대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사의 시작입니다. 몽골사를 연구하는 경우, 역시 세계사의 각도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후세 사람들은 역사서를 편찬할 때는 역시 어느 정도는 당시의 정치적 경향을 갖고 집필을 했을 겁니다. 또 후세 사람들의 사료에 대한 이해나 견해도 다양해서 자기 나름의 경향, 자신의 아이덴티티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들어갈 것인가, 역사학자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원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역시 중국어 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몽골어 사료도 있으므로 내몽골 학자는 중국어, 몽골어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중국 본토에는 몽골어 사료를 모르거나 이용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학자도 있으므로 같은 국가에서도 역시 내몽골과 한족 학자 사이에 상이한 견해, 또는 괴리가 보입니다. 그 장벽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방법은 역시 사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중의 시점을 갖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들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류 지에 그럼 여러분, 특히 젊은 선생님들은 전공 분야나 시대는 다를지 모르지만 자기 연구 분야의 입장이라도 좋습니다.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키다 기요시 시즈오카대학의 키다 기요시(貴田潔)라고 합니다. 제 연구는 지역경제나 사회경제 등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일본 측 자료는 부차적인 것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복속된 고려의 역사 자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 혹은 중국 자료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일시적인 침공을 받은 일본측의 임팩트와는 역시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편으로 원대에 그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 같은 부분에서 각각 어떤 식으로 연관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저로서는 좀 더 논의에 들어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김보광 선생님 발표에서 충렬왕 시대에 군사적으로 경도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 경제에서 무언가 커다란 부분이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 자료가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광 가천대학교의 김보광입니다. 발표자이면서 처음 말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방금 키다 선생님의 의문이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언급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 시기의 사료, 즉 고려 시대 또는 고려 후기와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사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다만, 『고려사』라고 하는 사료에는 이 시기에 관한 언급으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제 논문에도 썼지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목재나 군량(軍糧) 등이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것이 큰일이다’라는 표현. 또는 ‘세금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 그 다음으로 더 후대로 가면, ‘고려의 국왕들이 몽골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그 체재비용을 조달하는 어려움’, 이런 언급들은 꽤 자주 찾아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규모, 이른바 ‘숫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몽골 임팩트’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몽골이 고려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려인들에게 준 충격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것은 ‘중조(重祚)’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까 전반부에 나왔던 조공·책봉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는데, ‘중조’라는 것은 거듭 반복하다는 뜻의 ‘중(重)’에, 즉위한다고 하는 ‘조(祚)’를 합한 용어입니다. 국왕이 두 번 즉위하는 현상이 충렬왕 때부터 시작해서 충선왕, 충숙왕, 충혜왕이라는 4대의 고려 국왕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전부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 그 아들로 이어지는 친자관계로, 이 4명의 고려 국왕들이 두 번씩 즉위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씩 폐위되었다가 다시 또 즉위하는 것입니다. 가령 충렬왕이 즉위했다가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준 후 다시 아버지가 국왕이 되고 충렬왕이 죽으면 다시 한번 더 충선왕이 즉위한다고 하는, 이런 두 번씩 즉위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중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조 현상이 일어난 계기 또는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몽골이었던 것이죠. 즉 몽골에서 국왕의 자질 문제라든지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폐위시키거나 즉위시키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물론 정변이나 쿠데타에 의해 왕이 쫓겨나거나 정변에 의해 왕이 교체되는 경우는 있어도, 왕이 한번 물러났다가 다시 왕이 되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런 부분이 고려인들, 특히 고려 후기 사람들이 몽골로부터 받았던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이 바로 중국적인, 한자 용어로 ‘책봉’이라고 하는 일종의 국왕 임명권이 행사되는 상황입니다. 몽골은 자신들이 고려 국왕을 임명한다고 하였고, 그것이 문자 그대로 ‘책봉’을 했기 때문에 폐위도 시킬 수 있고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려로서는 소위 조공·책봉이라는 것은 적어도 고려 전기의 경우, 송과 관계를 맺었을 때, 또는 거란, 금, 요와 관계를 맺고 책봉을 받았을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요소였으므로, 몽골과 관계를 맺었을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인들은 원도 중국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종원을 차지한 중국이고, 중국이기 때문에 조공과 책봉 관계로 표현되는 이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왕의 존립, 폐위라든지 즉위 과정에 실질적인 정치력 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행사된다고 하는 현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그 후 고려 말이나 조선 시대에 가서도, 조공과 책봉에 의해 국왕의 정당성이나 왕권이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역사적 경험이, 그 이후의 한국 역사에서 경험으로 강하게 작용했고, 고려나 조선 초기의 지배층은 바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이 고려 말에, 특히 이 때에 유입된 성리학의 사상적 경향이 그런 현상을 학문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정당화시켜 주는 논리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키다 기요시

말씀을 들으니 역사인식이라고 할까요, 이 시대를 어떻게 설명할까 라고 했을 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학회에서 대외관계사를 전공하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일본의 학회에서는, 전쟁의 시대는 있었지만 그 사이에 평화적 교류의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조공을 말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화폐경제 같은 것이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시대의 사회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밝게 그려지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조선, 한국 측 이야기를 들으면 몹시 압박을 받았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 동아시아 사회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일본과 고려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한편 제 2 세션 가운데, 식육 등 문화적 면에서 몽골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시대의 고려 혹은 사회 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류 지에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습니까?

이 명미

키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분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김보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조(重祚)’ 문제도 그렇고 정치적 부분에서는 확실히 고려의 경우에 반드시 밝게만 서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몽골 임팩트와 그 후의 안정적인 관계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재미있는 사례를 한 가지 말씀 드리면, 고려후기의 지배층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곡(李穀)이 아들 이색(李穡)에게 보낸 시를 보면 두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학자들이었고, 그래서 원의 여러 과(諸科)에 합격해서 원에서 관직생활을 했던 관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부원배(附元輩)’ 들은 아니었어요. 고려라는 국가를 부정하고 원에 붙는 부원배는 아니었고 그냥 아주 건전한 관료들이었는데 이들의 경우에, 특히 이곡은 원에 있으면서 고려에 있는 아들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나 하면, ‘사나이라면 모름지기 대도(大都)에 와서 생활을 해야 한다. 여기서의 생활을 경험해야 한다’ 라는 시를 지어 보내기도 합니다. 이색 역시 나중에 제과에 합격해서 원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공민왕 5년의 반원(反元) 개혁이라고 부르는 ‘기씨 일가(奇氏一家)를 주살(誅殺)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려는 몽골의 지배로부터 이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몽골 즉 원에 대한 반감을 계속 축적해 오다가 이 무렵 몽골이 약화된 시기를 틈타 반격을 가해 몽골의 지배로부터 이탈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관계는 사실상 이 때 단절되었다고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제가 본 금석문

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 보면, 바로 그 직후에 이색이라는 인물이 매개가 되어 ‘묘지명’이 교환되고 있습니다. 고려인에게는 죽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일대기 같은 것을 써서 무덤에 같이 묻는 묘지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친분이 있는 사람, 글씨를 아주 잘 쓰는 사람, 문필의 대가, 이런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이런 묘지명이나 승려의 비문 같은 것은 특히 원의 간섭기에는 원에서 이름 높은 문인들의 글이나 글씨를 받아서 묘지명을 짓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반원개혁이 일어나는, 즉 표면적으로 보면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사실상 경색되고 단절되었다고 보이는 바로 그 직후의 상황에서도, 개인들 간에는 여전히 그런 인적 교류들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의 인식상으로는 원이라는 국가가 단순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교류의 대상이거나 문화를 가진 국가로 인지되고 있었던 면모들이 지속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체렌도르지

한 가지 어프로치, 역사로서의 몽골사, 몽골 제국사 접근방법이라고 할까요, 그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몽골제국이 유목민 국가였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국가제도나 무언가를 설명할 때, 일정한 틀 안에서, 틀을 이렇게 설정해 두고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목민들은 정착민보다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원의 역사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 특히 정착민 국가의 역사학자들은 모든 것을 형식에 끼워 맞추려 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몽골의 집권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 권리를 영원한 하늘이라는 존재로부터 부여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피지배 국가, 피지배 지역의 인민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빌라이 전까지는 중원의 영지 일부는 점령했지만, 통치에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쿠빌라이가 중원을 다 정복한 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몽골 사람들이 하던 방식으로 그냥 우겨서 하기보다는 형식적이거나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예를 들어 연호 같은 것을 쓴다든지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몽골이 실시해 온 것을 철저히 따르게 하는, 이중적인 방법을 썼다고 보면 됩니다. 고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은 쿠빌라이 전까지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댔습니다. 왜냐하면 고려가 원했던 그 조공·책봉 관계라는 것은 몽골 사람들이 실시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쿠빌라이가 즉위하고 나서부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리저리 여러 가지로 맞춰 보았지만, 사실은 몽골 사람들이 알거나 이해하고 있던 것과 피지배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던 것들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은 몽골 대륙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해했고, 고려나 중국 사람들도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에는 가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라 가즈아키

미쓰이문고(三井文庫)의 무라 가즈아키(村和明)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료의 보존현황과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일본연구자로부터 약간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토 유키(佐藤雄基) 선생님이 지적하신 일본의 자료보존 현황이라고 하는 문제와 미타니 선생님이 지적하신 일본의 몽골 임팩트 수용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몽골 침입 시대의 자료 보존현황에 관해 생각해 보자면, 본래는 실제로 전투에 종사한 무사가 남긴 글이 가장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세 무사의 자료가 후대까지 어느 정도 전해졌나 하면, 원구(怨寇)관계에 한정되지 않지만, 실은 비율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율로 보면 절이나 신사, 종교시설이 으뜸이지요. 불교나 신도 시설에 남아있는 것이 총체적인 비율로는 많습니다. 중앙 정부에 의해 편찬되어 남아있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후대에 와서 일본의 몽골 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토 선생님이 방금 일본 측에 남아있는 기억은 별로 많지 않다고 지적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기록을 바탕으로 그 후 일본 역사 가운데서 몽골 임팩트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돌이켜본 것이 어느 시기인가 하면, 국제적 전란의 시기입니다. 하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입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한 시대, 혹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일본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시대이지요. 또 하나는 근대의 입구, 19 세기에 무사의 시대가 끝나고 천황 중심의 근대국가가 성립하는 시대, 이 두 가지입니다.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본 가설에 불과하지만, 종교시설에 남아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회고해 본 과거의 모습은 아마 필연적으로 신화적인 것이 됩니다. 기술적인, 현실적인 인간사회의 기록이라고 하기보다는 신들도 등장하는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로 회고되고 그럼으로써 일본은 신의 나라라는 의식이 일본이 전란을 마주한 시기가 되면 되살아나거나 혹은 그때마다 약간 형태를 바꾸어서 재구성된다고 하는 경과를 거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상적인 문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가 과거의 시대와 마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만든 인간과 마주하고 그 자료가 만들어진 시대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자료는 시간을 뛰어넘어 온 것은 아니라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 자료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과정에서 어떻게 공유되어 왔는가, 혹은 숨겨져 왔는가, 누구에게 읽혀져 왔는가, 그것을 읽는 집단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혹은 어느 시대까지는 남겨져 있던 기록이 언제 사라졌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바탕을 둔 기억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이번 심포지엄과 같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친 제국의 형성과 그 영향을 생각하고, 또한 거 자오광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의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국가, 민족, 언어의 틀을 상대화시키고 극복해 나가려고 할 때에, 기본적인 문제로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누가 읽어 왔는가, 누가 읽지 않았는가, 그 관계가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 왔는가?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어려운 글로벌한 제국에 대한 문제의식을 현대의 국민국가로 분단된 우리가 공유해 나가는, 하나의 유효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마우치 신지

맨 처음에 화제가 된 책봉·조공 이야기와 관련되지만, 지금까지 여러 분이 발언하신, 사료를 쓴 사람의 입장이나 장소,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료는 만들어지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논할 경우, 전근대는 한문 사료가 중심이 됩니다. 즉 그 단계에서 한문, 한어(漢語)라고 하는 편견이 상당히 개입되는 것이지요. 방금 책봉이나 조공의 경우도 그렇지만, 한어로는 그렇게 밖에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한어와 내실(內實)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해 나갈 것인가, 일본, 한국, 중국의 한문 사료에 똑같이 조공이나 책봉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차이, 그 실태가 어떻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면 좋을까라는 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매우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제 4 세션에서 두 분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의식주라 할까, 이른바 사회의 기층을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고찰함으로써 편견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에노모토 와타루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의 에노모토 와타루(榎本渉)입니다. 이번 포럼의 전체적인 인상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11 편의 무척 충실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대주제는 글로벌화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보고에서는 몽골이라는 공전(空前)의 대제국이 완성되어 밖으로 확대되는 과정이나 그 임팩트를 받은 측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생존전략에 관한 실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국가나 지배층의 문제를 다룬 것이 중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화이트하우스나 카스미가세키(霞ヶ関) 사람들의 교류가 긴밀해지고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면 그것이 곧 글로벌화라는 것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고 정보나 문화, 유통 등이 긴밀해져야 글로벌화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계기는 상층의 교류의 결과여도 좋지만, 글로벌화의 하나의 중요한 지표는 종래와 다른 범위에서, 국가를 초월한 레벨에서 상품이나 정보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의 정치적 교섭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전제가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 전제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매우 충실했지만, 결과 부분, 어떠한 글로벌한 세계가 탄생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저의 인상입니다. 그 점을 전면적으로 다룬 것이 아마도 제 4 세션의 두 분의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차 또 이런 기획을 해 주신다면, 이번의 컨셉을 좀더 파고들어 ‘그 결과 생겨난 교류’라는 부분을 주제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다 선생님이 연구하는 화폐 문제도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화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자료 문제가 화제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14 세기가 되면 일본도, 고려도 비슷한 것을 만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시문집이나 어록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고려에서도 물론 13 세기 이전부터 있었지만 14 세기 이후에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것은 무언가와 관련이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당시 원, 몽골에서 실시되고 있던 몽골어 직역체의 기묘한 한문이 있는데 그것이 고려에도 도입됩니다. 이는 아마 그 후에도 영향을 있을 터이므로 그러한 부분도 논의할 수 있을 테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승훈 고려대학교의 한승훈입니다. 저는 한국 근대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발표와 토론이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발표를 들으면서, 이 ‘국사들의 대화’가 앞으로 임진왜란, 19세기, 20세기로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제가 전공하는 시대가 되면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해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발표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정치적 갈등은 있었지만 평화, 안정, 관용, 유연성, 사람들의 삶을 폭넓게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 있었고 이것을 근 현대사 부분에 적용하면 어떨까 라는 희망 섞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근대사에는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갈등이라는 임팩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사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정치적 갈등, 대립과 관련해서 생산된 사료가 평화, 안정에 관련된 사료보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13, 14세기 사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임팩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회경제적 측면의 임팩트에 대해 설명하신 것은 인상적이었는데, 그룹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임팩트라는 부분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웨스턴 임팩트, 즉 서구가 동아시아로 침략하면서 그들이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역사였는데, 서구가 이해하는 동아시아의 역사는 평화와 안정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갈등하고 대립했는가라는 점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조선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을까를 생각할 때 임진왜란을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무카이 선생님 발표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정치적 갈등이라는 부분에서 얘기 하자면, 실제 사료도 있지만 내부에서 그것을 조장해서 만들어 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료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는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줄 수도 있고, 근 현대사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전공과는 관련이 없지만, 매우 유익한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홍 성민 사료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에노모토 선생님께서 에르둔바토르 선생님께 질문 하신 내용 중에 왜 고려를 몽골어로 고려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서 거란문자 해독 연구 상황을 겸하여서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거란 문자에서 고려를 정벌하다 라는 문자가 해독되었는데 고려를 ‘술구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구르는 몽골어의 솔롱고스, 만주어의 솔후이, 둘 다 한반도를 가리키는 왕조의 명칭인데요, 이에 대한 해독이 술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연구 상황에서 술구르라는 단어 자체는 삼국시대의 신라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거란과 고려가 싸우고 나서 서희가 외교담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란의 장군이 고려는 신라에 기원을 둔 나라인데 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느냐라는 표현을 하고, 고려는 반대로 고려 자체가 고구려에서 고려라는 형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손령이라는 사람은 거란 사람이기 때문에, 거란 사람은 고려라는 왕조 명칭을 아마도 술구르라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술구르가 나중에 몽골어 혹은 만주어에 영향을 준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 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 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다루가치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사료를 봤는데, 다루가치(점령지를 다스리기 위한 감독관)가 등장하면 고려사에서는 위협적인 ‘정복자’, ‘침략자’ 같은 이미지로 그려졌습니다. 사료에 의하면, 보통 72 명의 다루가치가 파견되고 그들이 한꺼번에 살해되었다, 이런 식으로 갈등의 면모로, 갈등을 유발하는 자로 많이 묘사되는데, 원 후기에 강남 지역, 중국 지역에 파견된 다루가치들에 관한 자료를 보면, 원 중기 이후의 묘지명에 나온 기록에 다루가치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즉 중국의 한인(漢人)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좋은 통치를 하고 위로를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굉장히 우호적인 존재로 묘지명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료가,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지, 묘지명인지, 국가의 공식자료인지에 따라 다루가치의 케이스도 그렇지만, 원 제국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대의 여러 사료들이 있어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원 제국의 이미지나 역사상이 사실은 제각기 파편적으로 존재해 왔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초그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언어를 통한 역사상의 복원도 필요하고 예컨대 원사(元史) 같은 경우도 3년 만에 졸속 편찬되어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 사료들이 어떤 배경에서 편찬되었는지, 어느 시기에 편찬되었는지, 그 맥락을 파악한다면 그러한 사료들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몽골제국사 연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 지에 감사합니다. 많은 귀중한 발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을 든 두 분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라키 카즈노리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아라키 카즈노리(荒木和憲)입니다. 제 전공은 15-16 세기 동아시아 교류사이기 때문에 거의 소감 정도의 발언이 되겠지만, 역시 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받은 인상은 정사(正史), 고려사든 원사든, 정사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15-16 세기라면 일본에는 그러한 것이 없으므로, 이른바 원 사료나 기록 같은 그런 1 차자료를 사용하면서, 혹은 조선에는 조선왕조실록이 있고 명나라에는 명(明) 실록이 있거나 해서, 정사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동시대성이 높은 자료가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종합함으로써 비교적 교류사라고 하는 것이 엮여지기 쉬운데, 이번에 다루는 시대는 정사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면 하나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 것이 최종적인 의사로 결정되는지, 그러한 프로세스가 비교적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마도 정사는 결과나 최종적으로 채택된 의견만 기록되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 하나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식해서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역사라는 것이 문학 자료만이 아니라 앞에서 야마우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물건’, 남아있는 다양한 ‘실물’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상(像)을 함께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역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입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의 성과라든가, 유적 등에서 출토된 유물은 문자 자료에 비하면 과묵한 자료이지만 과묵한 만큼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고 유물에서 보이는, 혹은

고고학의 성과로부터 드러나는 이미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둔다면 국사가 국사의 주술과 속박(呪縛)에서 조금은 해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평 하오 오사카시립대학의 평 하오(彭浩)입니다. 여쭙보고 싶은 것이 많지만, 시간이 다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아라키 선생님 질문과도 관련되는 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근세 18 세기를 조사하기 위해 흔히 1 차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몽골 제국 시기는 1 차자료가 지극히 적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초그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몽골어 자료도 있는데 별로 사용하지 않고 별로 중요시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있는데도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그 부분이 저는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외교 교섭이라든가 정치 지배라든가 그런 키워드가 있어서 그런 것에 관한 몽골어 자료는 정말로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만약 많다면 왜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류 지에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합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타니 선생님께 종말을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타니 히로시 하루하고 만나질 이상에 걸쳐 충실한 발표와 토론을 펼쳐 주셔서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어제 발표가 예상 이상으로 충실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화제가 남아 있을까 생각했더니 계속 잇달아 이야기가 나와서 순식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포럼을 기획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오늘 토론 내용에 한 가지 의문을 덧붙이고 싶은데, 그것은 에노모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팩트라든가 국제교류라든가 하는 것을 좀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컨대 저는 몽골 공주가 고려로 시집을 갔다, 거기서 아이가 태어난다, 그 아이는 대체 부계와 모계의 어느 쪽에서 자랐을까? 제가 아는 한, 한국에서는 줄곧 어머니 쪽 집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몽골에서 시집 온 공주의 경우는 어떤 임팩트를 주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족 구조는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변화가 만약 보였다고 한다면 재미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니뭐니해도 이 심포지엄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화가에애하게 학문적 토론을 전개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도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한 후에 정확하게 반론한다는 물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서 이 심포지엄의 가장 중요한 소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어질 견학도 소중한 기회이므로 개별적으로 화제를 계속 만들어서 장차 연구를 이어갈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동시통역을 맡아주신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비슷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있지만, 이 정도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회의가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동시통역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 드립니다.(박수)

제 2 회 한국, 중국, 일본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몽골 침입과 13 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 원탁회의 보고

김경태 (金敬泰, 고려대학교)

제 57 회 SGRA 포럼은 「제 2 회 한국, 중국, 일본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 몽골 침입과 13 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지난해 가을에 개최되었던 제 1 회 회의가 프롤로그의 성격으로 앞으로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행사였다면, 제 2 회 대회는 학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 본격적인 ‘대화’ 를 시도하는 자리였다.

2017 년 8 월 7 일부터 3 일간, 기타큐슈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번 회의에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일본의 관측사상 두 번째로 느린 태풍인 태풍 10 호가 개최 당일 규슈의 북부를 지난다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행사에는 다행히도 개최지인 기타큐슈의 항공과 열차 운행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다만 항공회사가 사전에 착륙시간을 조정했기 때문인지, 한국에서의 참가자 중 일부는 (필자 본인을 포함하여) 개최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하였다.

첫째 날은 개회식과 기조강연이 있었다. 이마니시 준코 SGRA 대표의 개회인사에 이어, 미타니 히로시 교수 (아토미학원여자대학) 의 취지설명이 있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역사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던 역사관련 논의는 주로 20 세기 전반 일본의 침략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집중되었다는 것, 이러한 논의들이 어떤 면에서는 성공하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다는 것, 분명한 점은 국가가 개입하였던 경우 실패했다는 것, 그러나 개인이 구성한 논의의 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총 다섯 차례, 연속으로 개최될 예정인 이번 회의는 전근대와 근대 이후를 모두 아우른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1~3 회는 전근대에 배치하였다고 하였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발표를 잘 듣고 이에 회답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거 자오광 교수 (북단대학) 는 기조강연 「포스트 몽골시대? -14~15 세기 동아시아사를 재검토한다」 에서, 몽골 제국이 쇠퇴한 후 새로운 왕조들이 성립하고, 서로 (조공 시스템에만 한정하지 않는) 다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14 세기 말 ~ 15 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를 동아시아의 이후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관련한 시대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도 중요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한다.

8 월 8 일은 본격적인 논문발표회였다. 4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11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윗카이치 야스히로 (쇼와여자대학), 초그트 (내몽골대학), 하시모토 유 (홋카이도대학) 의 발표로, 「몽골임팩트」 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각국의 입장, 나아가 세계사의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제안이었다. 두 번째 세션은 에르둔바토르 (내몽골대학), 무카이 마사키 (도시샤대학), 쉰 웨이귀 (남개대학) 의 발표였다. 몽골 침략에 의한 문화적, 기술적 영향을 다양한 사료를 통해 접근한 발표들이었다. 세 번째 세션은 김보광 (가천대학교), 이명미 (서울대학교), 체렌도르지 (몽골사회과학원) 의 발표로, 몽골의 주요침략대상이 되어 장기간 저항했던 고려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몽골의 지배 실상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세션은 조원 (한양대학교), 장 지아 (북단대학) 의 발표로, 음식과 모자라는 물질적, 문화적 요소에서 보이는 장기

적인, 그리고 계열적인 몽골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각 세션의 발표자는 다른 세션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가졌다.

8 월 9 일 오전은 전날에 있었던 개별적인 연구보고를 기반으로 한 전체토론 시간이었다. 일반적인 학술대회와는 조금 다른 구성이었는데, 하루 정도 묵힌 질문이나 코멘트는 그만큼 정제되고 발전된 형태였고, 그러한 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종합토론에 앞서 조광 위원장 (한국국사편찬위원회) 의 논점정리가 있었다. ‘몽골 침입’ 과 ‘글로벌화’ 를 키워드로 하여 집중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것, 글로벌화에 성공한 ‘제국’ 인 몽골, 그 속에서 한국, 일본, 중국이 각각 어떤 역사를 전개하였는지를 검토대상으로 삼은 연구를 통해 글로벌화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단순히 글로벌화만이 아니라, 글로벌라이제이션 (glocalization) 과의 상호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네 세션의 발표 모두, 정치와 통치양식, 문화교류 등을 폭넓게 분석하였는데, 각국의 국사를 다루면서 일국사적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폭넓은 연구가 가능해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고 평가하였다.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은 류 지에 교수 (와세다대학) 은 5 개의 토론 주제를 제안했다. 첫째, 먼저 몽골제국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둘째, 책봉체제와 조공. 셋째, 몽골제국은 몽골사인가 중국사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 것인가. 넷째,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역사에서 중국의 위치는 어떠한가. 다섯째, 사료비판의 문제였다. 이어서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위의 논점 중에서 특히 책봉체제, 몽골의 역사, 사료비판 문제에 대해 참가자 전원이 참여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미타니 히로시 교수의 총괄정리가 있었다. 매우 충실한 3 일간의 회의였다는 것, 실행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것, 다만 조금 더 깊은 수준의 「글로벌화」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감상을 남겼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총평이었다.

오후 일정은 견학회였다. 몽골이 침략해 온 규슈 북부의 주요 유적을 답사했다. ‘원구 기념관’ 과 ‘하코자키궁’ (篁崎宮) 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떠올릴 수 있는 사료관으로서, 또 유적으로서 인상 깊었다. 빗속에서 방문한 이키노마쓰바라 (生の松原) 원구방루유적 (元寇防塁跡) 에서는 약 800 년 전, 바다로부터 상륙을 시도하던 몽골연합군과 이를 지켜보던 일본의 가마쿠라 무사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에 잠겼다.

회의 기간 동안, 각 국의 연구자는 자신의 최신 연구성과와 연구과정의 고민을 제시하고, 토론과 조언을 교환했다. 역사상 존재했던 나라, 내지 왕조의 세력범위가 반드시 현재의 국경이나 국가개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같은 면에서 본다면, 몽골 연구자의 참가는 이번 회의의 중요한 장면이었다. 한편 국제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의 문제이다. 교차통역을 할 경우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질문이나 반론이 있어도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3 일에 걸친 이번 회의에서는 동시통역이 제공되어 각국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다. 아쓰미 재단과 동시통역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이번 회의에서 느낀 감상은 모두 다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성과와 과제를 남겼다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다. 동아시아라는 공간, 시대의 변화와 조공관계의 변화, 고정적인 각국의 시각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것인가 등,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얻은 점이 많

다고 생각한다. 「국사들의 대화」는 5 회까지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얻은 성과를 잃지 않고 유지하여 다음 회의로 이어가야 한다. 성과를 딛고 다음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 내년 여름에 개최될 제 3 회 회의는 근세 동아시아를 뒤흔든 전란과 평화의 세기로의 이행을 다룰 예정이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새로운 역사학의 시대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동아시아 역사 대화의 재개 - 기타큐슈 (北九州) 에서의 ‘몽골 침입’ 에 관한 회의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아토미학원여자대학)

‘국사들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이지만 지난해는 준비 모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회의다. 동아시아에는 국가마다 ‘국사(國史)’가 있고 그 사이에는 언뜻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 이를 뛰어넘어 나아가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여기에 바로 ‘국사들의 대화’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취지로 아쓰미재단(渥美財団)의 이마니시 준코(今西淳子) 상무이사가 직접 명명해주셨다.

올해부터 4회에 걸쳐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관련 국가들의 역사가들을 초청하여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 올해의 테마는 이른바 ‘몽골 침입’으로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점차 시대를 거슬러 올라올 예정이다.

동아시아 각국 모두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참가자는 주로 국제관계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일본과 한국의 국내 역사 전문가들도 초청하였다. 평소에는 국제관계사와 그 배후의 정치적 의미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 워크숍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그 이전에 이러한 회의의 의미를 인정해 주거나 할까? 이번 ‘국사들의 대화’에서는 이러한 점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동시 통역도 ‘한일’, ‘한중’, ‘중일’로 각각 마련하였다. 먼 과거에 대한 전문용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의 통역은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을 것이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신 통역사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몽골 침입과 13세기 몽골 제국의 세계화’라는 주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설정된 주제다. 금세기 초반 수많은 역사공동연구가 시도되었지만 당시처럼 근대의 문제들을 거론하게 되면 일본인은 자동적으로 피고석에 자리잡게 된다. 이 때문에 대등한 관계에서의 대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영토 문제가 첨예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뜻 대화의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는 일본인은 거의 없다.

이에 비해 ‘몽골 침입’이라는 먼 과거의 사건은 현재와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쉬운 주제다. 특히 동아시아 3국의 국민들은 지금 유행하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모두가 피해자에 해당한다. 고려는 엄격한 몽골의 통치 하에 있었고, 중국에는 몽골 왕조가 탄생했으며, 일본의 경우 정복은 면하였지만 방어에 상당한 희생을 치렀다. 3국 모두가 피해자이므로 대등한 입장에서 냉정하게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만 이 회의에는 몽골인 역사학자도 3명 초청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가해자의 후손으로 취급된 것은 아니다. 일본인은 몽골인 요코즈나(横綱: 스모의 프로 리그인 오즈모[大相撲] 선수의 서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가리키는 명칭)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과 ‘원구(元寇)’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한국의 연구자들도 이에 대해 특별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번 역사가들의 대화가 완전히 정치적 영향 밖에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원나라는 과연 대몽골·율루스의 일부인가, 아니면 중국 왕조의 일부인가.’ 이에 대해서는 몽골인민공화국과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에서 온 몽골민족 및 한민족, 이들 세

지역 출신의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거 자오광(葛兆光) 교수는 중국의 전문가 중에는 두 해석이 동시에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역사학계에서는 현재의 국가적 틀을 그대로 과거에 적용하는 아나크로니즘(anachronis, 시대착오)에 대해 엄격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의 정부와 여론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의 조류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닐 것이다.

발표와 토론 중에는 필자에게 특히 인상적인 내용이 몇 있었다. 하나는 윗카이치 야스히로(四日市康博) 교수의 지적으로 쿠빌라이가 일본에 세 번째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의 죽음이 그 실행을 막았다는 사실, 아울러 베트남과 자바(Jawa, 그렇게 멀리까지!)가 방어 전쟁에 성공한 후 즉시 원나라에 조공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몽골을 격퇴한 후 일본은 교역을 재개하였지만 외교적인 배려는 하지 않았다. 국제관계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배후에 존재했던 일본의 고립성이 엮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몽골에 복속된 후의 고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만약 일본도 공략되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천황가(天皇家)가 단절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일부가 원(元)에 종속되어 이명미 교수가 고려에 대해 소개한 것처럼 원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고실험(思考實驗)은 일본사의 난제 중 하나인 천황제의 이해에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 사료된다.

고려의 경우는 조원 교수가 언급한 음식 문화의 변화도 흥미로웠다. 고려 왕조의 기반이 되었던 불교는 육식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몽골 지배 하에서 육식이 정착되었다고 한다. 정치적 지배가 끝나고 나서도 일단 변화된 생활문화는 지속된다. 역사를 장기적으로 볼 때 정치사 이상으로 생활문화사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가족의 구조와 남녀 간의 관계도 사회구조의 큰 틀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것들도 정복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 조선왕조의 경우 19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아이는 모계(母家)에서 길러졌다. 그럼 몽골에서 공녀(公女)가 낳은 아이는 어디에서 키워지는 것일까? 궁궐? 외부? 원래 몽골에서는 부계와 모계 중 어디에서 아이를 키운 것일까? 이러한 물음들이 잇달아 떠오르는 발표였다.

이처럼 이번의 모든 발표는 동아시아 전체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도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와 사회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면모를 보여 주었다. 발표회장에 초청된 일본과 한국의 국내외 사학자들은 어떠한 것들을 느꼈을까? 주의 깊게 경청해주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기회를 보고 주저없이 질문까지 해주었다면 회의는 더욱 흥미진진해졌을 것이다. 필자는 총괄토론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국제 회의에 나와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어느 선생님의 말을 인용하여 발언을 촉구했다. 회의 서두의 인사에서 준비한 말이었지만 무심코 언급을 잊어버린 것이 후회되었다. 참석자들은 일단 발언을 시작하면 모두가 정확하고 흥미로운 지적들을 쏟아냈다. 다음 회의 때에는 회의 시작과 더불어 이러한 발언들을 쏟아내주시길 부탁 드리는 바이다.

회의는 모두 사흘에 걸쳐 진행되었다. 둘째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뻘뻘한 일정의 발표가 이어져서 그런지 필자는 총괄토론 날의 아침에는 꽤나 지쳐 버렸다. 그러나 사회를 맡은 류 지에(劉傑) 교수는 훌륭한 정리발언을 통해 틀을 제시하였고 특히 한국 측 책임자인 조광(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선생님은 발표 하나하나에 대해 간결하고 정확하게 요약 및 토론의 출발점을 제공해주셨다. 공무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달려와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다음 서울에서의 회의는 분명 더 즐겁고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임에 틀림 없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회의였다.

역사가의 입각점 (立脚点)

쑨 쑨위에 (孫軍悅, 도쿄대학)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 몽골 침입과 13세기 몽골제국의 세계화”라는 제목의 포럼이 3일째를 맞이하여 논의도 한층 더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전문적인 응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의 역사가들의 한자리에 모여 벌이는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에 기뻐하기는커녕, 아마추어인 나는 무언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과연 참가자들은 “이 포럼이 전문적인 역사학의 국제심포지엄과 어디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또한 “역사가는 역사 화해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포럼의 취지와 본인의 전문적인 연구가 어떻게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두 가지 의문에 대하여 ‘역사가들’, 특히 일본의 연구자들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안감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다른 나라의 사료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역사가들의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의 교류를 그대로 ‘국사적 입장’의 초월로 파악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현재에는 그 역사인식에 대한 책임이 없는 7백년이나 이전의 사건이 화제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인지 등에 대한 나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몽골 침입에 대해 전혀 무지한 나조차도 이를 꽤 회의에서 그 대략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게 해준 연구자들의 논문이 실로 놀라운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 뛰어난 역사 연구에 ‘지금·여기’를 살아가는 역사가인 자신의 역사성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에 당혹스러웠다는 것이다.

물론 구두발표와 토론에 있어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발표자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발언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논문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역사와 현실과의 관련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논문에서는 청일전쟁 후에 일어난 원구(元寇) 기념비 건설운동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러일전쟁을 앞두고 구미 열강에 대항하며 국가의 생존 전략을 세워야만 했던 메이지시대 일본이 처한 상황이 현저하게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도 어딘가 유사한 점이 있다’. 또한 2015년에 간행된 원구를 소재로 한 만화에서 그려진 화약 무기에 대해서도 ‘대략 730년 후 첨단 군사대국으로 해상에 대두하게 되는 이웃 나라에 대한 공포의 상징이며 나아가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해석은 지나친 것일까?’. 이러한 내용들에서 논자의 현재에 대한 역사인식 및 과거와 현재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관점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메이지 시대와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원구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원구자료관을 안내해 주신 NPO 법인 시카노시마(志賀島) 역사연구회의 오카모토 아키자네(岡本顕実)씨의 해설은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주었다.

오카모토 씨는 1904년에 지어진 원구기념관을 청일 전쟁에서 패전까지 전속력으로 돌진한 일본 군국주의의 기점으로 지목하고, 나아가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을 기념관의 희생자라고 단언한 후, 다시 한번 사료관 건립 당시의 역할과 오늘날의 역사적 의의의 차이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1904년 당시의 원구기념관과 전후의 원구사료관 뿐만 아니라 8월 9일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자신의 담론 행위의 역사성도 명확히 자각하고 계시는 그 역사적 감각의 예리함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역사가는 국가의 관점에서 역사를 파악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역사적 사실과 사료로서 전시품 자체의 진위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반면 일반 시민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흔히 현재의 강한 문제 의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가의 운명보다 개인의 운명에 보다 주목한다. 따라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는 왜, 지금, 여기에서, 이처럼 다른 역사가 아니 해당 역사를 언급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역사가가 자기의 현재의 정치적 입장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역사 연구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다만 이러한 상식과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역사가들이 스스로의 주체성 혹은 개성을 완전히 몰각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사상사를 쓰는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상사를 쓰는 경우에는 아무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입장이나 생각이 있더라도 이를 초월적으로 일도양단하지 않고 일단은 그 사상적 내용에 몸을 던져 그곳에서의 전망을 가능한 한 충실히 관찰하고 체득해야 한다. (중략) 이에 사상사의 서술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을 내재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저절로 자기의 입각점을 침투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이해’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상대주의에 빠져 진정한 역사적 자리매김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자신의 입각점’ 없이도 역사 연구가 가능한 것은 아마도 학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해야만 했던 일본의 근대사를 통해 형성된 건실한 실증주의적 학풍 (일본의 근대 사학의 하나의 특징)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학사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이 현실 역사에서는 의외로 초라한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역사가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의외로 빈약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가르침 중 하나일 것이다. 이에 전후 중세역사가인 이시모다 쇼(石母田正)는 사료 비판의 경험적 기술 수준에 머무는 이른바 ‘실증주의 역사학’의 무(無) 목적, 무(無) 사상, 무(無) 성격을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서양사학을 능가하는 청일·러일전쟁 시대에 성립된 동양사학의 실적과 “고대 문화에는 동정과 존경을,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경멸과 절망을, 이전 대국의 골육을 다양하게 새기고 해부한 객관적이고 냉엄한 ‘학문적’ 태도”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물론 마루야마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선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보류하고 역사 내부에 침잠하여 철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부활시킨 역사상(歷史像)에 대해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과 생각에 따라 역사적 해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만약 역사가의 ‘입각점’이 그 외부에 있고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 보류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역사 서술에 의식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는 ‘저절로 침투하는 것’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역사가의 확고한 ‘입각점’은 역사가 스스로가 살아가는 현실을 통해 그 인간의 내부에 형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에서 매일 연마해나가는 모든 사건을 그 내부에 침투하여 역사적으로 파악하는 방법과 능력 및 감각이야말로 확고한 입각점으로서 역사가의 개성과 합쳐져 과거사에 대한 파악에 자연스럽게 침투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아마추어적인 발상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과의 긴장감을 통해 이루어낸 역사적 고찰이야말로 고통스러운 학문적 영위를 통해 획득한 역사적 지식을 단순히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닌, 과거와 현재의 내재적 연관성을 시사하는 역

사의 맥동(脈動) 또한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닐까? 열기가 식어버린 과거를 어디까지나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냉철하게 해부하는 것보다는 현실의 체온이 느껴지는 역사의 주체적 인식 쪽이 적어도 나에게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존재다.

1997년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등장한 후 7년이 지난 2004년 이전 모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게재되어 있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설명이 그야말로 모든 교과서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런 설명이 2016년 ‘반일극좌’ 교육의 딱지가 붙여진 비판의 폭풍우를 맞으면서 다시금 교과서에 나타나기까지 무려 12년의 세월이 걸렸다.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조차도 정치가들에게는 ‘다양한 역사 서술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견해’의 하나로서 취급되고 있는 시대에 있어 역사적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게끔 되었다. 역사가는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매일 과거와 씨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금·여기’를 살아가며 미래를 책임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전문적인 연구, 현실 정부의 정책 동향, 민중의 역사의식 사이의 긴장감, 역사인식과 역사서술, 현실 및 미래의 복잡한 관련성에 대해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여기’를 살아가는 역사가의 역사서술에는 이미 미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나히야 (娜荷芽, 내몽골대학)

최근에 민족주의적 역사관과 그에 따른 역사교육의 폐해에 대한 논의가 거세지고 그 대안으로 지역사 연구의 관점에서 그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해 민족 혹은 민족 단위가 아닌 공통의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정리함으로써 지금까지 의식되지 않았던 새로운 역사상의 제시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부각되는 주요 카테고리 중 하나가 동아시아에 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몽골을 포함한 중국, 한반도의 남북한, 일본 등이다. 몽골을 제외한 해당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바닷길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자 문화권이라는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천 년 동안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문화적 동질성을 띠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의 대부분은 13세기에서 14세기 후반에 걸쳐 몽골에 의해 정치적으로 통합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문화적 교류와 융합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그 문화적인 영향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와 몽골의 만남은 13세기 초 무렵 고려 측이 몽골에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몽골 사자(使者)의 고려 방문이 잦아지면서 매우 거만하고 과도한 양의 조공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런 사자의 대표격이 1221년부터 매년 공물을 받고자 찾아온 ‘저고여(著古與)’라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저고여는 1231년에 조공을 받고 돌아가던 중 압록강을 넘는 곳에서 죽어 버린다. 당시 몽골은 칭기스칸의 뒤를 이어 우게데이가 즉위하고 있었는데 우게데이 칸은 고려에 저고여의 죽음의 책임을 물으며 여섯 차례에 걸쳐 군대를 보냈고 이에 결국 고려는 1259 년 몽골에 전면 항복하기에 이른다.

이후 제주와 몽골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전 제주에는 탐라국이라는 국가가 성립되어 있었지만 고려에 의해 합병을 당하고 만다. 제주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 등을 잇는 중간 지점으로 싫든 좋든 주변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국제 정세가 요동 칠 때는 심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는 제주와 몽골의 첫 교류 내용을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보고, 이가 제주 사회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민족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역사관과 함께 몽골 제국 몰락 이후 오랜 세월 동안 한쪽을 중국 지배의 정통으로 간주하고 다른 종족은 오랑캐로 보는 화이론(華夷論)이 넓고 깊게 이어져 온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국가와 민족 단위가 아닌 제주의 대외관계와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라는 관점에서 관찰해 볼 때 제주와 몽골의 첫 교류는 제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다. 예를 들어 제주에는 몽골로부터 말을 데려와 운영하는 국영 목장이 있었는데 현재 한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제주마’는 제주도의 재래종인 ‘과하마(果下馬)’와 북방에서 들려온 외래종 ‘호마(胡馬)’의 혼혈종이며 몽골 지배 시대의 몽골마와 서역마 등이 혼혈·다품종화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65년 몽골의 쿠빌라이 칸은 어느 고려인으로부터 일본이 과거 중국에 사신을

보내 통호(通好)하였음을 전해듣고 이듬해인 1266년 고려 원종에게 사자를 보낸다. 그 사자는 2 통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통은 ‘일본 국왕’에 통호를 호소하는 것이고 다른 한 통은 그 사자를 일본까지 데려다주는 것을 원종에게 명령하는 것이었다. 이후 쿠빌라이의 몇 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일절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일본 원정, 즉 일본에서 말하는 ‘원구(元寇)’ 또는 ‘몽골 내습’이 발발하게 되었다.

2017년 8월 7일~9일, ‘역사가들은 동아시아의 역사 화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로 ‘제2회 한국·중국·일본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몽골 내습과 13세기 몽골 제국의 세계화’라는 원탁 회의가 기타큐슈시(北九州市)에서 개최되었다. 동아시아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몽골의 고려·일본 침략은 문화적으로는 각국의 자아 인식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화이질서’의 변조를 상징하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역사가 존재하며 ‘국사’와 동아시아 국제 관계사의 접점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인식되지 않았던 새로운 역사상(歷史像)의 확인이 예상되었다. 이에 4개국의 학자들의 논의도 한층 열기를 띠는 것이었다.

다음날 우리는 ‘몽골 내습’의 유적지 견학 코스로 원구자료관(元寇資料館), 하코자키궁(筥崎宮), 이키노마쓰바라(生の松原)의 원구방루유적(松原元寇防 跡) 등을 견학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얻은 것이 많았다. 특히 NPO 법인 ‘시카노시마(志賀島) 역사연구회’의 오카모토 아키자네(岡本顕実) 씨와 하코자키궁의 궁사(宮司) 다무라 카쓰요시(田村克喜)씨의 역사적 감각의 풍요로움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코자키궁의 누문(樓門)에는 원구 시기의 가메야마 상황(亀山上皇)이 쓴 ‘적국항복(敵国降伏)’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 네 글자는 일반적으로 일본을 침략해 오는 적국을 항복시키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적국이 일본의 뛰어난 덕의 힘에 의해 저절로 굴복하여 통일된다’는 뜻으로 ‘덕으로 왕자의 업’을 이룩한다는 의미이다.

자국의 역사와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별 역사에만 집중하여 언제까지나 각자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각자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입장의 연구자들과 대화를 진행,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지적 공간의 창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공공지 (公共知)’ 로의 접근

평 하오 (彭浩, 오사카시립대학)

‘8월 초순 아쓰미 국제교류재단 주최로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이라는 시리즈의 두 번째 포럼이 ‘몽골 침입과 13세기 몽골 제국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기타큐슈시(北九州市)에서 개최되었다. 한·중·일과 몽골 4 개국의 역사가들이 모여 다양한 측면에서 몽골제국사, 특히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필자는 역사 연구자의 한 사람인 동시에 본 프로젝트의 기획에도 참여하였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다양한 소감을 느꼈다. 이에 본 감상문의 집필을 기회로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회의는 단순히 ‘몽골 침입’이라는 키워드의 국제연구집회가 아닌 하나의 주제 혹은 한 가지 소재의 검토를 통해 국민국가의 역사 서술과는 다른 시각에서 인류의 역사를 그려 나감으로써 국민국가 사관의 영향으로 경직화되어 있는 역사 인식의 오류를 정정하고 정치 수단화된 역사 인식의 문제로 인해 저해되고 있는 국가 간의 관계 및 국민 간의 관계 개선에 이바지해 나가려는 커다란 문제 의식을 내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회의 중 몇몇 참가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 한·중·일 3자 또는 이 중 두 나라 사이의 역사를 둘러싼 ‘대화’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는 이미 잘 알려진 정부주도형 대화와 더불어 개별 역사 테마 및 연구 방법, 사료의 이용 방법 등을 둘러싼 전문성 높은 대화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방향과 목표가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미타니 히로시(三谷博)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참가자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나빠질 것인지를 감안한다면 민간 차원의 ‘대화’의 용이함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민간 차원의 연구집회는 개별 주제의 토론과 전문 지식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나오기 쉬운 반면, 인문 연구자의 ‘버릇’ 또는 ‘타성(惰性)’이 관여되기 때문인지 관심이 있는 테마에 열중한 나머지 그 내용의 사회적 의의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을 거치지 않고 전문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공통의 역사 인식 촉진에 활용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 소홀히 취급될 수 있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연구 보조금을 통한 장기간의 공동 연구가 곤란해져 어중간한 형태로 끝나버리는 ‘대화’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류 지에(劉傑) 선생님이 초안에 쓰신 포럼의 취지문 ‘지(知)의 공유 공간’, ‘지식의 플랫폼’이라는 키워드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지(知)’의 의미는 광범위하며 적어도 ‘지혜’와 ‘지식’ 양자의 의미를 포섭하고 있다.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역사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널리 이해시킴으로써 국민국가의 한계와 역사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나간다는 데에 그 진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 차원의 논의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 간과하기 쉬운 부분임으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가필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회의 중에 언급된 몇 가지 논점에 대한 소감을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몽골 임팩트’의 평가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 발표자인 윗카이치 야스히로(四日市康博) 선생님의 발표에는 몽골 제국의 동아시아 진출의 전체상이 알기 쉽게 그려져 있다. 다른 발표자의 구체적인 논의에도 나타나 있듯이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몽골적인

요소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세계로 퍼져나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중국을 지배하고 주변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일부 지역에 중국화를 초래한 면도 있다. 이처럼 ‘몽골 임팩트’가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던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최근의 ‘신 청사(新淸史)’에 대한 논의에서도 청나라 통치자는 중국의 황제인 동시에 다양한 면모를 통해 지역과 민족에 대해 다른 지배구조와 논리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는 역사상이 제시되고 있다. 청과 비교하면 몽골제국사는 몽골어로 된 사료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관련된 부분은 주로 한문 사료로 기록되어 있고 현존하는 사료도 한문으로 쓰여진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로 인해 하나의 중국 왕조인 ‘원’의 이미지는 정착되기 쉽지만 몽골인의 주체성 및 몽골제국의 다원성은 표면화되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 선생님 등의 논문에서 다양한 몽골제국의 역사상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을 듣고 점점 더 감명을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류 지에(劉傑) 선생님이 전체 토론 시간을 통해 정리한 여러 논점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제에 해당하는 시대는 중국 역사에서 몽골의 지배와 몽골 제국의 일부로서 중국 지배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공공지(公共知)’로서 거론할 때는 어떻게 언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종래와 같이 중국 역사의 한 시대로서 ‘원사(元史)’를 거론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이를 뛰어넘어 동아시아의 문맥 또는 유라시아의 맥락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거론해야 한다는 중층적(重層的)인 서술 기법이 거자오광(葛兆光) 선생님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었다. 국민국가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즉시 해소될 기색이 보이지 않으므로 국민국가 사관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중층적인 역사 서술을 통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다차원의 역사상을 교과서에 포함시켜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공지(公共知)’의 구축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리라 사료된다.

또한 일차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몽골제국사 연구는 어떤 식으로 과거와 대화하여 사실을 탐구해 왔는가 하는 점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각자의 발표를 통해 편찬물의 사료에 대한 비판, 비(非) 문자 사료를 통한 접근, 인류 사회의 ‘상식’과 역사 배경을 근거로 한 추론 등의 창의력이 강구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루고자 하는 시대와 지역의 다양한 역사가들의 대화를 통해 방법론에 있어서도 서로 자극을 주고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곧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공공지(公共知)’로의 접근으로 이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약력

■ 거자오광(葛兆光)

1950년 상해출생. 198년 북경대학대학원 문헌학석사 과정 수료. 1992년부터 청화대학 역사학부 교수 역임. 2006~2013년 푸단대학교 문사연구원장, 교수. 현재 동 연구원 및 푸단대학교 역사학부 특별초빙교수. 일본 교토 대학, 벨기에 르몽대학, 타이완대학, 미국 프린스턴대학 등에서 객원교수를 역임. 2009년 제 1 회 프린스턴 글로벌 학자에 선정됨. 전공분야는 중국사상사, 동아시아교류사
주요저작: 『중국사상사』, 『宅茲中國』, 『中國再考』(제 26 회 아시아태평양상 대상) 등.

■ 윗카이치 야스히로(四日市康博)

1995년 와세다대학교(제 1 문학부) 졸업. 2004년 와세다대학교 문학연구과 박사후과정 학점취득 퇴학. 200년 문학박사학위 취득. 2005년 4월 ~2008년 3월 규슈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전임강사. 2009년 ~ 고마자와대학교 문학부 비상근강사. 2012년~와세다대학교 종합연구기구 중앙유라시아 역사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 2014년~쇼와여자대학교 국제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전공분야는 몽골제국기의 동서 유라시아 교류사, 해역 아시아교류사.

주요저작: 『モノから見た海域アジア史—モンゴル—宋元時代のアジアと日本の交流—』(후쿠오카: 규슈대학출판회, 2008).

■ 보르지긴 초그트(朝克图)

1963년 내몽골자치구 시린고르 출생. 1984년 몽골대학교 몽골언어문학학부 졸업 후, 동 대학교 몽골언어문학학부 조수로 근무. 베이징대학교 당에서 페르시아어를 배우고, 내몽골대학교 몽골역사연구소 석사과정에서 여진어를 전공. 도야마대학교 인문학부 외국인연구자(1997년 ~1998년). 와세다대학교대학원 문학연구과 방문학자(1998년 ~2000년). 와세다대학교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과정에서 동양사 전공(2000년 ~2006년). 2006년에 내몽골대학교 몽골학학원에 취직. 2007년에 부교수, 2012년에 교수 취임.

주요저작: 『칭기즈칸의 법』(야마카와 출판사, 2010년). 그 외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몽골제국 원나라 역사에 관한 학술연구논문을 30여편 발표.

■ 하시모토 유(橋本雄)

1972년 도쿄 출생. 1995년 도쿄대학교 문학부 졸업. 2000년 동 대학원 박사과정 학점취득 퇴학. 2004년(문학) 박사학위 취득.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규슈국립박물관 설립준비실, 동 학예부 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홋카이도대학교대학원 문학연구과 준교수. 전공분야는 중세일본의 국제교류사·문화사.

주요저작: 『중세일본의 국제관계』(吉川弘文館, 2005년), 『中華幻想』(勉誠出版, 2011년), 『거짓의 외교 사절』(역사문화 라이브러리, 요시카와 흥문관, 2012년), 『'일본국왕'과 감함무역 어떻게 아시카가 장군가는 중화 황제에게 '조공'을 했는가』(거슬러 올라가는 일본사: 외교편 [7] 무로마치, NHK 출판, 2013년) 등.

■ 에르둔바토르(額爾敦巴特爾)

1967년 몽골 출생. 1991년 내몽골대학교 몽고언어문학학부졸업. 1995년 동 대학교 몽골역사연구소 석사과정 졸업. 1995년부터 내몽고대학 몽고학학원 몽고역사학부 부연구원 및 한국 강원대학교 역사학과 박사과정수료(2001년). 동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서 박사논문 제출, 학위 취득(2006년). 2013년 ~2014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방문학자. 전공은 원대 원 - 고려 관계사, 한국사, 거란과 여진언어문자연구.

주요저작: 『契丹と女眞文字の比較研究』(『内蒙古大学学报』 3, 1996), 『大蒙古国と高麗』(韓國慧眼出版社, 2009), 『高麗王室及び元晋王一族の關係について』(韓國『蒙古学』 第35号, 2013) 등이 있다.

■ 무카이 마사키(向正樹)

1974년 11월 21일,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태생. 교토시에 살고 있음. 1998년, 오사카대학 문학부 사학과(동양사학전공) 졸업. 2003년~2005년, 중국 베이징대학 역사학계 유학. 2007년~2012년, 2013년 4월~현재, 도시샤대학 글로벌지역문화학부 준교수.

주요저작: 『2 장 몽골·해상력의 구조와 변천 The Structure and Transition of Mongol Sea Power』 『글로벌과 히스토리』와 제국(Global History and Empire), 秋田茂 eds., 오사카대학출판회(Osaka University Press), April-2013, pp.71-106. 「원대 '조공'과 남해정보(The Tribute Trade in the Yuan Dynasty and Information about Nanhai Countries at Yuan Court)」 『원사논총(Yuanshi Luncong)』 10(중국원사연구회 Zhongguo Yuanshi Yanjiuhui), July-2005, pp.389-406 등.

■쑨 웨이궈(孫衛國)

1966년 호남성(湖南省) 형동현(衡東縣)에서 출생했다. 이후 무한대학교(武漢大學), 남개대학교(南開大學) 홍콩과학기술대학교(香港科技大學)에서 수학했고, 남개대학교 역사학과 박사(1998),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철학 박사(2001)를 받았다. 현재는 남개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임하고 있다. 방문 학자로서 한국 고려대학교, 미국 하버드대학교 하버드-옌칭연구소, 홍콩 시립대학교(香港城市大學) 그리고 대만 학교(臺灣大學) 등을 방문했다. 전공은한국사, 한중 관계사, 중국 역사학 그리고 명청 역사이다.

주요저작: 『王世貞史學研究』(인민문학출판사, 2006); 『大明旗印と小中華意識: 朝鮮王朝尊周思明問題に関する研究, 1637-1800』(상무인서관, 2007), 『明清時代、中国史学の朝鮮に対する影響』(상하이사서출판사, 2008) 등이 있다. 국내외 출판물에서 백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 보광(金甫桃)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2012년~2014년), 고려대 BK21PLUS 한국사사업단 연구교수(2014년~2016년)를 거쳐, 현재는 가천대학교 Liberal Arts College 주교수(2017년~). 고려의 정치제도, 권력구조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저작: 고려 성종, 현종대太祖配享功臣의 선정 과정과 의미(2014) 고려전기 魚袋의 개념과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2015) 고려, 몽골 관계의 전개와 다루가치의 置廢過程(2015) 고려의 對蒙 대응 논리와 '大國 이미지'—1231, 1232년 외교문서를 중심으로—(2015) 고려내 다루가치의 존재 양상과 영향—다루가치를 통한 몽골 지배방식의 경험—(2016)

■이 명미(李命美)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는 「고려·원 왕실통혼의 전개와 특징」이며,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는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국 왕위상의 변화」이다.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는 인문연구원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가 간 관계(동아시아적 관계형성방식)와 개인 간·가문 간 관계(몽골적 관계형성방식)가 고려-몽골 관계 속에서 조율되었던 양상, 그리고 그 여파로서의 고려 말 정치·사회변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저작: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 정동행성상부마 고려국왕, 그 복합적 위상에 대한 탐구』, 해안

■첸메드 체렌도르지(其林道爾吉)

1999년 몽골 국립 울란바토르 대학 졸업. 2010년 대한민국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졸업. 전공은 중세 한몽관계사.

주요저작: Chinggis khan (encyclopedia), co-author, Ulaanbaatar, (2006), Encyclopedia of history and culture of the Mongols /co-author/, Ulaanbaatar, (2004,2006), History of the Yuan dynasty /元史/ (A Mongolian translation from Chinese by Ch. Dandaa), Volume I-XII, Foreword and textological study by Ts.Tserendorj, Ulaanbaatar, (2003), Samguk yusa(三國遺事) (translation from Korean into Mongolian with J.Gantulga), Ulaanbaatar, (2009), Khubilai Khan and his successors, Ulaanbaatar, (2015), 「東西文化交流とアルタイ」(『アジア學術叢書7』アルタイ学シリーズ3: 共著, 亦樂, 2016) 등이 있다

■조원(趙阮)

한양대 사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중국 중앙민족대학교에서 16세기 몽골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북경대학교 역사학과에 진학하여 '몽원제국시기 다루가치제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에서 '17-20세기 몽원사 연구에 나타난 청 지식인들의 몽골제국 인식'이라는 주제로 박사후연구과정(Postdoc)을 진행한 바 있다.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 연구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에서 강의중이다. 전공분야는 몽원사이며 몽골제국시기 통치제도, 주변지역과의 문화 교류, 청대의 사서에 반영된 몽골제국에 대한 인식 등을 연구중이다.

주요저작: 「明人の視線에서 본 16세기 漢南몽골 사회의 변화」(『몽골학』, 2014/6), 「17-20세기 몽원사 연구에 나타난 청 지식인들의 '몽골제국' 인식 - 『元史類編』, 『元史新編』, 『新元史』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2015/12) 등이 있다.

■장지아(張佳)

1981년 출생했고 산둥성(山東省) 가오미현(高密市) 출신이며 북경대학교 중국어 고전 문헌학학사(2004), 청화대학교 역사학과 문헌학 석사(2007), 푸단대학교 역사학과 전문가 박사를 받았다. 전공은 원·명나라 사회문화 역사이다.

주요저작: 『新天下之化: 明初礼俗改革研究』(북단대학교 출판사, 2014년) 논문『元濟寧路景世家考論』, 『再叙彝伦: 洪武時期的婚喪礼俗改革』, 『別華夷與正名分: 明初的日常礼規範』, 『衣冠與認同: 麗末鮮初朝鮮半島襲用「大明衣冠」历程初探』, 「明初의漢族元遺民」 등이 있다.

제 2 회 한국·중국·일본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몽골의 침입과 13 세기 몽골 제국의 글로벌화 - 원탁회의 참가자 리스트

	성명 (로마자)	성명 (일본어)	성명 (중국어)	성명 (한국어)	소속
발표자					
1	Cho Won	趙 阮	赵阮	조원	
2	Chogt, Borjigen	チョグト	朝克图	초그트	
3	Eerdunbateer	エルデニバートル	额尔敦巴特尔	에르둔바토르	
4	Hashimoto Yu	橋本 雄	桥本雄	하시모토 유	
5	Kim Bokwang	金 甫杓	金甫杓	김보광	가
6	Lee Myungmi	李 命美	李命美	이명미	
7	Mukai Masaki	向 正樹	向正树	무카이 마사키	
8	Sun Weiguo	孫 衛国	孙卫国	쑤 웨이궈	
9	Tserendorj, Tsegmed	ツェレンドルジ	其林道尔吉	체렌도르지	가
10	Yokkaichi Yasuhiro	四日市康博	四日市康博	오키카이치 야스히로	
11	Zhang Jia	張 佳	张佳	장 지아	
발표자 / 실행위원					
12	Cho Kwang	趙 珖	赵珖	조광	
13	Ge Zhaoguang	葛 兆光	葛兆光	거 자오광	
14	Liu Jie	劉 傑	刘杰	류 지에	
15	Mitani Hiroshi	三谷 博	三谷博	미타니 히로시	
토론자					
16	Araki Kazunori	荒木和憲	荒木和宪	아라키 카즈노리	
17	Choi Youngchang	崔 永昌	崔永昌	최영창	
18	Enomoto Ayumu	榎本 渉	榎本涉	에노모토 와타루	
19	Han Seunghoon	韓 承勲	韩承勋	한승훈	
20	Kida Kiyoshi	貴田 潔	贵田洁	키다 키요시	
21	Mura Kazuaki	村 和明	村和明	무라 카즈아키	
22	Sato Yuuki	佐藤 雄基	佐藤雄基	사토 유키	
23	Yamauchi Shinji	山内 晋次	山内晋次	야마우치 신지	
24	Yao Keisuke	八百 啓介	八百启介	야오 케이스케	
동시통역					
25	Ahn Younghee	安 ヨンヒ	安暎姫	안영희	
26	Ding Li	丁 莉	丁莉	정리	
27	Lee Hyeri	李 ヘリ	李惠利	이혜리	
28	Lee Jinhua	李 金花	李金花	이금화	
29	Piao Xian	朴 賢	朴贤	박현	
30	Song Gang	宋 剛	宋刚	송강	
동시통역지원					
31	Hong Sung-min	洪 性珉	洪性珉	홍성민	
32	Jeon Sangryul	全 相律	全相律	김상율	
33	Song Han	宋 晗	宋晗	송함	
34	Sun Junyue	孫 軍悦	孙军悦	쑤 쑤위예	
35	Zhu Lin	朱 琳	朱琳	주림	
실행위원					
36	Kim Bumsu	金 範洙	金范洙	김범수	
37	Kim Kyongtae	金 キョンテ (図泰)	金岡泰	김경태	
38	Li Enmin	李 恩民	李恩民	리엔민	
39	Naheya	ナヒヤ	娜荷芽	나히야	
40	Peng Hao	彭 浩	彭浩	펑 하오	
41	Xu Jingbo	徐 静波	许静波	서정파	
옵서버					
42	Tao Weishuo	陶 韓爍	陶 韓烁	도위삭	
편집자					
43	Nagai Ayumi	長井亜弓	长井亚弓	나가이 आयु미	
스태프					
44	Imanishi Junko	今西淳子	今西淳子	이마니시 준코	
45	Tsunoda Eiichi	角田英一	角田英一	츠노다 에이이치	
46	Ishii Keiko	石井慶子	石井庆子	이시이 케이코	
47	Honda Yasuko	本多康子	本多康子	혼다 야스코	

SGRA 리포트 지남호 안내

SGRA 리포트 01	設立記念講演録 「21世紀の日本とアジア」 船橋洋一 2001.1.30発行
SGRA 리포트 02	CISV国際シンポジウ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への挑戦：多様性の中に調和を求めて」 今西淳子、高 偉俊、F.マキト、金 雄熙、李 來賛 2001.1.15発行
SGRA 리포트 0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技術の創造」 畑村洋太郎 2001.3.15発行
SGRA 리포트 04	第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の皆さんへ」 関 啓子、L.ビッヒラー、高 熙卓 2001.5.10発行
SGRA 리포트 05	第2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なかの新しい東アジア：経済協力をどう考えるべきか」 平川 均、F.マキト、李 鋼哲 2001.5.10発行
SGRA 리포트 06	投稿 「今日の留学」「はじめの一步」 工藤正司 今西淳子 2001.8.30発行
SGRA 리포트 07	第3回フォーラム講演録 「共生時代のエネルギーを考える：ライフスタイルからの工夫」 木村建一、D.パート、高 偉俊 2001.10.10発行
SGRA 리포트 08	第4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教育革命：ITは教育をどう変えるか」 臼井建彦、西野篤夫、V.コストブ、F.マキト、J.スリスマンティオ、蔣 惠玲、楊 接期、 李 來賛、斎藤信男 2002.1.20発行
SGRA 리포트 09	第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と民族主義：対話と共生をキーワードに」 ペマ・ギャルポ、林 泉忠 2002.2.28発行
SGRA 리포트 10	第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とイスラーム：文明間の対話のために」 S.ギュレチ、板垣雄三 2002.6.15発行
SGRA 리포트 11	投稿 「中国はなぜWTOに加盟したのか」 金香海 2002.7.8発行
SGRA 리포트 12	第7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環境診断：地球の砂漠化を考える」 建石隆太郎、B.ブレンサイン 2002.10.25発行
SGRA 리포트 13	投稿 「経済特区：フィリピンの視点から」 F.マキト 2002.12.12発行
SGRA 리포트 14	第8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中の新しい東アジア」＋宮澤喜一元総理大臣をお迎えして フリーディスカッション 平川 均、李 鎮奎、ガト・アルヤ・プートゥラ、孟 健軍、B.ヴィリエガス 日本語版2003.1.31発行、 韓国語版2003.3.31発行、中国語版2003.5.30発行、英語版2003.3.6発行
SGRA 리포트 15	投稿 「中国における行政訴訟―請求と処理状況に対する考察―」 呉東鎬 2003.1.31発行
SGRA 리포트 16	第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情報化と教育」 苑 復傑、遊間和子 2003.5.30発行
SGRA 리포트 17	第10回フォーラム講演録 「21世紀の世界安全保障と東アジア」 白石 隆、南 基正、李 恩民、村田晃嗣 日本語版2003.3.30発行、英語版2003.6.6発行
SGRA 리포트 18	第1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研究：国境を越える取り組み」 高橋 甫、貫戸朋子 2003.8.30発行
SGRA 리포트 19	投稿 「海軍の誕生と近代日本―幕末期海軍建設の再検討と『海軍革命』の仮説」 朴 栄濬 2003.12.4発行
SGRA 리포트 20	第12回フォーラム講演録 「環境問題と国際協力：COP3の目標は実現可能か」 外岡豊、李海峰、鄭成春、高偉俊 2004.3.10発行
SGRA 리포트 21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アジア共同体構築に向けての日本及び韓国の役割について」2004.6.30発行
SGRA 리포트 22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民族紛争―どうして起こるのか どう解決するか」 明石康 2004.4.20発行
SGRA 리포트 23	第1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宮島喬、イコ・プラムティオノ 2004.2.25発行
SGRA 리포트 24	投稿 「1945年のモンゴル人民共和国の中国に対する援助：その評価の歴史」 フスレ 2004.10.25発行
SGRA 리포트 25	第14回フォーラム講演録 「国境を越えるE-Learning」 斎藤信男、福田収一、渡辺吉裕、F.マキト、金 雄熙 2005.3.31発行
SGRA 리포트 26	第1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この夏、東京の電気は大丈夫？」 中上英俊、高 偉俊 2005.1.24発行
SGRA 리포트 27	第1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軍事同盟の過去・現在・未来」 竹田いさみ、R.エルドリッツ、朴 栄濬、渡辺 剛、伊藤裕子 2005.7.30発行
SGRA 리포트 28	第17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地球市民の義務教育-」 宮島 喬、ヤマグチ・アナ・エリーザ、朴 校熙、小林宏美 2005.7.30発行
SGRA 리포트 29	第18回フォーラム・第4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韓流・日流：東アジア地域協力における ソフトパワー」 李 鎮奎、林 夏生、金 智龍、道上尚史、木宮正史、李 元徳、金 雄熙 2005.5.20発行
SGRA 리포트 30	第1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文化再考―自由と市民社会をキーワードに―」 宮崎法子、東島 誠 2005.12.20発行
SGRA 리포트 31	第20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雁はまだ飛んでいるか」 平川 均、渡辺利夫、トラン・ヴァン・トウ、範 建亭、白 寅秀、エンクバヤル・シャグダル、F.マキト 2006.2.20発行
SGRA 리포트 32	第21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留

SGRA 리포트 32	第21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ー留学生ー」 横田雅弘、白石勝己、鄭仁豪、カンピラパーブ・スネート、王雪萍、黒田一雄、大塚晶、徐向東、 角田英一 2006. 4. 10 発行
SGRA 리포트 33	第22回フォーラム講演録 「戦後和解プロセスの研究」 小菅信子、李 恩民 2006. 7. 10 発行
SGRA 리포트 34	第2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と宗教：宗教って何なの？」 島蘭 進、ノルマン・ヘイヴンズ、ランジャナ・ムコパディヤヤー、ミラ・ゾンターク、 セリム・ユジェル・ギュレチ 2006. 11. 10 発行
SGRA 리포트 35	第24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ごみ処理と国境を越える資源循環～私が分別したごみはどこへ行くの？～」 鈴木進一、間宮 尚、李 海峰、中西 徹、外岡 豊 2007. 3. 20 発行
SGRA 리포트 36	第25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は教育を強化できるか」 高橋富士信、藤谷哲、楊接期、江蘇蘇 2007. 4. 20 発行
SGRA 리포트 37	第1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in 北京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若者の未来と日本語』」 池崎美代子、武田春仁、張 潤北、徐 向東、孫 建軍、朴 貞姫 2007. 6. 10 発行
SGRA 리포트 38	第6回日韓フォーラムin 葉山講演録 「親日・反日・克日：多様化する韓国の対日観」 金 範洙、趙 寛子、玄 大松、小針 進、南 基正 2007. 8. 31 発行
SGRA 리포트 39	第2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思想史～私たちの出会いと将来～」 黒住 真、韓 東育、趙 寛子、林 少陽、孫 軍悦 2007. 11. 30 発行
SGRA 리포트 40	第27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アジアにおける外来種問題～ひとの生活との関わりを考える～」 多紀保彦、加納光樹、プラチャー・ムシカシントーン、今西淳子 2008. 5. 30 発行
SGRA 리포트 41	第28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いのちの尊厳と宗教の役割」 島蘭進、秋葉悦子、井上ウイマラ、大谷いづみ、ランジャナ・ムコパディヤヤー 2008. 3. 15 発行
SGRA 리포트 42	第2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in 北京 & 新疆講演録 「黄土高原緑化協力の15年―無理解と失敗から 相互理解と信頼へ―」 高見邦雄 日本語版、中国語版 2008. 1. 30 発行
SGRA 리포트 4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主義」 平川均 2008. 3. 1 発行
SGRA 리포트 44	第29回フォーラム講演録 「広告と社会の複雑な関係」 関沢 英彦、徐 向東、オリガ・ホメンコ 2008. 6. 25 発行
SGRA 리포트 45	第30回フォーラム講演録 「教育における『負け組』をどう考えるか～ 日本、中国、シンガポール～」 佐藤香、山口真美、シム・チュン・キャット 2008. 9. 20 発行
SGRA 리포트 46	第31回フォーラム講演録 「水田から油田へ：日本のエネルギー供給、食糧安全と地域の活性化」 東城清秀、田村啓二、外岡 豊 2009. 1. 10 発行
SGRA 리포트 47	第32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オリンピックと東アジアの平和繁栄」 清水 諭、池田慎太郎、朴 榮濬、劉傑、南 基正 2008. 8. 8 発行
SGRA 리포트 48	第3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in 延辺&北京講演録 「一燈やがて万燈となる如く― アジアの留学生と生活を共にした協会の50年」 工藤正司 日本語版、中国語版 2009. 4. 15 発行
SGRA 리포트 49	第3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が格差を縮めるか」 東 茂樹、平川 均、ド・マン・ホーン、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09. 6. 30 発行
SGRA 리포트 50	第8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日韓の東アジア地域構想と中国観」 平川 均、孫 洌、川島 真、金 湘培、李 鋼哲 日本語版、韓国語Web版 2009. 9. 25 発行
SGRA 리포트 51	第3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テレビゲームが子どもの成長に与える影響を考える」 大多和直樹、佐々木 敏、渋谷明子、ユ・ティ・ルイン、江 蘇蘇 2009. 11. 15 発行
SGRA 리포트 52	第3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市民社会と21世紀の課題」 宮島 喬、都築 勉、高 熙卓、中西 徹、林 泉忠、ブ・ティ・ミン・チィ、 劉 傑、孫 軍悦 2010. 3. 25 発行
SGRA 리포트 53	第4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in 北京 & 上海講演録 「世界的課題に向けていま若者ができること～ TABLE FOR TWO～」 近藤正晃ジェームス 2010. 4. 30 発行
SGRA 리포트 54	第37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エリート教育は国に『希望』をもたらすか： 東アジアのエリート高校教育の現状と課題」 玄田有史 シム チュン キャット 金 範洙 張 健 2010. 5. 10 発行
SGRA 리포트 55	第38回フォーラム講演録 「Better City, Better Life ～東アジアにおける都市・ 建築のエネルギー事情とライフスタイル～」 木村建一、高 偉俊、 Mochamad Donny Koerniawan、Max Maquito、Pham Van Quan、 葉 文昌、Supreedee Rittironk、郭 榮珠、王 剣宏、福田展淳 2010. 12. 15 発行
SGRA 리포트 56	第5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in 北京 & フフホト講演録 「中国の環境問題と日中民間協力」 第一部（北京）：「北京の水問題を中心に」 高見邦雄、汪 敏、張 昌玉 第二部（フフホト）：「地下資源開発 を中心に」 高見邦雄、オンドロナ、ブレンサイン 2011. 5. 10 発行

SGRA 리포트 57	第39回フォーラム講演録「ポスト社会主義時代における宗教の復興」井上まどか、ティムール・ダダバエフ、ゾンターク・ミラ、エリック・シッケタンツ、島藺 進、陳 継東 2011.12.30 発行
SGRA 리포트 58	投稿「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論への一試論」平川 均 2011.2.15 発行
SGRA 리포트 59	第10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1300年前の東アジア地域交流」 朴 亨國、金 尚泰、胡 潔、李 成制、陸 載和、清水重敦、林 慶澤 2012.1.10 発行
SGRA 리포트 60	第40回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の少子高齢化問題と福祉」 田多英範、李 蓮花、羅 仁淑、平川 均、シム チャンキャット、F・マキト 2011.11.30 発行
SGRA 리포트 61	第41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共同体の現状と展望」恒川恵市、黒柳米司、朴 榮濬、 劉 傑、林 泉忠、ブレンサイン、李 成日、南 基正、平川 均 2012.6.18 発行
SGRA 리포트 62	第6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Sound Economy 〜私がミナマタから学んだこと〜」 柳田耕一 「内モンゴル草原の生態系：鉱山採掘がもたらしている生態系破壊と環境汚染問題」郭 偉 2012.6.15 発行
SGRA 리포트 64	第43回フォーラム講演録 in 蓼科「東アジア軍事同盟の課題と展望」 朴 榮濬、渡辺 剛、伊藤裕子、南 基正、林 泉忠、竹田いさみ 2012.11.20 発行
SGRA 리포트 65	第44回フォーラム講演録 in 蓼科「21世紀型学力を育むフューチャースクールの戦略と課題」 赤堀侃司、影戸誠、曹圭福、シム・チュン・キャット、石澤紀雄 2013.2.1 発行
SGRA 리포트 66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日英戦後和解（1994-1998年）」（日本語・英語・中国語）沼田貞昭 2013.10.20 発行
SGRA 리포트 67	第12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太平洋時代における東アジア新秩序の模索」 平川 均、加茂具樹、金 雄熙、木宮正史、李 元徳、金 敬黙 2014.2.25 発行
SGRA 리포트 68	第7回 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ボランティア・志願者論」 （日本語・中国語・英語）宮崎幸雄 2014.5.15 発行
SGRA 리포트 69	第45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紛争の海から平和の海へー東アジア海洋秩序の現状と展望ー」 村瀬信也、南 基正、李 成日、林 泉忠、福原裕二、朴 榮濬 2014.10.20 発行
SGRA 리포트 70	第46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インクルーシブ教育：子どもの多様なニーズにどう応えるか」 荒川 智、上原芳枝、ヴィラークヴィクトル、中村ノーマン、崔 佳英 2015.4.20 発行
SGRA 리포트 71	第47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科学技術とリスク社会 ー福島第一原発事故から考える科学技術と倫理ー」 崔 勝媛、島藺 進、平川秀幸 2015.5.25 発行
SGRA 리포트 72	第8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近代日本美術史と近代中国」 佐藤道信、木田拓也 2015.10.20 発行
SGRA 리포트 73	第14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第48回 SGRA フォーラム 「アジア経済のダイナミズムー物流を中心に」 李 鎮奎、金 雄熙、榊原英資、安 秉民、ドマン ホーン、李 鋼哲 2015.11.10 発行
SGRA 리포트 74	第49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円卓会議「日本研究の新しいパラダイムを求めて」 劉 傑、平野健一郎、南 基正 他15名 2016.6.20 発行
SGRA 리포트 75	第50回 SGRA フォーラム in 北九州講演録「青空、水、くらしー環境と女性と未来に向けて」 神崎智子、斉藤淳子、李 允淑、小林直子、田村慶子 2016.6.27 発行
SGRA 리포트 76	第9回 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フフホト&北京講演録「日中二百年ー文化史からの再検討」 劉 建輝 発行予定
SGRA 리포트 77	第15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これからの日韓の国際開発協力ー共進化アーキテクチャの模索」 孫赫相、深川由紀子、平川均、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16.11.10 発行
SGRA 리포트 78	第51回 SGRA フォーラム「今、再び平和についてー平和のための東アジア知識人連帯を考えるー」 南基正、木宮正史、朴榮濬、宋均宮、林泉忠、都築勉 2017.3.27 発行
SGRA 리포트 79	第52回 SGRA フォーラム「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 劉傑、趙珖、葛兆光、三谷博、八百啓介、橋本雄、松田麻美子、徐静波、鄭淳一、金キョンテ 2017.6.9 発行
SGRA 리포트 80	第16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日中韓の国際開発協力ー新たなアジア型モデルの模索ー」 金雄熙、李恩民、孫赫相、李鋼哲 2017.5.16 発行
SGRA 리포트 81	第56回 SGRA フォーラム「人を幸せにするロボットー人とロボットの共生社会をめざして第2回ー」 稲葉雅幸、李周浩、文景楠、瀬戸文美 2017.11.20 発行

■ 리포트를 희망하시는 분은 SGRA 사무국 (Tel : 03-3943-7612 Email : sgra-office@aisf.or.jp) 으로 연락바랍니다

SGRA 리포트 No. 0082

제 57 회 SGRA 포럼

제 2 회 한국·중국·일본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몽골의 침입과 13세기 몽골 제국의 글로벌화

편집·발행 (공익재단) 아쓰미 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SGRA)

〒112-0014 東京都文京区関口3-5-8

Tel: 03-3943-7612 Fax: 03-3943-1512

SGRA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

E-mail: sgra-office@aisf.or.jp

발행일 2018년 5월 10일

발행책임자 今西淳子

인쇄 경인출판사

©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무단전재금지 본 기사에 대한 문의나 인용 시에 연락 바랍니다.

© Sekiguchi Global Research